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도지명연구



Study on Place Names in GyeongGi-Do through the Old Maps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2011

간행사

조선시대의 경기도(京畿道)는 왕도(王都)를 보위하기 위해 왕성 주변 지역에 설정된 특별구역이 8도의 하나로 편제된 광역행정구역으로, 수도 서울과 함께 정치·경제·문화의 중심 역할을 담당해 온 유서 깊은 공간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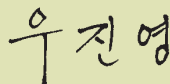
근대 이후에도 서울과 함께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산과 역할을 훌륭하게 소화해 냈으며, 인구의 집중과 함께 이루어진 행정구역의 개편 과정에서 일부의 지역이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에 나누어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림식 고을지도는 오랜 역사적 전통을 갖고 있는 경기도의 고을과 중심도시의 문명사적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역사 자료입니다. 그 안에는 수 백 년 전 경기도의 고을 모습과 우리 조상의 삶터가 파노라마처럼 생생하게 담겨 있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추구하는 우리 민족의 자연관이 풍부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간행되는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에는 우리 도서관 소장 《여지도》(한貴古朝61-3) 6책에 수록된 경기도 전도 1장과 소속 고을의 그림식 지도 38장의 이미지를 원색으로 수록하였고, 순우리말 지명을 알 수 있는 지명찾아보기, 경기도 고을의 역사와 중심도시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논고를 담았습니다.

이 책의 출간이 경기·서울·인천에 속한 조선시대 경기도 고을의 역사를 더 깊이 이해하고, 순우리말 지명의 소중함을 되새겨보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귀중한 경기관련 고지도 자료의 이해를 위해 해제 및 논고를 작성해 주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 11월 25일

국립중앙도서관장 

일러두기

1. 이 연구총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 소장된 《輿地圖》(한貴古朝61-3) 6책 중 1책의 경기도 전도 1장과 고을지도 38장을 수록하여 해설한 것이다.
2. 경기관련 고지도 연구총서의 성격에 맞추기 위해 지명을 읽을 수 있는 크기로 고지도의 이미지를 수록하였다.
3. 고지도에 수록된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고지도의 이미지와 지명찾아보기, 논고의 순으로 배치하였다.
4. 수록된 논고는 개인의 연구 결과물이다.
5. 표지 이미지는 경기도 전도의 일부이다.

목 차

CONTENTS

간행사	3
-----------	---

I 고지도 속의 경기고을 이미지 9

경기(京畿)	13
가평(加平)	14
강화(江華)	16
개성(開城)	18
고양(高陽)	20
과천(果川)	22
광주(廣州)	24
교동(喬桐)	26
교하(交河)	28
금천(衿川)	30
김포(金浦)	32
남양(南陽)	34
마전(麻田)	36
부평(富平)	38
삭령(朔寧)	40
수원(水原)	42
안산(安山)	44
안성(安城)	46
양근(楊根)	48
양성(陽城)	50
양주(江華)	52
양지(陽智)	54
양천(陽川)	56
여주(驪州)	58
연천(漣川)	60

영평(永平)	62
용인(龍仁)	64
음죽(陰竹)	66
이천(利川)	68
인천(仁川)	70
장단(長湍)	72
적성(積城)	74
죽산(竹山)	76
지평(砥平)	78
진위(振威)	80
통진(通津)	82
파주(坡州)	84
포천(抱川)	86
풍덕(豐德)	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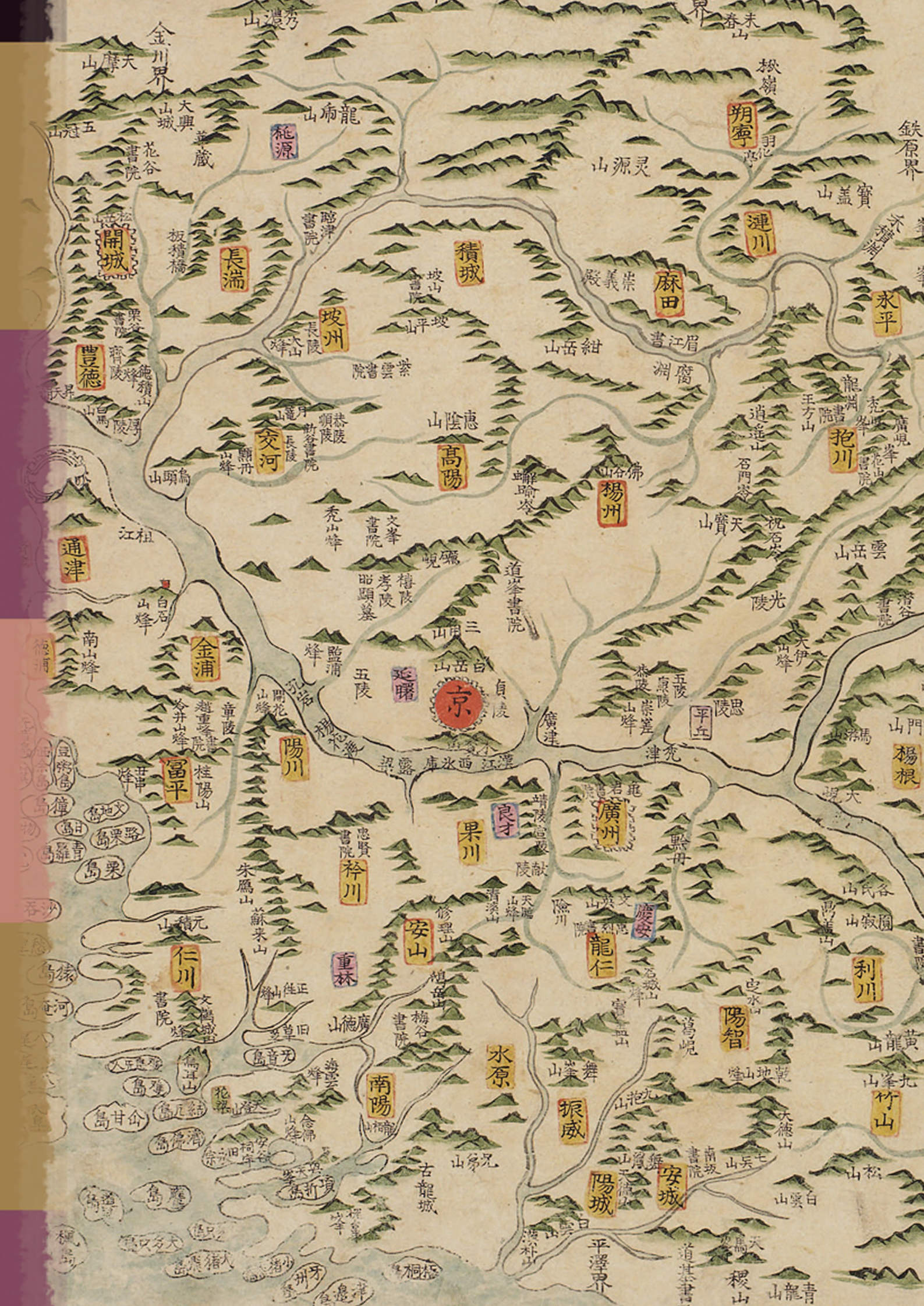
II 지명찾아보기 91

가평(加平)	93
강화(江華)	94
개성(開城)	97
고양(高陽)	100
과천(果川)	102
광주(廣州)	104
교동(喬桐)	110
교하(交河)	111
금천(衿川)	113
김포(金浦)	114
남양(南陽)	116
마전(麻田)	119
부평(富平)	120
삭령(朔寧)	123
수원(水原)	124
안산(安山)	129

안성(安城)	130
양근(楊根)	132
양성(陽城)	136
양주(楊州)	139
양지(陽智)	144
양천(陽川)	146
여주(驪州)	148
연천(漣川)	151
영평(永平)	153
용인(龍仁)	155
음죽(陰竹)	157
이천(利川)	159
인천(仁川)	161
장단(長湍)	163
적성(積城)	167
죽산(竹山)	169
지평(砥平)	171
진위(振威)	173
통진(通津)	174
파주(坡州)	176
포천(抱川)	179
풍덕(豐德)	181

III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긴 경기도 고을의 역사와 읍치 이해 185

1. 머리말 - 지역의 역사와 고지도·지리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188
2. 고을의 연혁과 범위	189
3. 읍치의 위치와 구조 및 상징	198
4. 경기도 고을의 읍치 관련 자료	215
5. 마무리 - 읍치의 상징체계와 내부 구조의 이해	231





고지도 속의 경기고를 이미지

《여지도》의 해설과 연구총서의 구성

본 연구총서의 주요 자료인 《輿地圖(여지도)》(한貴古朝61-3, 이하 청구기호 생략)는 총 6책으로 이루어진 그림식 지도책이며, 최초 본은 국가 주도로 1720년대 안팎에 편찬되었다. 이후 조선이 멸망할 때까지 많은 필사본이 제작·이용되면서 민간으로까지 흘러나갔으며, 정상기(1678-1752)·정철조(1730-1780)·정후조(1758-1793)·신경준(1712-1781)을 거쳐 김정호(추정: 1804-1866)에 이르기까지 대형·초대형의 정확한 지도 제작에 가장 중요한 자료 중의 하나가 되었다.

현재 동일 계통으로 국립중앙도서관에 《大韓地圖(대한지도)》(한貴古朝61-27) 6책과, 1책이 결본인 《八道輿地圖(팔도여지도)》(古2702-14) 5책이 소장되어 있다. 이외에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 《海東地圖(해동지도)》(古大4709-41) 8첩을 포함하여 완질본 4종과 결본 4종이 소장되어 있으며,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과 영남대학교 도서관 등 여러 기관에서 속속 조사되고 있다.

이 계통의 그림식 지도책에는 1700년대 전반기에 국가에서 필요로 하는 지도의 종류가 대부분 수록되어 있다. 1500년대 후반부터 유행하기 시작하여 1600년대 이후 가장 많이 이용된 ‘동람도식 소형 지도책’ 계통에 수록되어 있던 원형천하도인 天下總圖(천하총도)와 中國圖(중국도)·琉球國圖(유구국도)·日本圖(일본도), 청나라의 수도인 북경을 그린 燕京圖(연경도), 1706년에 이이명(1658-1722)이 청나라에서 가져온 지도와 조선의 북부 지도를 합해 제작한 遼薊關防圖(요계관방도) 계통의 축소본이 1책에 수록되어 있다. 이어 1책에 京都(경도)와 松都(송도) 및 경기도 전도와 37개의 고을 지도가, 2책부터 6책까지 나머지 7도의 도별 전도와 소속 고을의 지도가 수록되어 있다.

본 연구총서에는 경기도 전도 1장과 경기도 산하 38개 고을의 지도를 수록하였다. 이미 규장각한국학연구원에서 1995년에 동일 계통의 지도책인 《해동지도》(古大4709-41) 8첩을 지도 2책과 해설·색인 1책 등 총 3책으로 영인·간행하여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호응을 받은 바 있다. 또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의 홈페이지(<http://e-kyujanggak.snu.ac.kr/>)에서 동일 계통의 지도책 8종 모두를, 국립중앙도서관의 홈페이지(<http://www.nl.go.kr/>)에서도 《팔도여지도》(古2702-14) 5책을 원문과 함께 지명찾아보기와 간략 해제를 서비스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까지도 이 계통의 지도와 지명찾아보기 및 해제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자료들은 한자로 표기된 지명의 찾아보기가 한자의 소리만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실제로 불리던 우리말 지명을 전혀 이해할 수 없게 만드는 문제점이 노출되어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와 내용의 자료집 발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지명이 모두 우리말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음은 당연한 것이다. 하지만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건설되면서 현재의 중국 지역에서 만들어진 한자를 들여와 지명을 표기하면서

우리말 이름에 큰 시련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일본도 마찬가지지만 이미 중국 지역에서 사용되던 한자의 소리와 우리나라에서 불리던 뜻의 소리가 달랐기 때문에 하나의 문자에 읽는 소리(音讀)와 뜻의 소리(訓讀)가 달라지는 독특한 현상이 나타났다. 한자를 빌어 이루어진 지명의 표기에서도 한자의 소리와 뜻 중 어느 것을 따라 읽느냐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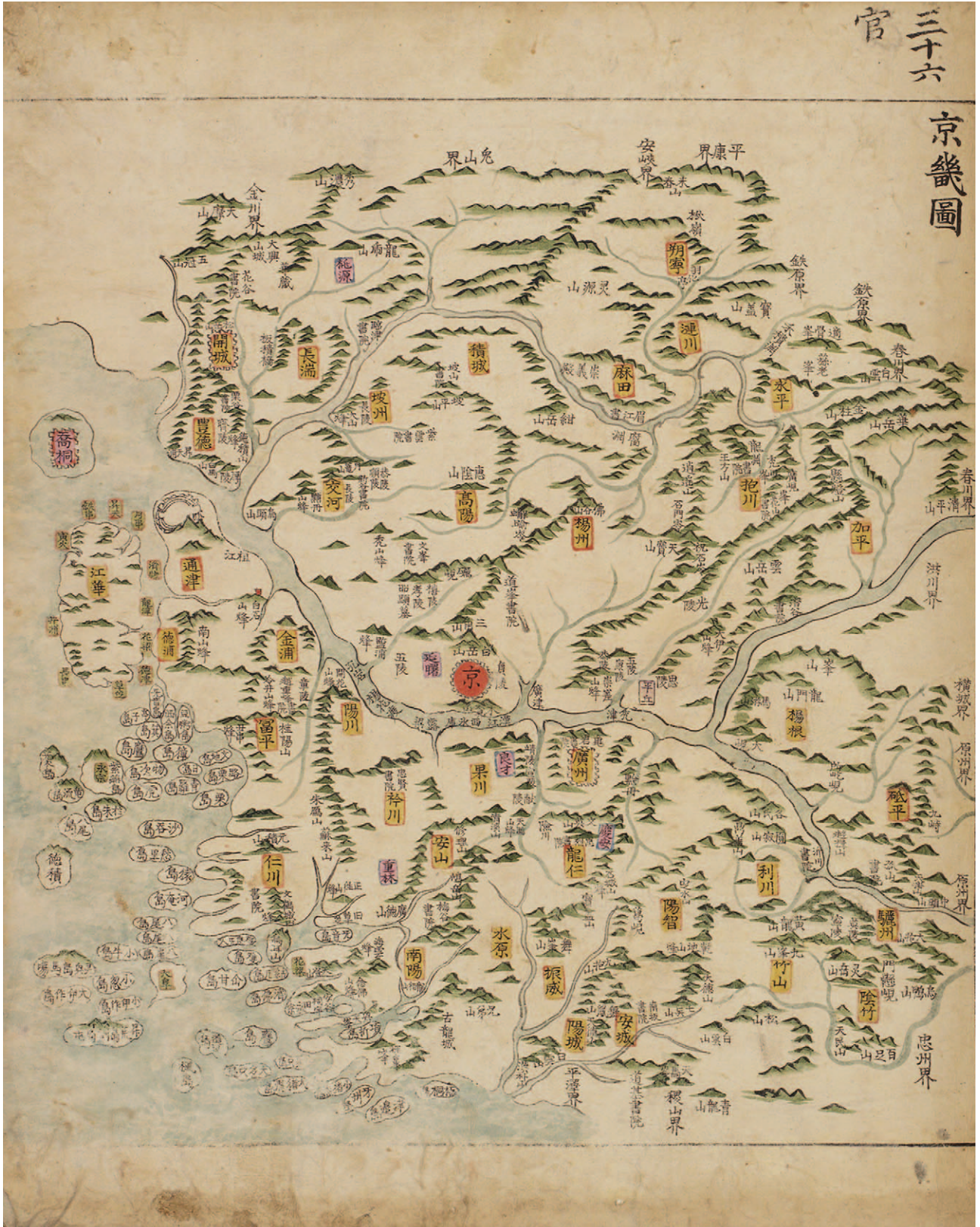
초기에는 한자의 뜻을 따라 표기했을 때 일본처럼 한자의 소리가 아니라 뜻을 따라 읽었던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한자의 뜻을 따라 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자의 소리로 읽는 것이 일반화 되었다. 예를 들어 수원의 고구려 때 이름은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貫忽(매홀)’ 이었는데, 759년에 한자의 뜻을 따서 ‘水城’으로 표기한 후 이것의 한자 소리인 ‘수성’으로 읽게 되면서 지명의 소리가 완전히 바뀌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후 水城은 水州→水原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는 지금 이를 수주→수원으로 읽고 있어 원래 불리던 이름이었던 ‘매홀’의 소리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와 같은 변화는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주로 고을의 이름을 비롯하여 전국적으로 불려야만 하는 특별한 지명에서만 나타났다. 수도의 조영이나 面里制(면리제)의 시행 등의 과정에서 처음부터 한자 이름으로 만들어진 지명이 일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지명은 우리말 이름으로 불리었고, 단지 표기만 한자의 뜻과 소리 중 적절한 것을 따라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제강점기와 해방 및 경제 발전기를 거치면서 인구의 이동이 대규모로 이루어지고 행정 지명의 사용이 대폭 증가하였다. 그 결과 한자로 표기된 우리말 지명의 한자 소리가 공식 지명으로 불리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실제로 불리던 우리말 지명의 상당수가 사라지게 되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한자 표기는 같음에도 불구하고 100년 전에 불리던 지명과 현재 부르는 지명의 소리가 다른 경우를 찾는 것이 너무나 쉽다. 본 연구총서는 고지도나 지리지에 한자로 표기된 지명을 한자의 소리가 아니라 원래 불리던 우리말 이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해 조선시대에 가장 많이 이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도 연구자와 일반인이 가장 많이 참고하는 그림식 고을 지도를 대상으로 삼아 한자로 표기된 지명의 우리말 이름을 찾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다. 다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말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된 경우 후대 더 많은 자료가 축적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말 이름 부분을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다만 아쉽게도 대부분의 그림식 고을 지도에는 우리말 이름이 가장 풍부하게 사용되었던 마을 단위가 수록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자료 중 행정적으로 편제된 마을이 가장 방대하게 체계적으로 수록되어 있는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戶口總數(호구총수)』의 모든 한자 표기 지명에 대한 우리말 이름을 찾아 고을마다 첨가하였다. 아울러 고을의 중심지인 읍치의 위치, 고을의 범위, 각 지명의 현재 위치, 면의 범위를 현재의 법정동·법정리까지 찾아서 수록하여 고을 지도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겨 있는 고을의 역사와 전통지방도시인 邑治(읍치)를 이해하는 틀과 방법을 제시하였다.

경기(京畿)



民戶二千三十四戶

兵曹軍一百九十七名

禁營戶保二百九十二名

御營戶保一百八十九名

訓局砲保九十四名

京各司雜色保一百五十八名

陵軍戶保二十九名

守禦軍三百五十名

會付米四百五石十斗三升

田五百三十一結五十二負

畓五十二結二十三負

東距春川界十三里距春川七十里

南距楊根界三十里距楊根九十里

西距抱川界八十里距抱川九十里

北距永平界七十里距永平一百里

城郭無

邑倉二庫

郡倉二庫

郡內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朝宗面初境三十里終境八十里

北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五十里

自京一日半程

강화(江華)

지명찾아보기 p.94-97



民戶九千一百七十二戶

人口三萬一千三百口

田一千四百六十一結三十負

番二千一百十結六十負

軍餉七萬五千三百九十二石十二斗

太一萬三千六百四十二石十二斗

皮雜穀七千五百七十六石十二斗

本營將校軍兵雜色并一萬三千九百一十一名

前營留平府使屬邑仁川府使

將校軍兵雜色并一千七百二十名

左營通津府使屬金浦郡守

將校軍兵雜色并一千八百三十四名

右營豐德府使

將校軍兵雜色并一千一百四十五名

後營延安府使屬邑白川郡守

將校軍兵雜色并三千九十三名

月申鎮僉使在府東十里長令面

濟物萬戶在府東十里長令面

龍津萬戶在府南十五里仙源面

廣城別將在府南十五里佛恩面

德津萬戶在府南十五里佛恩面

草芝萬戶在府南十五里吉祥面

船頭別將在府南三十里吉祥面

長串別將在府南四十里下道面

井浦別將在府西三十里位良面

寅火萬戶在府西三十里西寺面

鐵串別將在府北三十里北寺面

昇天別將在府北二十里三海面

丈殊別將在府東十里通津兼左營中軍

周回二百千里東西四十里南北七十里

內城周回十五里二百四十三步一千八百十二墩

沿城周回五十里六千墩

自京二日程

鼎足山城齋源錄史冊奉 安恭奉二頁

長寧殿 萬寧殿別檢三頁參奉二頁

行宮

烽燧五處 墩臺五十二處

軍餉倉八處 營庫四處

府內面在城中 長令面在府東十里

仙源面在府南二十里 仁政面在府南二十五里

佛恩面在府南三十里 吉祥面在府南三十里

上道面在府南十五里下道面在府南五十里

位良面在府西三十里 內可面在府西三十里

外可面在府西三十里 民帖面在府西北三十里

西寺面在府西北四十里 北寺面在府西北三十里

河陰面在府西北二十里 三海面在府北二十里

松亭面在府北十里

小檢島在府南陸四十里水十里漁採放羊羔

信島在府南陸三十里水五十里漁採煮鹽放牧馬

長峰島在府西南陸三十里水五十里置萬戶屬水營放牧馬

注文島在府西陸三十里水五十里置僉使屬水營漁採

阿此島在府西陸三十里水四十里漁採

煤音島在府西陸三十里水十里煮鹽放牧馬置瞭望將

席毛老島在府西陸三十里水十里煮鹽放牧馬

徐法島在府西陸三十里水三十里漁採

浦音島在府西陸三十里水三十里漁採放羊羔置瞭望將

走島在府西陸三十里水三十里漁採放羊羔置瞭望將

西檢島在府西陸三十里水三十里煮鹽

項山島在府南陸三十里水三十里置瞭望將三南船留泊處

東距通津水陸并三十里

北距豐德水陸并四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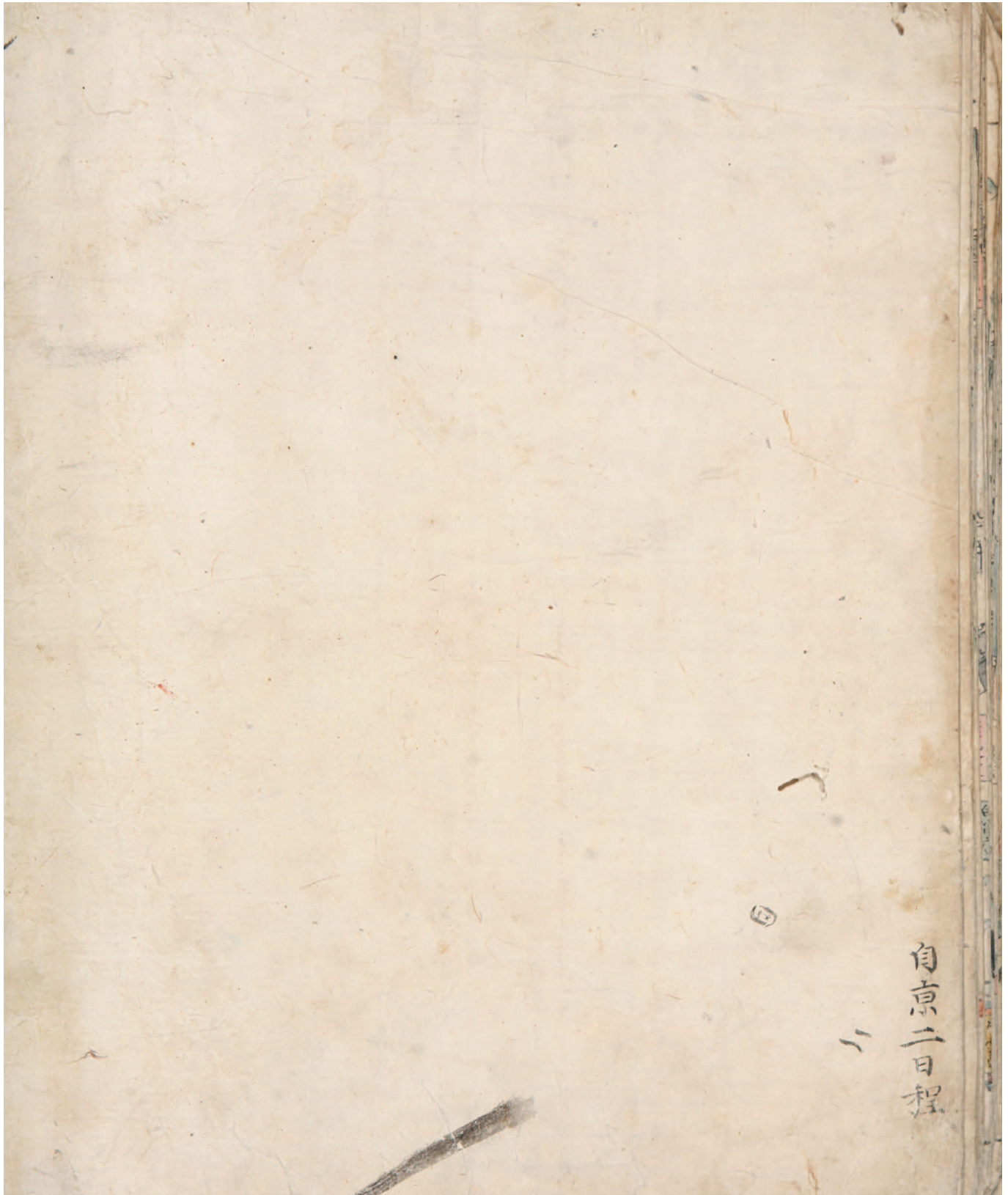
西距喬桐水陸并四十里

南距永宗水陸并六十里

개성(開城)

지명찾아보기 p.97-100





고양(高陽)

지명찾아보기 p.100-102



民戶二千八百四十三戶

御營軍二百八十三名

兵曹軍二百六十三名

訓局砲係七十三名

軍餉係二十三名

禁衛軍五十五名

京谷司雜色係三百三名

摠戎軍一千三百四十八名

各陵軍九百四名

烽軍戶係三百六十名

監營旗手戶係一百五十名

會付米三十六石二斗二升

廵營米四十六石

田二千一百七十一結二十一畝

畝一千七百六十六結三十一畝

東距揚州界三里距揚州四十里

南距陽川界三十里距陽川三十五里

西距交河界三十里距交河五十里

北距坡州界七里距坡州四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下道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中面初境二十五里終境三十里

松山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元堂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富原三江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永知道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五里

已浦面初境三十五里終境四十里

九耳洞面初境二十里終境二十五里

沙里大面初境三里終境二十里

自京半日程

과천(果川)

지명찾아보기 p.102-103



民戶二千六百七十六戶

兵曹軍二百十名

禁保三十六名

御保九十六名

訓局砲保六十一名

軍餉保四十四名

京各司雜色保三十二名

北漢守禦軍官三名

守禦軍一百九名

總戎軍三百六名

監營旗手戶保三十五名

會付米一百五十石

田九百八十四結五十四畝

畝五百八十結五十一畝

東距廣州界十五里距廣州四十里

南距水原界四十里距水原六十里

西距幹川界三十里距幹川三十里

北距銅雀津十五里距京三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東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一南面屬合南面

南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北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自京半日程

광주(廣州)

지명찾아보기 p.104-110



民戶一萬一千五百六十戶

守禦廳軍三千三百七十五名

軍餉米四萬二千一百五十石十四斗三升

田三千九百九十六結五十一畝

畝一千八百六十八結三十四畝

東距利川界七十里距利川九十里

南距龍仁界五十里距龍仁六十里

西距果川界三十里距果川四十里

北距楊州界三十里距楊州一百里

邑城一處

邑倉六庫

慶安面初境十里終境四十五里

都尺面初境六十里終境八十里

草月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草阜面初境三十里終境六十里

西部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中代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突馬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大旺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義谷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一用面初境七十里終境八十里

北方面初境七十里終境九十里

聲串面初境八十里終境一百里

五浦面初境四十五里終境五十里

宗村面初境五十里終境八十里

退村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東部面初境五里終境三十里

九川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細村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樂生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彦州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王倫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月谷面初境七十里終境八十里
松洞面初境八十里終境一百里

自京半日程

교동(喬桐)

지명찾아보기 p.110-111



民戶一千七百二十二戶

各衛門諸色陸軍七百十五名去甲寅年因水營狀啓移給水營
水軍戶保并七百七十五名

元還軍餉留庫米二千二石三斗一升

田三百二十一結一負

畝九百四十九結七十八負

東距江華界十里距江華四十里

南距松家島界五里距島十五里

西距延安界三十里距延安六十里

北距白川界二十八里距白川四十里

城郭周圍二十六尺

高十尺

倉三庫內

一庫營倉

一庫司倉

一庫松家島倉

東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南面初境三里終境八里

北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自京二日程

교하(交河)

지명찾아보기 p.111-112



民戶二千四十二戶

御軍一百名

水軍六十名

總戎軍九百九十六名

兵曹軍六十五名

京谷司雜色保二十名

訓局砲保二十九名

軍餉保三十九名

各陵軍八十名

監營旗手三十八名

會付米三百二十四石十三斗

田七百十六結三十五畝

畝一千二百三十二結三十三畝

東距高陽界二十五里距高陽五十里

南距金浦界二十里距金浦五十里

西距豐德界二十里距豐德六十里

北距長湍界二十里距長湍六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縣內面初境官門外終境十里

炭浦面初境七里終境二十里

支石面初境八里終境二十里

石串面初境十七里終境二十五里

新五里面初境七里終境二十里

衙洞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瓦洞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青巖面初境五里終境十三里

自京一日程

금천(衿川)

지명찾아보기 p.113-114



民戶一千七百四十六戶

兵曹軍一百三十五名

御營軍一百九名

禁軍五十八名

訓局砲保五十二名

軍餉保十八名

總戎軍八百四十二名

監營旗手戶保十七名

各陵軍二十二名

京各司雜色保三十八名

北漢守禦軍官二名

會付米六百七十石十二斗四升

田七百六十五結三十畝

畝五百十結四十七畝

東距果川界十五里距果川三十里

南距安山界十五里距安山三十里

西距富平界十五里距富平四十里

北距京城三十里

城郭無

倉

縣內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西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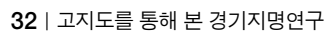
南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上北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下北面初境二十里終境二十里

自京半日程

★



民戶一千七百八十一戶

兵曹軍二百五十二名

各陵軍戶保二百三十四名

訓局死保五十七名

御營軍戶保一百四名

禁營軍戶保六十八名

水軍一百三十五名

京各司雜色保七十五名

總戎軍四百二十名

守禦軍八名

東伍軍四百三十六名

北漢守禦軍官六名

會付米十一斗二升

田七百八十二結七十九負

畝七百七十九結二十負

東距陽川界三十里距陽川三十里

南距富平界十里距富平二十里

西距二十里西海

北距通津界十里距通津四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郡內面初境三里終境十里

馬山面初境七里終境二十里

蘆長里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高亂台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石開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衿丹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古縣內面初境五里終境十里

林村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自京一日程

民戶五千三百三十一戶

兵曹軍五百三十六名

御營軍戶保一百九十名

京各司雜色保五十八名

禁衛營軍戶保二百七十三名

訓局砲保一百四十四名

軍餉保三十七名

水軍戶保七百六十四名

總戎斤軍二千二百二十六名

會付米八百九十三石七斗六升

田一千五百六結四十二負

畝一千一百九十結二十一負

東距水原界二十里距水原三十里

南距水原海十五里

西大海

北距廣州界二十里距廣州九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禾尺只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楮八里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屯知串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新里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弥知串面初境七里終境二十里

分鄉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麻道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自京一日程

마전(麻田)

지명찾아보기 p.119-120



民戶一千八百八十四戶

兵曹軍三百六十名

訓局砲保六十二名

軍餉保二十五名

禁營軍保一百六十四名

別破陣六名

御營軍保三十八名

忠翊衛二十一名

京各司雜保三十一名

北漢守禦軍官四名

總戎軍三百九十九名

會付米五百二十四石九斗六升

田六百三十三結九十四負

畝二百三十六結四十九負

東距漣川界十五里距漣川三十里

南距積城界十五里距積城三十里

西距長湍界三十里距長湍九十里

北距朔寧界二十里距朔寧六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郡內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東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永津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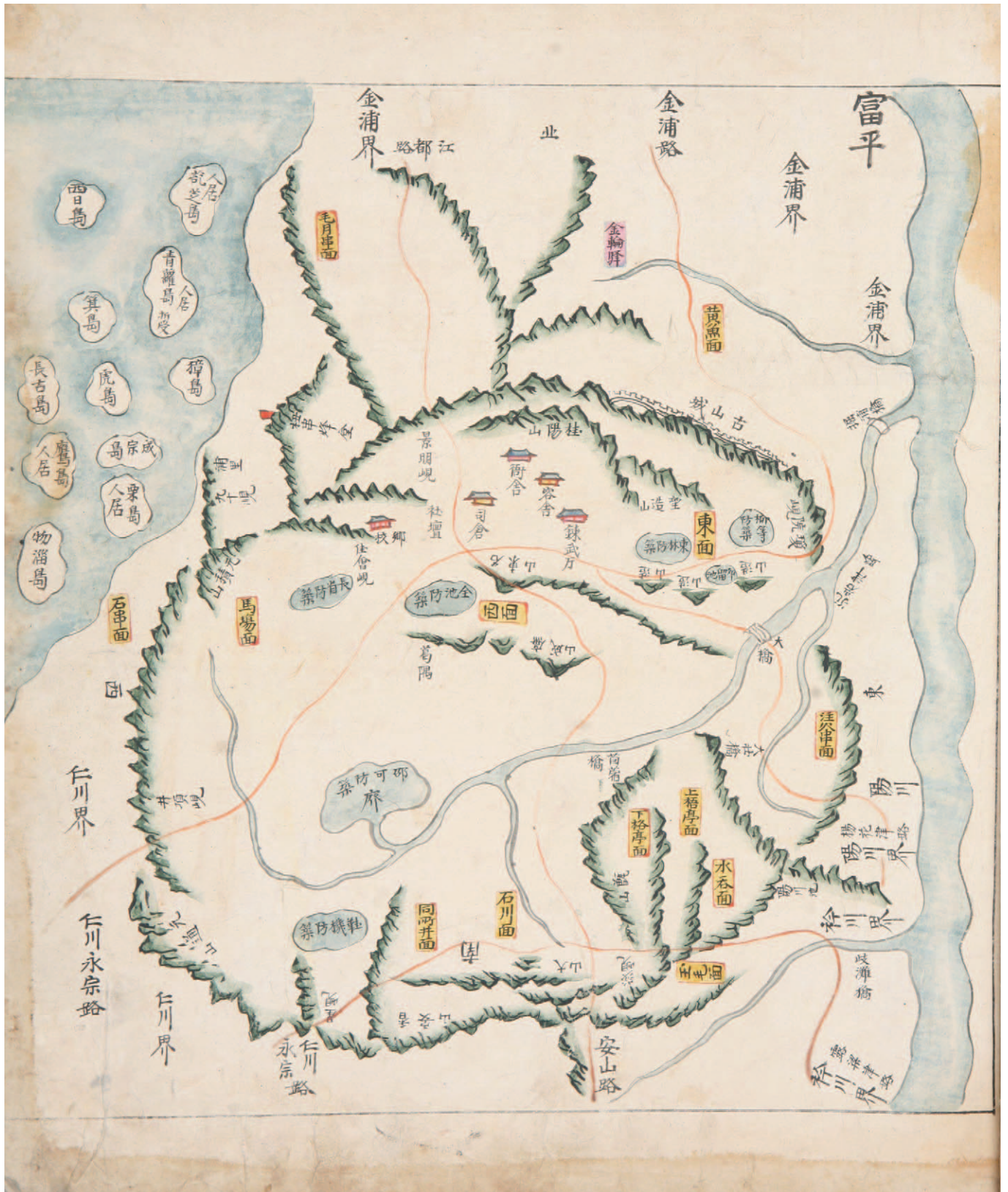
西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自京二日程

부평(富平)

지명찾아보기 p.120-122



民戶二千九百四十五戶

兵曹軍二百十名

各鎮水軍一百八十九名

訓局砲保軍餉保并一百七名

京各司雜色保一百六十四名

御軍戶保二百四十六名

禁衛軍戶保一百十七名

北漢守禦軍官三十五名

各陵軍戶保一百十五名

總戎府軍五百七十二名

監營旗手戶保八十三名

鎮撫東伍軍雜色七百八十名

會付米八百一十石十斗五升

田一千五百五十七結六十四負

畝一千四百七十二結二十五負

東距陽川界二十里距陽川三十里

南距衿川界三十里距衿川四十里

西距仁川界十五里距仁川三十里

北距金浦界十里距金浦三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東面初境三里終境七里

注火串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下吾丁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玉毛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同所井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馬場面初境五里終境十里

毛月串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堂山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上吾丁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水吞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石川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西面初境三里終境七里
石串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黃魚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自京半日程

삭령(朔寧)

지명찾아보기 p.123-124



民戶一千九百四戶

禁營軍戶保二百五十二名

御營軍戶保一百六十名

總戎軍九百七十六名

兵曹軍四百九十三名

京各司雜色保五百十一名

各陵軍二十九名

監營旗手戶保七十五名

會付雜穀一萬一百三十四石十四斗

田二千五百九十二結九十一負

畝二百三十二結四十負

東距漣川界三十二里距漣川五十里

南距長湍界三十八里距長湍九十里

西距兔山界十一里距兔山三十里

北距平康界六十二里距平康一百一里

城郭無

邑倉一庫

外倉一庫

邑內面初境官門外終境三十里

南面初境十五里終境十五里

馬場面初境三千里終境四十里

寅目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東面初境十里終境二十二里

西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乃文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自京二日程

수원(水原)

지명찾아보기 p.124-128



民戶萬二千六百九十六戶

總戎廳東伍軍九千九名

兵曹軍一百十四名

會付留庫米四千二百九十三石

田五千七百十四結三十負

畝五千三百十八結十四負

東距龍仁界二十里距龍仁三十里

南距忠清道牙山界九十里

西距南陽界十里距南陽三十里

北距廣州界三十里距廣州八十里

邑城無

禿城山城

倉六庫內

一庫邑倉

一庫山城倉

一庫社倉

一庫設倉

一庫海倉

一庫雙倉

龍伏面初境二里終境十五里

荆石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古等村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光教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安寧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長足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牛門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岩村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東真並地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八谷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三峰面初境七里終境十里

好梅折面初境二十里終境二十五里

楊千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宿城面初境四十五里終境五十里

見堂面 上同

北方面 上同

分忽村面上同

吾魯面 上同

青龍面初境五十里終境五十五里

廣德面初境五十五里終境六十里

吾叱井面 上同

金內伊面 上同

甘嶺面初境六十里終境八十里

新永面 上同

浦內抄面 上同

皆上面 上同

加士串面初境八十里終境九十里

三島面 上同

筆旨面初境五里終境十里

貞松面 上同

加 equal 面初境十里終境十一里

工二鄉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五里

馬井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水流面 上同

草長面 上同

禾方面 上同

西並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於良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鴨長面初境六十里終境七十里

仇二浦面 上同

奢井面 上同

三都谷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中邊面 上同

魚吞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山城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草坪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青好面初境三十里終境三十五里

正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南谷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東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爭忽面初境二十五里終境三十里

崇德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土法面初境四十里終境四十五里

自京一日程

안산(安山)

지명찾아보기 p.129-130



民戶五千三百三十一戶

兵曹軍五百三十六名

御營軍一百十一名

各鎮水軍三十六名

禁營軍三十六名

訓局砲保三十三名

軍餉保四十七名

京各司雜色保十九名

監營旗手戶保四十二名

總戎軍六百九十六名

會付米二百七十七石二斗八升

田四百四十四結八十八畝

畝四百十八結十九畝

東距果川界五里距果川四十里

南距廣州界十里距廣州五十里

西距仁川界十里距仁川五十里

北距衿川界十里距衿川三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郡內面初境官門外終境十里

仍穴谷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大月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草山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馬遊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瓦里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自京半日程

안성(安城)

지명찾아보기 p.130-132



民戶三千九百三十六戶

各樣良軍二千二百四十三名

私軍七百九十三名

會付米三百一石七斗二升

田二千一百七十五結六十九負

畝一千四百四十結六十五負

東距竹山界十五里距竹山三十里

南距稷山界二十五里距稷山三十里

西距陽城界十五里距陽城二十里

北距陽智界十五里距陽智七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加士面初境五里終境十里

北佐村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加之谷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德谷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水村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辰頭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居平谷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大門里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末望里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松竹材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考只谷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鴉山谷面初境五里終境十里

竹村面

自京半日程

양근(楊根)

지명찾아보기 p.132-135



民戶三千五百十八戶

兵曹軍二百五十四名

御營軍二百四名

禁營軍二百十名

訓局砲保八十五名

軍餉保十三名

京各司雜保二十名

守禦軍五百三十七名

會付米三百十七石

田一千四百六十七結四十三畝

畝四百三十四結三十五畝

東距砥平界二十里距砥平四十里

南距呂州界二十里距呂州七十里

西距揚州界四十里距揚州一百五十里

北距加平界六十里距加平九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外倉二庫

東始面初境五里終境十里

南始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西始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西終面初境十里終境七十里

東終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南終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西中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北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自京一日程

양성(陽城)

지명찾아보기 p.136-139



民戶三千三百六十四戶

兵曹軍七百九名

禁軍三百六十名

御軍一百六十三名

訓局砲保一百一名

軍餉保四十五名

監營旗手十八名

京各司雜色保三十九名

守禦軍七百二十七名

總戎軍三百九十名

會付米二百八十六石八升

田一千九百七十六結五十六負

畝一千八十結三十一負

東距安城界三里距安城二十里

南距稷山界三十里距稷山四十里

西距振威界十五里距振威三十里

北距龍仁界十里距龍仁七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低叱洞面初境十里終境十八里

松五里面初境十里終境十六里

九千里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今通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盤谷面初境二十五里終境三十二里

升良院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栗業面初境四十里終境四十五里

甘味洞面初境六十里終境六十五里

金叱洞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德山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孔榜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九龍洞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元堂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自京日程

升良洞面初境九十里終境一百十五里

西新里面初境五十里終境五十五里

所古尼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民戶一萬七十三戶

守禦廳軍二千三百十七名

兵曹軍一千五百名

訓導砲保二百四十三名

御營軍二百九十九名

摠戎軍二百五十二名

京各司雜色保七十二名

監營旗手戶保并一百七十七名

會付留庫折米四十石十斗八升

田七千九百六十三結八十九負

畝二千一百九十九結五十一負

東距抱川界三十里距抱川六十里

南距京城界四十里距京城六十里

西距高陽界四十里距高陽五十里

北距漣川界八十里距漣川九十里

城郭並漢山城

邑倉二庫

東倉一庫

古州內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於等山面初境二十五里終境三十里

別非谷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榛伐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真官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上道面初境七十里終境一百里

瓦孔面初境六十里終境八十里

屯夜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龜旨面初境四十里終境七十里

忘憂里面初境五十里終境六十里

海東村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廣石面初境二十五里終境三十五里

長興面初境二十里終境五十里

自京半日程

縣內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五里
山內面初境五十里終境六十里
嶺斤面初境六十里終境八十里
檜叢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內洞面初境二十五里終境三十里
接洞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乾川面初境四十里終境六十里
金村面初境六十里終境七十里
下道面初境八十里終境一百里
柴北谷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禿音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古揚州面初境六十里終境八十里
茅岳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白石面初境十里終境四十五里
石積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神穴面初境五十里終境六十里
陳番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伊淡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青松面初境五十里終境八十里



民戶一千九百十七戶

兵曹軍二百三十五名

禁軍四十六名

御軍八十六名

訓局砲保軍餉保六十七名

京各司雜色保二十六名

守禦軍六百二十二名

總戎軍二百三十四名

會付米六百十三石

田五百二十四結八十五畝

畚四百八十五結四十八畝

東距利川界十里距利川三十里

南距安城界四十里距安城六十里

西距龍仁界十里距龍仁四十里

北距廣州界十里距廣州八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朱東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朱西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高安面初境四十里終境四十五里

木岳面初境三十里終境三十里

朱北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朴谷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蹄村面初境七十里終境七十里

古東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古西面初境五十里終境六十里

古北面初境五十里終境五十里

自京一日程

양천(陽川)

지명찾아보기 p.146-147



民戶六百三十七戶

兵曹軍四十名

水軍三十三名

御軍十六名

京各司雜色保四名

訓局砲保十四名

軍餉保十名

總戎軍二百七十一名

監營旗手六名

會付米十石十二斗四升

田五百六十九結八十二負

畝四百結二十二負

東距京城三十里

南距富平界十里距富平三十里

西距金浦界十里距金浦三十里

北距高陽界五里距高陽四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三井面初境五里終境十里

加背谷面初境七里終境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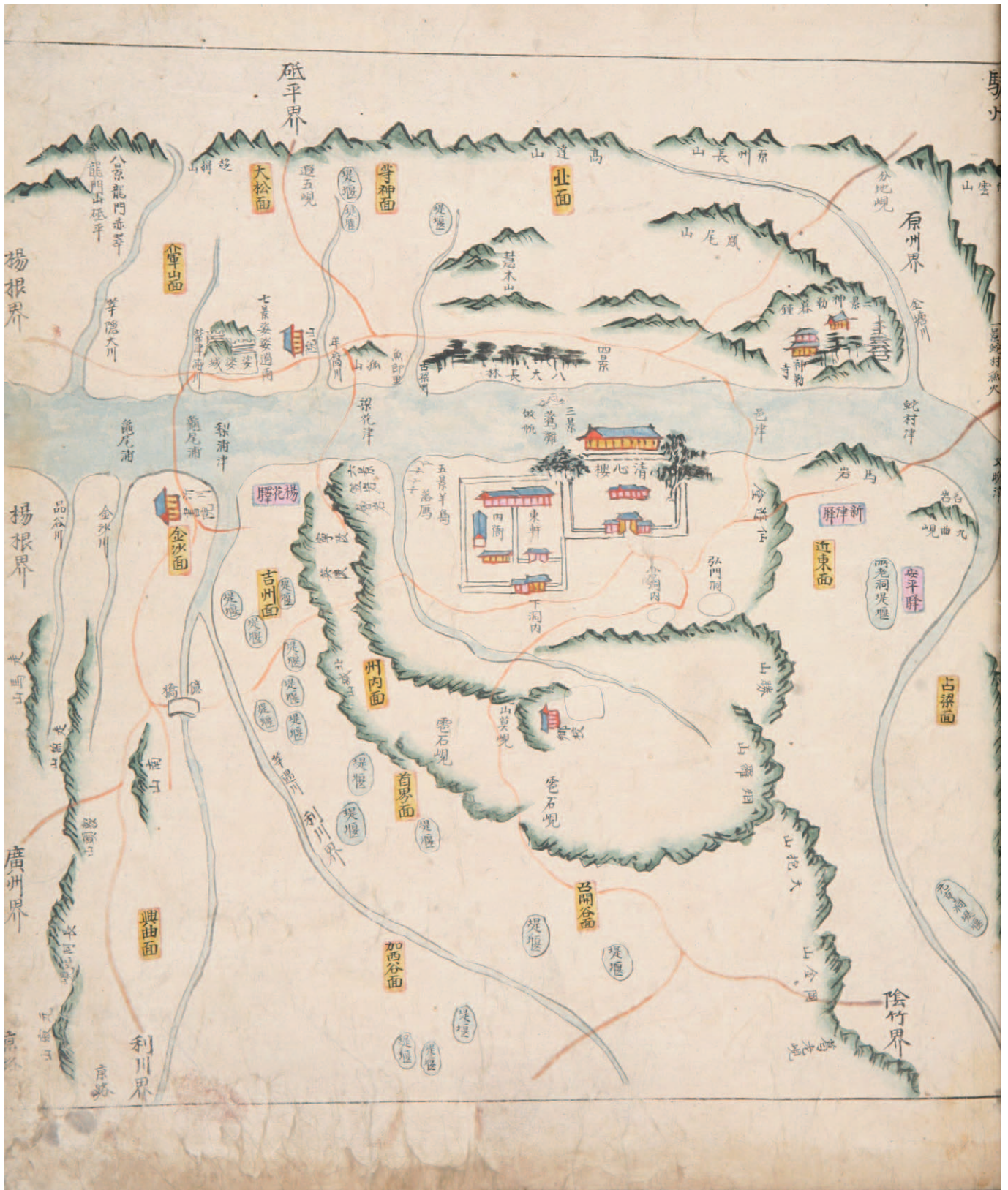
南山面初境五里終境十里

將軍面初境七里終境十里

自京半日程

여주(驪州)

지명찾아보기 p.148-151



民戶六千二百四戶

兵曹軍六百十六名

京司雜保六十五名

北漢守禦軍官二名

各陵軍四百二十名

水夫軍八十三名

守禦廳軍一千四百六十三名

御營軍二百六十六名

禁衛軍二百二十名

訓局砲保一百九十四名

軍餉保十六名

會付米一千二百五十八石三斗三升

田二千六百六十九結七十負

畝二千一百二十三結九十四負

東距原州界十里距原州八十里

南距陰竹界二十五里距陰竹四十里

西距利川界三十里距利川四十里

北距楊根界五十里距楊根七十里

娑婆城以破城只存形址

倉一庫

近東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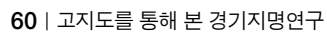
近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占梁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召開谷面初境十五里終境四十里

自京二日程

連川



民戶一千二百七十

兵曹軍四百五十五名

訓局砲保五十六名

軍餉保十六名

禁衛軍一百四十四名

御軍九十八名

總戎軍四百六十五名

京谷司雜色保九十名

會付米三千九百八十九石五斗九升

田一千一百八十二結九十一負

畝二百三結八十八負

東甞永平界二十里甞永平五十里

南甞楊州界十五里甞楊州九十里

西甞麻田界二十里甞麻田三十里

北甞朔寧界三十里甞朔寧五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縣內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東面初境三里終境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北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自京一百半程

영평(永平)

지명찾아보기 p.153-155



民戶一千四百七十二戶

兵曹軍一百四十二名

禁軍戶保七十名

御軍戶保六十一名

守禦軍三百八十八名

烽軍戶保二百名

京各司雜色保四十八名

會付田米二十六石

田一千四十二結九十四員

畝九十二結十四員

東距加平界六十里距加平一百三十里

南距抱川界十五里距抱川三十里

西距楊州界二十里距楊州九十里

北距鐵原界三十里距鐵原七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邑內面初境官門外終境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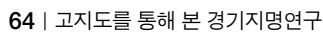
一東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二東面初境二十里終境七十里

西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南面初境七里終境十五里

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民戶三千六百三十五戶

兵曹軍二百六名

御營軍六十二名

禁營軍二十六名

守禦軍八百六十五名

會付米三百六十二石二斗七升

田三千四百六結二十三員

畝一千三百十三結

東距陽智界三十里距陽智四十五里

南距振威界五十里距振威六十里

西距水原界二十里距水原三十五里

北距廣州界二十里距廣州五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縣內面初境五里終境五里

駒興面初境五里終境十里

水真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器谷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南谷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幕賢村面初境七里終境三十里

道村面初境三十五里終境五十里

南村面初境五十里終境五十八里

上東村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下東村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七里

東邊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西邊面初境五里終境十里

枝內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水餘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蒲谷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縣內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西村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五里

自京一日程

음죽(陰竹)

지명찾아보기 p.157-159



民戶一千二百二十四戶

兵曹軍二百五十四名

禁軍九十九名

御軍八十二名

訓局砲保十四名

軍餉保三十七名

京各司雜色保十六名

守禦軍六百五十一名

會付米一百八十四石

田七百二結六十八負

畝九百七十六結八十一負

東距呂州界十五里距呂州四十里

南距忠原界十里距忠原九十里

西距竹山界十五里距竹山三十里

北距利川界十里距利川五十里

城郭無

倉一庫

東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南面 上同

無樞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北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三里

自京二日程

X

 지명찾아보기 p.159-161

民戶五千二百六戶

兵曹軍五百二十名

禁營軍五百六十名

御營軍三百四十一名

訓局砲保八十九名

軍餉保三十四名

京各司雜色保一百二十八名

守御軍一千八百八十二名

會付米二千三百六十五石二斗五升

田一千四百五十結三十七畝

苗一千五百九十二結十八畝

東

南

西

北

城郭西畔雪峰山有古城周圍五千一百十二尺

自京一日程

[illegible]

民戶三千八十一戶

兵曹軍六十四名

御營軍戶保一百十二名

京各司雜色保四十八名

訓局砲保四十八名

軍餉保十八名

禁營軍戶保五十六名

水軍一百五十六名

監營旗手保四名

鎮撫營東伍軍六百三名

總戎軍二百六十名

會付米二百七十五石十二斗八升

田七百三十五結六十四負

畝六百十七結九十七負

東距衿川界三十里距衿川四十里

南距安山界水路三十里

西距永宗陸路十里水路十五里

北距富平界十五里距富平三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邑內面初境五里終境十里

多所面初境八里終境十五里

南村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新古介面初境二十里終境二十五里

遠又尔面初境七里終境十里

朱岸面初境十里終境十四里

鳥洞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自京一日程

장단(長湍)

지명찾아보기 p.163-167



民戶五千一百八十七戶

兵曹軍五百六十七名

水軍一百九十一名

禁營軍四百八十五名

御營軍三百十八名

訓局砲保二百四十五名

軍餉保三十六名

北漢守禦軍官三十九名

京各司雜色保一百六十八名

中樞府錄事二十二名

總戎斤軍一千六百名

會付米八十二石十斗三升

移轉米二十六百三十石三斗七升

田三千八百七十四結四十一畝

畝一千七百二十五結四畝

東距積城界二十五里距積城四十里

南距交河界三十五里距交河六十里

西距松都界二十里距松都四十里

北距漣川界六十里距漣川七十里

城郭無

邑倉三庫

津東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上道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中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松南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西道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五里

長北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江西南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江東面初境六十里終境九十里

長東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古南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五里

津縣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下道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津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松西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東道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江南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江北面初境五十里終境七十里

大位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長縣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長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自京一日半程

적성(積城)

지명찾아보기 p.167-168



民戶八百六十三戶

禁軍戶保四十八名

御軍六十六名

總戎軍四百三十名

兵曹軍一百八十二名

訓局砲保四十九名

軍餉保十九名

京各司雜色保四十六名

會付雜穀二千五百十六石

田七百三十四結七十五負

畝二百五十七結七十負

東距楊州界二十里距楊州五十里

南距麻田界二十里距麻田三十里

西距長湍界二十里距長湍四十里

北距朔寧界三十里距朔寧九十里

城郭無

倉一庫

東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西面上同

南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北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自京一日程

五

죽산(竹山)

지명찾아보기 p.169-171



民戶三千五百四十五戶

兵曹軍四百七十九名

禁營軍戶保二百六十三名

御營軍戶保三百八十三名

訓局砲保一百十四名

軍餉保四十一名

京各司雜色保四十一名

守禦軍一千十一名

會付米五十七石

田一千五十二結七十八負

畝一千一百九十五結四十八負

東距陰竹界十五里距陰竹三十里

南距鎮川界三十里距鎮川六十里

西距安城界二十里距安城三十里

北距陽智界五十里距陽智六十里

古城一處

邑倉二庫

府內二面初境三里終境五里

西一道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西二道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西三道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遠一道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里

遠二道面初境三十里終境四十里

近一道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近二道面初境三十里終境五十里

川北一道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川北二道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川南一道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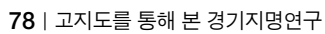
川南二道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府內二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自京二日程

 지명찾아보기 p.171-173



民戶二千一百三十五戶

京各司雜色係七十四名

訓局砲保六十七名

軍餉係七名

御軍戶係二百十二名

禁軍戶係二百六名

守禦軍四百十三名

兵曹軍二百五十三名

會付米六百二十三石

田七百九十九結六十四負

畝三百五十二結四十負

東距原州界四十里距原州九十里

南距呂州界二十里距呂州五十里

西距楊根界二十里距楊根四十里

北距洪川界四十里距洪川八十里

城郭無

倉二庫

縣內面初境官門外終境十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東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南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北面初境十里終境四十里

自京二日程

111



民戶二千三百五十六戶

兵曹軍三百名

訓局砲保四十三名

軍餉保二十二名

御營戶保一百六名

禁軍戶保一百四十二名

守禦軍六百七十二名

總戎軍一百二十三名

京各司雜色保十六名

會付米一百四十七石四斗五升

田一千一百五十四結二十畝

畝一千一百二十九結十一畝

東畔陽城界五里距陽城二十里

南畔稷山界三十里距稷山六十里

西畔水原界二十里距水原三十里

北畔龍仁界十里距龍仁五十里

城郭無

邑倉二庫

海倉一庫

馬山面初境五里終境五里

西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松岳面初境五里終境十五里

丙坡面初境三十里終境三十里

古頭面初境三十里終境三十里

城北面初境五里終境十里

炭峴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余方面初境二十里終境二十里

城南面初境三十里終境三十里

自京一日程

통진(通津)

지명찾아보기 p.174-176



民戶二千七百八十二戶

訓局砲保一百十名

禁衛軍五百八十八名

御營軍三百六十名

摠戎軍七百四十四名

兵曹軍二百七十五名

京各司雜色保二百七十七名

各鎮水軍三百三十二名

中樞府錄事三十八名

文殊山城軍一千六十一名

田一千四百七十五結五十三負

畝一千六百三十四結七負

會付皮雜穀并一千五百三十二石十斗

東距高陽界二十里距高陽七十里

西距江華界二十里距江華二十里

南距富平界三十里距富平六十里

北距豐德界十里距豐德三十里

文殊山城周圍五千五百二十九步

邑倉一庫

府內面初境官門外終境十里

月餘串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送乙田面初境十里終境十五里

陽陵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大坡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甫口串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兩伊浦面初境十里終境二十五里

奉城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里

桑串面初境二十里終境三十里

古里串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自京一日程

파주(坡州)

지명찾아보기 p.176-179



民戶三千一百五十六戶

各鎮水軍七十三名

兵曹軍一百九十六名

京各司離色保三十六名

忠翊衛十六名

監營旗手戶保一百八名

訓局砲保七十名

軍餉保十五名

御營軍一百七十四名

禁衛軍八十七名

摠戎軍一千一百二十九名

臨津牙兵二百四十九名

烽軍一百二十名

會付米十四石十斗四升

田一千三百五十九結七十七負

畝一千一百二十二結九十四負

東距楊州界二十三里距楊州五十里

南距高陽界三十五里距高陽四十里

西距交河界十七里距交河三十里

北距長湍界二十里距長湍三十里

城郭山城

邑倉一庫

州內面初境五里終境八里

廣灘面初境十里終境三十里

紫谷面初境七里終境十七里

泉岾面初境五里終境三十里

茶里洞面初境十三里終境三十里

白石面初境四里終境十里

自京一日程

포천(抱川)

지명찾아보기 p.179-181



民戶二千三百三十二戶

禁軍六十八名

御軍一百名

守禦軍四百四十二名

兵曹軍九十七名

訓局砲保二十九名

軍餉保五名

陵軍九十七名

京各司雜色保八名

烽軍二百名

會付米五百五十八石十三斗二升

田二千四百八十一結七十六畝

畝三百八十八結八畝

東距加平界二十里距加平九十里

南距楊州界四十里距京一百里

西距揚州界三十里距楊州六十里

北距永平界二十里距永平三十里

城郭無

倉

邑內面初境官門外終境十里

加山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內洞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東村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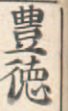
清涼面初境五里終境十里

所屹山面初境二十五里終境四十里

西面初境五里終境三十里

北面初境五里終境二十里

自京一日程



民戶二十九百三十戶

京谷司雜色保三百二十三名

訓局砲保一百九十六名

軍餉保五十三名

水軍三百九十八名

兵曹軍二百四十六名

各陵軍戶保并三百三十九名

禁營軍戶保三百五十三名

御營軍戶保四百三十六名

鎮撫營末伍軍八百五十二名

齊厚陵香炭山直五十名

田一千三百二十一結四十四負

畚一千五百三十八結八十負

會付米十五石三斗七升

東距交河界十五里距交河四十里

南距江華界十五里距江華二十里

西距白川界三十里距白川四十里

北距開城界十五里距開城三十里

城郭無

邑倉一庫

德北面初境四十里終境五十五里

北面初境十五里終境四十里

南面初境十五里終境三十里

郡南面初境十五里終境二十五里

德中面初境二十里終境四十里

東面初境十里終境二十里

自京二日程

高山達山

北面

等神面

堤堰

五峴

大松面

山揖

八景龍門赤翠
龍門山砥平

金軍山面

茅隱大川

七景安婆過雨

蔡津浦川

年腐川

魚即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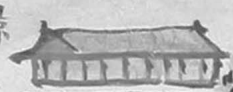
梁花津

慧木山

四景

林長大八

三景
舊灘
飯帆



樓心清



下洞内

五景羊島
落馬

驛花楊

錦成
葵成

吉州面

堤堰

堤堰

堤堰

堤堰

堤堰

堤堰

州内面

堤堰

堤堰

首界面

堤堰

電石峴

山莫峴

電石峴

召開谷面

堤堰

堤堰

加西谷面

興曲面

金沙川

金沙面

億橋

堀

龜山

長河

山長州原

山尾鳳

鍾

寺

邑津

金

弘門洞

山勝

山羅洞



지명찾아보기

❧ 일러두기 ❧

1. 조선시대 경기도의 38개 고을을 공식 이름의 가나다 순서에 따라 배치하였다.
2. 각 고을마다 ‘현재의 위치와 범위’,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면의 상세 정보’ 순서로 배치하였다.
3. ‘현재의 위치와 범위’에는 고을의 통치 기관인 동헌과 객사 등이 소개했던 읍치의 위치와 고을의 범위를 2010년의 법정동·법정리를 기준으로 기록하였다. 단, 현재 북한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러두기를 첨가하였고, 고을의 범위에서 ‘※’ 표시는 지도 위에 지명이 나오지만 다른 고을에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4. ‘지도의 지명찾아보기’는 지도 위에 기재된 고유지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찾아보기 쉽도록 한자 소리의 가나다 순서로 배치하였다. 面(면)에 있는 ‘面’의 표시는 ‘면의 상세정보’를 참조하라는 의미다.
5. ‘면의 상세정보’는 각 고을의 행정면과 행정마을을 수록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戶口總數(호구총수)』(1789)를 주요 자료로 삼아 작성되었으며, 찾아보기 쉽도록 면마다 한자 소리의 가나다 순서로 배치하였다. 단, 『호구총수』에 마을 이름이 없는 일부의 경우는 註(주)로 처리한 다른 자료를 참조하였다.
6. 모든 지명은 한자 - 한자소리(한글) - 우리말이름(한글) - 현재위치의 순서로 배치하였다. 단, 순우리말 이름을 찾을 수 없는 경우, 원래부터 한자로 만들어진 이름인 경우, 현재의 위치를 찾을 수 없거나 확정할 수 없는 경우는 빈 칸으로 남겨두었다.
7. 현재 위치는 2010년의 법정동·법정리까지 기록하였으며, 구·면의 위치는 고을의 범위에서 ()안에 축약한 이름을 법정동·법정리의 앞에 써넣었다. 단, 현재 북한에 속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일러두기를 첨가하였다.
8. []은 참고가 되거나 추정되는 이름을 적어 넣은 것이다.

❧ 참고자료 ❧

네이버(<http://www.naver.com/>) 백과사전
경기문화재단, 2008, 『경기 땅이름의 참모습 - 《朝鮮地誌資料》京畿道篇-』
越智唯七, 1917,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 中央市場
한글학회, 1985·1986, 『한국지명총람』 17(경기편상)·18(경기편하·인천편)

가 평 (加平)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 고을 범위 : 가평군 가평읍(가), 북면(북)-적목리 제외, 상면(상), 청평면(청)-삼회리 제외, 하면(하) / 남양주시 수동면(수)-내방리·외방리·입석리 ※ 춘천시 서면(춘서)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佳良川 ¹⁾	계량천	계량내	(가)승안리
加平川	가평천		(가)읍내리
甘泉驛	감천역		[(청)상천리]
姜氏峯	강씨봉		(북)적목리
巨林川	거림천	거릿내	(북)적목리
郡內面	군내면		☞
窟雲川	굴운천	구누[내]	[(수)운수리]
道城峯	도성령	도승고개	(북)적목리
明楚峯 ²⁾	명지봉		(북)도대리
勿乃峯	물내령	[맴내고개]	[(북)목동리]
白磧	백적		[(북)화악리]
浮來山	부래산		[(춘서)금산리]
北面	북면		☞
飛郎山	비랑산	비령이[산]	(상)행현리
色峴	색현	빛고개	(가)상색리
西面	서면		☞
城隍壇	성황단		[(가)읍내리]
昭陽江	소양강		
衙	아[동헌]		(가)읍내리
兩邊馬峙 ³⁾	양도마치	도마치고개	(북)적목리
連洞驛	연동역		(상)연하리
龍川寺	용천사		

雲岳山	운악산		(하)하판리
潛谷書院	잠곡서원		(청)청평리
潛谷川	잠곡천	재밀[내]	(청)청평리
獐項峴	장항현	노루무고개	(가)마장리
赤木山	적목산		(북)적목리
朝宗面	조종면		☞
朝宗川	조종천	조종내	(청)하천리
注之山	주지산		(청)청평리
靑水山	청수산		(상)덕현리
靑磧	청적		[(북)화악리]
靑平川	청평천	청평내	(청)청평리
超然臺	초연대		(가)읍내리
胎峯	태봉		(가)상색리
鄉校	향교		(가)읍내리
懸燈寺	현등사		(하)하판리
縣倉	현창		(하)현리
洪川江	홍천강		

Ⅰ 면의 상세 정보

▲ 郡內面(군내면) : 가평군 가평읍 개곡리·정반리·달전리·대곡리·마장리·승안리·향교리

開谷里	개곡리	가일	(가)개곡리
達田里	달전리	달전	(가)달전리
垸谷里	대곡리	터일	(가)대곡리
馬場里	마장리	마장	(가)마장리
僧安山里	승안산리	승안산	(가)승안리
鄉校里	향교리	향교말	(가)읍내리

▲ 南面(남면) : 가평군 가평읍 금대리·북장리·산유리·이화리 / 청평면 고성리·호명리

高城里	고성리	고재	(청)고성리
福長浦里	북장포리	북장이	(가)북장리
秘靈垸里	비령대리	비령대	(가)금대리
梨永洞里	이영동리		(가)이화리
虎鳴里	호명리	범울이	(청)호명리

1) 佳는 桂를 잘못 옮긴 것이다.
2) 楚는 芝를 잘못 옮긴 것이다.
3) 邊은 道를 잘못 옮긴 것이다.

▲ **北面(북면)** : 가평군 북면 도대리·목동리·백둔리·소법리·이곡리·제령리·화악리

道大里	도대리	도대	(북)도대리
沐洞里	목동리	먹골	(북)목동리
勿乃里	물내리	[맴내]	[(북)목동리]
栢屯里	백둔리	잣둔지	(북)백둔리
所法里	소법리	소일·손일	(북)소법리
梨谷里	이곡리	배일·바일	(북)이곡리
濟救寧里	제구령리	제구령	(북)제령리

▲ **西面(서면)** : 가평군 가평읍 두밀리·상색리·하색리 / 청평면 대성리·상천리·청평리·하천리 / 남양주시 수동면 내방리·외방리·입석리

大升里	대승리	대생아·대성	(청)대성리
坊洞里	방동리	방골	(수)내방리
三義谷里	삼의곡리	삼일	(가)두밀리
上甘泉里	상감천리	윗감천	(청)상천리
色峴里	색현리	빗고개	(가)상색리
秀理峴里	수리현리	수리재	(수)외방리
立石里	입석리	선돌	(수)입석리
潛谷里	잠곡리	재밀·장곡	(청)청평리
下甘泉里	하감천리	아래감천	(청)하천리

▲ **朝宗上面(조종상면)** : 가평군 상면 덕현리·봉수리·상동리·연하리·율길리·임초리·태봉리·항사리·행현리

連洞里	연동리	역골	(상)연하리
栗吉里	율길리	맘기라·뱀기리	(상)율길리
林草里	임초리		(상)임초리
項沙里	항사리		(상)항사리

▲ **朝宗下面(조종하면)** : 가평군 하면 대보리·마일리·상판리·신상리·신하리·하판리·현리

大釜山里	대부산리	다부산	(하)대보리
新福里	신복리	신복	(하)신하리
板尾里	판미리	너르막골	(하)상판리
縣里	현리		(하)현리

강 화 (江華)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 **고을 범위**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강), 길상면(길), 내가면(내), 불은면(불), 서도면(서), 삼산면(삼)-상리하리 제외, 선원면(선), 송해면(송), 양도면(양도), 양사면(양사), 하점면(하), 화동면(화) / 옹진군 북도면(북)

※ 강화군 교동면(교) / 김포시 월곶면(월)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角山	각산		
江華府	강화부		(강)관청리
檢島	검도[서검도]		(삼)서검리
結立山	결립산	저릅산·겨릅산	(하)창후리
京畿水營	경기수영		(교)읍내리
雞島	계도	머머리섬	(월)보구곶리
高麗山	고려산		(강)국화리
古邑	고읍	고바·고부	(내)고천리
光城浦	광성포[보]		(불)덕성리
德津	덕진[진]		(불)덕성리
東儉島	동검도		(길)동검리
麻泥山	마니산		(화)홍왕리
馬載山	마재산	매수리	(교)봉소리
磊島	말도	끝섬	(서)말도리
磊灘村烽	말탄촌봉		(교)서한리
望音島	망음도	폴음	(서)불음도리
煤音島	매음도		(삼)매음리
面法島	면법도	미법	(삼)미법리
北津	북진		(교)인사리
先都浦	선도포[보]		(길)선두리
松家島禁山 ⁴⁾	송가도금산		(삼)상리·하리

4) 禁山(금산)은 전선(戰船)의 선재(船材)를 조달하기 위해 국가에서 일반인의 벌목을 금지시키던 산을 가리킨다.

修正山	수정산	(교)고구리	亭頭洞	정두동	(양도)길정리
阿陰山 ⁵⁾	하음산	(하)장정리	亭下洞	정하동	(양도)길정리
我次島	아차도	(서)아차도리	稷山洞	직산동	직산 (길)길직리
月串嶺	월곶진	(강)월곶리	草芝洞	초지동 ⁷⁾	(길)초지리
鷹岩	응암	매바위 (교)읍내리	▲ 內可面(내가면) : 강화군 내가면 고천라·구하리·오상라·황청리 / 하점면 망월리		
寅火嶺	인화진	(양사)인화리	古阜洞	고부동	고비·고읍이 (내)고천리
長串	장곶	[긴곶] (호)장화리	鳩州洞	구주동	구주머리 (내)오상리
長峯嶺	장봉진	(북)장봉리	山串洞	산곶동	미꾸지 (하)망월리
濟物嶺	제물진	(강)갑곶리	浦村洞	포촌동	갯말 (내)황청리
祖江	조강	조강 (월)조강리	黃淸洞	황청동	황청개 (내)황청리
注文嶺	주문진	(서)주문도리	▲ 府內面(부내면) : 강화군 강화읍 관청라·국화라·남산라·신문리		
稷黍島	직서도	기장섬 (삼)하리	官廳下洞	관청하동	(강)관청리
嶺綱山	진강산	(양도)도장리	舊村洞	구촌동	(강)신문리
天登寺	천등사[전등사]	(길)온수리	國淨洞	국정동	국정골 (강)국화리
鐵串	철곶[진]	(양사)철산리	南門內洞	남문내동	남문안 (강)신문리
忝星壇	첨성단	(화)홍왕리	南門外洞	남문외동	남문밖 (강)남산리
楚至 ⁶⁾	초지[진]	(길)초지리	唐州洞	당주동	당골 (송)신당리
後陵	후릉		東門洞	동문동	동문안 (강)관청리
後西江	후서강[예성강]		府司後洞	부사후동	(강)관청리

I 면의 상세 정보

▲ 良帖面(간점면) : 강화군 하점면 신삼라·이강라·창후리

江後洞	강후동	(하)이강리
沙汰洞	사태동	사태말 (하)창후리
三巨洞	삼거동	작은시거리 (하)신삼리
梨峴洞	이현동	배우개 (하)이강리

▲ 吉祥面(길상면) : 강화군 길상면 길직라·동검라·선두라·온수라·장흥라·초지동, 양도면 길정리

山門洞	산문동	
缸頭洞	선두동	배머리 (길)선두리
溫水洞	온수동	온수물 (길)온수리
長傑洞	장걸동	[(길)장흥리]

▲ 北寺面(북사면) : 강화군 양사면 덕하라·북성리·철산리

羣頭洞	군두동	
羣下洞	군하동	군하골 (양사)덕하리
冷井洞	냉정동	찬우물 (양사)북성리
德峴洞	덕현동	덕고개 (양사)덕하리
三省洞	삼성동	생설미 (양사)북성리

5) 阿는 河를 잘못 옮긴 것이다.

6) 초지진은 원래 현재의 안산시 초지동에 있었는데, 1655년 강화도로 옮겨왔다. 草芝는 순우리말 '새고지'에 대한 한자 표기였는데, 한자의 소리가 그대로 이름이 되면서 발음이 같은 楚至로 기록되었다.

7) 초지진은 원래 현재의 안산시 초지동에 있었는데, 1655년에 강화로 옮겨왔다. 草芝는 순우리말 '새고지'에 대한 한자 표기였는데, 한자의 소리가 그대로 이름이 되었다.

新起洞 신기동
鐵串洞 철곶동 철곶 (양사)철산리
浦村洞 포촌동 산잇개 (양사)철산리

▲ 佛恩面(불은면) : 강화군 불은면 고릉리·넙성리·덕성리·
신현리·오두리

串內洞 곶내동 (불)고릉리
廣城洞 광성동 (불)덕성리
陵村洞 능촌동 (불)고릉리
德津洞 덕진동 (불)덕성리
仍城洞 잉성동 넙성·넙세이 (불)넙성리

▲ 三海面(삼해면) : 강화군 송해면 당산리·상도리·하도리

堂下洞 당하동 당산 (송)당산리
上道洞 상도동 (송)상도리
下道洞 하도동 (송)하도리

▲ 上道面(상도면) : 강화군 양도면 능내리·도장리·조산리·
하일리

陵內洞 능내동 능안 (양도)능내리
場頭洞 장두동 진강장 (양도)도장리
場下洞 장하동 장아래 (양도)도장리
造山洞 조산동 죄미·알메 (양도)조산리
河逸洞 하일동 하일 (양도)하일리

▲ 西寺面(서사면) : 강화군 양사면 교산리·인화리

橋項洞 교항동 다리목 (양사)교산리
松山洞 송산동 술미 (양사)인화리
仁花洞 인화동 인화석 (양사)인화리
甌山洞 증산동 시리메 (양사)교산리

▲ 仙源面(선원면) : 선원면 금월리·냉정리·선행리·신정리·
연리·지산리·창리

巨末洞 거말동 그머러지 (선)금월리
南山洞 남산동 남산대 (선)지산리
冷井洞 냉정동 찬우물 (선)냉정리
大門洞 대문동 대문이 (선)금월리
馬場洞 마장동 마재이 (불)삼성리
石城洞 석성동 돌성 (불)삼성리
仙行洞 선행동 선행 (선)선행리
神堂洞 신당동 신대이 (선)신정리

信智洞 신지동 (선)지산리
烟洞 연동 냇골 (선)연리
梨井洞 이정동 고식이 (선)창리
倉洞 창동 창골 (선)창리

▲ 松亭面(송정면) : 강화군 송해면 솔정리·송뢰리·신당리

雷串洞 뇌곶동 [우뢰] (송)송뢰리
率亭洞 솔정동 솔정·솔정이 (송)솔정리
崇陵洞 송릉동 송릉물 (송)솔정리
申城洞 신성동 납성개못 (송)신당리
浦村洞 포촌동 (송)송뢰리

▲ 外家面(외가면) : 강화군 하점면 망월리·삼거리

望月洞 망월동 망월 (하)망월리
三巨洞 삼거동 시거리 (하)삼거리

▲ 位良面(위량면) : 강화군 내가면 외포리, 양도면 건평리·
삼흥리·인산리

乾坪洞 건평동 건들 (양도)건평리
外州洞 외주동 박골 (내)외포리
井浦洞 정포동 정포 (내)외포리
存江洞 존강동 존개이 (양도)삼흥리
項州洞 항주동 항골 (양도)인산리
興天洞 흥천동 (양도)삼흥리

▲ 仁政面(인정면) : 강화군 불은면 두운리·삼동암리·삼성리

頭頭尾洞 두두미동 도도미 (불)두운리
西門洞 서문동 서문안·서문뚝 (불)삼성리
花山洞 화산동

▲ 長令面(장령면) : 강화군 강화읍 갑곶리·대산리·옥림리·
용정리·월곶리

甲串洞 갑곶동 갑구지 (강)갑곶리
高城洞 고성동 고승동 (강)월곶리
大廟洞 대묘골 대목골 (강)월곶리
墨寺洞 묵사동 먹절 (강)갑곶리
小山洞 소산동 소산이 (강)대산리
陽陵洞 양릉동 (강)용정리
燕尾洞 연미동 (강)월곶리
玉浦洞 옥포동 옥개 (강)옥림리
龍井洞 용정동 용구물 (강)용정리

長洞	장동	장령	(강)갑곶리
長承洞	장승동	장승말·장승배기	(강)옥림리

▲ **諸島(제도)** : 강화군 삼산면 매음라·미법라·서검라·석모라·석포리, 서도면 아차도라·주문도라·말도리 / 웅진군 북도면 모도라·시도라·신도라·장봉리

堯島	말도	끝섬	(서)말도리
媒音島	매음도		(삼)매음리
旆法島	미법도		(삼)미법리
甫音島	보음도	폴음·불음	(서)불음도리
西檢島	서검도		(삼)서검리
席毛老島	석모로도	돌모로	(삼)석모리
小檢島	소검도		
信島	신도		(북)신도리
阿此島	아차도		(서)아차도리
長峯島	장봉도		(북)장봉리
注文島	주문도		(서)주문도리

▲ **下道面(하도면)** : 강화군 화도면 내라·덕포라·동막라·문산라·사기라·상방라·여차라·장화라·홍왕리

內洞	내동	안골	(화)내리
德浦洞	덕포	덕개	(화)덕포리
東幕洞	동막동	동막	(화)동막리
博山洞	박산동	방미	(화)문산리
沙器洞	사기동	사기·사골	(화)사기리
上坊洞	상방동	상방	(화)상방리
如此洞	여차동	여차골	(화)여차리
長串洞	장곶동	긴곶	(화)장화리
興旺洞	홍왕동		(화)홍왕리

▲ **河陰面(하음면)** : 강화군 송해면 양오리, 하점면 부근라·신봉라·장정리

富近洞	부근동	부근아·부근	(하)부근리
新村洞	신촌동	새말	(하)신봉리
陽五里洞	양오리동	양오리	(송)양오리
長井洞	장정동	긴우물골	(하)자정리

개성(開城)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일러두기** : 현재 모든 지역이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고을의 위치와 범위, 면의 상세 정보에서는 1917년 간행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 1917)을 따랐고, 일본식 이름으로 이루어진 송동면의 町(정)은 수록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도의 지명찾아보기에서 현재 위치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우리말이름은 『조선지리지자료』(1911)의 것만 참조하였다.

▲ **읍치 위치** : 개성군 송도면

▲ **고을 범위** : 개성군 남면(남), 동면(동), 북면(북), 서면(서), 송도면(송), 영남면(영남), 영북면(영북), 청교면(청교), 토성면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甘露寺	감로사		
姜邯贊古墓	강감찬고묘		
江陰津	강음진		
江華	강화		
開城菴	개성암		
敬德宮	경덕궁		
雞峯	계봉		
鵠嶺	곡령	북령	
觀德亭	관덕정		
觀音寺	관음사		
光明洞	광명동		
喬桐	교동		
九兄弟封君堡	구형제봉군대		
國靈寺	국령사		
國師峯	국사봉		
君藏山	군장산		
勸大雲始祖家堡	권대운시조가대		

極落峯	극락봉		扶蘇山	부소산	
金傳王來陣處	김부왕래진처		負兒峯	부아봉	
金綱城	금강성		北聖居 ⁸⁾	성거산	
金山峴	금산현		山臺岩	산대암	
金川郡	금천군		上衙	상아	
羅伏橋	나복교		西門	서문	
羅王所居	나왕소거		西小門	서소문	
落星	낙성		西小門	서소문	
洛河	낙하		成均館	성균관	
南大門	남대문		十川橋 ⁹⁾	십교천	여문에다리
南門	남문		松岳山	송악산	
勞軍橋	노군교	노군다리	秀濃山	수농산	
大德山	대덕산		壽昌宮基	수창궁기	
大屯山	대둔산		崇陽院	송양원	
大興寺	대흥사		勝戰門	승전문	
德積山	덕적산		昇天浦	승천포	
道羅山	도라산	도리마·도라미	安均牧隱古墓	안균목은고묘	
東門	동문		延慶宮	연경궁	
摩尼山	마니산		永安城	영안성	
萬頃臺	만경대		靈通寺	영통사	
萬壽山	만수산		禮成江	예성강	
萬壽亭	만수정		蜈蚣山	오공산	
滿月臺	만월대		五冠山	오관산	
穆淸殿	목청전		梧桐峴	오동현	
無蓮峯	무련봉		午正門	오정문	
文殊峯	문수봉		王太祖陵	왕태조릉	
朴淵	박연		龍仁洞	용인동	
潘南院	반남원		龍泉寺	용천사	
半月城	반월성		雲興寺	운흥사	
白化潭	백화담		圓通寺	원통사	
兵部橋	병부교	병부다리	鷹峯	응봉	매봉재
普賢峯	보현봉		貳衙	이아	
福靈寺	복령사		仁達峯	인달봉	
鳳鳴山	봉명산		臨津	임진	
奉常	봉상		子男山	자남산	

8) 聖居山을 잘못 옮긴 것이다.

9) 十川橋을 잘못 옮긴 것이다.

紫霞洞	자하동	
作帝建古墓	작제건고묘	
將臺	장대	
猪灘	저탄	
錢浦	전포	돈개
貞州海	정주해	
齊陵	제릉	
帝釋山	제석산	
祖江	조강	
中營	중영	
甌峯	증봉	시루봉
進鳳山	진봉산	
昌陵	창릉	
天摩山	천마산	
天壽院	천수원	
青郊驛	청교역	
清凉峯	청량봉	
青石洞	청석동	청석골
忠烈祠	충렬사	
橐駝橋	탁타교	
炭峴門	탄현문	
太安倉	태안창	
太平館	태평관	
巴只洞	파지동	
楓橋	풍교	
豐德	풍덕	
下沙川	하사천	
漢江	한강	
玄化倉	현화창	
洪賢山	홍현산	
花谷院	화곡원	
華藏寺	화장사	
幻寂菴	환적암	
厚陵	후릉	

Ⅰ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개성군 남면 군은라·수우라·신라·옥산라·율웅라·장산라·조제라·창릉라·후석리

軍隱里	군은리	군은니	(남)군은리
修隅里	수우리		(남)수우리
新里	신리		(남)신리
十鷹里	십응리		(남)율응리
禮成江里	예성강리	례성강니	(남)창릉리
玉山里	옥산리		(남)옥산리
栗洞里	율동리	밤골	(남)율응리
照濟里	조제리		(남)조제리
昌陵里	창릉리		(남)창릉리
朽石里	후석리		(남)후석리

▲ **南部(남부)** : 개성군 송도면

郭莊里	곽장리	곽삭골	(송)
九里街里	구리가리	[구리개]	(송)
都助里	도조리		(송)
旆造井里	미조정리		(송)
惠民里	혜민리	혜면사골	(송)

▲ **東面(동면)** : 개성군 동면 고두산라·대조족라·발송라·백전리

高頭山里	고두산리	고두메	(동)고두산리
大鳥足里	대오족리		(동)대조족리
鉢松里	발송리		(동)발송리
白冬音里	백동음리	흰들이미	(동)백전리
籍田里	적전리	즌릉	(동)백전리

▲ **東部(동부)** : 개성군 송도면, 영남면 용흥리

京坊里	경방리		(송)
太廟里	태묘리	태묘골	(영남)용흥리
八字洞	팔자동	바줄네	(송)

▲ **北東面(북동면)** : 영남면 반정라·소릉라·심천리, 영북면 고덕라·길상라·길수라·월고리

古德里	고덕리		(영북)고덕리
吉祥里	길상리		(영북)길상리
吉水里	길수리		(영북)길수리
伴程里	반정리		(영남)반정리
城內里	성내리		

深川里	심천리	(영남)심천리
月古里	월고리	(영북)월고리

▲ 北部(북부) : 개성군 송도면

兩城里	양성리	(송)
禮賓里	예빈리	(송)
六架閣里	육가각리	[육가]각골 (송)
二架閣里	이가각리	[이가]각골 (송)
梨井里	이정리	배무골 (송)
池波里	지파리	지버물 (송)
皮井里	피정리	가जू물 (송)

▲ 北西面(북서면) : 북면 가토미라·식포라·여현라·용현리

加土尾里	가토미리	가토미	(북)가토미리
食峴里	식현리	밥재	(북)식포리
礪峴里	여현리	여현동	(북)여현리
梨浦里	이포리		(북)식포리
者羅洞里	자라동리	자라울	(북)가토미리
鳥足里	조족리		
紙洞里	지동리		

▲ 西面(서면) : 서면 강라·개성라·광정라·연산리

江里	강리	(서)강리
開城里	개성리	(서)개성리
光井里	광정리	(서)광정리
蓮山里	연산리	(서)연산리
弘京里	홍경리	(서)연산리

▲ 西部(서부) : 개성군 송도면, 중서면 관전리

路前里	노전리	(송)
太平館里	태평관리	(송)

▲ 中西面(중서면) : 서면 전포리, 중서면 곡령라·여릉라·연하라·토성리

墨寺洞里	묵사동리	먹저골	(중서)토성리
麗陵里	여릉리		(중서)여릉리
烟霞洞里	연하동리		(중서)연하리
錢浦里	전포리	돈개	(중서)전포리

▲ 靑郊面(청교면) : 개성군 영남면 현화리, 청교면 고남라·광답라·덕암라·배야라·양릉리·유릉리·흑송리

廣川里	광천리	(청)광답리
麻田里	마전리	
墨只洞里	묵지동리	떡이울 (청)흑송리
排也洞里	배야동리	(청)배야리
玄化里	현화리	선해골 (영남)현화리

고 양(高陽)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 1528: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

▲ 고을 범위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덕)-오금동-지축동·효자동 제외, 일산구(일) ※ 파주시 조리읍(조), 서울특별시 은평구(은)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덕)고양동
見達山	견달산	본달산	(덕)문봉동
敬陵	경릉		(덕)용두동
高岑山	고령산		
高峯烽	고봉봉		(덕)서억동
雇塋墓 ¹⁰⁾	고영묘[최영묘]		[(덕)대자동]
孔岩津	공암진		(덕)현천동
恭讓王墓	공양왕묘		(덕)원당동
軍器庫	군기고		(덕)고양동
大慈山	대자산		(덕)대자동
禿山烽	독산봉		
東軒	동헌		(덕)고양동
望客峴	망객현	선바락이	(덕)선유동
明陵	명릉		(덕)용두동

10) 雇塋은 崔塋을 잘못 옮긴 것이다.

文峯書院	문봉서원		(일)문봉동
磚石峴	박석현	박석고개	(은)불광동
碧蹄驛村	벽제역촌		(덕)고양동
碧帝店	벽제점		(덕)벽제동
奉日川	봉일천	공릉내	(조)봉일천리
社稷壇	사직단		(덕)고양동
星羅山	성라산	벼라산	(덕)성사리
城山	성산(덕양산)	[жат]	(덕)행주내동
昭顯墓	소현묘		(덕)원당동
順懷墓	순회묘		(덕)용두동
薪谷津	신곡진	석골나루	(덕)신평동
新院店	신원점	새원점	(덕)원당동
新店	신점		[(은)]
衙	아[사]		(덕)고양동
礪石峴	여석현	숫돌고개	(덕)삼송동
厲祭壇	여제단		[(덕)고양동]
龍淵	용연		(덕)관산리
銀池堤堰	은지제언		
二山府 ¹¹⁾	이산촌	이미	(일)법곶리
翼陵	익릉		(덕)용두동
長岑	장령		(덕)고양동
倉	창		(덕)고양동
昌陵	창릉		(덕)용두동
薨芝山	축지산		
醴浦烽臺	해포봉대	적개[봉대]	(덕)강매동
醴浦浦口	해포포구	적개[포구]	(덕)강매동
鄉校	향교		
惠陰岑	혜음령	혜음고개	(덕)벽제동
孝陵	효릉		(덕)원당동
禧陵	희릉		(덕)원당동

I 면의 상세 정보

▲ 九耳洞面(구이동면·[귀란굴면]) : 고양시 일산구 성석동·식사동

城洞里	성동리	жат	(일)성석동
食寺里	식사리	밥절	(일)식사동

▲ 求知道面(구지도면) : 고양시 덕양구 강매동·내곡동·대장동·신평동·토당동·행신동·행주내동·행주외동·화정동

加羅山里	가라산리	가라피	(덕)행신동
江古山里	강고산리	강고머	(덕)강매동
內城洞里	내성동리	[안]젓골	(덕)행주내동
大壯里	대장리	대장	(덕)대장동
東幸信里	동행신리	행신	(덕)행신동
西幸信里	서행신리	행신	(덕)행신동
外城洞里	외성동리	셋재골	(덕)행주외동
土堂里	토당리	도당·토당	(덕)토당동

▲ 沙里大面(사리대면·사리재면) :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관산동·내유동·대자동·선유동, 일산구 문봉동·사리현동·설문동·지영동 / 파주시 조리읍 죽원리

館山里	관산리		(덕)관산동
奈山里	내산리	멀미	(덕)내유동
大慈里	대자리	대자굴	(덕)대자동
沙里峴里	사리현리	사리재	(일)사리현동
邑內里	읍내리	읍내	(덕)고양동
竹院上牌里	죽원상패리	대굴원	(조)죽원리
竹院下牌里	죽원하패리	대굴원	(조)죽원리

▲ 巳浦面(사포면) :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대화동·법곶동

大化里	대화리	한곶	(일)대화동
法串里	법곶리	법곶	(일)법곶동
法首山里	법수산리	벽시미	(일)가좌동
三山里	삼산리	시피	(일)가좌동
城底里	성저리	성저	(일)대화동

▲ 松山面(송산면) : 고양시 일산구 가좌동·구산동·덕이동

加佐洞里	가좌동리	가제월	(일)가좌동
龜山里	구산리	거북매	(일)구산동
德耳里	덕이리	덕위	(일)덕이동

▲ 元堂面(원당면) : 고양시 덕양구 도내동·성사동·신원동·원당동·원흥동·주교동

道乃洞里	도내동리	뒤내·도내	(덕)도내동
木稀里	목희리	나무드머리	(덕)원흥동
沙斤寺	사근사	사근절이	(덕)성사동

11) 府는 村을 잘못 옮긴 것이다.

新院里	신원리	새원	(덕)신원동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 中面(중면) : 고양시 일산구 마두동·백석동·산황동·일산동·장항동·주엽동·풍동			
島中里	도중리		
白石里	백석리	흰돌	(일)백석동
山黃里	산황리	사내이	(일)산황동
楮田二牌里	저전이패리	닥밭	(일)장항동
楮田一牌里	저전일패리	닥밭	(일)장항동
注葉里	주엽리	주엽	(일)주엽동
楓洞里	풍동리	신굴·신굴	(일)풍동
▲ 下道面(하도면) : 고양시 덕양구 동산동·용두동·덕은동·삼송동·향동·현천동·화전동			
蘭池島里	난지도리		
龍頭里	용두리	용머리	(덕)용두동
淸潭里	청담리		
香洞里	향동리	향골·상골	(덕)향동
花田里	화전리	꽃밭	(덕)화전동

과 천(果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과천시 관문동
- ▲ 고을 범위 : 과천시(과) / 군포시(군)-군포동·금정동·당정동·부곡동·산본동 / 안양시 동안구(동), 만안구(만)-박달동·석수동 제외 / 서울특별시 동작구(동)-노량진동·동작동·본동·사당동 / 서초구(서)-반포동·방배동·서초동·신원동·양재동·우면동·원지동·잠원동
-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수) / 서울특별시 용산구(용) / 강남구(강)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加次山	가차산	가칠목	(동)본동
葛山酒幕	갈산주막	갈미주막	(안동)평촌동
客舍	객사[온온사]		(과)관문동
高寺里	고사리	높은 절이	(동)노량진동
冠岳山	관악산	갓피	(과)중앙동
觀音寺	관음사		(동)사당동
仇火良才驛村	구화양재역촌		(서)양재동
碁島	기도		(동)동작동
南面	남면		
露江書院	노강서원		(동)본동
露梁津	노량진	노들나루	(동)본동
禿村	독촌	민배기	(안동)평촌동
東面	동면		
萬頃臺	만경대		(과)막계동
愍節書院	민절서원		(동)노량진동
佛聖寺	불성사		(안동)비산동
社壇	사단[사직단]		[(과)중앙동]
三田渡	삼전도	삼밭나루	(강)삼전동
上北面	상북면		
上西面	상서면		
城隍壇	성황단		[(과)하동]
水口藪	수구수		[(과)관문동]
修理山	수리산		(군)산본동
水踰峴	수유현	무너미고개	(안만)석수동
僧房坪	승방평	승방뜰	(동)사당동
新院酒幕	신원주막	새원주막	(서)신원동
衙	아사[동헌]		(과)관문동
安養橋	안양교		(안만)석수동
良才石橋	양재석교		(서)양재동
厲壇	여단		[(과)하동]
戀主臺	연주암		(과)중앙동
牛眠山 ¹²⁾	우면산	우마니[산]	(서)우면동
仁德院坪	인덕원평		(안동)관양동

12) 牛眠은 순우리말 이름인 우마니를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이다.

笠帽峯	입모봉		[(서)방배동]
蚕室坪	잠실평		(서)잠원동
走川峴	주천현	달이내고개	(수)금토동
清溪山	청계산		(과)막계동
柵峴	축현	싸리고개	(서)양재동
下北面	하북면		
下西面	하서면		
漢江	한강	한강나루	(용)한남동
鄉校	향교		(과)중앙동
虎溪書院 ¹³⁾	호계서원		(안동)호계동
狐峴 ¹⁴⁾	호현	여우고개	(과)하동

I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군포시 금정동·당동·당정동·부곡동·산본동

衿井里	금정리	금우물	(군)금정동
堂里	당리	당말	(군)당동
堂井里	당정리	당우물	(군)당정동
鳳城里	봉성리	새전이	(군)당정동
富谷里	부곡리	대골·부곡	(군)부곡동
山底里	산저리	산밑	(군)산본동
章干里	장간리	삼승이	(군)부곡동

▲ 東面(동면) : 서초구 서초동·신원동·양재동·우면동 / 과천시 주암동

明達里	명달리	명더리	(서)서초동
盤草里 ¹⁵⁾	반초리	서리풀이	(서)서초동
新院里	신원리	새원	(서)신원동
良才里	양재리		(서)양재동
牛眠里	우면리	우마니	(서)우면동
樽巖里	준암리	줄바위	(과)주암동

▲ 上北面(상북면) : 동작구 동작동·사당동 / 서초구 방배동·반포동·서초동·잠원동

銅雀里	동작리	동재기	(동)동작동
盤浦里	반포리	서릿개	(서)반포동

方背里	방배리		(서)방배동
社堂里	사당리	사당이	(동)사당동
沙坪里	사평리	모래벌	(강)신사동
浦村里	포촌리	갯말	(동)동작동

▲ 上西面(상서면) :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비산동·평촌동

飛山里	비산리	날미	(동)비산동
三峴二里	삼현이리		
三峴一里	삼현일리		

▲ 下北面(하북면) : 동작구 노량진동·본동·흑석동

高寺里	고사리	높은절이	(동)노량진동
露梁里	노량리	노들	(동)본동
上加次山里	상가차산리	[웃]가칠목	(동)본동
瓮幕里	옹막리	독막·점말	(동)노량진동
瓮店里	옹점리	동이점	(동)노량진동
下加次山里	하가차산리	[아랫]가칠목	(동)본동
黑石里	흑석리	검은돌	(동)흑석동

▲ 下西面(하서면) :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 동안구 호계동·평촌동

貴仁二洞	귀인이동	귀인	(동)평촌동
貴仁一洞	귀인일동	귀인	(동)평촌동
道陽里	도양리	덕고개	(동)호계동
安養里	안양리		(만)안양동
虎溪里	호계리	범계	(만)호계동
後頭尾里	후두미리	뒤뜰이	(안만)안양동

▲ 縣內面(현내면) : 과천시 갈현동·과천동·관문동·막계동·문원동·부림동

嘉逸里	가일	가일	(과)갈현동
葛峴里	갈현리	가루개	(과)갈현동
莫溪里	막계리	맑은내·맑내	(과)막계동
文原里	문원리		(과)문원동
邑內里	읍내리	읍내·관문골	(과)관문동

13) 虎溪는 순우리말 이름인 범계를 한자의 뜻+소리의 형태로 표기한 것이다.

14) 남태령을 의미한다.

15) 현재는 盤草를 瑞草로 쓴다.

광주(廣州)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하남시 교산동 → 1626 :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
- ▲ 고을 범위 : 광주시 시내(시), 곤지암읍(곤), 남종면(남)-금사리·삼성리·이석리, 도척면(도), 오폭읍(오), 중부면(중), 퇴촌면(퇴) / 군포시(군)-대야미동·도마교동·둔대동 / 남양주군 와부읍(와)-팔당리, 조안면(조)-시우리 제외 / 서울특별시 강남구(강남), 강동구(강동), 서초구(서)-내곡동·신원동·염곡동, 송파구(송)-신천동·잠실동 제외, 서초구(서)-내곡동·신원동·염곡동 / 성남시 분당구(분)-구미동 제외, 수정구(수)-창곡동 제외, 중원구(성중) / 수원시 권선구(권)-당수동·입북동, 장안구¹⁶⁾-송죽동·정자동·조원동·파장동 / 안산시 상록구(상)-건전동·본오동·사동·이동·일동·팔곡일동 / 의왕시(의) / 하남시(하) / 화성시 매송면(매)¹⁷⁾-송라리·야목리·원리 ※ 남양주시 시내(남시) / 서울특별시 광진구(광), 성동구(성동), 영등포구(영), 용산구(용) / 양평군 양서면(양) / 화성시 비봉면(비)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可逸酒幕	가일주막		
葛山酒幕	갈산주막	갈미주막	(의)내손동
甲士倉古基	갑사창고기		
開元寺	개원사		(중)산성리
客山	객산		(하)교산동
黔丹山	검단산		(하)하산곡동
慶安驛	경안역		(시)경안동
古邑基	고읍기		(하)교산동
昆池菴酒幕	곤지암주막	곤지바위[주막]	(곤)곤지암리
觀魚亭古基	관어정고기		
光教山	광교산		(장)상광교동
廣津	광진	광나루	(광)광장동

廣峴	광현	넉고개	(곤)신촌리
教場臺	교장대		(수)창곡동
旧軍器	구군기		(중)산성리
旧南倉	구남창		(중)산성리
龜岩書院	구암서원		(강동)암사동
龜川君墓	구천군묘		(분)궁내동
龜川面	구천면		
鷗浦橋	구포교	굿개[다리]	(비)구포리
駒興郡墓	구흥군묘		
國淸寺	국청사		(중)산성리
軍月山	군월산	군두레봉	(시)회덕동
極樂山	극락산		[(도)양벌리]
祈雨祭壇	기우제단		
祈雨祭壇	기우제단		(중)산성리
祈雨祭壇	기우제단		(하)하산곡동
吉多其堰	길다기언		
吉祥古墓	길상고묘		
金沙面	금사면[여주]		
樂生面	낙생면		
樂水山	약수산		[(분)]
南壇寺	남단사		(중)산성리
南門	남문		(중)산성리
路積山	노적봉		(중)광지원리
勒峴	늑현	구레개·구러개	(초)늑현리
凌虛亭古基	능허정고기		
堂長島	당장도	당쟁이섬	(하)당정동
大闕	대궐		(중)산성리
大旺面	대왕면		
大河山	대하산	[태화산]	[(도)추곡리]
帶河亭古基	대하정고기		
德陽君墓	덕양군묘		(분)궁내동
德川君墓	덕천군묘		(송)거여동
刀馬峙	도마치	도마치고개	(퇴)도마리
道聖山	도성산		
都尺面	도척면		

16) 1789년 수원으로 이관되었다.

17) 1789년 수원으로 이관되었다.

禿津	독진	미음나루	(하)선동	奉興山	봉흥산		
乞馬面	돌마면		☞	富谷酒幕	부곡주막		(군)부곡동
東林寺	동림사		(중)산성리	浮來島	부래도	부림	(강남)삼성동
東門	동문		(중)산성리	北望臺	북망대		
東部面	동부면		☞	北門	북문		(중)산성리
東陽尉墓 ¹⁸⁾	동양위묘			北門	북문		(중)산성리
東將臺	동장대		(중)산성리	北方面	북방면		☞
東倉	동창		(중)산성리	北將臺	북장대		(중)산성리
馬鳴山	마명산			北倉	북창		(중)산성리
馬峙	마치	말티고개	(도)추곡리	分院	분원	분원·부리개	(남)분원리
馬灘	마탄			碑閣	비각		(강남)삼전동
望月寺	망월사		(중)산성리	沙土里堰	사사리언	사시골[언]	(상)사사동
明阜書院	명고서원		(매)원리	社稷	사직		(중)산성리
明善公主墓	명선공주묘		(수)태평동	三街酒幕	삼거주막	삼거리주막	(분)삼평동
明安公主墓	명안공주묘		(상)사사동	三田渡	삼전도	삼밭나루	(강남)삼전동
明惠公主墓	명혜공주묘		(수)태평동	西部面	서부면		☞
募甲里酒幕	모갑리주막	모개미	(시)목현동	西水頭 ¹⁹⁾	양수두	두물머리	(양)양서면
牧丹山	목단산	모락산	(의)오전동	宣陵	선릉		(강)삼성동
夢村	몽촌	곰말	(송)오륜동	聲串面	성곶면		☞
無甲山	무갑산		(초)무갑리	城君墓	성군면		
舞童島	무동도		(강남)삼성동	城機	성기		(중)산성리
門縣山	문현산[문형산]		(오)신현리	細村面	세촌면		☞
鉢羅山	발라산	바라미	(분)석운동	松洞面	송동면		☞
白連菴	백련암			松林君墓	송림군묘		
白雲菴	백운암			松波津	송파진	송파나루	(송)송파동
白軒墓	백헌묘		(분)석운동	松峴	송현	솔치고개	(중)상변천리
樊川酒幕	번천주막	벌내[주막]	(중)상변천리	水石	수석		(중)검복리
法倫寺	법륜사			守禦屯	수어둔		(수)둔전동
別庫	별고		(중)산성리	守禦屯	수어둔	[둔동]	[(오)양벌리]
別倉	별창		(중)산성리	守禦屯倉	수어둔창		
奉國寺	봉국사		(수)태평동	水鍾峙 ²⁰⁾	수종치[수종사]		(조)송촌리
奉安驛	봉안역		(조)능내리	淑明公主墓	숙명공주묘		
蜂岩	봉암	벌바위	(중)산성리	稼倉	숙창		(중)산성리
奉恩寺	봉은사		(강)역삼동	時踰峙	시유치	새우젓고개	(조)시우리

18) 동양위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묘.

19) 西는 兩을 잘못 옮긴 것이다.

20) 峙는 분리되어 있는 山과 寺를 잘못 합해 옮긴 것이다.

新南倉	신남창		(중)산성리	玉井寺	옥정사		(중)산성리
新院酒幕	신원주막	새원주막	(서)신원동	溫王廟	온왕묘		(중)산성리
新日菴	신일암			瓮城	옹성		(중)산성리
新宗君墓	신종군묘		(분)석운동	瓮城	옹성		(중)산성리
新峙	신치	새오개	(시)목현동	王倫面	왕륜면		☞
實村面	실촌면		☞	外東將臺	외동장대		(중)산성리
雙溪菴	쌍계암			妖希菴 ²¹⁾	요희암		
雙峯	쌍령	쌍령이고개	(시)쌍령동	龍山洞	용산동	용상골	(시)목현동
安興君墓	안흥군묘			龍津	용진		(조)송촌리
暗門	암문		(중)산성리	牛川	우천	소내	(남)우천리
暗門	암문		(중)산성리	元德山	원덕산		
暗門	암문		(중)산성리	月谷面	월곡면		☞
暗門	암문		(중)산성리	維岩	유암		
暗門	암문		(중)산성리	栗木倉	율목창		(수)창곡동
暗門	암문		(중)산성리	陰村酒幕	음촌주막	응달말주막	(성중)탄대동
暗門	암문		(중)산성리	議政府柴場	의정부시장		
罵子山	맹자산		(퇴)우산리	二城山	이성산		(하)춘궁동
楊原君墓	양원군묘		(수)북정동	二砲壘	이포루		(중)산성리
良才驛	양재역		(서)양재동	利峴	이현	이배재·이벻재	(중)상대원동
陽峴	양현	별고개	(분)서현동	鱗峙	인치		
彦州面	언주면		☞	人和館	인화관		(중)산성리
掩峴	엄현	엄고개·은고개	(중)엄미리	一用面	일용면		☞
汝火島	여화도	너벌섬	(영)여의도동	一砲壘	일포루		(중)산성리
練兵館	연병관		(중)산성리	笠北堰	입북언	갓뒤·갓디[언]	(권)입북동
連珠峯	연주봉		(중)산성리	長慶寺	장경사		(중)산성리
蓮池	연지			楮子島	저자도		(강)삼성동
蓮河堰	연하언			折丈菴	절장암		
廉峙	염치	염치고개·영치고개	(퇴)영동리	靖陵	정릉		(강)삼성동
營庫	영고		(중)산성리	淨山光 ²²⁾	정산광		(도)상림리
營倉	영창		(중)산성리	鐘閣	종각		(중)산성리
永昌大君墓	영창대군묘		[(수)]	左殿	좌전		(중)산성리
禮嬪山	예빈산[예봉산]		(와)팔당리	中臺面	중대면		☞
五峯山	오봉산		(의)고천동	池頭里堰	지두리언		
五浦面	오포면		☞	池水堂	지수당		(중)산성리
玉山太嬪墓	옥산대빈묘			眞休亭古基	진목정고기		

21) 妖는 妙를 잘못 옮긴 것이다.

22) 淨光山을 잘못 옮긴 것이다.

車躑峙	차유치	수레너미고개	(와)월문리
倉隅	창우	창모루	(하)창우동
天臨山烽臺	천림산봉대		(수)금토동
天主寺	천주사		(중)산성리
天直菴 ²³⁾	천직암[천진암]		(퇴)우산리
清溪山	청계산		(수)상적동
靑龍山	청룡산		[(분)]
靑恩府院君墓	청은부원군묘		
靑平尉墓	청평위묘		
草阜面	초부면	草	
草月面	초월면	草	
椒泉	초천	호추우물·찬우물	(송)둔촌동
楸灘	추탄	가래여울·가려울	(강동)강일동
楸峴	추현	가래울고개	(오)추자리
鷲岩	취암		
七寺峯	칠사봉		(중)하번천리
七星菴	칠성암		
胎峯	태봉		(시)태전동
退村面	퇴촌면	退	
破城基地	파성기지		(중)산성리
八堂里	팔당리	바당이·바탕이	(와)팔당리
八仙亭古基	팔선정고기		
平丘驛	평구역		(남시)삼패동
豐德驛	풍덕역		(하)덕풍동
豐山君墓	풍산군묘		(분)하산운동
風峙	풍치		
漢江	한강	한강나루	(용)한남동
漢峯	한봉		(중)산성리
涵碧亭古基	함벽정고기		
蛤浦	합포		
海昌尉墓	해창위묘		(상)사사동
鄉校	향교		(하)교산동
獻陵	헌릉		(서)내곡동
險川	험천	머흐내·머내	(분)동원동
顯節祠	현절사		(중)산성리

禾里堰	화리언		
訓練倉	훈련창		
鵞岩	휴암	부영바위	[(하)상산곡동]

I 면의 상세 정보

▲ 慶安面(경안면) : 광주시 경안동·목현동·삼동·송정동·쌍령리·역동·장지동·중대동·직동·탄벌동·태전동·회덕동

茅田里	모전리	떡야골	(시)태전동
蜜目里	밀목리	밀목	(시)송정리
三里	삼리		(시)삼동
上一里	상일리		
雙嶺里	쌍령리	쌍령	(시)쌍령동
驛洞	역동	역말	(시)역동
前枝里	전지리	앞가지	(시)장지동
酒幕里	주막리	술막앞	(시)목현동
中里	중리	중말	(시)중대동
直洞里	직동리	곧은골	(시)직동
下一里	하일리		

▲ 龜川面(구천면) :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고덕동·길동·둔촌동·명일동·상일동·성내동·암사동·천호동·풍납동

曲橋洞	곡교동	곱은다리	(강동)천호동
其里洞	기리동	기리울	(강동)길동
內古多只洞	내고다지동	고더기	(강동)고덕동
遁村洞	둔촌동	둔굴	(강동)둔촌동
明逸院洞	명일원동	명일원·원텃골	(강동)명일동
城內洞	성내동	성안말	(강동)성내동
巖寺洞	암사동	바위절	(강동)암사동
一洞	일동		(강동)강일동·상일동

▲ 樂生面(낙생면) :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금곡동·대장동·동원동·백현동·삼평동·석운동·운중동·판교동·하산운동

四里	사리		
三里	삼리		
五里	오리		
一里	일리		
二里	이리		

23) 直은 眞을 잘못 옮긴 것이다.

▲ **大旺面(대왕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세곡동·수서동·율현동·일원동·지곡동,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금토동·둔전동·사송동·상적동·시흥동·신촌동·심곡동·오야동

高山洞	고산동	고산굴·새술막	(수)고등동
路上洞	노상동	의골·옛골	(수)상적동
路下洞	노하동		(수)상적동
大屯里	대둔리	둔전말	(수)둔전동
遁退里	둔퇴리	두리에골	(수)금토동
登自里	등자리	등자동	(수)고등동
沙村里	사촌리		(수)사송동
細川洞	세천동	жат내	(수)신촌동
松峴里	송현리	솔고개	(수)사송동
水西里	수서리	궁말	(강남)수서동
新谷	신곡	새말	(수)신촌동
梧野谷	오야곡	와실·왜실	(수)오야동
栗峴洞	율현동	밤고개	(수)율현동
隱谷里	은곡리	막은골	(강남)세곡동
逸院	일원	일원·일언	(강남)일원동
紫陽洞	자양동	쟁골	(강남)지곡동
池谷洞	지곡동	못골	(강남)자곡동
下山洞	하산동		

▲ **都尺面(도척면·되재면)** : 광주시 도척면 궁평리·노곡리·도웅리·방도리·상림리·유정리·진우리·추곡리

四里	사리
三里	삼리
五里	오리
二里	이리
一里	일이

▲ **突馬面(돌마면)** : 성남시 중원구 갈현동·도촌동·여수동·하대원동, 분당구 분당동·서현동·야탑동·율동·이매동·정자동

上洞	상동
下洞	하동

▲ **東部面(동부면)** : 하남시 교산동·당정동·덕풍동·망월동·미사동·배알미동·상사창리·상산곡동·선동·신장동·창우동·천현동·

풍산동·하사창리·하산곡동 /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

德峯里	덕봉리	덕풍굴·역말	(하)덕풍동
屯池洞	둔지동	둔지	(하)선동
司倉里	사창리		(하)상사창동
山谷里	산곡리	산골	(하)하산곡동
八堂里	팔당리	바당이·바댕이	(와)팔당리
荒山里	황산리	거칠미	(하)풍산동

▲ **北方面(북방면)** : 군포시 대야미동·둔대동·속달동, 안산시 상록구 건전동·팔곡이동·팔곡일동

乾乾里	건건리	건지미·건건이	(상)건전동
大夜味里	대야미리	한배미	(군)대야미리
道馬橋	도마교	도마다리	(군)도마교동
屯垔里	둔대리	둔터	(군)둔대동
速達里	속달리	속달	(군)속달동
柳谷里	유곡리	버들	(군)도마교동
八谷里	팔곡리	여덜미	(상)팔곡이동

▲ **西部面(서부면)** : 하남시 감북동·감이동·감일동·광암동·초이동·초일동·춘궁동·학암동·향동 /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甘泉洞	감천동	가무나리	(하)감북동
冬音巖里	동음암리		
草德里	초덕리	초덕골	(하)초이동
春長里	춘장리	춘장	(하)춘궁동
項洞	향동	목골	(하)향동
鄉校洞	향교동	향곶골	(하)춘궁동

▲ **聲串面(성곶면)** :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사동·이동·일동

四里	사리	(상)사동
三里	삼리	(상)사동
五里	오리	
一里	일리	(상)일동
二里	이리	(상)이동

▲ **城內南洞內²⁴⁾(성내남동내)** : 김북라·광지원라·불당라·산성라·상산곡라·엄미라·오전리

▲ **城內北洞內²⁵⁾(성내북동내)**

24) 성내남동과 성내북동이 합해 군내면이 되었다.

25) 성내남동을 참조하라.

▲ 細村面(세촌면) : 성남시 수정구 복정동·수진동·신흥동·탄동·태평동, 중원구 단대동·상대원동·성남동·은행동·중동

丹臺洞	단대동	단대골·던데	(성중)단대동
大院洞	대원동		(성중)상대원동
福井洞	복정동	복우물	(수)복정동
炭洞	탄동	숯골	(수)탄동

▲ 實村面(실촌면) : 광주시 곤지암읍 건업리·곤지암리·만선리·봉현리·부항리·삼리·삼합리·수양리·신대리·신촌리·연곡리·열미리·유사리·이선리·장십리

三里	삼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 彦州面(언주면) : 강남구 개포동·논현동·대차동·도곡동·삼성동·신사동·신원동·압구정동·역삼동, 서초구 내곡동·염곡동·청담동·포이동

論古介	논고개	논고개	(강남)논현동
舞童島	무동도		(강남)삼성동
盤谷洞	반곡동	한여울	(강남)개포동
方下橋	방하교	방아다리	(강남)역삼동
扶老島	부로도[부리도]	부림	(강남)삼성동
新院	신원	새원	(강남)신원동
鴨鳩亭	압구정		(강남)압구정
良才里	양재리		(강남)역삼동
驛村	역촌	역말·말죽거리	(강남)역삼동
楮子島	저자도		(강남)역삼동
淸潭	청담	청숫골·숫골	(강남)청담동
浦前里	포전리	[갯들]	(강남)포이동

▲ 五浦面(오포면) : 광주시 목동, 오포읍 고산리·능평리·매산리·문형리·신현리·양벌리·추자리

官屯里	관둔리		[(오)양벌리]
上三里	상삼리		
上二里	상이리		
上一里	상일리		
水洞里	수동리		
守屯里	수둔리		
中洞	중동		
泰尺里	태척리	태재	(오)신현리

▲ 王倫面(왕륜면) : 의왕시 고척동·삼동·오전동·왕곡동·이동

三里	삼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 月谷面(월곡면) :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입북동, 안산시 상록구 사사동, 의왕시 월암동·초평동

大岱洞	대대동		(의)월암동
沙土里	사사리	사시골·사사골	(상)사사동
嘗樹里	상수리	당나무개·당수개	(권)당수동
上草坪	상초평	윗새우대	(의)초평동
五龍洞	오룡동	오룡골	(권)당수동
二里	이리		
一里	일리		(의)월암동
笠北洞	입북동	갯뒤·갯디	(권)입북동
下草坪	하초평	아랫새우대	(의)초평동

▲ 義谷面(의곡면·의일면) : 의왕시 내손동·청계동·포일동·학의동

葛山里	갈산리	갈파·갈미	(의)내손동
蓀洞	손동	손골	(의)내손동
於逸里	어일리	의일	(의)학의동
淸溪洞	청계동	청계골	(의)청계동
浦隅里	포우리	별모루	(의)포일동
鶴峴	학현	학고개	(의)학의동

▲ 中臺面(중대면) :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거여동·마천동·문정동·방이동·삼전동·석촌동·오금동

可樂洞	가락동	가락골	(송)가락동
巨余未洞	거여미동	김이·괌리	(송)거여동
文井洞	문정동	문정골	(송)문정동
三田渡	삼전도	삼밭나루	(송)삼전동
松坡洞	송파동		(송)송파동
梧琴里	오금리	오금골	(송)오금동
長旨里	장지리	잔버드리	(송)장지동
中臺二洞	중대이동		(송)방이동

▲ 草月面(초월면) : 광주시 중부면 상변천동·하변천동, 초월읍 늑현리·대쌍령리·도평리·무갑리·산이라·서하리·선동리·신월리·쌍동리·용수리·지월리·학동리, 퇴촌면 무수리·원당리

上洞	상동
中洞	중동
下洞	하동

▲ **退村面(퇴촌면)** : 광주시 남종면 금사라·삼성리, 퇴촌면 곤음리·광동리·도마리·도수리·영동리·오리·우산리·정지리

水東里	수동리	참샘·참새미	(퇴)도수리
嶺東里	영동리	염치고개·영치고개	(퇴)영동리
牛山洞	우산동	소미	(퇴)우산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東面	동면		
東門	동문		(교)읍내리
東場浦里	동장포리	동장골	(교)동산리
東津頭	동진두	동진나루터	(교)읍내리
砵串里	말곶리	끝고지	(교)봉소리
砵灘里	말탄리	말탄개·물탄개	(교)서한리
無時山里	무시산리	무서산	(교)무학리
無時浦	무시포	[무서개]	(교)무학리
門	[북]문		(교)읍내리
犯於里浦	범어리포	버버릿개	(교)봉소리
烽	봉[화개산]		(교)읍내리
烽臺	봉대[수정산]		(교)난정리
府	부[동헌]		(교)읍내리
扶蘇浦	부소포	부시밋개	(교)양갑리
北甲里	북갑리	골안말·골안말	(교)읍내리
北面	북면		

교 동(喬桐)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 → 1633 : 교동면 읍내리
- ▲ 고을 범위 : 강화군 교동면(교), 삼산면(삼)-상리·하리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古邑里	고읍리	고읍·고릅말·곰말	(교)고구리
軍器庫	군기고		(교)읍내리
飯山里	귀산리	구산이	(교)고구리
禁山 ²⁶⁾	금산		(삼)상리
亂串里	난곶리	난구지	(교)난정리
南甲里	남갑리	곰말·곤말·골말	(교)양갑리
南面	남면		
南門	남문		(교)읍내리
大馬載山	대마재산	[큰]매수리	(교)봉소리
代雅村	대아촌	대촌	(교)대룡리
禿旨里	독지리	무지나·민마루	(교)삼선리
芑串里	돌곶리	돌곶	(교)지석리

北津頭	북진두	북진나루터	(교)인사리
北津浦	북진포	북진개]	(교)인사리
非士乙串	비사을곶	비살고지	(교)삼선리
鼻石	비석	[버머릿개]	(교)봉소리
賓長浦	빈장포	빈장개	(교)양갑리
上坊里	상방리	상방·장방	(교)상룡리
上縣里	상현리		[(교)고구리]
西面	서면		
西場浦里	서장		(교)서한리
缸倉	선창	대면선소	(교)읍내리
小梁浦	소량포		[(교)고구리]
小馬載山	소마재산	작은매수리	(교)봉소리
松家島	송가도		(삼)상리·하리
修井山	수정산		(교)난정리
龍井里	용정리	미르물	(교)상룡리
院隅	원우		[(교)봉소리]
陸物庫	육물고		(교)읍내리
栗島	율도		
鷹岩	응암	매바위	(교)읍내리
仁峴里	인현리	민재	(교)인사리

26) 전선의 선재(船材)를 조달하기 위해 국가가 민간의 별목을 금지하던 산을 가리킨다.

鎮望山	진망산[남산]	(교)읍내리
下縣里	하현리	[(교)고구리]
鄉校	향교	(교)읍내리
華岩寺	화암사	(교)읍내리
還城里	환성리	[(교)삼산리]

Ⅰ 면의 상세 정보

- ▲ **南面(남면)** : 강화군 교동면 대룡리·읍내리·상룡리, 삼산면 상라·하리

大雅村里	대아촌리	대아촌·대촌	(교)대룡리
松家島里	송가도리		(삼)상리·하리
龍井里	용정리	미르물	(교)상룡리
邑內里	읍내리	읍내	(교)읍내리

- ▲ **東面(동면)** :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봉소리·상룡리

古邑里	고읍리	고읍·곰벌	(교)고구리
龜山里	구산리	구산이	(교)고구리
砵串里	말곶리	끝고지	(교)봉소리
上坊里	상방리		(교)상룡리
下縣里			[(교)고구리]

- ▲ **北面(북면)** : 강화군 교동면 무학리·삼선리·인사리·지석리

巾之巖里	건지산리	수건바위	(교)지석리
禿旨里	독지리	무지니	(교)삼선리
乞串里	돌곶리	돌곶	(교)지석리
無時山里	무시산리	무서산	(교)무학리
斐串里	비곶리	비살고지	(교)인사리
仁峴里	인현리	민재	(교)인사리

- ▲ **西面(서면)** : 강화군 교동면 난정리·동산리·서한리·양갑리

蘭串里	난곶리	난구니	(교)난정리
南甲里	남갑리	곰말·남갑	(교)양갑리
東場里	동장리	동장골	(교)동산리
頭山里	두산리	모르메	(교)동산리
末灘里	말탄리	말탄개	(교)서한리
北甲里	북갑리	콜안말·북갑	(교)양갑리
西場里	서장리	서장	(교)서한리

27) 옛 금촌읍 지역이다.

28) 境은 峴을 잘못 옮겨 쓴 것이다.

교 하(交河)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 → 1731 : 파주시 금릉동 쇠재(金城) → 교하읍 교하리
- ▲ **고을 범위** : 파주시 시내(시)²⁷⁾, 교하읍(교), 탄현면(탄), 조리읍(조)·등원리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탄)갈현리
黔丹山	검단산[송리산]		(탄)범흥리
高山川	고산천	고산내	(시)금릉동
官舍	관사[동헌]		(탄)갈현리
金尺浦津	금척포진	쇠재나루	(시)금릉동
洛河津	낙하진	낙하나루	(탄)낙하리
烽臺	봉대		
社壇	사단		[(탄)갈현리]
司倉	사창		(탄)갈현리
石串面	석곶면	돌고지[면]	²⁸⁾
雪邁境 ²⁸⁾	설매현	설마치고개	(시)검산동
新谷書院	신곡서원		(시)금릉동
新五里面	신오리면		²⁸⁾
深岳山	심악산·심학산		(시)교하읍
衙洞面	아동면	앗골·관앗골[면]	²⁸⁾
烏頭山城	오도산성		(탄)성동리
瓦洞面	와동면	지새울·왜골[면]	²⁸⁾
倭陣峴	왜진현		[(탄)]
月龍山	월룡산[다랑산]		(시)야동동
尹本房山所	윤본방산소		
長串津	장곶진	진구지나루	(탄)갈현리
長命山	장명산		(교)당하리
掌苑署栗園	장원서울원		[(교)서패리]

前浦津	전포진	[(탄)갈현리]
鳥頭牙峯	조두아봉	
主峯山	주봉산	[(탄)갈현리]
支石面	지석면	관돌·고인돌[면] ㉮
靑岩面	청암면	㉮
炭浦面	탄포면	쑥개[면] ㉮
胎峯	태봉	(탄)축현리
漢麓山	한록산	(탄)금산리
鄉校	향교	(탄)갈현리
兄弟山	형제산	
蟹巖	해암	[개바위]
朽栗浦津	후율포진	썩은바미[나루] (교)하지석리

I 면의 상세 정보

- ▲ 石串面(석곶면·돌고지면) : 파주시 교하읍 동패리·문발라·산남리·서패리

東牌里	동패리	동패	(교)동패리
山南里	산남리	산남	(교)산남리
西牌里	서패리	서패·돌고지	(교)서패리

- ▲ 新五里面(신오리면) : 파주시 탄현면 금산라·대동라·만우리·성동리

大洞里	대동리	큰골	(탄)대동리
萬隅里	만우리	만모통이	(탄)만우리
城東里 ²⁹⁾	성동리	жат골	(탄)성동리

- ▲ 衙洞面(아동면·앗골면) : 파주시 금릉동·금촌동·아동동·야동동, 조리읍 등원리

金城里 ³⁰⁾	금성리	쇠재·쇠자	(시)금릉동
衙洞里	아동리	관앗골·앗골	(시)아동동
冶洞里	야동리	풀못골	(시)야동동

- ▲ 瓦洞里(왜등면·지새울면) : 파주시 교하읍 당하리·목동라·야당라·와동리

堂下里	당하리	당아래	(교)당하리
木洞里	목동리	나물	(교)목동리
野塘里	야당리	들모시·틀모시	(교)야당리

瓦洞里 와동리 기새울·왜골 (교)와동리

- ▲ 支石面(지석면·관돌면) : 파주시 교하읍 교하리·상지석라·하지석리

邑內里	읍내리	읍내	(교)교하리
松下里	송하리	솔아래	(교)상지석리
折栗里	절율리	썩은바미	(교)하지석리

- ▲ 靑巖面(청암면) : 파주시 교하읍 다율라·송촌라·신촌라·연다산라·오도리

多栗里	다율리	한바미	(교)다율리
松村里	송촌리	소라지	(교)송촌리
新村里	신촌리	새말	(교)신촌리
烟多山里	연다산리	연달매·연다매	(교)연다산리
五道里	오두리	오두말	(교)오도리

- ▲ 炭浦面(탄포면·숫개면) : 파주시 탄현면 금승리·낙하리·문지라·오금리·축현리

金蠅里	금승리	쇠파니	(탄)금승리
吾金里	오금리	오그미	(탄)오금리
柎峴里	축현리	싸리고개	(탄)축현리

- ▲ 縣內面(현내면) : 파주시 김산동·맥금동, 탄현면 갈현라·범흥리

葛峴里	갈현리	가루개	(탄)갈현리
檢山里	검산리	검산	(시)검산동
麥今里	맥금리	맥그미	(시)맥금동
法興里	범흥리	범흥	(탄)범흥리

29) 東은 洞을 잘못 옮긴 것이다.

30) 金城은 金尺이라 쓰기도 한다.

금 천(衿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 ▲ 고을 범위 : 서울특별시 금천구(금), 관악구(관), 영등포구(영)-양화동-여의도동 제외, 동작구(동)-대방동-상도동-신대방동 / 경기도 광명시(광), 안양시 만안구(만)-박달동-석수동 ※ 시흥시(시)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黔之山	검지산		(금)시흥동
孤山	고산		[(광)하안동]
古城基	고성기[호암산성]		(금)시흥동
飯龍山	귀룡산[운산]	구름산	(광)노온사동
歧灘橋	기탄교		[(금)시흥동]
南紫霞洞	남자하동	[자하동]	(만)석수동
道德山	도덕산		(광)광명동
愍懷墓	민회묘		(광)노온사동
方下串津	방하곶진	방학고자뱌고지	(영)신길동
北紫霞洞	북자하동	자하동	(관)신림동
社堂峴	사당현	사당이고개	(동)상도동
獅子峯	사자봉		(동)상도동
三幕寺	삼막사		(만)석수동
三聖山	삼성산		(만)석수동
仙遊峯	선유봉[굉이산]		(영)양평동
小枝灘橋 ³¹⁾	소기탄교		[(금)시흥동]
水踰山 ³²⁾		문너머산	(만)석수동
安養橋	안양교		(만)석수동
楊花津	양화진	양화나루	(영)양평동
梧里峴	오리현	도리재	(시)금이동

邑內	읍내		(금)시흥동
長湍峴	장생현	장승배기고개	(동)상도동
蚕頭	잠두	[누어머리]	[(금)시흥동]
鐵串浦旧橋	철곶포구교	처로지[다리]	(영)양화동
漢井 ³³⁾	한정	한우물	(금)시흥동
漢雄峴	한치현	한치고개	(광)하안동
鄉校	향교		(금)시흥동
香爐峯	향로봉		(만)석수동

Ⅰ 면의 상세 정보

- ▲ 南面(남면) : 광명시 가학동-광명동-노온사동

光明里	광명리	광명골	(광)광명동
廣火大里	광화대리	너부대	(광)광명동
老溫寺里	노온사리	노온절	(광)노온사동
阿方里	아방리	아왕이	(광)노온사동
柳等里	유등리		(광)가학동
- ▲ 東面(동면) : 동작구 상도동 / 구로구 가리봉동-독산동 / 관악구 봉천동-신림동

加里山里	가리산리		(구)가리봉동
蘭谷里	난곡리	낙굴	(관)신림동
禿山里	독산리		(금)독산동
文橋里	문교리		(금)독산동
奉天里	봉천리		(관)봉천동
上桃里	상도리		(동)상도동
書院里	서원리	서원말	(관)신림동
成桃花里	성도화리		[(동)상도동]
新林里	신림리		(관)신림동
場內里	장내리		
- ▲ 上北面(상북면) : 영등포구 구로동-당산동-문래동-도림동-양평동

間浦里	간포리		
九老里	구로리	구루지	(구)구로동
堂山里	당산리	당산당쟁	(영)당산동

31) 枝는 歧를 잘못 옮긴 것이다.

32) 동일 지도 계통에 순우리말 이름인 문너미고개의 한자 표기인 水踰嶺으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는데, 水踰山이 『조선지리지』에 문너머산이라고 나와 그대로 따랐다.

33) 호암산성에 있는 우물을 말한다.

道也味里	도야미리	도림이	(영)도림동
沙村里	사촌리	모래말	(영)도림동
仙遊里	선유리		(영)당산동
楊坪里	양평리		(영)양평동
遠之牧里	원지목리	원지목	(구)신도림동

▲ **西面(서면)** : 광명시 소하동·일직동·철산동·하안동 /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加里大里	가리대리	가리대	(광)소하동
博達里	박달리	박달리	(만)박달동
巳省里	사성리	뱀수	(광)철산동
所下里	소하리	서러리	(광)소하동
鞍峴里	안현리	길마재	(광)하안동
栗日里	율일리	밤일	(광)하안동
一直里	일직리	일직	(광)일직동
自警里	자경리	자경리	(광)일직동
鐵山里	철산리	쇠머리	(광)철산동

▲ **下北面(하북면)** : 영등포구 대림동·신길동·영등포동 / 동작구 신대방동·대방동

放下串里	방하곶리	방학고지·밤고지	(영)신길동
番大坊里	번대방리	번대방	(동)대방동
新高寺里	신고사리	높은절이	(동)노량진동
新吉里	신길리		(영)신길동
永登浦里	영등포리		(영)영등포동
牛臥皮里	우와피리		

▲ **縣內面(현내면)** : 금천구 시흥동 /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

博山里	박산리	박미	(금)시흥동
安養里	안양리		(만)석수동
邑內里	읍내리	읍내	(금)시흥동

김포(金浦)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김포시 풍무동 장릉 지역 → 1627 : 김포시 북변동

▲ **고을 범위** : 김포시 시내(시), 고촌읍(고) / 인천광역시 서구(서)-금곡동-대곡동-당하동-마전동-불로동-오류동-왕길동-원당동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歌絃山	가현산		(서)금곡동
甘岩	감암	감바위	(시)운양동
傑浦里	걸포리	걸개	(시)걸포동
高亂台面	고란대면	고란터[면]	☞
古縣內面	고현내면		☞
過逸樓	과일루		
龜伏亭	구복정		[(시)운양동]
郡內面	군내면		☞
衿丹面	금단면[검단면]		☞
羅津橋	나진교		(시)감정동
冷井山烽	냉정산봉	찬우물산봉수	(시)북변동
芦長面	노장면		☞
獨島	독도	오염	(시)걸포동
斗里峴	두리현	[말 피고개]	[(서)대곡동]
馬山面	마산면	말피[면]	☞
萬壽山	만수산		(서)불로동
望海寺	망해사		(서)금곡동
朴抹島	박말도[백마도]		[(고)전호리]
白石山烽臺	백석산봉대 ³⁴⁾		(서)오류동
奉陵寺	봉릉사		(시)풍무동
鳳凰山	봉황산	부왕산	(고)신곡리
社壇	사단[사직단]		(시)북변동

34) 白石은 순우리말 이름인 흰바위에 대해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

象頭山	상두산		(서)금곡동
石閑面	석한면	돌한면	☞
薪谷	신곡	섣골	(고)신곡리
衙	아[동헌]		(시)북변동
夜彌山	야미산		[(시)풍무동]
詠詞亭	영가정[영사정]		(고)신곡리
五官亭	오관정		
牛渚書院	우저서원 ³⁵⁾		(시)감정동
雲陽山	운양산[운유산]		(시)운양동
栗島	율도	밤섬	(서)오류동
林村面	임촌면		☞
折斤橋	절근교	깍은다리	(고)풍곡리
濟津渡	제진도	제진[나루]	(고)전호리
樽山里	준산리	줄미	(고)태리
天登橋	천등교	천등다리	(고)신곡리
天登峴	천등현	천등고개	(고)신곡리
忠簡公墓	충간공묘[윤계묘]		(고)신곡리
胎峯	태봉		(서)대곡동
豐山君山所	풍산군산소		(시)운양동
鄉校	향교		(시)북변동
鄉校旧基	향교구기	고새깃말	(시)걸포동
杏山	향산	상미·향미	(고)향산리
狐峴	호현	여우재	(시)감정동

I 면의 상세 정보

▲ **黔丹面(검단면)**³⁶⁾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마전동·오류동·왕길리

高蓋里	고잔리	고잔이	
金谷里	금곡리	섣골	(서)금곡동
麻田里	마전리	삼바지	(서)마전동
束沙串里	속사곶리	속새우지	(서)왕길동
新里	신리	새말	(서)금곡동
安東浦里	안동포리	안동개	(서)왕길동
如來里	여래리	여래·여리	(서)마전동
王吉里	왕길리	왕길·외리	(서)왕길동

佐洞里 자동리 자굴 (서)금곡동
▲ **高蘭笏面(고란태면·고란터면)** : 김포군 고촌읍 태라·풍곡리·향산리

薪洞里	신동리	섣골	(고)풍곡리
樽山里	준산리	줄미	(고)태리
台里	태리	고란터	(고)태리
楓谷里	풍곡리	풍굴	(고)풍곡리
杏山里	향산리	향미·상미	(고)향산리

▲ **古縣內面(고현내면)** : 김포시 사우리·풍무동

堂谷里	당곡리	당골	(시)풍무동
東邊里	동변리	동끝	(시)사우동
沙隅里	사우리	새모랭이	(시)사우동
新里	신리	신촌	(시)사우동
秩五乙里	질오을리		
風舞洞里	풍무동리	풀무골	(시)풍무동

▲ **郡內面(군내면)** : 김포시 감정동·걸포동·북변동

坎井里	감정리	구두물	(시)감정동
傑浦里	걸포리	걸개	(시)걸포동
內草坪里	내초평리		
東邊里	동변리	동넉말	(시)북변동
北邊里	북변리	북넉말	(시)북변동
西邊里	서변리	서넉말	(시)북변동
瓮子井里	웅자정리	웅주물	(시)감정동

▲ **蘆長面(노장면)**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원당리

高山後里	고산후리	고산뒤	(서)원당동
陵洞里	능동리	능골	(서)원당동
堂下里	당하리	새텃말	(서)당하동
麻田里	마전리		
元堂里	원당리	원데아·원당	(서)원당동

▲ **馬山面(마산면·말외면)** :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불로동

大谷里	대곡리	한골·황굴	(서)대곡동
木枝里	목지리	나뭇가지	(서)불로동
不老里	불로리	불로	(서)불로동
鋤院里	서원리	설원이	(서)대곡동

35) 牛渚는 순우리말 이름인 쇠재에 대해 한자의 뜻과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이다.

36)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에 있는 검당개에서 유래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확실하지는 않다.

▲ 石閑面(석한면·돌한면) : 김포시 운양동·장기동			
高昌里	고창리	고창미	(시)장기동
雲陽里	운양리	운양굴	(시)운양동
雲遊下里	운양하리	운양아래	(시)장기동
場基里	장기리	장터	(시)장기동
泉峴里	천현리	샘재	(시)운양동
靑水洞里	청수동리	청숫굴	(시)운양동

▲ 林村面(임촌면) :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전호리			
薪谷里	신곡리	섞굴	(고)신곡리
濟津里	제진리	제진섬	(고)전호리
坪里	평리	벌말	(고)전호리
禾基里	화기리	수터	(고)신곡리

羔峙	고치	염치고개	(시)북양동
貢稅倉	공세창		(인)공세리
旧永宗	구영종[진]		(서)용두리
鳩浦	구포	굿개	(비)구포리
屈業山	굴업산		
屈峙	굴치	굴고개	(송)육일리
金山	금산		(팔)창곡리
金峙	금치		[(팔)창곡리]
蘭芝島	난지도		(석)난지도리
南山	남산		(서)상안리
堂山	당산	당미	(송)용포리
大部島	대부도		(단)대부동
大伊作	대이작	큰이작	(자)이작리
德積島	덕적도		(덕)
東門	동문		

屯地串面	둔지곶면		☞
尔37)道面	마도면		☞
旆知串面	머지곶면		☞
鳴川倉	명천창	울내창	(성)명천리
茂利島	무리도[무의도]	무리	(중)무의동
文岐峴	문파현	글판이고개	(시)남양동
文峽	문협	문갑섬	(덕)문갑리
烽	봉수		(송)독지리
逢仙臺	봉선대		(시)신외동
分古面	분고면[분향면]		☞
分川峙	분천치	분천[고개]	(봉)분천리
佛島	불도[탄도]	숫모로	(단)선재동
飛鳳山	비봉산		(시)북양동
三峯山	삼봉산		(비)쌍학리
西近嶺	서근진	석은이진	(소)소근리
西如堤面	서여제면		☞
仙監島	선감도	선감[선암]	(단)선재동
細串面	세곶면		☞
小伊作	소이작	작은이작	(자)이작리
松山面	송산면		☞
水山	수산	물미	(송)삼존리
水山面	수산면	물미[면]	☞

남 양(南陽)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화성시 남양동(옛 남양면 남양리)
- ▲ 고을 범위 : 경기도 화성시 시내(시)-신외동-장전동-수화동 제외, 마도면(마), 서신면(서), 송산면(송), 비봉면(비)-유포리-삼화리 제외, 봉담읍(봉)-상기리, 향남읍(향)-구문천라-상신라하길리 / 안산시 단원구(단)-남동대부동-동동-북동-선감동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영), 자월면(자)
- ※ 화성시 매송면(매), 우정읍(우), 팔탄면(팔) / 시흥시(시) / 인천광역시 중구(중) / 옹진군 덕적면(덕) / 충청남도 당진군 석문면(석) / 서산시 성연면(성) / 아산시 영인면(영), 인주면(인) / 태안군 근흥면(근), 소원면(소)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建達山	건달산		(봉)상기리
乾每島[水原]	결매도[수원]	결매	(영)결매리
鷄花島	계화도		
古祝山	고축산[고초봉]		(시)남양동

37) 尔는 尔를 잘못 옮긴 것이다.

昇荒	승황	신허	(자)승봉리
矢串	시곶	살고지	(서)송교리
新里面	신리면		
双阜[水]	쌍부[수원]		[(우)조암리]
双水里面	쌍수리면		
衙	아[동헌]		(시)남양동
安興鎮	안흥진		(근)정죽리
永宗鎮	영종진		(중)중산동
迎興島	영흥도		(영)
臥龍山	와룡산		[(송)]
王母臺	왕모대		(서)용두리
崧起島	윗기도[오이도]	웃귀섬	(시)정왕동
龍栢寺 ³⁸⁾	용백사[와룡당]		(시)남양동
牛飲島	우음도	음섬	(송)고정리
院峴	원현		
乳島	유도	젓부리[섬]	(서)제부리
陰德里面	음덕리면		
楮八里面	저팔리면		
曾岳山	증악산[칠보산]		(매)호매실리
天登山	천등산		(송)천등리
清明山	청명산		(서)홍법리
鄒島	추도		
杻島	축도		[(자)]
杻峴	축현	짜리재	(비)구포리
台山	태산[태행산]		(비)쌍학리
楓島	풍도		(단)풍도동
海望山	해망산		[(송)]
海門	해문	역말·굿벌	(마)해문리
海雲山	해운산		(송)독지리
海倉	해창		
海倉[水]	해창[수원]		(팔)해창리
鄉校	향교		(시)남양동
花梁鎮	화량진		(송)지화리
禾里 ³⁹⁾ 只面	화척지면		
黃京山	황경산[함경산]		(서)전곡리

38) 寺는 祠를 잘못 배긴 것이다.

39) 里는 尺을 잘못 배긴 것이다.

Ⅰ 면의 상세 정보

▲ 大阜面(대부면) : 안산시 단원구 남동대부동·동동·북동·선감동
(옛 대부면 지역) /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자월면

上洞	상동		(단)북동
仙甘島	선감도	선감·선암	(단)선감동
小牛島	소우도		(자)승봉리
召忽島	소홀도		
昇荒洞	승황동	신허	(자)승봉리
崧筏洞	엇벌동	섬엇벌	(영)외리
營田洞	영전동		(단)동동
靈興洞	영흥동		(영)내리
伊作島	이작도	이작	(자)이작리
鍾懸洞	종현동		(단)북동
下洞	하동		(단)북동
訖串洞	흘곶동		(단)남동

▲ 屯知串面(둔지곶면) : 화성시 무송동·안석동·온석동·장덕동·활초동

茂松洞	무송동	수리재·술재	(시)무송동
安儀音洞	안의음동	아늑골	(시)안의동
溫乞串洞	온돌곶동	원두루지	(시)온석동
長串洞	장곶동	장고지	(시)장덕동
活草里洞	활초리동	살구지	(시)활초동

▲ 麻道面(마도면) : 화성시 마도면 고모리·금당리·백곡리·슬항리·쌍송리·청원리·해문리

古毛老洞	고모로동	곰굴·고무굴	(마)고모리
錦堂谷洞	금당곡동	금당골·금달	(마)금당리
白谷洞	백곡동		(마)백곡리
瑟項洞	슬항동	비파목·비아목	(마)슬항리
雙峯洞	쌍봉동		(마)쌍송리
靑山洞	청산동	청산골	(마)청원리
海門洞	해문동	역말·굿벌·해문	(마)해문리

▲ 旆知串面(머지곶면) : 화성시 비봉면 구포리·남전리·쌍학리·양로리·유포리

件老洞	건로동	넬문이	(비)양로리
-----	-----	-----	--------

檢多串洞	검다곶동	검다지	(비)구포리
大田洞	대전동	한밭	(비)남전리
白老洞	백로동	바릿골	(비)양로리
白鶴洞	백학동	백학골	(비)쌍학리
柳池洞	유지동	[버들무지]	(비)유포리
梨花洞	이화동	배꾸지	(비)삼화리
存儀洞	존의동	존의	(비)남전리
浦村洞	포촌동	[버들개]	(비)유포리

▲ 分鄉面(분향면) : 화성시 향남읍 구문천리·상신리·하길리

求密洞	구밀동	구밀	(향)구문천리
文院洞	문원동	물언이	(향)구문천리
上洞	상동	벌말·분향	(향)상신리
新洞	신동	손개	(향)상신리
下洞	하동	한절이	(향)하길리

▲ 西如堤面(서여제면) : 화성시 서신면 광평리·상안리·송교리·장외리·전곡리·제부리·칠곡리

廣坪洞	광평동	너분들	(서)광평리
代安洞	대안동		(서)상안리
上尙林洞	상상림동	웃상림원	(서)상안리
松橋洞	송교동	솔다리	(서)송교리
牆外洞	장외동	담박	(서)장외리
前谷洞	전곡동	앞실	(서)전곡리
漆谷洞	칠곡동	웃골	(서)칠곡리
下尙林洞	하상림동	아랫상림원	(서)상안리

▲ 細串面(세곶면) : 화성시 송산면 고정리·신천리·쌍정리·용포리

古棧洞	고잔동	고잔	(송)고정리
羔浦洞	고포동	양개	(송)용포리
大角洞	대각동	한뿌리	(송)고정리
大井洞	대정동	한우물	(송)쌍정리
伏井洞	복정동	복우물	(송)쌍정리
遠井洞	원정동	먼우물	(송)고정리
鷹巖洞	응암동		
天登洞	천등동	천등골·구억말	(송)신천동

▲ 松山面(송산면) : 화성시 송산면 고포리·독지리·마산리·중송리·지화리·천등리

古棧洞	고잔동	고잔	(송)고포리
禿旨洞	독지동		(송)독지리
馬山洞	마산동		(송)마산리
中松洞	중송동	중송골	(송)중송동
天登洞	천등동	천등굴	(송)천등리
浦莫洞	포막동	개매기	(송)고포리
花梁洞	화량동	화령	(송)지화리

▲ 水山面(수산면·물미면) : 화성시 송산면 봉가리·사강리·삼존리·육일리

鳳歌洞	봉가동	봉가말	(송)봉가리
北一洞	북일동		(송)육일리
沙江洞	사강동	사강	(송)사강리
三尊洞	삼존동	삼존골	(송)삼존리
六校洞	육교동	육도리	(송)육일리

▲ 新里面(신리면) : 화성시 서신면 궁평리·매화리·백미리·사곶리·용두리·홍범리

宮坪洞	궁평동	궁들	(서)궁평리
梅花洞	매화동	매골·맏골	(서)매화리
百味洞	백미동	배일미·배일	(서)백미리
仕串洞	사곶동	벼슬고지	(서)사곶리
龍頭洞	용두동	용머리	(서)용두리
弘法洞	홍법동	홍법굴	(서)홍범리

▲ 雙守里面(쌍수리면) : 화성시 마도면 두곡리·석교리·송정리

石橋洞	석교동	돌다리	(마)석교리
松亭洞	송정동	하일·송정	(마)송정리
中里洞	중리동	중리	(마)두곡리

▲ 陰德里面(음덕리면) : 화성시 남양동·북양동·신남동

北洞	북동	수작이	(시)남양동
山外洞	산외동		(신)남양동
上洞	상동		(시)남양동
中洞	중동		(시)남양동
下洞	하동		(시)남양동

▲ 椿八里面(저팔리면) :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청요리 / 봉담읍 상기리 / 팔탄면 하저리

三和洞	삼화동		
上箕洞	상기동		(봉)상기리

紫陽洞	자양동	재양	(비)자안리
靑令洞	청령동	청룡골	(비)청룡리
下楮洞	하저동	아래저파리	(팔)하저리

▲ 禾尺之面(화척지면) : 화성시 문호동·송림동·시동·원천동·장전동

文起里洞	문기리동		(시)문호동
粉知串洞	분지곶동	분지고지	(시)문호동
山串洞	산곶동		(시)수화동
松溪洞	송계동		
松林洞	송림동		(시)송림동
匙里洞	시리동	수리	(시)시동
良哲洞	양철동	양처리	(시)수화동
遠草洞	원초동	원실·원막	(시)원천동
獐田洞	장전동	장전굴	(시)장전동
泉谷洞	천곡동	샘실	(시)원천동

衙舍	아사		(미)마전리
楡林津	유림진	유림[나루]	(왕)무등리
胎峯	태봉		[(미)마전리]
鄉校	향교		(미)마전리
禾津面	화진면		

I 면의 상세 정보

▲ 郡內面(군내면) : 연천군 미산면 동이라·마전리·삼화리·아미리

冷井里	냉정리	찬우물	(미)아미리
東部里	동부리		(미)동이리
三和里	삼화리	세오개	(미)삼화리
西部里	서부리		[(미)마전리]
義嶺里	아미리	아미	(미)아미리
月谷里	월곡리		(미)마전리
梨洞里	이동리	큰배울	(미)동이리
長楊里	장양리	쟁이	(미)아미리
中部里	중부리		[(미)마전리]

▲ 東面(동면) : 연천군 미산면 백석리·우정리·유촌리

栢村里	백촌리	жат나무골	(미)백석리
盆石里	분석리	분석골	(미)백석리
牛井里	우정리	소우물·쇠우물	(미)우정리
柳村里	유촌리	버드리	(미)유촌리

▲ 北面(북면) : 연천군 왕징면 노동리·동중리·무등리·북삼리·중동리·정파리

蘆洞里	노동리	갈골	(왕)노동리
東幕里	동막리	동막골	(왕)동중리
無等上里	무등상리	무등실	(왕)무등리
無等下里	무등하리	무등실	(왕)무등리
艾洞里	애동리	숙골	(왕)북삼리
中洞里	중동리	중골	(왕)동중리
澄波里	정파리	듬밭	(왕)북삼리

▲ 西面(서면) : 연천군 미산면 석장리·아미리, 왕징면 작동리

達串里	달곶리	달구지	(미)석장리
石牆上里	석장상리	웃돌대미	(미)석장리
石牆下里	석장하리	아래돌대미	(미)석장리

마 전 (麻田)

I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

▲ 고을 범위 : 연천군 군남면(군)-남계라·황지리, 미산면(미), 왕징면(왕)-노동리·동중리·무등리·북삼리·작동리

I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미)마전리
金掘山	김굴산		(미)우정리
尾頭山	미두산	[뒤밀]	(미)아미리
烽火峴	봉화현	봉우재	(미)아미리
腐近津	부근진	썩은소[나루]	(미)동이리
三和坪	삼화평	세오개[들]	(미)삼화리
西面	서면		
崇義殿	숭의전		(미)아미리

松峴里	송현리	송고개·하오고개 (미)아미리
鵲洞上里	작동상리	까치울 (왕)작동리
鵲洞下里	작동하리	까치울 (왕)작동리

▲ 禾津面(화진면) : 연천군 군남면 남계라·황지리

南溪上里	남계상리	남계 (군)남계리
南溪下里	남계하리	남계 (군)남계리
黃地基上里	황지기상리	황지 (군)황지리
黃地基下里	황지기하리	황지 (군)황지리

歧灘橋	기탄교	(강)염창동
金輪驛	금륜역	(계)다남동
卵留池	난유지	[(계)계산동]
蘭芝島	난지도	난점 (서)경서동
大橋	대교	한다리 (계)계산동
大山	대산	[(소)]
大壯橋	대장교	한바다[다리] (오)대장동
東林防築	동림방축	[(계)계산동]
東面	동면	☞
同所井面	동소정면	다다구미[면] ☞
馬場面	마장면	마제이[면] ☞
望造山	만조산	(계)계산동
名東山	명동산	몽동산 (계)계산동
毛月串面	모월곶면	☞
苜蓿橋	목숙교	[(오)]
物溜島	물치도	

부 평(富平)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 고을 범위 : 인천광역시 계양구(계), 부평구(부)-십정동 제외, 서구(서)-가정동·가좌동·검암동·경서동·공촌동·백석동·석남동·시천동·신현동·삼곡동·연화동·원창동 / 부천시·소사구(소), 오정구(오), 원미구(원) / 서울특별시 구로구(구)-개봉동·고척동·궁동·오류동·온수동·천왕동·항동, 강서구(강)-오곡동·오쇠동 ※ 김포시 고촌읍(고) / 인천광역시 남동구(남), 중구(중)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葛隅	갈우	갈울	(부)갈산동
客舍	객사		(계)계산동
景明峴	경명현	장명이고개	(서)공촌동
瓊院峴	경원현		[(계)계산동]
桂陽山	계양산		(계)계산동
古山城	고산성[계양산성]		(계)계산동
九十峴	구십현	[안하지고개]	(부)청천동
掘浦橋	굴포교	판개다리	(고)전호리
箕島	기도	키섬	(서)경서동

社壇	사단[사직단]	(계)계산동
司倉	사창	(계)계산동
莎峴	사현	[(원)]
上梧亭面 ⁴⁰⁾	상오정면	☞
西面	서면	☞
西日島	서율도	[일섬] [(서)경서동]
石串面	석곶면	돌고지[면] ☞
石川面	석천면	☞
成宗島	성종동	
星峴	성현	비리고개 (부)구산동
邵可防築	소가방축	
水呑面	수탄면	☞
衙舍	아사[동헌]	(계)계산동
鍊武廳	연무청	(계)계산동
廉成山	염성산	영성피 (부)삼산동
玉毛面 ⁴¹⁾	옥모면	☞
元積山	원적산	(계)효성동
元通山	원통산[주안산]	(남)간석동
柳等防築	유등방축	[(계)방축동]

40) 梧亭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던 마을 이름으로 순우리말 이름인 '머귀정'이에 대한 한자 표기인데, 면의 이름도 한자 소리가 아니라 순우리말 소리로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41) 毛는 山을 의미하는 '피' 또는 '미'를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이다.

栗島	율도	밤엄	(서)원창동
鷹島	응도	매엄·마암	(중)중산동
長古島	장고도	장구섬	(서)경서동
獐島	장도	노럼	(서)경서동
長省防築	장성방축	긴방죽	(계)효성동
全池防築	전지방축		
井項峴	정항현	열우물고개	(부)십정동
造山	조산		(계)계산동
注火串面	주화곶면		☞
甌山	증산	시루메	(오)여월동
靑蘿島	청라도	파럼	(서)경서동
杻串烽臺	축곶봉대	싸리곶봉대	(서)가정동
浦里	포촌	갯말	(서)원창동
下梧亭面 ⁴²⁾	하오정면		☞
鄉校	향교		(계)계산동
香安山	향안산[성주산]		(소)심곡동
鞋機防築	혜기방축		
虎島	호도	범섬	(서)경서동
黃魚面	황어면		☞

I 면의 상세 정보

▲ 堂山面(당산면·당미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동양동·상야동·평동·하야동

掘峴里	굴현리	굴재	(계)굴현동
東里	동리	동넉말	(계)동양동
野里	야리	벌말	(계)상야동
陽之里	양지리	양지편	(계)동양동

▲ 東面(동면) : 인천광역시 계양구 박촌동·방축동·병방동·용종동·임학동

廣井里	광정리		
防築里	방축리	방죽안	(계)방축동
里幕洞	이막동	이막골·예막골	(계)임학동
龍宗里	용종리	용마루	(계)용종동

▲ 東所井面(동소정면·다다구미면) :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부개동·일신동

龜山里	구산리		(부)구산동
大井里	대정리		
馬墳里	마분리	말무덤	(부)부개동
項洞里	항동리	항골·황골	(부)일신동

▲ 馬場面(마장면·마제이면)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청천동 / 계양구 효성동

淸川里	청천리	맑은내	(부)청천동
曉星里	효성리	새벼리	(계)효성동

▲ 毛月串面(모월곶면) : 인천광역시 서구 검암동·경서동·공촌동·백석동·시천동·심곡동·연희동

黔巖里	검암리	검바위	(서)검암동
古棧里	고잔리	고잔	(서)경서동
公村里	공촌동	고련이	(서)공촌동
蘭芝島	난지도	난점	(서)경서동
白石里	백석리	흔들·힌들	(서)백석동
始川里	시천리	시시내	(서)시천동
延希里	연희동	연알·연희	(서)연희동
靑蘿島	청라도	파럼	(서)경서동

▲ 上梧亭面(상오정면) 부천시 오정구 내동·삼정동·오정동, 원미구 도당동·약대동

內村里	내촌리	안말·안약대	(오)내동
都堂里	도당리	도당말	(원)도당동
斗之村	두지촌		
馬梧亭里	마오정리	머귀정이	(오)오정동
三井里	삼정리	세우물·시우물	(오)삼정동
若大里	약대리	약물터·약땃말	(원)약대동
臥牛里	와우리		

▲ 西面(서면) :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삼산동 / 계양구 서운동·작전동

佳峴里	가현리	가루개	(계)작전동
葛月里	갈월리	갈울	(부)갈산동
化田里	화전리	뒤밭	(계)작전동
後井里	후정리	뒤우물	(부)삼산동

▲ 石串面(석곶면·돌고지면) :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가좌동·석남동·신현동·원창동

42) 梧亭은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에 있던 마을 이름으로 순우리말 이름인 '머귀정'이에 대한 한자 표기인데, 면의 이름에도 한자 소리가 아니라 순우리말 소리로 읽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佳亭里	가정리	가정	(서)가정동
加佐洞	가좌동	가재울	(서)가좌동
番作里	번작리	번지기	(서)석남동
烽峴里	봉현리		
新峴里	신현리	새오개	(서)신현동
栗島	율도	밤염	(서)원창동
浦村里	포촌리	개말	(서)원창동

▲ 石川面(석천면) : 부천시 원미구 상동·중동, 소사구 송내동·심곡본동

檢垓里	검대리		
仇之里	구지리	구지말	(소)송내동
木子里	목자리	먹적골	(소)심곡본동
上里	상리	웃말	(원)상동
深谷里	심곡리	깊은골·깊은구지	(소)심곡본동
中里	중리	간땃마·간땃	(원)중동

▲ 水香面(수탄면) :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동·고척동·궁동·오류동·온수동·천왕동·항동

加沙里	가사리		
開峯里	개봉리		(구)개봉동
高尺里	고척리	고잘	(구)고척동
宮里	궁리	궁골	(구)궁동
栢寺里	백사리	잣절	(구)개봉동
梧柳洞里	오류동리	오류골	(구)오류동
溫水洞里	온수동리	온수골	(구)온수동
天旺里	천왕리	천왕굴	(구)천왕동

▲ 玉山面(옥산면·옥미면)⁴³⁾ :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범박동·소사본동, 원미구 소사동·역곡동·원미동·춘의동

果安里	과안리	괴안이·교안이	(소)괴안동
堂下里	당하리	당아래	(원)춘의동
伐應節里	벌응절리	벌언저리	(원)역곡동
凡朴洞里	범박동리	범박굴	(소)범박동
素沙里	소사리	소새	(소)소사본동
曹宗里	조종리	조마루	(원)원미동

▲ 邑內面(읍내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上里	상리		(계)계산동
----	----	--	--------

▲ 注火串面(주화곶면) : 부천시 오정구 대장동 / 서울특별시 강서구 오곡동·오쇠동

大壯里	대장리	한바다	(오)대장동
五谷里	오곡리	오굴	(강)오곡동
五金里	오금리	오쇠	(강)오쇠동
章山里 ⁴⁴⁾	장산리	노루메	(강)오곡동

▲ 下梧亭面(하오정면) : 부천시 오정구 고강동·성곡동·여월동·원종동·작동

古里洞里	고리동리	고리울	(오)고강동
成谷里	성곡리		(오)성곡동
堰談里	언담리	원데미	(오)원종동
余月里	여울리	여울	(오)여월동
鵲洞里	작동리	까치울	(오)작동
禾力里	화력리	수역이	(오)원종동

▲ 黃魚面(황어면) : 인천광역시 계양구 갈산동·노오지동·다남동·독실동·목상동·선주지동·오류동·이화동·장기동

葛山里	갈산리	척미	(계)갈산동
老吾之里	노오지리	노오지	(계)노오지동
蠶實里	독실리	독실	(계)독실동
木霜里	본상리	나무서리	(계)목상동
先地串	선지곶	선주지	(계)선주지동
驛洞里	역동리	역골	(계)다남리
五柳洞里	오류동리	오리울·오릿골	(계)오류동
梨花里	이화리	배고지·배꼬지	(계)이화동

43) 玉毛面으로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 毛는 山을 의미하는 ‘뢰’ 또는 ‘미’를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이다.

44) 章은 簪을 잘못 옮긴 것이다.

삭령(朔寧)

I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일러두기** : 현재 연천군의 왕징면·중면에 속한 지역을 제외하면 모두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 따라서 북한에 속한 지역의 고을의 위치와 범위, 면의 상세 정보에서는 1917년 간행된 『新舊對照朝鮮全道府郡面里洞名稱一覽』(越智唯七, 1917)을 따랐다. 그리고 지도의 지명찾아보기에서 북한에 속한 지역의 현재 위치는 표기하지 않았으며, 우리말이름은 『조선지리지』(1911)의 것만 참조하였다.

▲ **읍치 위치** : 연천군 북면 삭령리

▲ **고을 범위** : (남한) 중면(중)-도연리·어적산리·적동산리·적음리·진곡리, 왕징면(왕)-가천리·고장리·귀존리·냉정리·석둔리·솔빈리·오탄리·장학리 (북한) 연천군 북면(북) / 철원군 내문면(내), 인목면(인), 마장면(마)

I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葛摩山	갈마산		
監司峯	감사봉		
儉扶山	검부산		
儉秩山	검질산		
古邑居	고읍거		
觀音寺	관음사		
廣華坪	광화평		
旧郷校基	구향교기		
南面	남면		북면
乃文面	내문면		북면
東面	동면		북면
馬場面	마장면		북면
末吞山	말탄산		
防築	방축		
北川	북천	된내	
鵬耳山	봉이산		

西面	서면	북면
城山	성산	
水淸山	수청산	
僧頭山	승두산	
寧原山	영원산	
靈源山	영원산	
龍頭山	용두산	용에머리산
龍腹寺	용복사	
羽化亭	우화정	
邑居	읍거	
寅目面	인목면	북면
郷校	향교	
曉星山	효성산	
興盛山	흥성산	

I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연천군 왕징면 고장리·귀존리·오탄리

古里洞里	고리동리	고리울	(왕)고장리
貴存里	귀존리	귀조니·귀진이	(왕)귀존리
伍莊堡里	오장대리	오장터	(왕)오탄리
炭釜里	탄부리	슈가마을·숫가말	(왕)오탄리

▲ **乃文面(내문면)** : 철원군 내문면 내문리·독검리·마방리·반석리·오당리·창동리

乃文里	내문리		(내)내문리
篤儉里	독검리		(내)독검리
馬放里	마방리		(내)마방리
班石里	반석리	아름돌	(내)반석리
梧里洞里	오리동리	오리꼴	(내)오당리
倉洞里	창동리	창꼴	(내)창동리

▲ **東面(동면)** : 연천군 중면 도연리·어적산리·적동산리·적음리·진곡리

隔音里	격음리	저그미	(중)적음리
刀寺里	도사리		
魚積山里	어적산리	어디미	(중)어적산리
積洞山里	적동산리	적굴산	(중)적동산리
辰谷里	진곡리	미르실	(중)진곡리

▲ 馬場面(마장면) : 철원군 마장면 남원리·대전리·밀암리·왕피리·입석리·장포리

南日院里	남일원리		(마)남원리
大田里	대전리	한밭골	(마)대전리
蜜巖里	밀암리	굴아위	(마)밀암리
王避峴里	왕피현리		(마)왕피리
立石里	입석리		(마)입석리
長浦里	장포리	장개	(마)장포리

▲ 西面(서면) : 연천군 왕징면 가천리·냉정리·석둔리·솔빈리·장학리

加佐洞里	가좌동리	가재울	(왕)가천리
羅外洞里	나외동리	나학골	(왕)장학리
冷井里	냉정리	찬우물	(왕)냉정리
席屯里	석둔리	돛둔이	(왕)석둔리
率賢里	솔현리	손회터	(왕)솔빈리
獐項里	장항리		(왕)장학리
荊川里	형천리	가시내	(왕)가천리

▲ 邑內面(읍내면) : 연천군 북면 고마리·대사리·삭령리·상마산리·여척리

大寺洞里	대사동리	고사리울	(북)대사리
東邊里	동변리		(북)삭령리
上馬山里	상마산리	웃말미	(북)상마산리
西邊里	서변리		(북)삭령리
餘尺里	여척리	여저리	(북)여척리
下馬山里	하마산리	아래말미	(북)고마리

▲ 寅目面(인목면) : 철원군 인목면 갈현리·검사리·덕산리·도밀리·신현리·승양리

葛峴里	갈현리	갈우개	(인)갈현리
檢寺里	검사리	검절이	(인)검사리
內道密里	내도밀리	[안도일]	(인)도밀리
僧嶺里	승령리		(인)승양리
薪峴里	신현리	섭고개	(인)신현리
外道密里	외도밀리	바깥도일	도밀리

수 원 (水原)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화성시 (옛태안읍) 송산동 → 1789년 : 수원시 팔달구 신평동

▲ 고을 범위⁴⁵⁾ : 수원시 권선구(권)-입북동·당수동 제외, 영통구(영), 장안구(장)-하동·이의동 제외, 팔달구(팔) / 오산시(오산) / 화성시 옛동탄면(동), 매송면(매), 봉담읍(봉), 양감면(양)-고령리·대양리 제외, 우정읍(우) 장안면(장), 정남면(정), 옛태안읍(태), 팔탄면(팔), 향남읍(향)-구문천리·상신라하길리 제외 / 평택시 고덕면(고)-공라당현라두릉리·문곡리·방축리, 안중읍(안)-안중리 제외, 오성면(오성)-길음라양교라죽리, 청북면(청)-백봉라어소라어연라옥길라·토진리·한산리·후사리, 포승읍(포)-도곡리·석정리·홍원리, 현덕면(현)-황산리 제외 / 안산시 단원구(단)-풍도동

※ 당진군 신평면(신) / 아산시 영인면(영) / 용인시 기흥구(기), 처인구(처) / 평택시 시내(평) / 화성시 서신면(서)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監牧官	감목관		[(포)홍원리]
建達山	건달산		(봉)세교리
鷄頭山	계두산	닭이머리	(현)권관리
古老里	고로지	가로지	(우)매향리
串山 ⁴⁶⁾	곶산	[꽃 뿔]	(태)안녕리
光教山	광교산		(장)상광교동
廣德山	광덕산[고등산]		(현)덕목리
槐台串烽	괴태고봉	괴태고지봉	(포)원정리
南山	남산		(태)안녕리
老城山 ⁴⁷⁾	독성산		(오산)양산동
露積峯	노적봉		(오산)서랑동
大多只	대다지		[(우)국화리]
大猪飛	대저비		[(우)매향리]

45) 수원시 장안구의 송죽동·정자동·조원동·과장동과 화성시 매송면의 송라라야목라원리는 1789년에 광주에서 수원으로 이전된 지역이다.

46) 한자의 뜻을 빌어 花山이라 표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조의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인 용릉을 이전한 이후 한자 발음이 같은 華山으로 바뀌어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

47)老是 쫓을 잘못 옮긴 것이다.

道高山	도고산	[(태)안녕리]
道里島	도리도	(서)궁평리
磨浦津 ⁴⁸⁾	당포진 당개[나루]	(영)창룡리
望遠臺	망원대[마안산]	(현)대안리
望月臺	망월대	
梅谷書院	매곡서원	(매)천천리
舞鳳山	무봉산	(동)중리
方下地 ⁴⁹⁾	방하지 방하못	(정)귀래리
負兒山	부아산	(기)지곡동
沙斤峴	사근현 사그내고개 ⁵⁰⁾	(장)파장동
社倉	사창	[(오산)사창리]
三島	삼도	
三峯	삼봉[산]	(봉)내리
插橋	삽다리	(시)신대동
棲鳳山	서봉산[상봉산]	(봉)덕리
設倉	설창	(안)용성리
城隍山	성황산	(태)송산리
洗南橋	세남교	[(태)송산리]
小多只	소다지 [도지섬]	[(우)국화리]
小豬飛	소저비	[(우)매향리]
鷗岳山	시악산[칠보산]	(매)호매실리
雙阜倉	쌍부창	[(우)조암리]
牙州島	아주도	
陽城倉	양성창	[(청)고령리]
令翁岩	영웅암 영웅바위	(신)매산리
梧桐島	오동도	
陸坐山	육좌산	
邑內	읍내	(태)안녕리
鷹島	응도	[(우)국화리]
二島	이도	
一島	일도	
稷山倉	직산창	[(현)황산리]

津島	진도	
八呑山	팔탄산팔달산	(팔)신평동
楓島	풍도	(단)풍도동
含薄山	함박산	(처)남동
項串橋 ⁵¹⁾	항곶교 누렁구지[다리]	(서)황구지리
項折島	항절도	
海倉	해창	(팔)해창리
鄉校	향교	(태)안녕리
兄弟山	형제산[오봉산]	(오성)양교리
弘法山	홍법산	(봉)분천리
後坪橋	후평교	
興天烽臺	흥천봉대[봉화산]	(장)사곡리

Ⅰ 면의 상세 정보

▲ 佳士串面(가사곶면·가삿고지면) : 평택시 현덕면 권관라·기산라·장수리

鷄頭里	계두리	닭의부라닭이머리	(현)권관라
頭馬里	두마리	두메·두매	(현)장수리
三島里	삼도리		

▲ 甘巖面(감암면·검은바위면)⁵²⁾ : 평택시 현덕면 도대라·방축라·인광라·화양리

帆竹里	범죽리	돛대	(화)도대리
華陽里	화양이	행궁이	(현)화양리

▲ 靑等面(갯등면)⁵³⁾ : 화성시 봉담읍 당하라·덕라·덕우라·마하라·세곡라·왕림라·유라·하가등리

馬乙里	마을리		
細洞里	세동리	가는골	(봉)세곡리

▲ 古等村面(고등촌면)⁵⁴⁾

古陽洞里	고양동리	고양골	(팔)화서동
權洞里	권동리		

48) 磨는 唐을 잘못 옮긴 것이다.

49) 地는 池를 잘못 옮긴 것이다.

50) 정조 이후 지지대고개라 불리었다.

51) 項은 黃을 잘못 옮긴 것이다.

52) 玄巖面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 순우리말 이름인 '검은바위'에 대한 한자표기의 차이이다.

53) 葛潭面으로도 표기된다.

54) 古等村面과 光教面 지역은 1789년 이후 남부면과 북부면으로 재편되는데, 영역이 어떻게 조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남부면은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장지동·평동, 팔달구 고등동·교동·구천동·남수동·남창동·매교동·매산동·매향동·영동·우만동·인계동·중동·지동·팔달로1가·팔달로2가·팔달로3가였고, 북부면은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장안구 상광교동·신평동·연무동·영화동·장안동·하광교동, 팔달구 북수동·화서동이었다.

長之洞里 장지동리

▲ 空石面(공석면)⁵⁵⁾ :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탑동, 장안구
율전동·이목동·천천동

防築里 방축리

栗田里 율전리 밤밭 (장)율전동

泉川里 천천리 샘내 (장)천천동

▲ 工以郷面(공이향면) : 화성시 팔탄면 고주라·덕우라·매곡라·
서근리·월문라·해창라·화당리 / 향남읍 도이리·발안라·
방축라·제암라·평라·행정리

亭子里 정자리

倉村里 창촌리 창말·해창 (팔)해창리

▲ 光教面(광교면)⁵⁶⁾

梅山里 매산리 매산 (팔)매산동

仁洞里 인동리

▲ 廣德面(광덕면) : 평택시 현덕면 대안라·덕목라·신왕리

大外洞里 대외동리 큰박골 (현)대안리

德木里 덕목리 덕목 (현)덕목리

▲ 今勿村面(금물촌면)⁵⁷⁾ :

金城堂里 금성당리

馬墳里 마분리

▲ 南谷面(남곡면) : 화성시 정남면 계향라·관향라·괘양라·
귀래리·문학라·발산라·백라·보통라·신라·오일리

加里川里 가리천리 가리내 (정)발산리

吉峴里 길현리

杵澤里 저택리 [방아뭇] [(정)귀래리]

▲ 東面(동면)⁵⁸⁾ : 화성시 향남읍 갈천라·관라·길성라·동오라·
백토라·상두라·송곡라·수직라·요라·증거라·화리현리

洞五里 동오리 (향)동오리

白土洞里 백토동 백토골·한두골 (향)백토리

佛川里 불천리

聲谷里 성곡리

泥川里 이천리 [진개울] [(태)증거리]

▲ 東北面(동북면) : 화성시 옛동탄면 목동·반송동·석우동·
신동·영천동·오산동·중동·청계동

骨梅洞里 골매동리 골매골 (동)영천동

萬儀里 만의리 마내 (동)신동

陸族洞里 목죽동 목죽골 (동)목동

鰲山里 오산리 자라메·오미 (동)오산동

▲ 馬井面(마정면)⁵⁹⁾

石所里 석소리

利勿里 이물리

▲ 茈田面(모전면)⁶⁰⁾

赤九里 적구리

眞元里 진원리

▲ 茈旨面(모지면)⁶¹⁾

水泥洞里

水永里 수영리 수영말 (봉)수영리

▲ 文殊堂面(문수당면)⁶²⁾

山越里 산월리

西邊里 서변리

石串里 석곶리 돌고지 (태)안녕동

▲ 北方面(북방면) : 평택시 청북면 백봉라·어연리

葛川里 갈천리

陸栢里 육백리

▲ 奢井面(사정면·널우물면) : 화성시 우정읍 먹우리·운평라·
원안라·주곡라·한각라·호곡라·화수리

去勿里 거물리 거물 (우)원안리

雲井里 운정동 구름울 (우)운평리

55) 후에는 荊石面으로 기록된다.

56) 1789년 읍치를 수원시 중심부인 팔달산 동쪽으로 옮긴 후 재편되어 정확한 범위를 알기는 어렵다.

57) 서쪽 40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면에 합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58) 南面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59) 서쪽 40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면에 합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60) 서쪽 25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면에 합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61) 후에는 三峰面에 합병졌다.

62) 1789년 이후 安寧面에 합병졌다.

▲ 山城面(산성면) : 오산시 서량동·세교동·양산동·지곡동
陽山里 양산리 양산골 (오산)양산동
紙串里 지곡리 조이고자·조꼬지 (오산)지곡동

▲ 三美面(삼미면·삼미실면)⁶³⁾ : 오산시 금암동·내삼미동·수청동
외삼미동
金谷里 금곡리
茂安里 멸안리
中邊里 중변리

▲ 三峰面(삼봉면) : 화성시 봉담읍 내리동·화라분천리·상기라
상리·수기리·수영리·와우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삼봉치 (봉)내리
驛村里 역촌리 역말 (봉)동화리

▲ 西北面(서북면)⁶⁴⁾
長之里 장지리
眞月里 진월리 진다라니 (팔)지월리

▲ 松洞面(송동면) : 화성시 매송면 송라리·야목리·원리
丙實里 병실리 병실 (매)송라리
濱淳里 빈정리 빈정 (매)야목리

▲ 水流面(수류면)⁶⁵⁾
魯里洞里 노리동리
禿井里 독정리
保新洞里 보신동리

▲ 宿城面(숙성면·잔재면) : 평택시 오성면 숙성리·양교리·죽리
見堂里 견당리 겸당이 (오)양교리
停橋里 정교리
潮頭里 조두리 밀머리 (오)숙성리

▲ 市峰面(시봉면)⁶⁶⁾
谷村里 곡촌리
細橋里 세교리 잔다리 (오)세교리

▲ 安寧面(안녕면) :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대항교동 / 화성시
옛태안읍 반정동·배양동·송산동·안녕동·황계동
半場里 반장리 반정 (태)반정동
蛇洞里 사동리 배암치·배양치 (태)배양동

水鐵店里 수철점리
鵲峴里 작현리 까치고개 (태)송산동

▲ 鴨長面(압장면) :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매향리·석천리·
이화리·조암리·화산리
古溫里 고온리 고온이 (우)매향리
浪浦里 낭포리 낭개 (우)석천리
烽燧洞里 봉화동리
沙器村里 사기촌리 사기말 (우)화산리

▲ 楊干面(양간면) : 화성시 양감면 신왕리·요당리·용소리
禿守洞里 독수동리 독주울 (양)신왕리
豐所里 풍소리 [용소말] [(양)풍소리]

▲ 魚吞面(어탄면) : 화성시 옛동탄면 금곡동·방교동·산척동·
송동·장지동
內谷里 내곡리 안골 (동)송동
長之川里 장지천리 장지내 (동)장지동

▲ 梧井面(오정면) : 평택시 안중읍 금곡리·대반리·삼정리 /
오성면 길음리·학현리
龍頭里 용두리 용머리 (오성)대반리
栗峴里 율현리 [배미] [(오성)학현리]
榻峴里 탁현리 [학고개] [(오성)학현리]
黃金里 황금리 황금 (안)안중리

▲ 吾朶面(오타면) : 평택시 고덕면 궁리·방축리
勸善里 권선리
小時郎洞里 소시랑동 소시랑골 (고)방축리
閭閻秩里 여국질리

▲ 龍伏面(용복면) : 수원시 권선구 고색동·오목천동 / 화성시
옛태안읍 기안동
庫舍里 고사리 고찌말·곳집말 (권)오목천동
古朔里 고삭리 고셋골 (권)고색동
旗田里 기전리 [기안골·기안말] [(태)기안동]

▲ 一用面(일용면) :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정자동·조원동·
파장동

63) 文市面으로도 표기한다.

64) 서남쪽 20리에 있었는데, 후에 八呑面에 합해졌다.

65) 서쪽 40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는데, 어느 면에 합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66) 후에 山城面에 합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帳竹里 후죽리

▲ 長足面(장족면) :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매탄동·원천동·신동·영통동

勸善里 권선리 권선 (권)권선동

梅吞里 매탄리 매탄 (권)매탄동

▲ 爭忽面(쟁홀면) : 화성시 양감면 사창리·송산리·정문리

鋤川里 서천리

倉村里 창촌리 사창·쟁홀·생골 (양)사창리

▲ 正林面(정림면) : 화성시 정남면 고지리·괘양리·금복리·내리·덕절리·망월리·수면리·용수리·음양리·제기리

德節里 덕절리 덕절 (정)덕절리

龍所洞里 용소동리 용소·용수말 (정)용수리

▲ 貞松面(정송면)⁶⁷⁾

掛郎里 괘랑리 괘랑이·괘랑이 (정)괘양리

汾川里 분천리 분촌향·분촌 (봉)분천리

▲ 宗德面(종덕면) : 평택시 고덕면 당현리·두릉리·문곡리

麻川里 마천리

莫殘里 막잔리 [막금]

陽之里 양지리 양지편

▲ 靑龍面(청룡면) : 평택시 청북면 덕우리·옥길리·용성리·후사리

玉吉里 옥길리 옥거리·옥길 (청)옥길리

倉村里 창촌리 [설창] [(청)용성리]

▲ 靑好面(청호면) : 오산시 부산동·오산동·원동

釜山里 부산리 가마파·가마미 (오산)부산동

烏梅里 오매리 오미·외미 (오산)오산동

▲ 草長面(초장면) : 화성시 장안면 금의리·노진리·덕다라사·곡라·사랑리

渴井里 갈정리 갈우물 (장)노진리

沙浪里 사랑리 새랭이 (장)사랑리

▲ 草坪面(초평면·여들면) : 오산시 가수동·가장동·곶동·누읍동·두곡동·벌읍동·서동·청학동·탑동

加土里 가사리 가숫골 (오산)가수동

沙五火里 사오화리

▲ 荅村面(태촌면) : 화성시 태안읍 기산동·능동·반월동·병점동·진안동 /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堂谷里 당곡리 당골 (태)반월동

昭文里 소문리 소문이 (영)망포동

泥川里 이천리

眞言里 진언리 진안 (태)진안동

▲ 土法面(토법면)⁶⁸⁾ : 평택시 청북면 어소리·토진리·한산리

雙峰里 쌍봉리

於金里 어금리 어구소·어소 (청)어소리

▲ 八羅串面(팔리곶면)⁶⁹⁾

平田里 평전리

汗江里 한강리

▲ 八呑面(팔탄면) : 화성시 팔탄면 가재라·구장라·기천라·노하리·덕우리·울암라·지월라·창곡리

東村里 동촌리

西村里 서촌리

▲ 浦內面(포승면) : 평택시 현덕면 운정리 /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석정리·홍원리

堂頭里 당두리 당머리 (포)도곡리

無愁里 무수리 무수 (포)도곡리

▲ 好每折面(호매실면) : 화성시 매송면 금곡리·숙곡리·어천라·원평라·천천라·호매실리

大授里 대수리

書院里 서원리 서원말 (매)천천리

於良川里 어랑천리 어랑내 (매)어천리

▲ 禾方面(화방면) : 화성시 장안면 독정라·석포라·수촌라·어은라·장안리

漁隱洞里 어은동리 어은골·언골·은골 (장)어은리

倉村里 창촌리

67) 1895년 남곡면·삼봉면에 편입되어 현재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68) 土津面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다.

69) 서쪽 50리에 있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면에 합병되었는지 분명하지 않다.

안 산(安山)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
- ▲ 고을 범위 : 안산시 단원구(단), 상록구(상)-부곡동·성포동·수암동·양상동·월곡동·장상동·장하동 / 시흥시(시)-거모동·광석동·군자동·논곡동·능곡동·목감동·물왕동·산현동·월곡동·장곡동·장현동·정왕동·조남동·죽률동·하상동·하중동
- ※ 인천광역시 중구(중)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상)수암동
旧草芝堡 ⁷⁰⁾	구초지보		(단)초지동
大月面	대월면		
馬遊面	마유면		
麻河山	마하산[마산]		(단)양상리
社壇	사직단		(상)장하동
石谷驛	석곡역		(상)장하동
修理山	수리산		(상)수암동
雙島	쌍도	큰·작은가리섬	(단)북동
衙	아사[동헌]		(상)수암동
安院寺	안원사		[(상)장상동]
厲壇	여단		[(상)수암동]
梧山里 ⁷¹⁾	오리현	도리재	(시)금이동
烏耳島	오이도	웃귀섬	(시)정왕동
五子山	오자산		(시)논곡동
瓦里面	와리면[와개면]		
仍火谷面	잉화곡면	너빌·너비울[면]	
獐鳴峴	장명현	노리울고개	(상)장상동
正往山烽臺	정왕산봉대		(시)정왕동
廚院館廨	주원관해		
草山面	초산면		

70) 草芝는 순우리말 이름인 '새고지'에 대한 한자 표기였다.
 71) 梧里峴을 잘못 옮긴 것이며, 桃李峴이라 기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72) 馬는 鳥를 잘못 쓴 것임.

鷺岩	취암	(상)수암동
八尾島	팔미도	(중)무의동
鄉校	향교	(상)수암동

Ⅰ 면의 상세 정보

- ▲ 郡內面(군내면) : 안산시 상록구 부곡동·성포동·수암리·장상리·장하리

東庵里	동암리		[(상)수암동]
釜谷里	부곡리	가마울·가머울	(상)부곡동
聲串里	성곶리	성곶	(상)성포동
聲串浦村里	성곶포촌리	성머리	(상)성포동
新洞里	신동리	새말	(상)부곡동
楊等代里	양등대리	버대	(상)양상동
簞谷里	장곡리	노리울	(상)장상동
占星里	점성리	점성	(상)성포동
亭子里	정자리		

- ▲ 大月面(대월면) : 시흥시 거모동 /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 | | | | |
|------|------|-----|---------|
| 去毛浦里 | 거모포리 | 거무개 | (시)거모동 |
| 達山里 | 달산리 | 달미 | (단)선부동리 |
| 石谷里 | 석곡리 | 도일 | (시)거모동 |
| 仙府洞里 | 선부동리 | 선너불 | (단)선부동리 |

- ▲ 馬遊面(마유면) : 시흥시 군자동·월곡동·장곡동·장현동·정왕동
- | | | | |
|--------------------|------|-----|--------|
| 九之井里 | 구지정리 | 구지물 | (시)군자동 |
| 馬峴里 ⁷²⁾ | 조현리 | 새재 | (시)장현동 |
| 山北里 | 산북리 | 산뒤 | (시)군자동 |
| 烏耳島里 | 오이도리 | 웃귀섬 | (시)정왕동 |
| 月串里 | 월곶리 | 달고지 | (시)월곶동 |
| 鷹谷里 | 응곡리 | 맏굴 | (시)장곡동 |
| 長宗里 | 장종리 | 긴마루 | (시)장곡도 |
| 正往里 | 정왕리 | | (시)정왕동 |
| 竹栗里 | 죽률리 | 한배미 | (시)죽률동 |

- ▲ 瓦里面(와리면) :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성곡동·신길동·원곡동·원시동·초지동
- | | | | |
|-----|-----|----|--------|
| 陵內里 | 능내리 | 능안 | (단)목내동 |
|-----|-----|----|--------|

無等谷里	무등곡리	무들	(단)성곡동
缸谷里	선곡리	뱅골	(단)신길동
城頭里	성두리	잣머리	(단)성곡동
新角里	신각리	새뿔	(단)신각동
元堂上里	원당상리	원당개[상리]	(단)원곡동
元堂下里	원당하리	원당개[하리]	(단)원시동
梨木里	이목리	배나물	(단)목내동
赤吉里	적길리	적길	(단)신길동
草之里	초지리	새고지	(단)초지동
浦村里	포촌리		

▲ 仍火面(잉화면·너빌면) : 시흥시 능곡동 /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와동·화정동, 상록구 월피동

古殘里	고잔리	고잔	(단)고잔동
北谷里	북곡리	두일	(시)능곡동
瓦谷里	와곡리	왜두들기·와개	(단)와동
月入皮里	월입피리	달이피	(상)월피동
仍火谷里	잉화곡리	너빌·너비울	(단)화정동

▲ 草山面(초산면) : 시흥시 광석동·논곡동·목감동·물왕동·산현동·조남동·하상동·하중동

廣石里	광석리	너분돌	(시)광석동
論知谷里	논지곡리	논줄	(시)논곡동
豆毛谷里	두모곡리		
牧甘里	목감리	목암·모감	(시)목감동
勿項洞里	물항동리	물왕골	(시)물왕동
上職串里	상직곶리	상직	(시)하상동
中職串里	중직곶리		
下職串里	하직곶리	하짓굴	(시)하상동
下職串中里	하직곶중리		(시)하중동
下職串下里	하직곶하리		

안 성 (安城)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안성시 낙원동
- ▲ 고을 범위 : 안성시 시내(시), 금광면(금), 대덕면(대), 미양면(미), 서운면(서), 보개면(보)·남풍리·동평리·북가현리 제외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시)낙원동
九包山	구포산		(시)구포동
金剛山	금강산		(금)금광리
白雲山	백운산		
飛鳳山	비봉산		(시)당왕동
沙溪書院	사계서원[도기서원]		(시)도기동
瑞雲寺	서운사		(서)청룡리
衙舍	아사[동헌]		[(시)낙원동]
天馬峯	천마봉		
靑龍寺	청룡사		(서)청룡리
鄉校	향교		(시)명륜동
洪李界陣堡	홍이계[진터]		(미)구수리

Ⅲ 면의 상세 정보

▲ 加士面(가사면·갯터면) : 안성시 가사동·가현동 / 보개면 구사리·내방리

加峴里	가현리	별갯터	(보)가현리
康福驛里	강복역리		
九沙孔里	구사공리	구끼미	(보)구사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	(보)내방리
閼里	벌리		

▲ 加智谷面(가지곡면) : 안성시 금광면 개산리·내우리·농촌리·오산리·현수리

內洞里	내동리	안말	(금)내우리
馬屯里	마둔리	마두니	(금)오산리

▲ 居呼谷面(거호곡면·거리실면) : 안성시 보개면 동신라·상삼라·양북리

論谷里	논곡리	논실	(보)양북리
東信谷里	동신곡리	동신골	(보)양북리
福巨里	복거리	복거	(보)양북리
元堂里	원당리		
下元堂里	하원당리		

▲ 見乃面(견내면·게내면) : 안성시 대덕면 대농라·삼한라·진현리

大農村	대농촌	안정이	(대)대농리
三巖里	삼암리	세바위	(대)삼한리
辰峴里	진현리	미르개·미러개	(대)진현리
閑沙村	한사촌	한새울	(대)삼한리

▲ 其佐村面(기좌촌면·저재울면) : 안성시 보개면 곡천라·기좌리

曲川里	곡천리	고부내	(보)곡천리
-----	-----	-----	--------

▲ 金谷面(금곡면) : 안성시 대덕면 명당라·무릉라·소내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	(대)소내리
無魚山里	무어산리		(대)무릉리
所沙洞里	소사동리	소사울	(대)소내리
瓦也里	와야리	[왓골]	[(대)소내리]

▲ 大門面(대문면·한문이면) : 안성시 대문면 금광라·옥정라·한운라·현곡리

無憂里	무우리		
賜給坪	사급평	[사그매기]	[(금)한운리]
玉簪里	옥장리	옥정이	(금)옥정리
玄谷里	현곡리	거먹골	(금)현곡리

▲ 德谷面⁷³⁾(덕곡면) : 안성시 서운면 동촌라·북산라·산평라·신촌라·신흥라·양촌라·인라·청룡리

道陽里	도양리	[동양촌]	[(서)양촌리]
北山里	북산리	뒷미	(서)북산리
新村里	신촌리	새말	(서)신촌리
楊村里	양촌리	양지말	(서)양촌리
笠場里	입장리		

靑龍里 청룡리 청룡 (서)청룡리

▲ 道基里面⁷⁴⁾(도기리면)

▲ 砵土面(말토면) : 안성시 서운면 신기라·신흥라·오촌라·중리

箕谷里	기곡리	[새터말]	[(서)중리]
新里	신리	새골말	(서)통기리
梧村里	오촌리		(서)오촌리
溫井里	온정리		
中村里	중촌리	[꼬트니]	(서)중리

▲ 木村面(목촌면·남월면) : 안성시 미양면 강덕라·계특라·구수라·보체라·양변리

九水洞里	구수동리	구수머리	(미)구수리
東邊里	동변리	동편	(미)양변리
保體里	보체리	보체·보체	(미)보체리
西邊里	서변리	서편	(미)양변리
蓮花里	연화리		
令淸里	영청리	영청	(미)양변리
梯梧地里	제오지리	계우지	(미)계특리

▲ 北里面(북리면) : 안성시 금석동·당왕동·사곡동·실왕동

高助馬里	고조마리		
金石里	금석리[북리]		(시)금석동
沙谷里	사곡리	살골	(시)사곡동

▲ 北佐村面(북좌촌면·뒤재울면) : 안성시 보개면 보평라·북좌라·불현라·신안라·오두리

湫坪里	보평리	봇들	(보)보평리
新谷里 ⁷⁵⁾	신곡리	싹실	(보)신안리

▲ 蘇萬面(소만면·소마니면) : 안성시 대덕면 건지라·모산라·보동라·소현라·도현리

內蘇村	내소촌	[안]소마니	(대)소현리
大德谷	대덕곡		
馬峴里	마현리	마루개	(대)소현리
茅山里	모산리	못안	(대)모산리
二十谷	이십곡	시무실	(대)보동리

73) 나중에 笠場面이 분리되어 나간다.

74) 奇村面이라고도 쓴다. 『호구총수』의 道基里面에 마을 이름이 쓰여 있지 않는데, 砵土面에 쓰여 있는 것과 후대 奇村面으로 나오는 것이 동일하여 편찬자가 잘못 이해하여 분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75) 新은 薪이라고 쓰기도 한다.

▲ 松竹村面(송죽촌면·송두촌면) : 안성시 서운면 송산리·송정리·현매리

東邊里	동변리		
松亭里	송정리	[솔매]	(서)송산리
瓦也里	와야리		

▲ 外西里面(외서리면)⁷⁶⁾

▲ 于只谷面(우지곡면·우기실면) : 안성시 미양면 개정리·고지리·법전리·신계리

開理山里	개리산리(개리촌)	우기실	(미)개정리
法典里	법전리		(미)법전리
洑平里	보평리	보말	(미)고지리
上令通里	상영통리	[위]염통들	(미)개정리
下令通里	하영통리	[아래]염통들	(미)개정리

▲ 月乎洞面(월호동면) :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석하리·장죽리

元竹洞里	원죽동리	원죽골	금(장죽리)
------	------	-----	--------

▲ 栗洞面(율동면·밤골면) : 안성시 보개면 가율리·신장리·이전리·적가리

分土洞	분토동	분토골	(보)가율리
泥田里	이전리	진밭	(보)이전리
迪可里	적가리	절가리·적가	(보)적가리

▲ 邑內東里面(읍내동리면) : 안성시 낙원동·동리동·동본동·명륜동·봉남동·봉산동·성남동·송인동·신흥동·아양동·옥천동·장기리·창전동

鋤魚皮里	서어피리
------	------

▲ 邑內西里面(읍내서리면) : 안성시 계동·구포동·금산동·대천동·도기동·서리·서인동·석정동·연지동·옥산동·인지동

新里	신리
----	----

▲ 莠山谷面⁷⁷⁾(잉산곡면) : 안성시 미양면 갈전리·구례리·신기리·용두리

葛田里	갈전리	갈밭	(미)갈전리
內洞里	내동리	[양골]	[(미)갈전리]
堂里	당리	당골	

倍日里	배일리	[벨재]	[(미)신기리]
-----	-----	------	----------

▲ 鳥嶺里面(조령리면·새재면) : 안성시 금광면 사흥리·삼흥리·오흥리

加味吞里	가미탄	간미가·간목	(금)사흥리
加俠里	가협리	개모통이	(금)오흥리
沙器幕里	사기막리	사기막	(금)사흥리
鳥鳩谷里	오구곡리		

▲ 竹村面(죽촌면) : 안성시 대덕면 내리·신령리·죽리

累令里	누령리	누르재	(대)신령리
頓里	돈리	된섬	(대)죽리
信里	신리	새말	(대)신령리
外坪里	외평리	밭들	(대)죽리

▲ 辰頭面⁷⁸⁾(진두면) : 안성시 미양면 마산리·양지리·정동리·진촌리·후평리

馬山里	마산리	말미	(미)마산리
三井里	삼정리	[샘골]	[(미)정동리]
陽地邊里	양지변리	양지편	(미)양지리
令淸里	영청리	영청골	(미)마산리
陳村里	진촌리	진말	(미)진촌리

양근(楊根)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 → 1747 : 양평읍 양근리

▲ 고을 범위 : 양평군 강상면(강상), 강하면(강하), 서종면(서), 양서면(양서), 양평읍(양평), 옥천면(옥) / 가평군 설악면(설), 청평면(청)-삼회리 / 광주시 남종면(남)-검천리·귀여리·분원리·수청리·우천리

76) 후대의 기록에는 내서리면+외서리면인 서리면만 나와 읍내서리면에 합하여 처리하였다.

77) 晩谷面이라고도 쓴다.

78) 辰은 龍을 뜻하기 때문에 辰頭는 미양면 龍頭里의 龍頭와 같은 것이다.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架峽峯	가협봉		
閣氏山	각씨산		(강하)항금리
葛山	갈산	척미	(양)양근리
江漢亭	강한정		[(양서)국수리]
客舍	객사		(옥)옥천리
蹇之山	견지산		(옥)옥천리
觀水亭	관수정		
光州尉金仁慶墓	광주위김인경묘		
南參議墓	남참의묘		
內水餘里	내수여리	안무너미	(서)문호리
老多峙	노다치	농다치고개	(옥)신복리
老味峴	노미현	놀이고개·닐미재	(설)위곡리
大院古寺堡	대원고사대		(옥)옥천리
兜率庵	도술암		(옥)용천리
東陽尉墓	동양위묘		
豆豆音山	두두음산		
馬峙	마치	말고개	(서)중서후리
亡浦堤堰	망포제언		
牧使李緩祿墓	목사이완록묘		
迷源縣倉	미원현창		[(설)신천리]
發古壇 ⁷⁹⁾	발고단		
白房山	백방산·백명산		(강상)병산리
白雲峯	백운봉		(양평)신애리
茈扶林	비부림		[(옥)옥천리]
飛峴	비현	비고개·비호고개	(양평)백안리
舍那峙 ⁸⁰⁾	사나사		(옥)용천리
社壇	사단		[(옥)신복리]
蛇島	사도	족자섬	(양서)양수리
捨俗庵	사속암		
沙站津	사참진	자참[나루]	(설)사룡리
沙灘	사단	모래여울	(옥)옥천리
霜降峯	상강봉		

徐府院君破墓	서부원군파묘		
書院	서원		
西終面	서종면		
西中面	서중면		
城隍堂	성황당		[(옥)옥천리]
所非里 ⁸¹⁾	비소리		
小雪庵	소설암		(설)설곡리
所峴	솔현		
水餘里津	수여리진	무너미나루	(서)문호리
水入里	수입리	무드리	(서)수입리
新隱川	신은천	신내개울	(양평)회현리
沈本房墓	심본방묘		
雙溪庵	쌍계암		
衙	아[동헌]		(옥)옥천리
夜味谷	야미곡		
良馬洞堤堰 ⁸²⁾	양마동제언	던주울[제언]	(양평)도곡리
洋洋亭	양양정		[(옥)옥천리]
涼峙	양치	맹고개	(옥)신복리
呂江	여강[남한강]		
厲壇	여단		[(옥)신복리]
呂政丞墓	여정승묘		
淵豆堤堰	연두제언		
延陵府院君墓	연릉부원군묘		
延川君墓	연천군묘		(옥)신복리
念峴	염현	염티고개	(강하)왕창리
靈川庵	영천암		(서)영천리
娛嬪驛村	오빈역촌	오빈역말	(양평)오빈리
完陽君墓	완양군묘		
龍津	용진		(양서)양수리
月溪	월계		(양서)신원리
尹判書墓	윤판서묘		
李監司墓	이감사묘		
二水頭	이수두	두물머리	(양서)양수리
李政丞墓	이정승묘		

79) 古는 告를 잘못 옮긴 것이다.

80) 峙는 寺를 잘못 옮긴 것이다.

81) 所非는 非所를 잘못 옮긴 것이다.

82) 良은 艮을 잘못 옮긴 것이다.

李政丞墓	이정승묘		
梨浦津	이포진		
立岩	입암	선바위	(양평)백안리
政丞尹勳墓	정승윤훈묘		
鄭政丞芝行墓	정정승지행묘		
舟踰峴	주유현	배너머고개	(옥)용천리
中隱洞三政丞墓	중은동삼정승묘		
春川江	춘천강[북한강]		
判書沈忠謙墓	판서심충겸묘		
八串地山	팔곶지산		
漢陰墓	한음묘		(양서)목왕리
漢峴	한현	한티고개	(양서)북포리
咸公城	함공성[함왕성]		(옥)용천리
鄉校	향교		(옥)옥천리
香爐峯	향로봉		
訓柴 ⁸³⁾	훈시		

I 면의 상세 정보⁸⁴⁾

▲ **古邑面(고읍면)** : 양평군 옥천면 신북리·아신리·옥천리·용천리

芻峴里	갈현리	갈고개	(옥)용천리
古來谷里	고래곡리	[곤일]	(옥)아신리
大月里	대월리		(옥)옥천리
北坪里	북평리	뒷들	(옥)신북리
斜川里	사천리	사내	(옥)용천리
沙灘里	시탄리	모래여말	(옥)옥천리
玉泉里	옥천리	옥우물	(옥)옥천리
片前里	편전리	편앞	(옥)용천리
鄉校里	향교리	향교말	(옥)옥천리

▲ **南始面(남시면)** : 양평군 강상면 교평리·대석리·병산리·세월리·송학리·신화리·화양리

交巖里	교암리	서라위	(강상)교평리
內生化里	내생화리	안생화	(강상)신화리
大甘浦里	대감포리	대감	(강상)대석리
洗心里	세심리	세심	(강상)세월리

松山里	송산리	송산	(강상)송학리
延陽里	연양리	연양	(강상)화양리
外生化里	외생화리	새터	(강상)신화리
外鶴谷里	외학곡리	발하일	(강상)송학리
作介里	작개리	번말	(강상)병산리
知灘里	지탄리	지월	(강상)병산리
坪里	평리	들말	(강상)교평리
鶴谷里	학곡리	하일	(강상)송학리
黃谷里	황곡리	느리울	(강상)병산리

▲ **南終面(남종면)** : 광주시 남종면 검천리·귀여리·분원리·수청리·우천리

歸歟里	귀여리	귀내·귀여	(남)귀여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	(남)분원리
分院里	분원리	부리개·분원	(남)분원리
沙川里	사천리	모라내	(남)검천리
水靑里	수청리	무프레여울	(남)수청리
牛川里	우천리	소내	(남)우천리

▲ **南中面(남중면)** : 양평군 강하면 동오리·성덕리·왕창리·운심리·전수리·항금리

沙器幕里	사기막리	사기막	(강하)전수리
棲遲谷	서지곡	세지골	(강하)동오리
聖德里	성덕리	양달말·웅달말	(강하)성덕리
水大里	수대리	수대	(강하)전수리
五里谷里	오리곡리	오리골	(강하)동오리
王忠里	왕충리	왕충	(강하)왕창리
雲浦里	운포리	구름개	(강하)운심리
全義谷里	전의곡리	전일	(강하)전수리

▲ **東終面(동종면)** : 양평군 양평읍 대흥리·도곡리·봉성리·원덕리·창대리·회현리

柯谷里	가곡리		
良馬洞	간마동	던주울	(양평)도곡리
谷里	곡리		
岐山里	기산리	기산	(양평)창대리
陵山洞	능산리	능말	(양평)도곡리

83) 훈원원의 땀감을 대던 곳 중의 하나라는 의미다.

84) 양근군 지도의 면 정보는 1747년 읍치를 옮기기 전의 상황을, 『호구총수』는 읍치를 옮긴 후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大谷里	대곡리	황골	(양평)대흥리
德巖里	덕암리	덤바위	(양평)원덕리
道谷里	도곡리	도주울	(양평)도곡리
等洞	등동		
馬巖洞	마암동		
防築洞里	방축동리	방축골	(양평)회현리
上洞里	상동리		
成大里	성대리		
松谷里	송곡리	쇠리골	(양평)봉송리
圓堂里	원당리	두렁텅이	(양평)원덕리
楮山里	저산리		
中洞里	중동리		
倉垵里	창대리	창터	(양평)창대리
塔洞里	탑동리	탑골	(양평)도곡리

▲ 北面(북면) : 가평군 설악면 가일리·묵안리·미사리·방일리·사룡리·선촌리·설곡리·송산리·신천리·엄소리·위곡리·이치라·창의리·천안리·회곡리

放逸里	방일리	밤일	(설)방일리
小雪洞里	소설동리		(설)설곡리
水山洞里	수산동리	물미	(설)송산리
倉洞里	창동리	창말	(설)위곡리
草谷洞里	초곡동리		

▲ 西始面(서시면) : 양평군 양서면 국수리·대심리·도곡리·북포리·신원리·징동리·청계리

畚多谷里	답다곡리	정자말·굴터	(양서)국수리
大野洞里	대야동리		
大灘里	대탄리	한여울	(양서)대심리
陶谷里	도곡리	질울	(양서)도곡리
伏浦里	복포리	복개	(양서)복포리
息谷里	식곡리	시시울	(양서)징동리
新晩里	신만리		
蹄灘里	제탄리	굽여울·귀벼울	(양서)복포리

▲ 西終面(서종면) : 양평군 서종면 노문리·도장리·명달리·문호리·서후리·수릉리·수입리·정배리 / 가평군 청평면 삼회리

內水餘里	내수여리	안무너미	(서)문호리
蘆門里	노문리	갈문	(서)노문리
道壯里	도장리	도장골	(서)도장리

銅店里	동점리	통점골	(서)정배리
明達里	명달리	명덕·명덜	(서)명달리
西次南里	서차남리	서차남	(서)서후리
水入里	수입리	무드리	(서)수입리
永川里	영천리	영천	(서)노문리
外水餘里	외수여리	아랫무너미	(서)문호리
鼎排里	정배리	솔바위·솔배	(서)정배리
禾野谷里	화야곡	소야곡	(청)삼회리

▲ 西中面(서중면) :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부용리·양수리·용담리

柯亭里	가정리	가정	(양서)부용리
木旺里	목왕리	무왕굴	(양서)목왕리
伐里	벌리		
龍津里	용진리	골용진	(양서)양수리

▲ 邑內面(읍내면) : 양평군 양평읍 공흥리·덕평리·백안리·신애리·양근리·오빈리

葛山里	갈산리	척미	(양평)양근리
公山里	공산리	공산이	(양평)공흥리
官門里	관문리	관문거리	(양평)양근리
德谷里	덕곡리	덕구실	(양평)오빈리
白洞里	백동리	신골	(양평)백안리
上坪里	상평리	잼말	(양평)덕평리
石橋里	석교리	돌다리	(양평)덕평리
新晩里	신만리	새만이	
新坪里	신평리		
娛賓里	오빈리	역말	(양평)오빈리
酒幕里	주막리		
中村里	중촌리		
下公山里	하공산리	아랫말	(양평)공흥리
下坪里	하평리	벚말	(양평)덕평리
紅門里	홍문리		
興淸里	흥청리	흥청골	(양평)공흥리

양 성(陽城)

I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 고을 범위 : 안성시 공도면(공), 양성면(양), 원곡면(원) / 평택시 시내(시)-가재동·도일동·소사동·용이동·월곡동·죽백동·청룡동·서정동·장당동, 고덕면(고)-동청리, 서탄면(서)-황구지리, 청북면(청)-고념라·고잔라·삼계라·어소라·율북라·한산라·현곡리, 포승읍(포)-내기라·방림리·신영라·원정라·회곡리 / 화성시 양감면(화양)-대양리

I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甘味洞面	감미동면	개미골면	
高城山	고성산		(양)덕봉리
孔梯面	공제면		
九龍洞面 ⁸⁵⁾	구룡동면	귀룡골면	
九千里面 ⁸⁶⁾	구천리면	구문리면	
金谷面	금곡면		
金老峙	금노치	쇠노리고개	(원)칠곡리
南倉里	남창리	창골	[(시)소사동]
大川	대천	[한내]	[(시)소사동]
德山面	덕산면	덕미면	
道[一]面	도일면		
鳴鳳山	명봉산[덕지산]		[(청)고령리]
無恨城	무한성		(양)방신리
盤谷面	반곡면		
福林山	복림산		(양)
烽臺	봉대	괴태고지봉수	(포)원정리
北面 ⁸⁷⁾	율북면	밤뒤면	

所沙橋	소사교	소새다리	(시)소사동
所沙大水	소사대수	소새	(시)소사동
所沙酒幕	소사주막	소새주막	(시)소사동
松五里面	송오리면		
升良面	승량원면		
双峯山	쌍령산		(양)미산리
御幕臺	어막대		[(시)소사동]
令道面 ⁸⁸⁾	영도면		
外良面	승량동면		
外倉里	외창리	[구설창·설창]	[(청)어소리]
元堂面	원당면		
邑內	읍내		(양)동항리
梨峴	이현	뱃고개	(양)이현리
井智峙	정지치		
紙洞面	지동면		
天德山	천덕산		(양)동항리
靑院寺	청원사		(원)성은리
項串池 ⁸⁹⁾	항곶지	누렁구지	(서)황구지리
鄉校	향교		(양)동항리

I 면의 상세 정보⁹⁰⁾

▲ 甘味洞面(감미동면·개미골면) : 평택시 청북면 고령라·고잔라·삼계리 / 화성시 양감면 대양리

開峴	개완	개월	(화양)대양리
古蘭坪	고란평	고란틀	(청)고령리
古念	고염	고렴	(청)고령리
大陽里	대양리	대양이·맹이	(화양)대양리
發午谷	발오곡	느러니	(청)고령리
沙陽里	사양리	사양이·생이	(화양)대양리
松山	송산	솔미	(화양)대양리
瓮浦	웅포	독개	(청)삼계리
倉里	창리		

85) 耳洞面이라 쓰기도 한다.

86) 九萬面이라 쓰기도 한다.

87) 栗北面을 잘못 쓴 것이다.

88) 令通面이라 쓰기도 한다.

89) 원래는 누런구지의 한자표기인 黃串池로 되어야 하는데, 黃과 비슷한 한자 발음의 項으로 바뀌어 있다.

90) 『여지도서』에는 마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으며, 『호구총수』에 기록된 마을 대다수도 上里·中里·下里 등으로 기록되어 있어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陽城地圖」(양성지도)의 마을 이름을 수록하였다.

▲ 孔梯面(공제면) : 안성시 공도면 불당라·신두리·웅교리
 大薪頭里 대신두리 작은섬머리 (공)신두리
 佛堂里 불당리 불당말 (공)불당리
 小薪頭里 소신두리 작은섬머리 (공)신두리
 中里 중리

▲ 九萬里面⁹¹⁾(구만리면·구문리면) : 안성시 공도면 마정라·만정라·양기리

馬井里 마정리 말우물 (공)마정리
 萬家堡 만가대 만가대·장자터 (공)만정리
 文基 문기 문터 (공)마정리
 防築里 방축리 방죽안말 (공)마정리
 新基 신기 새터 (공)양기리
 坪里 평리 [들말] (공)양기리
 項谷 항곡 [목바골] (공)만정리

▲ 金谷面(금곡면) : 안성시 양성면 난실라·노곡라·미산라·장서리

蘭洞 난동 난의실 (양)난실리
 老洞 노동 노로실 (양)노곡리
 彌泥洞 미니동 미리내 (양)미산리
 上長沙洞 장상사동 윗장서 (양)장서리
 在仁洞 재인동 쟁골 (양)난실리
 下長沙洞 하장사동 아랫장서 (양)장서리

▲ 德山面(덕산면·덕미면) : 안성시 양성면 덕봉라·명목라·방신라·삼암리, 공도면 만정리

晩樹村 만수촌 만수터 (공)만정리
 芳美洞 방미동 뱅미실 (양)방신리
 三岩井 삼암정 서두물·셋우물 (양)삼암리
 上里 상리
 石隅里 석우리
 城下里 성하리 성아래 (양)방신리
 新下里 신하리 새래 (양)방신리
 深橋里 심교리 깊은다리 (공)만정리
 牛臥里 우와리
 栗里 율리 배미 (양)방신리

裏村 이촌 속말 (양)명목리
 亭子村 정자촌 정자말 (양)삼암리
 指南 지남 지남말 (양)명목리
 漆木洞 칠목동 옷나무골 (양)명목리

▲ 道一面(도일면) : 안성시 원곡면 반제리 / 공도면 승두리·용두리

盤諸里 반제리 반제울·반제 (원)반제리
 飛里 비리 난말 (공)승두리
 上龍頭里 상용두리 윗용머리 (공)용두리
 蠅頭里 승두리 파리머리·팔머리 (공)승두리
 新里 신리 새말 (공)승두리
 酒井里 주정리 주정골 (원)반제리
 下龍頭里 하용두리 아랫용머리 (공)용두리

▲ 盤谷面(반곡면) : 평택시 월곡동·죽백동·청룡동

加乃 가내 가내·가아내 (시)죽백동
 官洞 관동 꺾골 (시)월곡동
 內村 내촌 (시)죽백동
 月谷 월곡 달구리 (시)월곡동
 竹白里 죽백리 재배기·맷배기 (시)죽백동
 陳村 진촌
 靑龍村 청룡촌 청룡말 (시)청룡동
 砧橋 침교 방아다리 (시)죽백동

▲ 西新里面(서신리면) : 평택시 청북면 어소리·한산라·현곡리

光升里 광승리 (청)현곡리
 石隅里 석우리
 於金 어금 으사·어소 (청)어소리
 板橋 판교 너더리 (청)한산리
 玄谷 현곡 가마울 (청)현곡리

▲ 所古里面(소고리면)⁹²⁾ : 평택시 가재동·서정동·장당동, 고덕면 읍포리

佳坐里 가좌리 가재울 (시)가재동
 葛坪里 갈평리 (시)서정동
 廣川里 광천리 너브내 (시)장당동
 大甘里 대감리

91) 『여지도서』에는 九萬面으로 기록되어 있다.

92) 『호구총수』에는 所古尼面으로 표기되어 있다.

大幕巨里	대막거리		
東幕	동막		
柿洞	시동	(시)가재동	
新村	신촌		
念谷	염곡		
栗浦里	율포리	밤개울·밤개	(고)율포리
獐堂里	장당리	노루댕이	(시)장당동
地庄里	지장리	지장절	(시)서정동

▲ 松五里面(송오리면) : 안성시 양성면 방축리·필산리

內村	내촌		
防築里	방축리	방죽말	(양)방축리
上基谷	상기곡		
上內村	상내촌		
筆山	필산	붓미·불미	(양)필산리
後耳谷	후이곡		

▲ 升良洞面(승량동면) : 평택시 포승읍 내기라·방림리·신영리·원정리·회곡리

家庄洞	가장동	가장굴	(포)신영리
宮里	궁리		
美村	미촌		
芳林洞	방림동	뱀골·뱀골	(포)방림리
新營里	신영리	그이내·신영장	(포)신영리
元宅里	원택리		
希谷	희곡	희여울	(포)희곡리

▲ 升良院面(승량원면) : 안성시 원곡면 산하리·성은리·성주리

上里	상리		
上里店幕	상리점막		
下里	하리		

▲ 令通面(영통면) : 안성시 공도면 건천리·중보리 / 평택시 유천동

乾川里	건천리		(공)건천리
宮里	궁리	궁말	
上里	상리		
柳川里	유천리	버드내	(시)유천동
中湫里	중보리		(공)중보리
杏亭里	행정리	은행정이	(공)중보리

▲ 元堂面(원당면) : 안성시 원곡면 내가천리·외가천리·지문리·칠곡리 / 평택시 도일동

康街里	강가리	감주거리	(시)도일동
金老里	금노리	세누리	(원)칠곡리
內元堂	내원당	안원당이	(원)칠곡리
大棗乃	대조내	대소내·대추내	(원)외가천리
獨亭里	독정리	독정이	(원)칠곡리
洞門里	동문리	골문	(원)지문리
新村	신촌		(시)도일동
余洞	여동		(시)도일동
如意谷	여의곡		(시)도일동
驛村	역촌	역말	(원)내가천리
龍洞	용동	용골	(원)외가천리
龍沼里	용소리	용수말	(원)칠곡리
鵲巢洞	작소동	작사	(원)칠곡리
芝村	지촌	불지	(원)지문리
坪加川	평가천	바깥가천	(원)외가천리
下芝村	하지촌	아랫불지	(원)지문리

▲ 栗北面(율북면·밤뒤면) : 평택시 고덕면 동청리 / 청북면 율북리

加乃	가내		
東靑里	동청리	동청아·동체이	(고)동청리
佛井里	불정리	부춧말	(청)율북리
中里	중리		
眞木里	진목리		
項谷	항곡		

▲ 邑內面(읍내면) : 안성시 양성면 구장리·동항리·석화리·추곡리

校村	교촌	향곳골	(양)동항리
東里	동리		(양)동항리
西里	서리		(양)동항리
石花	석화	돌꼬지	(양)석화리
楸谷	추곡	가래울	(양)추곡리

▲ 耳洞面(이동면·귀옹골면)⁹³⁾ : 안성시 공도면 진사리 / 평택시 소사동·용이동

古麗村	고려촌	고린말	(공)진사리
-----	-----	-----	--------

獨沙谷	독사곡	독새골	(공)진사리
東歷村	동력촌	동역말	(시)소사동
西齋谷	서재곡	서재골·서직골	(시)소사동
松田	송전	솔밭	(시)소사동
耳洞	이동	귀용골	(시)용이동
自起村	자기촌	자기말	(시)소사동
陳村	진촌	진말	(공)진사리
倉里	창리	창말	(공)진사리
賢洞	현동	현촌	(시)용이동

▲ 紙洞面(지동면) : 안성시 양성면 도곡라산정라이현라조일리

獨谷	독곡	돛골	(양)도곡리
山井里	산정리	산우물	(양)산정리
梨峴	이현	배티	(양)이현리
造逸里	조일리	조일말	(양)조일리

양주(楊州)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양주시 고읍동 → 1397 : 양주시 유양동

▲ 고을 범위 : 고양시 덕양구(덕)-북한동오금동지축동효자동 / 구리시(구) / 남양주시 시내(남시), 별내면(별), 수동면(수)-송천라수산라지둔리, 오남읍(오), 와부읍(와)-팔당리 제외, 조안면(조)-시우리, 진건읍(진건), 진접읍(진접), 퇴계원면(퇴), 화도읍(화) / 동두천시(동)-탐동 제외 / 서울특별시 광진구(광진), 노원구(노), 도봉구(도), 성동구(성)-성수동, 송파구(송)-신천동-잠실동, 은평구(은평), 중랑구(중) / 양주시 시내(양시), 광적면(광적), 백석읍(백), 은현면(은현), 장흥면(장) / 연천군 전곡읍(전), 청산면(청) / 의정부시(의) / 파주시 광탄면(광탄)-기산라영장리 / 포천시 신북면(신)-갈월리·금동리·덕둔리·삼정리 ※ 서울특별시 강북구(강), 서대문구(서), 성북구(성), 종로구(종), 중구(중) / 포천시 내촌면(내)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加亭子	가정자		
甘岳山	감악산		(전)간파리
客舍	객사		(양시)유양동
黔丹山	검단산		
黔岩屯	검암둔	검바위	(은평)구파발동
鷄山	계산	[달기산]	[(화)창현리]
高峯寺	고령사[보광사]		(광탄)영장리
古楊州面	고양주면		☞
古州內面	고주내면		☞
館基峴	관기현	관터고개	(은평)불광동
光陵	광릉		(진접)부평리
廣石面	광석면	너분돌면	☞
廣津	광진	광나루	(광)광장동
廣峴	광현	넙고개	(내)진목리
仇谷驛	구곡역		(화)구암리
旧關基	구궐기	대궐터	(진접)내각리
龜旨面	구지면		☞
旧倉	구창	현창	(진접)내각리
內洞面	내동면		☞
蘆院面	노원면		☞
露積山	노적산[백봉산]		(와)월문리
綠楊驛	녹양역 ⁹⁴⁾		(의)녹양동
農浦	농포		
樓院	누원	다락원	(의)호원동
達里峴	달리현	달구니고개	(광탄)영장리
達馬堡	달마대	달마골	(진접)부평리
大礪磻峴	대낙반현	[큰]낙반이고개	(은평)낙변동
大灘	대탄	한여울	(전)전곡리
德陵	덕릉		(별)덕송리
德藪	덕수	덕소	(와)덕소리
道峯山	도봉산		(도)도봉동
道峯書院	도봉서원		(도)도봉동
禿音面	독음면	미음면	☞

93) 『호구총수』에는 九龍洞面으로 수록되어 있다.

94) 綠楊은 '녹양이, 냉이, 냉이'로 불리던 순우리말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였다.

禿音津	독음진	미음나루	(남시)수석동	愼妃墓	신비묘[온릉]		(장)일영리
突壓山	돌압산[도락산]		(백)방성리	新川	신천	새내	(송)신천동
東倉	동창	창말	(구)인창동	神穴面	신혈면		☞
豆驗川擺撥	두험천과발			雙樹驛	쌍수역	역말	(진접)내곡리
芭夜面	둔야면		☞	衙	아[동헌]		(양시)유양동
磨嵯山	마차산		(동)안흥동	亞兒岩	아아암		
磨峙峯	마치령	마치고개	(화)묵현리	峩嵯山烽	아차산봉		(광진)광장동
忘憂里面	망우리면		☞	峩漢山	아한산		(광진)광장동
忘憂峴	망우현		(중)망우동	鞍峴烽	안현봉	길마재봉수	(서)현저동
慕鶴峯	모학령	무악재	(중)무악동	楊津堂	양진당		(광진)광장동
木覓山烽	목떡산봉		(중)예장동	於等山	어등산		
磚石峴	박석현	박석고개	(은평)갈현동	鍊武堂	연무당		(양시)유양동
栢峯	백령	잣고개	(진접)내각리	燕山君墓	연산군묘		(도)방학동
白石面	백석면	흰돌면	☞	蓮池	연지		(구)인창동
別非谷面	별비곡면		☞	峯斤面	영근면		☞
奉先寺	봉선사		(진접)부평리	瓦孔面	와공면		☞
北漢[山城]	북한[산성]		(덕)북한동	瓦岩	와암		
佛谷山	불곡산		(양시)유양동	王邦山	왕방산		(동)탑동
佛岩寺	불암사		(별)화접리	王宿灘	왕숙탄	왕산내	
佛岩山	불암산		(별)화접리	龍淵	용연		[(백)복지리]
思陵	사릉		(진진)사릉리	牛耳川	우이천	소귀내	(강)우이동
社稷壇	사직단		[(양시)유양동]	六陵內	육릉내		(구)인창동
司倉	사창		(양시)유양동	懿陵	의릉		(성)석관동
山內面	산내면		☞	伊淡面	이담면		☞
三角山	삼각산[북한산]		(성)정릉동	仁嬪墓	인빈묘[순강원]		(진접)내각리
石串峴	석곶현	돌고지고개	(성)석관동	仁王山	인왕산		(중)무악동
石門峴	석문현	석문이고개	(양시)울정리	長興面	장흥면		☞
石室書院	석실서원		(남시)수석동	蚕室	잠실		(송)잠실동
石積面	석적면		☞	前道峙	전도치	전두치고개	(진접)내곡리
城山	성산		(양시)어둔동	接洞面	접동면	접골면	☞
小礪礪峴	소늑반현	[작은늑반이]고개	(은평)늑반동	貞陵	정릉		(성)정릉동
逍遙山	소요산		(동)상봉암동	靖嬪墓	정빈묘		(광탄)영장리
松溪橋	송계교	석교다리	(노)공릉동	祭垜	제대		
松波津	송파진	송파나루	(송)송파동	鍾岩	종암	북바위	(성)종암동
水落山	수락산		(노)상계동	注葉山	주섭산[죽엽산]		(내)진목리
淑嬪墓	숙빈묘		(광탄)영장리	注乙谷川	주을곡천	주을내	(별)화접리
柴北谷面	시북곡면		☞	中浪浦	중랑포	중랑개	(중)면목동·상계동

眞官面	진관면		진관면
陳畚面	진답면	묵은면	진답면
榛伐面	진벌면	갸벌면	진벌면
眞岩祭堡	진암제대		진암제대
昌陵川	창릉천	창릉내[덕수내] (덕)용두동	창릉내[덕수내] (덕)용두동
天磨山	천마산	(화)묵현리	(화)묵현리
天寶山	천보산	(양시)회암동	(양시)회암동
泉川面	천천면		천천면
青松面	청송면		청송면
青松山	청송산	(창)궁평리	(창)궁평리
清節祠宇	청절사 ⁹⁵⁾	(의)장암동	(의)장암동
哨村	초촌	초말	(청)초성리
祝石峯	축석령	축석령고개	(양시)만송동
泰陵	태릉		(노)공릉동
退啓院	퇴계원		(퇴)퇴계원리
擺撥	과발		(은평)구과발동
下道面	하도면		하도면
漢江	한강		한강
汗伊山峰 ⁹⁶⁾	한이산봉		(오)양지리
漢川	한천[중랑천]	한내	(도)창동
蟹踰峯	해유령	게네미고개	(백)연곡리
鄉校	향교		(양시)유양동
縣內面	현내면		현내면
弘福山	홍복산		(백)복지리
華陽場	화양장		(광진)화양동
回龍寺	회룡사		(의)호원동
檜陵	회릉		회릉
檜岩面	회암면		회암면
檜岩寺堡	회암사대	회암사터	(양시)회암동
興國寺	흥국사		(별)덕송리

I 면의 상세 정보

▲ 乾川面(건천면) : 남양주시 진건읍 사릉리·송릉리·용정리, 오남읍 양지라·오남리·팔현리

三牌於南里 삼패어남리 으나미 (오)오남리
 二牌白橋里 이패백교리
 一牌成陵里 일패성릉리 성릉 (진진)송릉리

▲ 古楊州面(고양주면) :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구의동·군자동·능동·송정동·자양동·중곡동·화양동, 성동구 성수동, 중랑구 면목동, 송파구 신천동·잠실동

四牌蚕室里 사패잠실리 잠실 (송)잠실동
 三牌新川里 삼패신천리 새내 (송)신천동
 二牌雌馬場里 이패자마장리 자마장 (광진)자양동
 一牌廣津里 일패광진리 광나루 (광진)광장동

▲ 古州內面(고주내면) : 양주시 고읍동·광사동·만송동·삼송동
 古邑里 고읍리 (양시)고읍동

▲ 廣石面(광석면·너븐돌면) :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광석리·비암리·우고리

加羅非里 가라비리 가래비 (광적)가납리
 加自洞里 가자동리 가재울 (광적)우고리
 廣綾里 광릉리 광능말 (광적)광석리
 廣石里 광석리 너븐돌 (광적)광석리
 槐音里 괴음리 괴음 (광적)비암리
 文城里 문성리 문재·민재 (광적)광석리
 三古介里 삼고개리 세우개 (광적)우고리
 所加里 소가리 소가리·효가리 (광적)우고리
 牛谷里 우곡리 우골 (광적)우고리
 長性里 장성리
 後庭里 후정리 뒷들 (광적)광석리
 黑石里 흑석리 검은돌 (광적)비암리

▲ 龜旨面(구지면) : 구리시 교문동·사로동·수택동·아천동·인창동·토평동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95) 현재는 노강서원이 들어서 있다.

96) '汗'은 순우리말 '크다'의 뜻인 '한'에 대해 한자의 소리를 따라 표기한 것이며, 한자의 뜻을 따서 '大'로 기록하는 경우도 많다.

一牌里 일패리
倉里 창리 창말 (구)인창동

▲ 金村面(금촌면) : 남양주시 금곡동·삼패동·이패동·일패동·지금동

馬山里 마산리 말미 (남시)이패동
鳳頭山里 봉두산리 봉두메 (남시)일패동

四牌 사패
三牌 삼패 (남시)삼패동
二牌 이패 (남시)이패동
一牌 일패 (남시)일패동

鼎谷里 정곡리
平丘里 평구리 쇠꼬리·평구 (남시)삼패동

▲ 內洞面(내동면) : 의정부시 고산동·산곡동

笠巖里 입암리 갓바위 (의)고산동

▲ 蘆原面(노원면) : 구리시 갈매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상계동·월계동·중계동·하계동

四稷里 사계리
上稷里 상계리 (노)상계동
中稷里 중계리 (노)중계동
下稷里 하계리 (노)하계동

▲ 禿音面(독음면·미음면) : 남양주시 가운동·도농동·수석동

三牌里 삼패리
二牌水邊里 이패수변리 미음 (남시)수석동
一牌金門里 일패금문리

▲ 荳夜面(두야면) : 의정부시 신곡동·용현동·의정부동·장암동·호원동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 忘憂面(망우면) :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동·묵동·상봉동·신내동·중화동

陵洞里 능동리 능말 (중)신내동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 白石面(백석면·흰돌면) : 양주시 백석면 가업리·방성리·복지리·연곡리·오산리·홍죽리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 別非谷面(별비곡면) : 별내면 광전리·덕송리·용암리·청화리, 퇴계원면 퇴계원리·화접리, 전접읍 내곡리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 山內面(산내면) : 포천시 신북면 갈월리·금동리·덕둔리·삼정리

射亭里 사정리 새청 (신)덕둔리

▲ 上道面(상도면) : 남양주시 평내동·호평동, 수동면 송천리·운수리·지둔리, 화도읍 가곡리·구암리·답내리·먹현리·월산리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 이패
一牌里 일패리

寒沙田里 한사전리 한새 (수)송천리

▲ 石積面(석적면) : 양주시 광적면 가납리·덕도리·석우리·효촌리, 은현면 도하리

車馬洞里 거마동리 거미울 (광적)효촌리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광적)석우리
五牌里 오패리
二牌里 이패리 (광적)덕도리
一牌里 일패리

杏洞里 행동리 살구골 (은현)도하리

▲ 柴北谷里(시북곡면) : 의정부시 가릉동·금오동·낙양동·녹양동·민락동·자일동

一牌里 일패리

▲ 神穴面(신혈면) : 고양시 덕양구 북한동·오금동·지축동·효자동 /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파발동·진관내동·진관외동

黔巖里	검암리	검바위	(은평)구과발동
舊把撥里	구과발리		(은평)구과발동
木甘里	목감리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 於等山面(어등산면) : 양주시 봉양동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 嶺斤面(영근면) : 연천군 전곡읍 간파리·고릉리·마포리·신답리·양운리·온대리·전곡리

一牌里	일패리
-----	-----

▲ 瓦孔面(와공면) : 남양주시 와부읍 덕소리·도곡리·월문리·율석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草代里	초대리

▲ 邑內面(읍내면) : 양주시 남방동·마전동·산북동·어둔동·유양동

南方里	남방리	남방	(양시)남방동
麻田里	마전리	삼밭굴	(양시)마전동
府君里	부군리		
山北里	산북리	산뒤·산디	(양시)산북동
於斗里	어두리	왜둔자·왜벌·어둔	(양시)어둔동
蓮亭里	연정리		
院祠里 ⁹⁷⁾	원사리	[원모루]	(양시)유양동
中里	중리		
紙藏里	지장리		
鄉校里	향교리	향교말·생꽃굴	(양시)유양동
弘門里	홍문리	홍문거리	(양시)유양동

▲ 伊湊面(이담면) : 동두천시 걸산동·광암동·동두천동·상봉암동·생연동·송내동·안흥동·지행동·하봉암동

柯亭子里	가정자리		
傑山里	걸산리	걸미	(동)걸산동

廣巖里	광암리	너븐바위	(동)광암동
鳳巖里	봉암리	새바위	(동)상봉암동
舍堂里	사당리	사당골	(동)지행동
松羅里	송라리		(동)송내동
安興里	안흥리	안흥골	(동)안흥동
黃梅音里	황매음리	황마름	(동)생연동

▲ 長興面(장흥면) :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부곡리·삼상리·삼하리·석현리·울대리·일영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장)일영리

▲ 接洞面(접동면) :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장현리, 오남읍 연평리

宮洞里	궁동리	궁골	(오)연평리
金洞里	금동리		
內洞里	내동리		
本接洞里	본접동리		
峯峴里	봉현리		
瓦村里	와촌리	오얏마을	(오)연평리
祭斤里	제근리		
中洞里	중동리		
縣倉里	현창리	현창·선창	(진접)내각리

▲ 眞官面(진관면) : 남양주시 진건읍 신월리·진관리

四牌里	사패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月陰里	일패월음리	대래미	(진건)신월리

▲ 陳奮面(진담면·묵은면) : 양주시 은현면 봉암리·선암리·용암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里	일패리

▲ 榛伐面(진벌면·갯벌면) :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진접읍 금곡리·부평리·진벌리·팔야리

馬山里	마산리		(수)수산리
-----	-----	--	--------

97) 祠는 隅를 잘못 옮긴 것으로 추정된다.

▲ 泉川面(천천면) : 양주시 고암동·덕계동·덕정동·회정동
 德亭里 덕정리 덕정아·덕쟁이 (양시)덕정동
 道德里 도덕리 도둔이 (양시)덕계동
 遯溪里 둔계리 똥계·돈계 (양시)덕계동

▲ 靑松面(청송면) : 연천군 청산면 궁평리·대전리·백의리·장탄리·초성리

官村里 ⁹⁸⁾	관촌리	[궁말]	[(청)궁평리]
金村里	금촌리		
大田里	대전리	한밭·함바치	(청)대전리
白虎里	백호리	백홀	(청)백의리
蟻栗里	의요리	개미허리	(청)백의리
二牌里	이패리		
長淵里 ⁹⁹⁾	장연리	[긴여울]	[(청)장탄리]
哨村里	초촌리	초말	(청)초성리
炭洞里	탄동리	숯골	(청)장탄리
坪村里	평촌리		

▲ 下道面(하도면) : 남양주시 조안면 시우리, 화도읍 금남리·녹촌리·마석우리·차산리·창현리

三牌里	삼패리		
二牌里	이패리		
一牌孟洞里	일패맹동리	맹골	(화)차산리

▲ 海等村面(해등촌면)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방학동·쌍문동·창동

覺心里	각심리		
樓院里	누원리	다락원	(도)도봉동
馬山里	마산리	말미	(도)창동
所羅里	소라리		
巖回里	암회리	성고개	(도)방학동
靈國里	영국리	웃서원	(도)도봉동
牛耳里	우이리	소귀·쇠귀	(도)쌍문동

▲ 縣內面(현내면) : 동두천시 상패동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三牌里	삼패리	하패	(은현)하패리
二牌里	이패리	중패	(은현)하패리
一牌里	일패리	상패	(동)상패동

▲ 檜巖面(회암면) : 양주시 옥정리·율정동·회암동

內檜巖里	내회암리	안회암	(양시)회암동
末汗里	말한리	마라니	(양시)옥정동

양 지 (陽智)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용인시 양지면 양지리

▲ 고을 범위 : 용인시 처인구 시내(시)-마평동·운학동·해곡동, 양지면(양지), 백암면(백)-고안라·박곡라·백봉리, 원삼면(원)-목신라·학일리 / 안성시 고삼면(고), 양성면(양성)-노곡라·미산리, 일죽면(일)-능곡리 ※ 용인시 모현면(모), 원삼면(원)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古東面	고동면		고동면
古北面	고북면		고북면
古西面	고서면		고서면
高安面	고안면		고안면
古倉	고창	창말	(고)신창리
金良橋	김량교	김량다리	(시)김량장동
內洞	내동	안골	(원)사암리
大曲頓峴	대곡둔현	큰굽든고개	(원)사암리
大海山	대해산		
蔓山	만산		
木岳面	목악면		목악면
文侍郎村	문시랑촌	문시랭이	(원)문촌리
朴谷面	박곡면		박곡면
朴林山	박림산		[(고)신창리]
蛇山	사산	[배매실]	(양지)남곡리
石灘	석탄	[돌대미]	[(모)갈담리]

98) 官은 宮을 잘못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99) 淵은 灘을 잘못 옮긴 것으로 판단된다.

小曲頓峴	소곡둔현	작은곶둔고개	(원)학일리
水踰峴	수유현	무너미고개	(시)남동
雙峯峴	쌍령현	쌍령[고개]	(고)쌍령리
衙	아[동현]		(양지)양지리
安養寺	안양사		
御隱山	어은산[갈미봉]		(양지)남곡리
定水山	정수산		(양지)정수리
蹄村面	제촌면		
左贊峴	좌찬현	좌전고개	(원)좌향리
朱東面	주동면		
朱北面	주북면		
朱西面	주서면		
直洞	직동	고등골	(시)삼가동
秋溪古縣	추계고현		(양지)추계리
炭理峴	탄리현		
鶴峴	학현	[턱골고개]	[(설)대죽리]
海谷里	해곡리	바다골	(시)해곡동
蟹踰峴	해유현	기너미고개	(원)맹리
鄉校	향교		(양지)양지리
灰峴	회현		
燠造峴	훈조현	[메주고개]	(시)삼가동

I 면의 상세 정보

▲ 古東面(고동면) : 안성시 고삼면 봉산리·삼은리·쌍지리·월향리

奉知谷	봉지곡	바디실	(고)상지리
鳳凰里	봉황리	봉이·부엉이	(고)봉산리
三隱里	삼은리	삼은이	(고)삼은리
雙嶺里	쌍령리		(고)쌍지리
月老洞	월노동	다리골	(고)월향리
香林里	향림리	향림	(고)봉산리
花山里	화산리	꽃파·꽃미	(고)봉산리

▲ 古北面(고북면) : 안성시 고삼면 가유리 / 양성면 노곡리·미산리

山後里	산후리		
上佳里	상가리	윗개울말	(고)가유리
藥山里	약산리	약산골	(양성)미산리

塩峙里	염치리	염티	(양성)노곡리
柳驛里	유역리	버드라기	(고)가유리
下佳里	하가리	아랫개울말	(고)가유리

▲ 古西面(고서면) : 안성시 고삼면 대갈라·신창리

葛山里	갈산리	갈미	(고)대갈리
大坪里	대평리	벌말	(고)대갈리
酒谷洞	주곡동	샘실	(고)신창리
池谷里	지곡리		

▲ 高安面(고안면)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고안리·백봉리

栢洞里	백동리	잣나뭇골	(백)고안리
峯里	봉리	이진봉	(백)백봉리
上里	상리		[(백)백봉리]
注川里	주천리	주래	(백)고안리
中里	중리		[(백)백봉리]
坪里	평리	벌말	(백)백봉리

▲ 木岳面(목악면)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목신리·학일리

木岳里	목악리	무악이·목악	(원)목신리
鶴一里	학일리	학일	(원)학일리

▲ 朴谷面(박곡면)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박곡리

朴石谷	박석곡	박석골	(백)박곡리
新倉里	신창리	새창리	[(백)박곡리]
淸溪里	청계리	청계골	(백)박곡리

▲ 邑內面(읍내면)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남곡리·양지리

校洞里	교동리	향교말	(양지)양지리
南伐院里	남벌원리	남발안	(양지)남곡리
藤原里	등원리	드랭이	(양지)양지리
巖谷里	암곡리	바우실	(양지)양지리
紅門里	홍문리		

▲ 蹄村面(인제면) : 안성시 일죽면 능곡리

菊洞里	국동리	국골·죽골	(일)능곡리
-----	-----	-------	--------

▲ 朱東面(주동면)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식금리·제일리·추계리·평창리

貢稅洞里	공세동리	공세울	(양지)제일리
金谷里	금곡리	쇠일	(양지)식금리
都也只里	도야지리	돼가도야가뒤야기	(양지)평창리

山幕里	산막리	산마골·산맷골 (양지)제일리
雨來谷	우래곡	
鑛店里	유점리	놋점이 (양지)식금리
佐贊里	좌찬리	좌전고개 [(양지)평창리]
秋溪里	추계리	(양지)추계리

▲ **朱北面(주북면)** :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대대라·정수라·주북리

大垔里	대대리	한터 (양지)대대리
朴成谷里	박성곡리	치루개 (양지)주북리
定水里	정수리	증세·정수 (양지)정수리
黑巖里	흑암리	

▲ **朱西面(주서면)** : 용인시 처인구 마평동·운학동·해곡동 / 양지면 송문리

麻田里	마전리	마전이 (양지)마평동
盤亭里	반정리	반정이 (양지)송문리
松洞里	송동리	구란
食只谷里	식지곡리	
新坪里	신평리	신평이 (시)마평동
魚得里	어득리	어둔이 (시)운학동
旌門里	정문리	정문말 (양지)송문리

양 천 (陽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 **고을 범위** : 서울특별시 강서구(강)-오곡동-오쇠동 제외, 양천구(양), 영등포구(영)-양화동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加背谷面	가배곡면		
葛誕山	갈탄산	[칼산]	[(양)신정동]
開花山	개화산		(강)개화동
客舍	객사		(강)가양동
孔岩	공암	구멍바위	(강)가양동
孔岩津	공암진		(강)가양동
衿井山	금정산		[(강)화곡동]
南山	남산		(강)화곡동
南山面	남산면		
陵洞山	능동산	능골산	(양)신월동
大同山	대동산		(양)신월동
大鵲橋 ¹⁰⁰⁾	대작교		[(강)등촌동]
禿山	단산		(양)신정동
馬山	마산		
晩橋	만교	늦다리	(강)공항동
晩山	만산		
烽	봉[개화산봉수]		(강)개화동
三井面 ¹⁰¹⁾	삼정면		
三井山	삼정산		
仙遊山	선유산	평이산	(영)양평동
城山 ¹⁰²⁾	성산		(강)가양동
成才山	성재산[성주산]		(강)가양동

100) 1872년에 제작된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양천현의 지도에는 ‘鵲川橋’가 표시되어 있는데, 부근에 있던 까치재란 고개에서 흘러오기 때문에 붙은 이름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鵲川’은 ‘까치내’, ‘鵲川橋’는 ‘까치내다리’로 불렸을 가능성이 있다.

101) 三井은 순우리말 이름인 세우물에 대해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

102) 城山은 순우리말 이름인 잣피에 대해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다.

逍遙山	소요산		(강)가양동
小鵲橋	소작교		[(강)등촌동]
新月山	신월산		(양)신월동
衙舍	아새동헌		(양)가양동
楊花津渡	양화진도	양화나루	영등포구 양평동
嚴之山	엄지산	엄지미	(양)목동
厲祭壇	여제단		(강)가양동
驛村	역촌	역말	(강)화곡동
烟戶山	연호산		
鹽倉山	염창산	취산	(강)염창동
將軍所面	장군소면		장군소면
丁字山	정자산		
甌山	증산	시루메	(양)신월동
澄山	정산	정미	(강)염창동
天神山	천신산		
鐵串橋	철곶지교	처로지[다리]	(양)목동
靑龍山	청룡산		
玻璦山	파려산		
浦橋	포교		
漢橋	한교	한다리	(강)가양동
鄉校	향교		(강)개양동

I 면의 상세 정보

▲ 加背谷面(가배곡면) : 강서구 공항동·과해동·내발산동·외발산동

果海里	과해리	과해	(강)과해동
內鉢山里	내발산리		(강)내발산동
訥語里	눌어리	누랭이	(강)공항동
小栗里	소율리	소배미	(강)공항동
松亭里	송정리		(강)공항동
外鉢山里	외발산리		(강)외발산동
元堂里	원당리	원당아·원대이	(강)내발산동

▲ 南山面(남산면) : 강서구 등촌동·염창동·화곡동, 양친구 목동, 영등포구 양화동

陵洞里	능동리	능골	(강)화곡동
盤谷里	반곡리		
背村里	배촌리	등마루	(강)등촌동
本洞里	본동리	나말	(양)목동

楊花渡里	양화도리	양화나루	(영)양화동
驛里	역리	역말	(강)화곡동
塩倉里	염창리		(강)염창동
月村里	월촌리	달거리	(양)목동
禾谷里	화곡리		(강)화곡동

▲ 三井面(삼정면) : 강서구 개화동·방화동

內浮石里	내부석리	[안]부석이	(강)개화동
陵里	능리	능말	(강)방화동
道場里	도장리	도당	(강)방화동
相思洞里	상사동리	상사골	(강)개화동
外浮石里	외부석리	[바깥]부석이	(강)개화동
雄峴里	웅현리		
井谷里	정곡리	돌정말	(강)방화동

▲ 將軍所面(장군소면) : 양친구 신월동·신정동

古音月里	고음월리	곰달내	(양)신월동
棠洞里	당동리	당골	(양)신월동
新機里	신기리	신틀이	(양)신정동
新月里	신월리		(양)신월동
銀杏亭里	은행정리	은행정이	(양)신정동

▲ 縣內面(현내면) : 강서구 가양동·마곡동

古陽里	고양리	괭이말	(강)가양동
孔巖里	공암리		(강)가양동
麻谷里	마곡리	마결	(강)마곡동
麻堂里	마당리		
成才亭里	성재정리	성주물	(강)가양동
鄉校洞里	향교동리		(강)가양동
後浦里	후포리	뒷개	(강)마곡동

여주(驪州)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여주군 여주읍 상리·하리

▲ 고을 범위 : 여주군 가남면(가), 금사면(금), 능서면(능), 대신면(대), 북내면(북)-내룡라당우라상교라신남라오금라오학라외룡라주암라천송라현암리, 산북면(산), 여주읍(여), 점동면(점), 홍천면(홍) / 양평군 개군면(개)

※ 여주군 강천면(강) / 양평군 용문면(용)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加西谷面	가서곡면		☞
葛老峴	갈로현		
岡金山	강금산		(가)송림리
介軍山面	개군산면		☞
高達山	고달산		(대)상교리
古梁川	고량천		
孤山	고산		(대)보통리
九曲峴	구곡현	고살래고개	(점)흔암리
龜尾浦	구미포	구미개·후미개	(개)구미리
近東面	근동면		☞
金塘川	금당천		
金沙面	금사면	금새면	☞
金沙川	금사천	금새[내]	(금)금사리
沂川書院	기천서원		(금)이포리
吉川面	길천면	진내면	☞
南山	남산		(홍)하다리
內衙	내아		(여)상리
大松面	대송면	한솔면	☞
大抱山	대포산		(여)상거리
東軒	동헌		(여)상리
馬岩	마암	말아우	(여)상리

牟腐川	모부천		
雹石峴	박석현	[번드레고개]	[(여)가업리]
白岩	백암	흔마위[나루]	(점)흔암리
白雲山	백운산		
鳳尾山	봉미산		(북)신남리
北面	북면		☞
北城山	북성산		(능)신지리
分地峴	분지현	분지재고개	(북)운촌리
蛇村津	사촌진	배미나루	(강)이호리
山莫峴	산막현		
山院 ¹⁰³⁾	고산서원		(대)후포리
象頭山	상두산		(금)장흥리
仙遊臺	선유대[유선대]		(여)상리
召開谷面	소개곡면	조기울면	☞
所老洞堤堰	소로동제언		
首界面	수계면	송계면	☞
勝山	승산[聖山]		[(여)점봉리]
神勒寺	신륵사		(북)천송리
莘遇川	신우천	신은이내	(홍)신근리
莘隱大川	신은대천	신내개울	(개)공세리
新津驛	신진역		(여)신진리
安平驛	안평역		(점)장안리
楊花驛	양화역		(홍)귀백리
梁花津 ¹⁰⁴⁾	양화진	양화나루	(능)내양리
魚郎里	어랑리		
億橋	억교	억다리·옥다리	(홍)효자리
煙羅山	연라산[연하산]		(여)연라리
寧陵	영릉		(능)왕대리
英陵	영릉		(능)왕대리
龍門山	용문산		(용)연수라·신점리
元寂山	원적산		(금)주록리
元亨洞堤堰	원향동제언	원양이제언	(점)원부리
邑津	읍진	읍나루터	(여)홍문리
梨浦津	이포진	배개나루	(금)이포리
紫津浦川	자진포천	자진개[내]	(대)상자포리

103) 孤山書院을 잘못 옮긴 것이다.

104) 梁花는 楊花를 잘못 쓴 것이며, 순우리말 이름인 '버들고지'에 대한 한자 표기다.

長山	장산	진마·진미	(북)장암리
長阿叱峴	장아칠현	장앗치	(산)주록리
占梁面	점량면	점돌면	점돌면
州內面	주내면		주내면
走馬山	주마산		
走魚山	주어산[주예산]		(산)하품리
倉洞內	창동내	창말	(여)창리
淸心樓	청심루		(여)상리
趨揖山	추읍산		(개)주읍리
婆婆城	파사성		(대)천서리
品谷川	품곡천	품실[내]	(산)상품리
下洞內	하동내	아랫동네	(여)하리
遐五峴	하오현		
鄉校	향교		(여)교리
慧木山	혜목산		(대)상교리
弘門洞	홍문동	홍문골	(여)홍문동
興曲面	흥곡면		흥곡면

※ 여주팔경(驪州八景)

- 一景 蛇村漁火 배미나루 고기잡이 등불
 二景 神勒暮鍾 신록사 저녁 종소리
 三景 鷺灘飯帆 제비여울 귀향하는 돛단배
 四景 八大長林 팔대수 긴 숲
 五景 羊島落雁 양섬 내려앉는 기러기
 六景 笠岩層岸 갓갯마위 층층 벼랑
 七景 婆婆過雨 파사성 지나가는 비
 八景 龍門赤翠 용문산 울긋불긋 단풍

Ⅰ 면의 상세 정보

▲ 加西谷面(가서곡면) : 여주군 가남면 건장리·대신리·상활리· 신해리·정단리·태평리

上鷹巖洞	상응암동	응암	(가)상활리
所丹洞	소단동	숫단·술단이	(가)정단리
新垵洞	신대동	새터	(가)태평리
新文洞	신문동	안터	(가)대신리
日新洞	일신동	일신	(가)신해리
下鷹巖洞	하응암동		[(가)상활리]

▲ 介軍山面(개군산면) : 양평군 개군면 계전리·공세라·구미리· 내리·부리·상자포리·석장리·양덕리·자연라·주읍리·하자포리· 향리

貢稅洞	공세동	공세울	(개)공세리
龜尾浦	구미포	후미개·구미개	(개)구미리
內洞	내동	안말	(개)내리
釜洞	부동	가마골	(개)부리
上紫浦	상자포	위자진개	(개)상자포리
仰德洞	양덕동	양덕	(개)양덕리
祭田洞	제전동	계밭	(개)계전리
鳥三洞	조삼동	새샘	(개)석장리
注邑里	주읍리	주읍·추읍	(개)주읍리
下紫浦	하자포	아래자진개	(개)하자포리
香洞	향동	상골	(개)향리

▲ 近南面(근남면) : 여주군 가남면 금곡리·금당리·삼승리· 송림리·안금리·연대리

貴日洞	귀일동	구일	(가)안금리
金谷洞	금곡동	소일·쇠일	(가)금곡리
金橋洞	금교동	쇠다리·쇠뚜리	(가)안금리
金大洞	금대동	김대	(가)금당리
松林洞	송림동	송림·어실이	(가)송림리
蓮垵洞	연대동	연대굴·쑥디	(가)연대리
元承洞	원승동	원승이	(가)삼승리

▲ 近東面(근동면) :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단현리·떡곡리· 삼교리·신진리·우만리·점봉리·하거리, 점동면 처리·혼암리

葛山洞	갈산동		
大巨洞	대거동	한거리	(여)하거리
鉢山洞	발산동	발음이	(여)점봉리
新津驛村	신진역촌	신진역말	(여)신진리
牛橋洞	우교동	소다리·논절미	(여)삼교리
又晩洞	우만동	소만아·우만이	(여)우만리
處洞	처동	방근곡차·범소	(점)처리
草峴洞	초현동	성늪	(여)능현리
欣巖洞	혼암동	혼바위	(점)혼암리

▲ 吉川面(길천면·진내면) : 여주군 능서면 구양리·내양리· 백석리·변도리·왕대리 / 홍천면 귀백리·대당리·상백리· 신근리·율곡리·효자동

九陽洞	구양동	고양이·구앵이	(능)구양리
歸來洞	귀래동	귀래	(흥)귀백리
內安洞	내안동	낸들·내안들	(능)내양리
大旺洞	대왕동	대왕이	(흥)대당리
都洞	도동	독골	(능)번도리
白石洞	백석동	흰돌·흰들	(능)백석리
番頭洞	번두리	번머리	(능)번도리
上白羊洞	상백양동	웃뱅골	(흥)상백리
莘隱洞	신은동	신은아·신잉이	(흥)신근리
楊花驛 ¹⁰⁵⁾	양화역	[버들고지]	(능)내양리
梧根洞	오근동	오근골	(흥)신근리
旺岱洞	왕대동	왕터	(능)왕대리
栗洞	율동	밤골	(흥)율극리
淸塘洞	청당동	청당이	(흥)대당리
下白羊洞	하백양동	아래뱅골	(흥)귀백리
孝地洞	효자동	효자동·효자소지	(흥)효자리

▲ **金沙面(금사면·금새면)** : 여주군 금사면 궁리·금사라도곡리·상호리·소유리·외평라이포리·장흥리·전북리 / 산북면 백자리·상품리·송현리·용담리·하품리·후리

宮里洞	궁리동	궁말	(금)궁리
錦溪洞	금계동		(금)금사리
道壯洞	도장동	도장골	(금)도곡리
上品谷洞	상품곡동	위품실	(산)상품리
巢由洞	소유동	소우살·소유실	(금)소유리
松峴洞	송현동	솔고개	(산)송현리
龍潭洞	용담동	용소·용못	(산)용담리
栗洞	율동		
梨浦洞	이포동	배개	(금)이포리
長興洞	장흥동	장흥골	(금)장흥리
箭北洞	전북동	살띠	(금)전북리
下金沙洞	하금사동	[아래]금새	(금)금사리
下品谷洞	하품곡동	아래품실	(산)하품리
後洞	후동	뒷골	(산)후리

▲ **大松面(대송면·한솔면)** : 여주군 대신면 계림리·당남리·도룡리·무촌리·보통리·송촌리·옥촌리·윤촌리·율촌리·천서리

客浦洞	객포동		
桂林洞	계림동	계림	(대)계림리
官洞	관동		
本洞	본동		
渭岸洞	위안동	위안골	(대)보통리
栗里洞	율리동	배미	(대)율촌리

▲ **等神面(등신면)** : 여주군 대신면 가산리·당산리·상구리·장풍리·천남리·초현리·하림리·후포리

佳林洞	가림동	가섭	(대)하림리
九峴洞	구현동	구재	(대)후포리
長山洞	장산동	장산동·개와집땀	(대)가산리
長豐洞	장풍동	장풍골	(대)장풍리
才佳洞	재가동	재개울	(대)가산리
川南洞	천남동		(대)천남리
川北洞	천북동	두라리	(대)가산리
草峴洞	초현동	새재	(대)초현리
後浦洞	후포동	뒷개	(대)후포리

▲ **北面(북면)** : 여주군 북내면 내룡리·당우리·상교리·신남리·오금리·오학리·외룡리·주암리·천송리·현암리

高達洞	고달동	절터골	(북)상교리
九南洞	구남동	구남	(북)신남리
杯洞	배동		
烏金洞	오금동	오금실	(북)오금리
烏川洞	오천동	중터·점터	(북)오학리
川西洞	천서동	내세	(북)천송리

▲ **召開谷面(소개곡면·조개울면)** : 여주군 가남면 본두리·삼군리·심석리·양귀리·오산리·은봉리·하귀리·화평리

公心洞	공심동	공시미	(가)심석리
本洞	본동	조개울	(가)본두리
三神洞	삼신동	맹골	(가)삼군리
上貴洞	상귀동	귀일	(가)양귀리
五山洞	오산동	오미	(가)오산리
下貴洞	하귀일	아래귀일·세군이	(가)하귀리
花蓮洞	화련동	화련	(가)화평리
黑石洞	흑석동	흑석	(가)심석리

105) 楊花는 순우리말 이름인 '버들고지'에 대한 한자 표기다.

▲ **首界面(수계면·송계면)** : 여주군 여주읍 상거리·연라라·하거리 / 능서면 광대리·마래리·매류리·매화라·신지라·양거리·용은리

廣石里	광석동	나분돌	(능)광대리
大井洞	대정동	한우물	(능)광대리
馬來洞	마래동	말랑이·말래	(능)마래리
梅柳洞	매류동	마릿골	(능)매류리
本洞	본동	송계	
上巨里谷洞	상거리곡동	웃한거리·물우물	(여)상거리
新池洞	신지동	신제·신지	(능)신지리
烟蘿洞	연라동	연내울	(여)연라리
龍巨洞	용거동	용거머리	(능)용은리
下巨里谷洞	하거리곡동	아래한거리	(여)하거리

▲ **占梁面(점량면·점돌면)** : 여주군 점동면 관한라·뇌곡라·당진라·덕평라·도라·부구라·사곡라·삼합라·성신라·원부라·장안라·청안리

寬谷洞	관곡동	관골	(점)관한리
雷谷洞	뇌곡동	우리살·우뢰실	(점)뇌곡리
丹樹里洞	단수리	부라우	
德谷洞	덕곡동	덕실	(점)덕평리
道里洞	도리동	도래·되래	(점)도리
沙谷洞	사곡리	모래실	(점)사곡리
上淸安洞	상청안동	청안·안말	(점)청안리
申里洞	신리동	신이	(점)성신리
安平洞	안평동	안평	(점)장안리
安平驛村	안평역촌	안평역말	(점)장안리
完匠洞	완장동	완쟁이	(점)당진리
元享洞	원향동	원양이	(점)원부리
楸谷洞	추곡동	가래울	(점)사곡리
坪村洞	평촌동	들말	(점)덕평리
下淸安洞	하청안동	청안	(점)청안리

▲ **州內面(주내면)** : 여주군 여주읍 가업라·교라·매룡라·상라·연양라·월송라·창라·하라·홍문리

校洞	교동	향교말·생교말	(여)교리
三田洞	삼전동	삼밭골	(여)연양리
上洞	상동	웃동네	(여)상리
倉洞	창동	창골	(여)창리

下洞	하동	아랫동네	(여)하리
弘門洞	홍문동	홍문골	(여)홍문리

▲ **興曲面(흥곡면)** : 여주군 흥천면 계신라·내사라·다대라·문장라·북대라·상대라·외사라·하다리

福大洞	북대동	북대골	(흥)북대리
絲田	사전	시랏	(흥)내사리
上多佛里	상다불리	웃다부리	(흥)다대리
上大里	상대리	[웃]다리	(흥)상대리
新村	신촌	새터	(흥)외사리
忠信洞	충신동	중송골	(흥)계신리
下多佛里	하다불리	아랫다부리	(흥)하다리
下大里	하대리	[아래다리]	[(흥)상대리]

연천(漣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연천군 연천읍 읍내리

▲ **고을 범위** : 연천군 군남면(군)-남계라·황지리 제외, 연천읍(연)-부곡리 제외, 왕징면(와)-강내라·강서리, 중면(중)-마거리·삼곶리·적거리·중사라·합수리·황산리

※ 연천군 미산면(미), 포천시 창수면(창)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袞裳坪	가사평		
客舍	객사		(연)읍내리
乾井里	건정리	건당동	(연)통현리
鷄鳴山	계명산		(왕)강서리
軍營里	군영리		(왕)강서리
德峯	덕령	덕영고개	(연)읍내리
獨井里	독정리		
東幕洞	동막동	동막골	(연)동막리
摩訶川	마가천	마내	(창)신흥리

晚月村	만월촌	[느진머루]	[(연)통현리]
文石	문석	문자석	(왕)강서리
白鶴洞	백학동		
蜂岩	봉암	벌봉	(연)동막리
釜洞	부동	가마실	(연)부곡리
佛見山	불현산	불견이고개	(연)옥산리
沙洞里	사동리		(중)중사리
莎場里	사장리		
三串里	삼곶리	세곶	(중)삼곶리
三峯里	삼봉리	삼보이	(연)동막리
上水回里	상수회리	웃무드리	(중)합수리
城山	성산		[(연)읍내리]
城隍祠	성황사		(연)읍내리
水磨洞里	수마동리		
水鐵洞	수철동	무시울	(연)고문리
淳熙菴墓	순희암묘		(연)부곡리
時助津	시조진		
峩嵎川	아미천		(미)아미리
衙	아[동헌]		(연)읍내리
野前里	야전리	들앞	(왕)강내리
陽金山	양금산	양금재	(연)차탄리
五鳳寺	오봉사		(연)고문리
五鳳山	오봉산		(연)고문리
玉溪驛	옥계역		(군)옥계리
玉洞	옥동		
圓寂寺	원적사		(연)부곡리
留濤崖	유도애		
楡林津	유림진	유림[나루]	(왕)무등리
栗峴	율현	밤고개	(중)삼곶리
一鳳山	일봉산		[(연)부곡리]
臨漳書院	임장서원		(연)동막리
紫煙瀑	자연폭[재인폭포]		(연)부곡리
齋宮洞	재궁동	쟁골	(연)상리
赤巨里	적거리		(중)적거리
前谷里	전곡리	앞실	(연)차탄리
左贊里	좌찬리		(연)상리
舟山	주산	배산	(연)통현리
中山里	중산리		(중)중사리

眞明山	진명산		
進上里	진상리	진상	(군)진상리
澄波津	징파진	듬발나루	(왕)북삼리
車灘	차탄	술여울	(연)차탄리
攢翠岩	찬취암		
胎峯	태봉		(연)동막리
下水回里	하수회리	[아래]무드리	(중)합수리
鄉校	향교		(연)읍내리
懸崖項	현애항		(연)부곡리
橫江津	횡강진		(중)횡산리
橫山里	횡산리	비끼미	(중)횡산리
後洞里	후동리		

I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연천군 남면 삼거리·선곡리·옥계리·왕림리·진상리

葛廟里	갈묘리	갈묘동	(군)선곡리
上深谷里	상심곡리	[웃]기피울	(군)삼거리
石峴里	석현리	도리개	(군)왕림리
玉溪里	옥계리	옥계	(군)옥계리
進祥里	진상리	진상	(군)진상리
榛田里	진전리	진전동	(군)옥계리
下深谷里	하심곡리	[아랫]기피울	(군)삼거리

▲ **東面(동면)** : 연천군 연천읍 상리·옥산리·와초동·현가리, 중면 합수리

加尺里	가척리	가재울	(연)현가리
上水回里	상수회리	웃무드리	(중)합수리
玉山里	옥산리	오미	(연)옥산리
瓦草里	와초리	기새·기새골	(연)와초리

▲ **北面(북면)** : 연천군 중면 마거리

馬巨里	마거리		(중)마거리
三串里	삼곶리	세곶	(중)삼곶리
赤巨里	적거리		(중)적거리
中沙洞里	중사동리		(중)중사리
下水回里	하수회리	[아래]무드리	(중)합수리
橫山里	횡산리	비끼미	(중)횡산리

▲ 西面(서면) : 연천군 왕징면 강내라·강서리

鷄鳴里	계명리	(왕)강서리
軍營里	군영리	(왕)강서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 (왕)강내리
少浦里	소포리	작은거미 (왕)강내리
安月里	안월리	안드레 (왕)강내리
野前里	야전리	들앞 (왕)강내리
營殿里	영전리	영정굴 (왕)강서리

▲ 縣內面(현내면) : 연천군 연천읍 고문리·동막리·읍내리·차탄리·통현리

東幕里	동막리	동막골 (연)동막리
無愁洞里	무수동리	무시울 (중)고문리
邑內里	읍내리	읍내 (연)읍내리
智惠洞里	지혜동리	(연)차탄리

廣岳山	광악산	
國望山	국망산	(이)연곡리
錦花峰	금화봉	금화봉 (영중)거사리
金水亭	금수정	금수정 (창)오가리
金主山	금주산	금주산 (영중)금주리
機山村	기산촌	틀미 (일)기산리
樂飯亭	낙귀정	낙귀정 (영중)거사리
南大川津	남대천진	큰내송정개울나뽕 (영중)영송리
南面	남면	
南山	남산	남산 (영중)영송리
岱石標	대석표	
大聖山	대성산	(근)
道成村	도성촌	도성고개 (이)연곡리
麻屹川	마흘천	마내 (창)신흥리
萬世橋	만세교	만세다리 (영중)거사리
鳴聲山	명성산	(이)도평리
味村 ¹⁰⁶⁾	야미촌	배미·바미 (영북)야미리
朴思菴書院	박사암서원옥병서원	(창)주원리
白登峴 ¹⁰⁷⁾	자등현	자등고개·자등재 (이)도평리
白鷺洲	백로주	백로주 (영중)거사리
白雲山	백운산	(이)도평리
寶蓋山	보개산	(신)내산리
寶藏山	보장산	(창)오가리
北面	북면	
佛谷山	불곡산	(영중)영평리
山內村 ¹⁰⁸⁾	산내촌	(신)
西面	서면	
西自村 ¹⁰⁹⁾	서자촌	서자일 (영북)자일리
仙登山	선등산	
逍遙山	소요산	(신)덕둔리
新川津 ¹¹⁰⁾	신천진	썰내·나루 (관)사정리
實雲里	실운리	(사)삼일리
衙舍	아사	(영중)영평리

영 평 (永平)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 고을 범위 : 포천시 영북면(영북), 영중면(영중), 이동면(이), 일동면(일), 창수면(창), 관인면(관)-사정리 / 가평군 북면(북)-적목리 ※ 포천시 신북면(신) / 연천군 전곡읍(전), 신서면(신) / 철원군 근남면(근) / 화천군 사내면(사)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姜氏峰	강씨봉		(북)적목리
古城	고성		(영중)성동리
觀音山	관음산		(일)수입리

106) 夜味村을 잘못 옮긴 것이다.

107) 白은 自를 잘못 옮긴 것이다.

108) 양주에 속했던 山內面을 잘못 옮긴 것이다.

109) 세 글자로 줄이면서 西自逸村에서 逸을 생략하였다.

110) 新은 薪이라 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梁文驛村	양문역촌	양문역말 ¹¹¹⁾	(영중)양문리
兩月乃峙	양월내치		
臥龍庵	와룡암		(일)수입리
越境村	월경촌	월경리	(관)사정리
適骨山烽	적골산봉		
赤木村	적목촌	적목	(북)적목리
助良 ¹¹²⁾	조량[조량천]	조량내	(일)
簇老谷驛 ¹¹³⁾	미로곡봉수		(영북)야미리
蒼玉屏	창옥병		(창)오가리
穿石村	천석촌	다른돌	(창)고소성리
楸上洞村 ¹¹⁴⁾	상추동촌	웃가래울	(창)추동리
風穴山	풍혈산		(영중)성동리
漢灘	한단	한여울	(전)전곡리
鄉校	향교		(영중)영평리
華岳山	화악산		(북)적목리

I 면의 상세 정보

▲ **北面(북면)** : 포천군 영북면 대화산리·문암리·산정리·소회산리·야미리·운천리·자일리 / 관인면 사정리

金谷里	금곡리	쇠골	(영북)야미리
大回山里	대화산리	대화산	(영북)대화산리
東自逸里	동자일리	동자일·동요길	(영북)자일리
文巖里	문암리	문암골	(영북)문암리
上屈洞里	상굴동리	구루물	(영북)운천리
西自逸里	서자일리	서자일	(영북)자일리
小回山里	소회산리	소회산리	(영북)소회산리
夜味里	야미리	배미·바미	(영북)야미리
越境里	월경리	월경리	(관)사정리
下屈洞里	하굴동리	[아랫]구루물	(영북)운천리
草場里	혁장리	혁장리·석장동	(영북)문암리

▲ **西南面(서남면)** : 포천시 창수면 가양리·고소성리·신흥리·주원리·추동리

可養里	가양리	개암골·갱이	(창)가양리
姑蘇城里	고소성리	고소성	(창)고소성리
高峴里	고현리	고재	(창)신흥리

奈赤里	내적리		
山内井里	산내정리	산내정	(창)신흥리
上楸洞里	상추동리	웃가래울	(창)추동리
玉屏里	옥병리	옥병	(창)주원리
鳥峴里	조현리	새재골	(창)신흥리
注院里	주원리	주원리	(창)주원리
穿石里	천석리	다른돌	(창)고소성리
下楸洞里	하추동리	아랫가래울	(창)추동리

▲ **二東面(이동면)** :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도평리·연곡리·장암리 / 가평군 북면 적목리

狼踰里	낭유리	이리너미	(이)노곡리
蘆谷里	노곡리	갈월·갈울	(이)노곡리
都坪里	도평리	도평·도리들	(이)도평리
都浦里	도포리	돌개	(이)연곡리
鶯谷里	연곡리	제비울	(이)연곡리
鷹巖里	웅암리	매마위	(이)장암리
梨城里	이성리		
赤木里	적목리	적목	(북)적목리

▲ **一東面(일동면)** : 포천시 일동면 기산리·길명리·사직리·수입리·유동리·화대리

機山里	기산리	틀미	(일)기산리
吉明里	길명리	길명	(일)길명리
社堂里	사당리	사당말	(일)사직리
山内也之里	산내야지리	새내지	(일)수입리
水入里	수입리	갈가·가계	(일)수입리
柳洞里	유동리	버들골	(일)유동리
禾垌里	화대리	수터·씻터	(일)화대리

▲ **縣內面(현내면)** : 포천시 영중면 거사리·금주리·성동리·양문리·영송리·영평리

居士洞里	거사동리	거시울·거사울	(영중)거사리
內洞里	내동리	내동	(영중)영평리
萬世橋里	만세교리	만세다리	(영중)금주리
山川里	산천리	산천리	(영중)영송리

111) 梁文은 순우리말 이름인 돌골·독골·독홀에 대해 한자의 뜻+뜻을 따서 표기한 것인데, 역의 이름으로 쓰일 때는 한자의 소리인 양문역이라 불렀다.

112) 機山村과는 원래 분리되어 있던 이름이다.

113) 於老谷烽燧를 잘못 옮긴 것이다.

114) 上楸洞村을 잘못 옮긴 것이다.

城洞里	성동리	잣골·잣골	(영중)성동리
水洞里	수동리	수동리	(영중)성동리
水日里	수일리	물한이	(영중)금주리
梁文里	양문리	돌골·독글·독홀	(영중)양문리
川邊里	천변리	천변리·붓도루	(영중)영송리

▲ 下里面(하리면) :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창수면 오가리·운산리

廣井里	광정리	광정리	(영중)영평리
大寺里	대사리	대사리	(영중)영평리
金水亭里	금수정리	금수정	(창)오가리
五佳里	오가리	오거리	(창)오가리
射廳里	사청리	사청동·한냉기	(창)오가리
雪雲里	설운리	설운이	(창)운산리

窟岩山	굴암산	(이)목리
器谷面	기곡면	☞
南谷面	남곡면	☞
南村面	남촌면	☞
道村面	도촌면	☞
晚峴	만현	느진재 (수)상현동
慕賢村[面]	모현촌[면]	☞
妙峯山	묘봉산	(이)묘봉리
無等峙	무등치	무등재 (기)마북동
栢峴	백현	잣고개·작고개 (기)동백동
法華山	법화산	(기)청덕동
烽臺	봉대[석성산]	(기)동백동
負兒山	부아산	(기)지곡동
琵琶潭	비파담	비아수 (모)갈담리
社稷壇	사직단	(기)마북동
三美翁里	삼미옹리	새미랭이 (남)북리
上[東]村面	상동촌면	☞
上葛川	상갈천	윗갈내 (기)상갈동
西邊面	서변면	☞
瑞峰山	서봉산	(수)신봉동
西村面	서촌면	☞
石城山	석성산	(기)동백동
石隅	석우	돌모루 (동)석우동
石灘	석탄	[돌대미] [(모)갈담리]
禪長山	선장산	(포)신원리
城隍堂	성황당	(기)마북동
小弥助峴	소미조현	작은메주고개 (시)삼가동
守禦屯	수어둔	(포)둔전리
守禦屯	수어둔	
水余面 ¹¹⁵⁾	수여면	무네미면 ☞
水踰面 ¹¹⁶⁾	수유현	무네미고개 (시)남동
水眞面	수진면	☞
升青墓	승청묘	
深谷書院	심곡서원	(기)상현동
阿次峴	아차현	아차치고개 (기)중동

용인(龍仁)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언남동

▲ 고을 범위 : 용인시 수지구(수) / 기흥구(기) / 처인구 시내(시)·마평동·운학동·해곡동 제외, 남사면(남), 모현면(모), 이동면(이), 포곡읍(포) / 수원시 장안구(장) 이의 동·하동 ※ 광주시 오포읍(오) / 안성시 양성면(양) / 성남시 분당구(분) / 화성시(화)·옛 동탄읍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曲道峴	곡도현	[굽등고개]	[(모)왕산리]
骨麻谷	골마곡	골맷골	(기)고매동
光嶠山	광교산		(수)신봉동
龜城坪	구성평		
狗興驛村	구흥역촌	구흥역말	(기)신갈동

115) 余는 필사자가 餘를 비슷한 발음의 한자로 잘못 옮긴 것이다.

116) 面은 필사자가 峴을 잘못 옮긴 것이다.

梁峴	양현	돌고개	(기)영덕리
魚肥谷	어비곡	어비울	(이)어비리
厲壇	여단		(기)보정동
余崙驛 ¹¹⁷⁾	금령역		(시)역북동
五浦	오포		(오)
完章里	완장리	안장이·안쟁이	(남)완장리
外倉	외창		(남)창리
陰崖墓	음애묘		(기)지곡동
邑基	읍기	읍내	(기)마북동
長助峴 ¹¹⁸⁾	장서리	장사·장서	(양)장서리
鄭圃隱墓	정포은묘		(모)능원리
趙靜庵墓	조정암묘		(기)상현동
族曲峴 ¹¹⁹⁾	미조현	메주고개	(시)삼가동
枝內面	지내면		☞
直洞酒幕	직동주막	고등골주막	(시)삼가동
秋峴	추현	가래울고개	(오)추곡리
忠烈書院	충렬서원		(모)능원리
蒲谷面	포곡면		☞
下葛川坪	하갈천평	아래갈내들	(기)하갈동
下東村[面]	하동촌면		☞
下雨峴	하우현	[하고개]	(시)삼가동
蛤川	합천		
行完 ¹²⁰⁾	행원	[보수원]	(기)보정동
鄉校	향교		(기)언남동
香水山	향수산		(포)가실리
險川	험천	머흐내·머내	(분)동원동
縣內面	현내면		☞

I 면의 상세 정보

▲ 駒興面(구흥면) :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신갈동

馬墳里	마분리	말무더미	(기)신갈동
眞茆里	진고리		

▲ 器谷面(기곡면) : 용인시 기흥구 고매동·공세동·농서동·보라동·상갈동·서천동·지곡동·하갈동

貢稅洞	공세동	공셋굴	(기)공세동
農事洞	농사동		(기)농서동
甫羅山里	보라산리		[(기)보라동]
鋤斤川洞	서근천동	서그내	(기)서천동
智谷洞	지곡동	디살·지실	(기)지곡동
汗儀洞	한의동	한일	(기)공세동

▲ 南村面(남촌면)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원암리·전궁리·진목리

宮洞	궁동	[전궁들]	[(남)전궁리]
放木里	방목리		
元巖洞	원암리	우아미·외미	(남)원암리
眞木洞	진목동	참나무정이	(남)진목리

▲ 道村面(도촌면)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무리·북리

上洞	상동
下洞	하동

▲ 東邊面(동변면) :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상하동·중동·청덕동

水上洞	수상동
水中洞	수중동
水下洞	수하동

▲ 慕賢村面(모현촌면) :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갈담리·능원리·동림리·매산리·오산면·왕산리·일산리·초부리

水上洞	수상동
水下洞	수하동

▲ 上東村面(상동촌면)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덕성리·묵리·서리·천리

德義洞	덕의동	[덕성굴]	(남)덕성리
墨洞	묵동	먹방이·먹방이	(남)묵리
泉洞	천동	샘굴	(남)천리

▲ 西邊面(서변면) :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一里	일리
----	----

▲ 西村面(서촌면)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봉명리·통삼리

一里	일리
----	----

117) 余는 필사자가 金을 잘못 옮긴 것이다.

118) 助峴은 필사자가 鋤里를 잘못 옮긴 것이다.

119) 族曲은 필사자가 弥助를 잘못 옮긴 것이다.

120) 完은 院을 잘못 옮긴 것이다.

▲ 水餘面(수여면·무네미면) :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김량장동·남동·삼가동·역북동·유방리·호동 / 포곡읍 금어리

南谷洞	남곡동		
南洞	남동	(시)남동	
北洞	북동	[(시)김량장동]	
西洞	서동	[(시)김량장동]	
巢鶴洞	소학동	오릿골	(시)김량장동
虎洞	호동	범골·범왕골	(시)호동

▲ 水眞面(수진면) : 용인시 수지구 고기동·동천동·성북동·신봉동·죽전동·풍덕천동

水上洞	수상동
水下洞	수하동

▲ 邑內面(읍내면) :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연남동

校洞	교동	(기)연남동
南洞	남동	(기)연남동
北洞	북동	(기)마북동

▲ 枝內面(지내면) :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 수지구 상현동 / 수원시 장안구 이의동·하동

德洞	덕동	덕골	(기)영덕동
上里	상리		(수)상현동
水下洞	수하동		
靈通里	영통리		(기)영덕동
義谷	의곡		(장)이의동
下洞	하동	우래여수내	(장)하동
狐川洞	호천동	여수내	(장)하동

▲ 蒲谷面(포곡면) :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가실라·둔전라·마성라·삼계라·신원리·영문라·유운라·전대리

水東洞	수동동
水上洞	수상동
水下洞	수하동

▲ 下東村面(하동촌면) : 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묘봉라·송전라·시미라·어비라·화산리

牟山洞	모산동	보리미	(이)화산리
卯峯洞	묘봉동	묘봉골	(이)묘봉리
卯山洞	묘산동	요산골	(이)화산리
松田洞	송전동	솔밭	(이)송전리

時美洞	시미동	시묘골·시미골	(이)시미리
魚肥洞	어비동	어비울	(이)어비리

▲ 縣內面(현내면) :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방아라·아곡라·완장라·창리

完章洞	완장동	안장이·안쟁이	(남)완장리
中洞	중동	아래안쟁이	(남)완장리
倉洞	창동	창골	(남)창리
花洞	화동	꽃골	(남)창리

음 죽 (陰竹)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이천시 장호원을 선읍리

▲ 고을 범위 : 이천시 설성면(설), 율면(율), 장호원읍(장) / 충주시 생곡면(생)-관성라·도신라·병암리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觀峴	관현		
南山	남산		(장)선읍리
老星山	노성산		(설)장능리
馬音山	마음산(마옥산)		(설)대죽리
萬擔山	만담산		(생)병암리
無極館	무극관		(생)관성리
門懸院峴	문현원재	문드러니고개	(장)이황리
白山峯	백산봉		
白足山	백족산		(장)진암리
鳳尾山	봉미산		(장)대서리
商山	상산		(장)와현리
石橋	석교		(장)장호원리
石磚峴	석박현	돌박재	(장)대서리
雪城山	설성산		(장)선읍리
蓮臺山	연대산		(장)나래리

靈岳山	영악산	(장)이황리
龍潭	용담	(장)송산리
留春驛	유춘역	[(장)이황리]
長海院	장해원[장호원]	(장)장호원리
天民川	천민천[청미천]	(장)
楸潭	추담	
鄉校	향교[생교]	(장)선읍리
縣	현[아사]	(장)선읍리
樺峴	화현	
鵠岩	휴암 [봉바위]	(장)풍계리

I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이천시 장호원을 대서리·송산리·어석리·오남리·장호원리·진암리

階巖洞	계암동	목골	(장)진암리
大井里	대정리	한우물	(장)대서리
石橋里	석교리		(장)장호원리
松谷洞	송곡동	소래울	(장)송산리
於云里	어은리	은골	(장)어석리
梧倉里	오창리	오창말	(장)오남리
陳村	진촌	진말	(장)진암리
坪村	평촌	평말	(장)장호원리

▲ **東面(동면)** : 이천시 장호원을 나래리·노탑리·와현리·이황리·풍계리

巨勿里	거물리	거머리	(장)노탑리
羅來洞	나래동	나래골	(장)나래리
蘆洞	노동	갈월	(장)이황리
老坪里	노평리	노들	(장)노탑리
驛村	역촌		[(장)이황리]
瓦冶洞	와야동	왓골	(장)와현리
赤界洞	적계리	적계	(장)풍계리
塔村	탑촌	탑거리	(장)노탑리
狐峴洞	호현동	여우고개	(장)와현리

▲ **無極面(무극면)**¹²¹⁾ : 음성군 생곡면 관성리·도신리·병암리

無愁洞	무수동	무술	(생)관성리
生湯洞	생탕동	생탕골	(생)도신리
陳洞	진동	진골	(생)관성리

▲ **北面(북면)** : 이천시 설성면 대죽리·상봉리·송계리·수산리·암산리·자석리·장천리

上八桂洞	상팔계동	[위팔계골]	(설)상봉리
樹谷洞	수곡동	우무실	(설)수산리
垂巖洞	수암동	드린바위	(설)암산리
鵲山洞	앵산동		(설)수산리
長角洞	장각동	긴뿌리	(설)장천리
直山洞	직산동	직산말	(설)송계리
下八桂洞	하팔계동	아래팔계	(설)송계리
黑石洞	흑석동	검은돌	(설)자석리

▲ **上栗面(상울면)** : 이천시 울면 본죽리·북두리·산성리·산양리·석산리·오성리

本栗洞	본울동	밤골	(울)본죽리
北頭里	북두리		(울)북두리
上山洞	상산동		(울)산성리
石橋村	석교촌	돌다리	(울)석산리
龍山洞	용산동		(울)산양리
長城洞	장성동	장성골	(울)오성리
尺五里	척오리	자위리	(울)오성리
八星里	팔성리		(울)산성리
下山洞	하산동		(울)석산리

▲ **西面(서면)** : 이천시 설성면 금당리·신필리·장릉리·제요리·행죽리

分竹洞	분죽동	분디기	(설)행죽리
細筆里	세필리	세붓	(설)신필리
蓼谷洞	요곡동	여뀌울	(설)제요리
尺文里	척문리	자무니	(설)제요리
行尋村	행심촌	행시미	(설)행죽리
興祿洞	흥록동	흥록골	(설)행죽리

▲ **下栗面(하울면)** : 이천시 울면 고당리·신추리·월포리·충곡리

高尺洞	고척동	고자골	(울)고당리
-----	-----	-----	--------

121)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1872년 지방지도』의 「음죽현지도」에 수록된 것을 기초로 하였다.

洞門里	동문리	골문이	(을)월포리
叢谷	총곡	포기실	(을)총곡리
楸洞	추동	가래골	(을)신추리

▲ 縣內面(현내면) : 이천시 장호원읍 방추라·선읍리·송산리

氷庫里	빙고리	빙정말	(장)송산리
鄉校里	향교리	생교말·향교말	(장)선읍리

羊角山	양각산	(신)고척리
元寂山	원적산	(백)경사리
利川津 ¹²²⁾	이수천진	배진개내 (시)증포동
猪鳴山	저명산	돌울음산·도드람산(마)목리
絶音峴	절음현	기치미고개 (시)사음동
鼎盖山	정개산	소댕산 (신)지석리
井水山	정수산	경삼이[鏡水山] (부)아미리
海龍山	해룡산	(대)대흥리
鄉校	향교	(시)창전동
虎岩池	호암지	(백)우곡리
孝養山	효양산	(부)산촌리

이 천(利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이천시 창전동

▲ 고을 범위 : 이천시 시내(시), 대월면(대), 마장면(마), 모가면(모), 백사면(백), 부발읍(부), 신둔면(신), 호법면(호)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시)창전동
乾之山	건지산		(마)해월리
古城	고성[설봉산성]		(시)사음동
廣峴	광현	넉고개	(신)수광리
南山	남산		(시)중리동
大關	대궐		(시)창전동
大德山	대덕산		(호)동산리
遁之山	둔지산		[(모)산내리]
磨玉寺	마옥사		
普賢山	보현산		
司倉	사창		(시)창전동
書院	서원[설봉서원]		(시)관고동
雪峯山	설봉산		(시)관고동
衙舍	아사[동헌]		(시)창전동
安興堤堰	안흥제언	안흥방죽	(시)안흥동

Ⅲ 면의 상세 정보

▲ 袞麻洞面(갈마동면·갈매울면) : 이천시 모가면 산내라·서경리·송곡리·양평리·진가리

加洞里	가동리	갈매울	(모)진가리
松谷里	송곡리	소리울·솔울	(모)송곡리

▲ 大陽面(대양면) : 이천시 대월면 단월리·대포리·도리리 / 모가면 신갈리 / 호법면 송갈리

丹月川里	단월천리	단드래	(대)단월리
大浦川里	대포천리	한개내·황그내	(대)대포리
道里洞	도리동	도리울·도니울	(대)도리리
上松葛里	상송갈리	[윗]송갈미	(호)송갈리
薪葛山里	신갈산리	신갈미	(모)신갈리
下松葛里	하송갈리	[아래]송갈미	(호)송갈리

▲ 屯之山面(둔지산면) : 이천시 신둔면 고척리·마교리·수광리·수남리·용면리·인후리

高尺里	고척리	고갯말	(신)고척리
水南里	수남리		(신)수광리
後洞里	후동리	뒷골	(신)인후리

▲ 麻田洞面(마전동면) : 이천시 마장면 관라·덕평리·양촌라·오천라·작촌라·회억리

冠洞里	관동리	각골·갯골	(마)관리
德坪里	덕평리	덕들	(마)덕평리
億萬里	억만리	억만이	(마)회억리

122) 利川은 梨樹川을 잘못 옮긴 것이다.

吾川里	오천리	오천골·오천이	(마)오천리
吾川驛村	오천역촌	오천역말	(마)오천리
雀別里	작별리	작벼리	(마)작촌리

▲ **暮山面(모산면)** : 이천시 모가면 두미라·소고라·소사라·어농리·원두리

豆亦里	두역동		(모)두미리
石塘里	석당리	돌당이	[(모)어농리]
所古之里	소고지리	소고지	(모)소고리
素沙里	소사리	소새·소사	(모)소사리
侍美洞	시미동	시밋골	(모)두미리
於陵洞	어릉동	오릉골	(모)어농리
五利洞	오리동		
元頭里	원두리	원머리	(모)원두리

▲ **鉢山面(발산면)** : 이천시 부발읍 가산리·가좌리·마암리·산촌리·송온리·수정리·신하리·아미리·옹암리

加佐洞	가좌동	가재울	(부)가좌리
馬巖里	마암리	말바위	(부)마암리
砵山里	말산리		(부)가산리
梅花谷	매화곡	매지울	(부)신하리
山村里	산촌리	산말	(부)산촌리
松溫洞	송온동	소눈골	(부)송온리
水井里	수정리	물우물	(부)수정리
峩眉垵里	아미대리	아미랏·애미랏	(부)아미리
蓼洞	요동	요골	(부)산촌리
鷹巖里	옹암리	매바위	(부)옹암리

▲ **栢土里面(백사리면)** : 이천시 백사면 내촌리·도지라·모전리·백우리·상룡리·우곡리·조읍리

道知谷	도지곡	도지울	(백)도지리
牟田里	모전리		(백)모전리
上洞	상리	우꾸리	(백)상룡리
溫方里	온방리	원방골	(백)백우리
牛谷里	우곡리	소일·쇠일	(백)우곡리
助邑洞	조읍동	습리·좁리	(백)조읍리
漆田里	칠전리		

▲ **夫毛谷面(부모곡면)** : 이천시 부발읍 고백리·대관리·무촌리·신원리·죽당리

巨次牙里	거차아리	거치라리	(부)무촌리
------	------	------	--------

高寺里	고사리	너픈저리·높은절	(부)고백리
大旺里	대왕리	대왕이	(부)대관리
所里	소리	소리실	(부)죽당리
藪澁洞	수죽동	죽골	(부)죽당리
元積洞	원적동	원적골	(부)신원리

▲ **沙北面(사북면)** : 이천시 백사면 경사리·도봉리·송말리·신대리 / 신둔면 도봉리·장동리

京沙堡里	경사대리	경기터	(백)경사리
道峯里	도봉리	도봉이	(신)도봉리
砵谷里	말곡리		(백)송말리
沙玉里	사옥리	사옥	(백)경사리
新垵里	신대리	새터	(백)신대리
長洞里	장동리	장골	(신)장동리

▲ **新洞面(신동면)** : 이천시 신둔면 남정리·도암리·소정리·수하리·지석리 / 사읍동·송정동

道月巖里	도월암리	도드라미	(신)도암리
松亭里	송정리	소정·이·송정	(시)송정동
水下里	수하리	새우물·새울	(신)수하리
絶音里	절음리	기치미	(시)사읍동
支石里	지석리	권돌·고인돌	(신)지석리

▲ **月良村面(월량촌면)** : 이천시 대월면 구시리·군량리·송라리·장평리

九時洞	구시동	구시울	(대)구시리
夫皇洞	부황동	범골	(대)장평리
上郡梁洞	상군량동	윗군들	(대)군량리
松羅谷	송라곡	소라울	(대)송라리
下郡梁洞	하군량동	아래군들	(대)군량리

▲ **邑內面(읍내면)** : 이천시 갈산동·관고동·안흥동·율현동·중리동·증일동·증포동·진리동·창전동

可古田里	가고전리		(시)관고동
葛山里	갈산리	갈미	(시)갈산동
官後里	관후리		(시)관고동
安興里	안흥리	안흥골	(시)안흥동
中里	중리	중말	(시)중리동
曾一里	증일리	증일·증이	(시)증포동
陳里	진리	진말	(시)진리동
倉前里	창전리	창앞	(시)창전동

▲ 長水旺面(장수왕면·장승이면) : 이천시 마장면 각평리·목라·이치리·이평리·장암리·표고리·해월리

覺氏洞	각씨동	각시울	(마)각평리
屯田里	둔전리	둔전들	
木洞里	목동리	못골·목골	(마)목리
門巖里	문암리	문바위	(마)장암리
梨峙里	이치리	배터·배티	(마)이치리
泥坪里	진평리	진들	(마)이평리
長水旺里	장수왕리	장승이	(마)장암리
土谷里	토곡리	돈니실	
蟹越里	해월리	기너마·게네미	(마)해월리

▲ 草枝谷面(초지곡면·새실면) : 이천시 대월면 고담라·대대라·대흥리·부필리·사동리·장록리·초지리

高垆巖里	고대암리	고다미·고대미	(대)고담리
大垆里	대대리	한터	(대)대대리
大洞里	대동리	큰골	(대)대흥리
凡興里	범흥리	범흥이	(대)대흥리
富弼里	부필리	비피리	(대)부필리
草枝谷里	초장곡리	새실	(대)초지리

▲ 戶法面(호법면) : 이천시 호법면 단천리·동산리·매곡리·안평리·유산리·주미리·주박리·후안리

乾川里	건천리		
丹川里	단천리	단내	(호)단천리
東山色里	동산색리	동산	(호)동산리
安古里	안고리	안고니	(호)후안리
西良谷里	유량곡리	달개실	(호)유산리
珠珀村里	주박촌리	주바구니·쥐보구니	(호)주박리
厚美村里	후미촌리		(호)후안리

인 천 (仁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 고을 범위 : 인천광역시 남구(남), 남동구(남동), 동구(동), 연수구(연), 중구(중), 부평구(부)-십정동, 옹진군 덕적면(덕) / 광명시(광)-옥길동 / 시흥시(시)-과림동·계수동·금이동·대야동·도창동·매화동·무지동·미산동·방산동·신천동·신현동·안현동·은행동·포동 / 화성시(화)-신외동·장전동, 비봉면(비)-삼화리·유포리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客舍	객사		(남)관교동
慶信驛	경신역		(남)고잔동
南村面	남촌면		☞
凌虛臺	능허대		(연)옥련동
多所面	다소면		☞
大池	대지	[못안]	[(남)주안동]
大津里	대진리	한나루	(연)옥련동
德積島	덕적도		(옹)덕적면
無衣島	무의도	무리	(중)무의동
文鶴山城	문학산성		(남)문학동
鳳仙臺	봉선대		(화)신외동
沙島	사도	[모래말]	[(중)사동]
星峴	성현	비리고개	(남)만수동
小島	소도		[(중)신흥동]
蘇來山	소래산		(시)대야동
愁里島	수리도		[(중)항동]
新古介面	신고개면	새오개면	☞
衙舍	아사[동헌]		(남)관교동
阿掩島	아엄도		(남)옥련동
擘 ¹²³⁾	월미도		(중)북성동]
龍流島	용유도		(중)용유동

123) 擘尾島에서 尾島를 빠뜨리고 필사한 것이다.

遠島	원도	[(중)신흥동]
遠又介面	원우이면	☞
元通峴	원통현	원통이고개 (부)십정동
梨浦面	이포면	☞
紫燕島	자연도[영종도]	(중)중산동
田反面	전반면	밭뒤면 ☞
濟物津頭	제물진두	(중)항동
鳥洞面	조동면	새골면 ☞
朱岸面	주안면	붉은고개면 ☞
朱岸山	주안산	[붉은고개] (남)간석동
重林驛	중림역	(시)과림동
賑廳新堰	진청신언	[(시)포동]
清涼山	청량산	(연)옥련동
八味島	팔미도	여덟미 (중)무의동
浦里浦	포리포	갯굴 (시)포동
鶴山書院	학산서원	(남)학익동
鄉校	향교	(남)관교동
黃等川面	황등천면	누릿내면 ☞

I 면의 상세 정보

▲ **南村面(남촌면)** : 인천광역시 남구 남촌동, 남동구 고잔동
논현동·도림동·수산동

四里	사리
三里	삼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 **多所面(다소면)** : 인천광역시 남구·도화동·송의동·용현동·주안동, 동구·만석동·송림동·송현동·화평동, 중구·경동·관동·내동·답동·도원동·북성동·사동·선린동·선화동·송월동·송학동·신포동·신흥동·용동·율목동·인현동·전동·중앙동·항동·해안동

古殘里	고잔리		
刀馬橋里	도마교리	도마다리	(남)도화동
獨亭里	독정리	독쟁이	(남)용현동
飛浪里	비랑이	비랭이	(남)용현동
士味里	사미리	새미	(남)주안동

船槍里	선창리		
松林里	송림리		(동)송림동
長川里	장천리	장사래	(남)송의동
忠勳府里	충훈부리	충훈동	(남)주안동
禾洞里	화동리	숫골	(남)도화동

▲ **無依面(무의면·무리면)** : 인천광역시 중구 무의동

▲ **府內面(부내면)** :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문학동·학의동, 연수구 선학동

官廳里	관청리	관청말	(남)관교동
南山里	남산리		
東山里	동산리		
東村里	동촌리		
山城里	산성리	산성말	(남)문학동
西村里	서촌리		
勝基里	승기리	신비	(남)관교동
將官廳里	장관청리		
鄉校里	향교리	향교말	(남)관교동

▲ **三木面(삼목면)**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 **新古介面(신고개면·새오개면)**¹²⁴⁾ : 시흥시 방산동·신천동·은행동·포동

四里	사리		
三里	삼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浦村	포촌	갯굴·새우개	(시)포동

▲ **龍流面(용유면)** : 인천광역시 중구 남북동·덕교동·을왕동

官廳里	관청리	관청말 (중)남북동
馬沙安里	마사안리	마시란 (중)덕교동
𪎏目里	얼목리	늘목 (중)을왕동
王山里	왕산리	왕산골 (중)을왕동

▲ **遠又介面(원우이면)** : 인천광역시 연수구 동춘동·연수동·옥련동·청학동

東幕里	동막리	동막	(연)동춘동
望海里	망해리		
墨巖里	묵암동	머그미	(연)연수동

124) 新峴面이라 쓰는 경우도 있다.

思仁里	사인리	[사모주]	[(연)청학동]
瓮巖里	옹암리	독바위	(연)옥련동
尺前里	척전리	자앞	(연)동춘동

- ▲ **梨浦面(이포면)** : 화성시 문호동·신외동·장전동·수화동,
비봉면 유포리·삼화리

一里

- ▲ **田反面(전반면·발뒤면)** : 시흥시 금이동·도창동·매화동·
무지동·미산동·안현동

四里	사리
三里	삼리
五里	오리
六里	육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七里	칠리

- ▲ **前所面(전소면)** : 인천광역시 중구 운남동·중산동

加羅洞里	가라동리	[갈월]	[(중)운남동]
小橋里	소교리	잔다리	(중)운남동
松山里	송산리	솔미	(중)중산동
五加洞里	오가동리	오가릿골	(중)운남동
中村里	중촌리		(중)운남동

- ▲ **鳥洞面(조동면·셋골면)**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서창동·
운연동·장수동

三里	삼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 ▲ **朱岸面(주안면·붉은고개면)**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간석동 / 부평구 십정동

三里	삼리	
城里	성리	성말
二里	이리	
一里	일리	

- ▲ **下面(하면)**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중산동

月尾島	월미도		(중)북성동
越村里	월촌리	월춘	(중)중산동
鎮下里	진하리	진미	(중)중산동

- ▲ **黃等川面(황등천면·누릿내면)** : 시흥시 계수동·과림동 /
광명시 옥길동

四里	사리
三里	삼리
五里	오리
六里	육리
二里	이리
一里	일리

- ▲ **後所面(후소면)** : 인천광역시 중구 운북동·운서동

廣洞里	광동리	넙디	(중)운서동
堂下里	당하리	[당재]	[(중)운서동]
大村里	대촌리	큰말	(중)운서동
白石里	백석리	눈들·한바위	(중)운서동
北浦里	북포리		
於義洞里	어의동리	은골	(중)운서동
浦村里	포촌리		

장 단(長湍)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일러두기** : 현재 북한과 비무장지대에 속해 있는 일부의 지역은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을 따랐고, 남한에 속한 지역은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위치를 표기하였다. 우리말이름도 남한에 속한 경우 『한국지명총람』과 『조선지리지자료』의 것을, 북한에 속한 경우 『조선지리지자료』의 것만 참조하였다.

- ▲ **읍치 위치** :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고읍동) → 1458 : (북한) 장도군 고읍리 → 1621 :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 ▲ **고을 범위** : (일제강점기) 장단군 강상면(강), 군내면, 대강면(대), 장단면, 장도면, 장남면, 진서면, 진동면(남한) 파주시 군내면(군), 장단면(장단), 진동면(진동), 진서면(진서) / 연천군 백학면(백)-갈현라·고읍라·두매라·두현라·매현라·백령라·사시라·석주원라·오음라·자작라·향동라·관부라·포춘리, 장남면(장남), 왕징면(왕)-고왕라·고잔상라·고잔하라·기곡라·임강리 ※ 파주시 문산읍(문), 적성면(적), 파평면(파)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大德山	대덕산		
加勿峴	가물현			大德山	대덕산		(진서)분지리
加次峴	가차현	가칠고개	(군)읍내리	大也峴	대야현		
渴馬洞	갈마동			大位面	대위면		
甘朴山	감박산[감악산]		(적)	德積山	덕적산		
江東面	강동면			德津壇	덕진단		(군)정자리
江北面	강북면			道羅山	도라산	도라미	(장단)도라산리
江西面	강서면			道士菴	도사암		
景陵	경릉	경릉	(진서)경릉리	刀次洞	도차동		
古基	고기			獨男村	독남촌		
古南面	고남면			獨子洞	독자동		
古都山	고도산			東道面	동도면		
古浪浦	고랑포	고랑개	(장남)고랑포리	童子院	동자원	동자골	(진동)동파리
古毛谷	고모곡			東坡驛村	동파역촌	동파골	(진동)동파리
古松縣 ¹²⁵⁾	고송림현			杜梅洞	두매동	두매골	(백)두매리
古邑	고읍		(백)고읍리	斗用山	두용산		
貫松里	관송리		(장남)고랑포리	頭峴	두현	머리재	(백)두현리
串殘	곶잔	고잔골	(왕)고잔상리	屯田洞	둔전동		
九峯山	구봉산		(군)읍내리	龍山	용산		(진동)용산리
九節陵	구절릉			馬胄山	마주산		
九火驛	구화역			梅峴里	매현리	매고개	(백)매현리
軍藏山	군장산			牟智陵	모지릉		
堀谷	굴곡			盤龍山	반룡산		
金谷	금곡	쇠일	(장단)거곡리	撥所	발소		(진동)동파리
金陵	금릉	금릉골	(진서)금릉리	方井里	방정리	[백장굴]	[(군)송산리]
金慕齋山	금모재산			白蓮村	백련촌	백련	(군)백련리
金山	금산			寶鳳山	보봉산		
金相山	금상산			烽燧峴	봉수현		
金約	금약			烽峴	봉현		
金約谷	금약곡	[쇠늑굴]	[(군)송산리]	鳳凰頭	봉황두		
基谷	기곡	터일	(왕)기곡리	北倉	북창		
冷井	냉정	찬우물	(군)송산리	分地川	분지천	분지내	(진서)분지리
陵內	능내		(백)오읍리	飛來洞	비래동		
陵蘿 ¹²⁶⁾	나릉		[(백)오읍리]	司僕倉	사복창		
				莎峴	사현		

125) 古松林縣을 잘못 옮긴 것이다.

126) 蘿陵을 잘못 옮긴 것이다.

山占里	산점리		(왕)기곡리	長東面	장동면		
三味川	삼미천	사미내	(백)갈현리	長北面	장북면		
上道面	상도면			長西面	장서면		
上榛峴	상진현	[웃]갸재	(진동)동파리	長佐地	장좌지	장자울·장좌울	(적)장좌리
上村	상촌			長縣內面	장현내면		
瑞谷	서곡		(진동)서곡리	猪島 ¹²⁸⁾	저포	독개	(군)백련리
西道面	서도면			田齋宮	전재궁	전재궁골	(진서)전제리
石歧	석기			前哨村	전초촌		
善積村	선적촌	선적골	(진서)선적리	占希陵	점희릉	저무랑·저무랑이	(군)점원리
城山	성산			亭子浦倉	정자포창	[개창골]	(군)정자리
松都	송도			鳥老山	조로산	조르메	(군)점원리
松山	송산		(군)송산리	智陵	지릉	지릉골	(백)두매리
松西面	송서면			地阜里	지부리		
松賢站撥所 ¹²⁷⁾	초현참발소	초현참파발	(군)조산리	津東面	진동면		
新村	신촌			津北面	진북면		
魚龍浦	어룡포	어룡개	(진서)어룡리	津縣內	진현내[면]		
驛村	역촌		(백)고읍리	天麻山	천마산		
五冠山	오관산			哨里	초리	초리	(진동)초리
梧木站	오목참	오무기[참]	(군)읍내리	哨里上牌	초리상패		(진동)초리
五音里	오음리	음골	(백)오음리	崔侍郎山	최시랑산		
王陵	왕릉			春陽宮	춘양궁	춘양골	(진동)서곡리
龍屯里	용둔리	용둔골	(진서)전제리	吹笛橋	취적교	취적다리	(진서)전제리
龍虎山	용호산			胎峯	태봉		(군)백련리
禹勤里	우근리			台城	태성[대성동]		(군)조산리
隅閭村	우여촌			胎藏里	태장리		
元堂里	원당리	원맹이	(군)점원리	退北亭	퇴북정		
元山	원산	[어미산]	[(군)조산리]	坡平山	파평산		(파)눌노리
月登山	월등산			板浮里大村	판부리대촌	널둔이·널뚜니	(장남)판부리
月峯山	월봉산		(진동)동파리	板積橋	판적교	널문이	(진서)선적리
柳峴	유현	버들고개	(군)읍내리	下道面	하도면		
臨江古邑	임강고읍		(왕)임강리	下方木里	하방목리	[아랫]방모기	(군)방목리
臨江書院	임강서원		(장남)고랑포리	下榛峴	하진현	[아랫]갸재	(진동)동파리
臨津別將所	임진별장소		(문)임진리	下浦	하포	아랫개	(진동)하포리
臨津新倉	임진신창		(진동)동파리	寒寺	한사		
長湍邑	장단읍		(군)읍내리	許山	허산		

127) 松은 招를 잘못 옮긴 것이다.

128) 鳥는 浦를 잘못 옮긴 것이다.

花谷	화곡		
華藏寺	화장사		
滑陵	활릉	혈떡릉	(백)판부리

I 면의 상세 정보

- ▲ **江南面(강남면)** : (일제강점기) 장단군 대강면 독정리·우근리·청정리

獨正里	독정리	(대)독정리
禹勤里	우근리	(대)우근리
蜻蜓里	청정리	(대)청정리

- ▲ **江東面(강동면)** : 연천군 왕징면 고왕리·고잔상리·고잔하리·기곡리

高棧里	고잔리	고잔골	(왕)고잔상리
基谷里	기곡리	터일	(왕)기곡리
山店里	산점리		[(왕)기곡리]

- ▲ **江北面(강북면)** : (일제강점기) 장단군 강상면 덕적리·마성리·솔랑리

德積里	덕적리	(강)덕적리
馬城里	마성리	마성이 (강)마성리
率郎里	솔랑리	(강)솔랑리

- ▲ **江西面(강서면)** : 연천군 왕징면 임강리 / (일제강점기) 장단군 강상면 갈운리·구화리·임강리·자하리

上里	상리
下里	하리

- ▲ **古南面(고남면)** : 연천군 장남면 원당리 / 파주시 적성면 장좌리

元堂里	원당리	원당골	(장남)원당리
長佐里	장좌리	장자울·장좌울	(적)장좌리

- ▲ **大位面(대위면)** : 연천군 백학면 포춘리 / (일제강점기) 장단군 대강면 나부리·포춘리

羅浮里	나부리	(대)나부리
葱田里	총전리	
浦春里	포춘리	포춘골 (백)포춘리

- ▲ **東道面(동도면)** : 연천군 백학면 고읍리·사시리·석주원리
古邑里 고읍리 (백)고읍리

沙也時里	사야시리	사야시	(백)사시리
------	------	-----	--------

- ▲ **上道面(상도면)** : 파주시 장단면 강정리·거곡리·석곶리

江連里	강련리		(장단)강정리
掘井里	굴정리		(장단)강정리
金谷里	금곡리	석일	(장단)거곡리
乞串里	돌곶리	돌고지	(장단)석곶리

- ▲ **西道面(서도면)** : 연천군 백학면 상리·중리·하리

屯田里	둔전리		
五冠山里	오관산리		
溫申里	온신리	온신골	(백)하리

- ▲ **松南面(송남면)** : 파주시 진서면 금릉리·눌목리·분지리·선적리·어룡리

甘巖里	감암리	감바위	(진서)선적리
金陵里	금릉리	금릉골	(진서)금릉리
芬池川里	분지천리	분지내	(진서)분지리

- ▲ **松西面(송서면)** : 파주시 진서면 경릉리·대원리·전제리

景陵里	경릉리	경릉골	(진서)경릉리
田齋宮里	전재궁리	전재궁골	(진서)전제리

- ▲ **邑內面(읍내면)** : 파주시 군내면 읍내리

橋洞里	교동리	생곶골	(군)읍내리
東上里	동상리		
東下里	동하리	동아릿말	(군)읍내리
西上里	서상리	웃말	(군)읍내리
西下里	서하리	아랫말	(군)읍내리

- ▲ **長東面(장동면)** : 연천군 백학면 갈현리·두현리·백령리

頭峴里	두현리	머리재·머루재	(백)두현리
百嶺里	백령리	[백령]역말	(백)백령리

- ▲ **長北面(장북면)** : 연천군 백학면 두매리·매현리·오음리·향동리

杜梅里	두매리	두메골	(백)두매리
梅峴里	매현리	매고개	(백)매현리
梧音里	오음리	옴골	(백)오음리
項洞里	향동리	목굴	(백)향동리

- ▲ **長西面(장서면)** : 연천군 장남면 고랑포리·반정리 / 파주시 진동면 용산리·초리

貫松里	관송리		(장남)고랑포리
半程里	반정리	반정·반정골	(장남)반정리
龍山里	용산리	용산	(진동)용산리
哨里	초리	초리	(진동)초리

▲ 長縣內面(장현내면) : 연천군 백학면 자작리·판부리

古邑里	고읍리	골안·고읍동	(장남)자작리
自作里	자작리	자지개	(장남)자작리
板浮里	판부리	널둔아·널뚜니	(장남)판부리

▲ 中西面(중서면) : 파주시 장단면 노상리·노하리·도라산리·동장리·서장리

羅下里	나하리		
蘆上里	노상리	윗가루개	(장단)노상리
蘆下里	노하리	아랫가루개	(장단)노하리
東場里	동장리	동장말	(장단)동장리
西場里	서장리	서장말	(장단)서장리
溫井里	온정리		

▲ 津東面(진동면) : 파주시 진동면 동파리·서곡리·하포리

東坡里	동파리	동파골	(진동)동파리
瑞谷里	서곡리		(진동)서곡리
下浦里	하포리	아랫개	(진동)하포리

▲ 津北面(진북면) : 파주시 군내면 송산리·조산리

松山里	송산리		(군)송산리
造山里	조산리		(군)조산리

▲ 津縣內面(진현내면) : 파주시 군내면 방목리·백련리·읍내리·점원리·정자리

白蓮里	백련리	백련	(군)백련리
上芳木里	상방목리	[웃]방모기	(군)방목리
占希陵里	점희릉리	저무랑·저무랑이	(군)점원리
亭子浦里	정자포리		(군)정자리
下芳木里	하방목리	[아랫]방모기	(군)방목리

▲ 下道面(하도면) : 파주시 장단면 덕산리·정동리

德山里	덕산리	덕산	(장단)덕산리
井洞里	정동리	우물골	(장단)정동리

적 성 (積城)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 고을 범위 : 양주시 남면(남), 은현면(은)-운암리 / 연천군 백학면(백)-구미리·노곡리·두일리·전동리·통구리·학곡리, 전곡읍(전)-늘목리 / 파주시 적성면(적)-장좌리 제외, 파평면(파)-장파리 ※ 연천군 미산면(미), 장남면(장)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潤沍峴 ¹²⁹⁾	간과현	간패고개	(남)황방리
紺岳山	감악산		(적)객현리
客舍	객사		(적)구읍리
古浪浦	고랑포	고랑개	(장)고랑포리
廣石峴	광석현	나분들고개	(적)마지리
群芳寺	군방사		
南面	남면		☞
丹囊驛	단조역		(적)식현리
大曲堂峴	대곡당현	대급당[고개]	(적)가월리
東面	동면		☞
頭只江	두지강	두지여울	(적)두지리
頭只坪	두지평	두지[들]	(적)두지리
鳳岩寺	봉암사		(적)객현리
腐淵津	부연진	썩은소	(미)마전리
北面	북면		☞
社壇	사단		(적)구읍리
司倉	사창		(적)구읍리
三伊川	삼이천	사미내	(백)전동리
湘水驛	상수역		(남)상수리
西面	서면		☞
雪馬峙	설마치	설머치고개	(적)설마리
城峴	성현	잣고개	(적)구읍리

129) 沍는 派(파)를 잘못 옮긴 것이다.

城隍發告登壇 ¹³⁰⁾	성황발고제단		[(적)구읍리]
新津江	신진강	신짓개	(적)구읍리
衙	아[동헌]		(적)구읍리
阿峴	아현		[(적)구읍리]
厲祭壇	여제단		[(적)구읍리]
鍊武廳	연무청		(적)구읍리
牛象峴 ¹³¹⁾	우중현	구마지[고개]	(적)마지리
伊川	이천	두일내	(백)두일리
自作峙	자작	자작고개	(적)객현리
祭壇	제단[감악산]		(적)객현리
鄉校	향교		(적)구읍리
鄉廳	향청		(적)구읍리

I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양주시 남면 경신리·구암리·두곡리·배곡리·상수리·신산리·신암리·입암리·한산리·황방리 / 은현면 운암리

北谷里	북곡리	두일	(남)두곡리
沙村里	사촌리	모래말	(남)구암리
湘水里	상수리	상수·상쉬·쌍수	(남)상수리
神山里 ¹³²⁾	신산리	신미	(남)신산리
莘巖里 ¹³³⁾	신암리	신선바위골	(남)신암리
笠巖里	입암리	갓바위	(남)입암리
閑山里	한산리	한새미·한사미	(남)한산리
隍防里	황방리	황방·황뱅이	(남)황방리

▲ **東面(동면)** : 파주시 적성면 객현리·어유지리·울포리·장현리·적암리, 전곡읍 늘목리

客峴里	객현리	선고개	(적)객현리
白雲里	백운리	배우니	(적)객현리
山德里	산덕리	산드기	(적)장현리
松峴里	송현리	솔개	(적)장현리
魚游池里	어유지리	어여자·여유지	(적)어유지리
玆目里	얼목리	늘목·늘무기	(전)늘목리
栗浦里	울포리	밤개	(적)울포리

場坪里	장평리	장들	(적)장현리
赤巖里	적암리	붉바위	(적)적암리

▲ **北面(북면)** : 연천군 백학면 구미리·노곡리·두일리·전동리·통구리·학곡리

高村里	고촌리	높은말	(백)두일리
龜淵里	구연리	구미소	(백)구미리
蘆谷里	노곡리	갈여울·가여울	(백)노곡리
孟洞里	맹동리	맹골	(백)통구리
簞谷里	장곡리	노리울	(백)두일리
箭洞里	전동리	살여울	(백)전동리
通口里	통구리	통구	(백)통구리
鶴谷里	학곡리	학골	(백)학곡리

▲ **西面(서면)** : 파주시 적성면 답곡리·마지리·무건리·식현리·자장리

番谷里	답곡리	논골	(적)답곡리
馬蹄里	마제리	마다·마지	(적)마지리
武建里	무건리	무건이	(적)무건리
食峴里	식현리	밥재	(적)식현리
紫芝浦里	자지포리	자햇골·자자기	(적)자장리

▲ **縣內面(현내면)** : 파주시 적성면 가월리·구읍리·설마리·주월리

佳月里	가월리	가률·가루리	(적)가월리
檢詳洞里	검상동리	검상굴	(적)가월리
館洞里	관동리	관골	(적)구읍리
雪馬洞里	설마동리	설마·설마치	(적)설마리
樹谷里	수곡리		
漢夜里	한야리	한야미	(적)주월리

130) 登은 祭를 잘못 옮긴 것이다.

131) 象은 衆을 잘못 옮긴 것이다.

132) 神은 莘을 잘못 옮긴 것이다.

133) 莘은 神을 잘못 옮긴 것이다.

죽산(竹山)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 고을 범위 : 안성시 보개면(보)-남평리·동평리·북가현리, 삼죽면(삼), 일죽면(일)-가라고은리·금산리·방초라·산북라·송천리·월정리·장암리·주천리·죽림리·화곡리, 죽산면(죽)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백)-가좌라·가창리·근곡리·근삼라·근창리·백암라·석천리·옥산리·용천리·장평리, 원삼면(원)-가좌월리·고당리·두창리·마성리·문촌리·맹리·미평리·죽릉리

※ 이천시 울면(울) / 충청남도 진천군 광혜원면(광)

Ⅰ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葛峴	갈현	가현치	(삼)배태리
客舍	객사		(죽)죽산리
巾之山	건지산		(원)맹리
古山城	고산성	죽주산성	(죽)매산리
廣惠院	광혜원		(광)광혜원리
九峯山	구봉산		(백)용천리
舊鄕校	구향교		(죽)죽산리
近三面	근삼면		
近一面	근일면		
南面	남면		
南部面	남부면		
德峯山	덕령산	덕재산	(보)남풍리
獨造山	독조산		(원)좌향리
乞院	돌원		(울)산성리
望月山	망월산		(죽)장능리
望夷山烽臺	망이산봉대		(일)화봉리
木石橋	목석교	[한다리]	[(일)방초리]
文秀山	문수산		(원)문촌리
弥勒	미륵		(죽)매산리
白雲山	백운산		(죽)당목리
府內二面	부내이면		

分行驛村	분행역촌	분행역말	(죽)매산리
飛鳳山	비봉산		(죽)매산리
柱峙	생치	살터고개	(일)고은리
西三面	서삼면		
西二面	서이면		
石橋	석교		(죽)매산리
石橋	석교		(죽)매산리
石塔	석탑		(죽)죽산리
案山	안산[남산]		(죽)장원리
五音山	오음산		[(일)]
遠三面	원삼면		
遠一面	원일면		
鎭峯峴	유령현	박재·늑배고개	(죽)장능리
鼎陪山	정배산		(백)용천리
佐贊驛村	좌찬역촌		(원)좌향리
注巨峴	주거현	주거리고개	(죽)당목리
川南二面	천남이면		
川南一面	천남일면		
川民川	천민천[청미천]		(죽)
川北二面	천북이면		
川北一面	천북일면		
七長寺	칠장사		(죽)칠장리
七賢山	칠현산		(죽)칠장리
破石橋	파석교		[(죽)두현리]
八峯山	팔봉산		(일)송천리
鄕校	향교		(죽)죽산리

Ⅰ 면의 상세 정보

▲ 近三面(근삼면) :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가좌라·가창라·근곡리·근삼라·근창라·박곡리·백암리

稼谷洞	가곡동	가울	(백)가창리
稼谷下里	가곡하리		(백)가창리
加里山洞	가리산리	더리미	(백)근삼리
上洞	상동		(백)박곡리
石谷洞	석고곡	돌실	(백)가좌리
水谷洞	수곡동	무실	(백)근삼리
俠洞	협동	엽골	(백)박곡리

▲ 近一面(근일면)¹³⁴⁾ : 용인시 백암면 석천리·옥산리·용천리·장평리

內草洞	내초동		
山里	산리	머리	(백)옥산리
外草洞	외초동		
湧泉洞	용천동	숫을샘	(백)용천리

▲ 南面(남면)¹³⁵⁾ : 안성시 죽산면 당목리·두교리·용설리·칠장리

加尺洞	가척동	개자리	(죽)두교리
大谷洞	대곡동	한실	(죽)용설리
東花洞	동화동	도화동	(죽)당목리
杜村洞	두촌동	두미골	(죽)두교리
木洞	목동	나무리	(죽)당목리
七長洞	칠장동	칠장골	(죽)칠장리

▲ 南部面(남부면) :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장원리

南山里	남산리	남산밑	(죽)장원리
邑內里	읍내리		(죽)죽산리
坪里	평리		

▲ 東部面(동부면) :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

梅洞	매동	미역골	(죽)매산리
山城里	산성리		(죽)매산리

▲ 府內二面(부내이면) : 안성시 죽산면 두현리·장계리·장능리

東邊里	동변리		
三峴里	삼현리	세우개	(죽)두현리
西邊里	서변리		

▲ 西三面(서삼면) : 안성시 보개면 남풍리·북가현리·동평리

加次岩洞	가차암동	가치래미	(보)북가현리
葛峴洞	갈현동	치재	(보)북가현리
風 ¹³⁶⁾ 井洞	풍정동	시드물	(보)남평리

▲ 西二面(서이면)¹³⁷⁾ : 안성시 삼죽면 기술리·내강리·마전리·미장리·진촌리

上洞	상동
下洞	하동

▲ 西一面(서일면) : 안성시 삼죽면 내장리·덕산리·배태리·용월리·율곡리

極智里	극지리	각지	(삼)덕산리
排台洞	배태동	배터	(삼)배태리
龍頭里	용두리	용머리	(삼)용월리
栗峴里	율현리	밤고개	(삼)율곡리
土山洞	토산동	톨미	(삼)용월리

▲ 遠三面(원삼면)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가재월리·독성리·두창리·문촌리·죽릉리

加佐洞	가좌동	가재울	(원)가재월리
篤村	독촌	웃저리·옛저리	(원)독성리
杜村	두촌	두여울·골안	(원)두창리
粉村	분촌	분재말	(원)두창리
勝竹洞	승죽동	승죽골	(원)죽릉리
柳洞	유동		
倉里	창리	창말	(원)두창리

▲ 遠一面(원일면) :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고당리·맹라·미평리·사암리·좌항리

內洞	내동	안말	(원)사암리
孟洞	맹동	맹골·매골	(원)맹리
沙田里	사전리	모래실	(원)사암리
佐贊洞	좌찬동	좌전	(원)좌항리

▲ 川南二面(천남이면) : 안성시 일죽면 송천리·월정리·장암리·죽림리·화봉리

松山洞	송산동		
外月井里	외달정리	달우물	(일)월정리
竹林洞	죽림동	죽림골	(일)죽림리

▲ 川南一面(천남일면) : 안성시 일죽면 가라·금산리·산북리·주천리

134) 『호구총수』에는 近一面·近二面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근일면에는 아무런 마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면의 분류가 이 지도와 동일한 『여지도서』의 近一面 기록을 따랐다.

135) 『호구총수』에는 山內面·山外面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산내면에는 아무런 마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면의 분류가 이 지도와 동일한 『여지도서』의 南面 기록을 따랐다.

136) 한자소리가 같은 楓(신나무)을 잘못 옮겼다.

137) 『호구총수』에는 山西面·西二山東面·西三面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세 면 모두 아무런 마을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 면의 분류가 이 지도와 동일한 『여지도서』의 西二面·西三面 기록을 따랐다.

佳業里	가업리	가업골·갑니	(일)가리
山北里	산북리	산되	(일)산북리
山田里	산전리	산전이	(일)금산리

▲ 川北二面(천북이면)¹³⁸⁾ : 안성시 일죽면 신흥리·화곡리

馬岩里	마암리	말바위·말아위	(일)신흥리
池內洞	지내동	무안이	(일)신흥리

▲ 川北一面(천북일면)¹³⁹⁾ : 안성시 일죽면 고은리·당촌리·방초리

五方里	오방리	오방이	(일)방초리
銀石里	은석리	은석굴	(일)고은리

掛日山	괘일산		(용)망룡리
九存峙	구존치	구둔치	(지)일신리
鳩峙	구치		

大松峙	대송치	큰솔치고개	(양)삼산리
道巢里	도소리		(양)삼산리

圖岩	도암		
----	----	--	--

馬轉峙	마전치	말구리[고개]	(용)삼성리
-----	-----	---------	--------

望彌山	망미산		(지)망미리
-----	-----	--	--------

牧谷李府判事墓¹⁴⁰⁾ 목곡이부판사묘¹⁴¹⁾ (양)석곡리

墨方山	묵방산	먹방이[산]	(지)일신리
-----	-----	--------	--------

文來峴	문래현	그루고개	(지)송현리
-----	-----	------	--------

彌智山	미지산		
-----	-----	--	--

白雲峰	백운봉		(용)연수리
-----	-----	--	--------

白雲庵	백운암		(용)연수리
-----	-----	--	--------

白峴	백현	백고개	(용)삼성리
----	----	-----	--------

補山亭	보산정		(단)보룡리
-----	-----	--	--------

鳳凰臺	봉황대		(용)광탄리
-----	-----	--	--------

釜登山	부등산		
-----	-----	--	--

釜岩	부암		
----	----	--	--

專井	부정		
----	----	--	--

飛所峙	비소치	비슬고개	(단)행소리
-----	-----	------	--------

飛峴	비현	비고개·비호고개	(용)연수리
----	----	----------	--------

社壇	사단[사직단]		(지)지평리
----	---------	--	--------

山北	산북		(단)산음리
----	----	--	--------

三山	삼산		(양)삼산리
----	----	--	--------

上院寺	상원사		(용)연수리
-----	-----	--	--------

上元山	상원산		
-----	-----	--	--

石橋	석교		(지)지평리
----	----	--	--------

雪菴	설암		[(용)연수리]
----	----	--	----------

聖才山	성재산[성지봉]		(청)도원리
-----	----------	--	--------

星州里	성주리	비리·별애	(용)삼성리
-----	-----	-------	--------

城隍	성황[사]		(지)지평리
----	-------	--	--------

小松峙	소송치	작은솔치고개	(양)삼산리
-----	-----	--------	--------

水靑洞	수청동	무푸레골	(단)산음리
-----	-----	------	--------

지 평 (砥平)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

▲ 고을 범위 : 양평군 단월면(단), 양동면(양), 용문면(용), 지제면(지), 청운면(청)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看冠山	간관산		
罽其里山	갈기리산[갈기산]		(청)신론리
葛頭山	갈두산[갈지산]		(지)송현리
葛峴	갈현	[가루개]	[(청)갈운리]
客舍	객사		(지)지평리
建智山	건지산		[(양)]
高達山	고달산		(지)대평리
古寺塔	고사탑		(지)지평리
曲水場	곡수장	당아실·곡수	(지)곡수리

138) 『호구총수』에는 마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여지도서』의 것을 따랐다.

139) 『호구총수』에는 마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 『여지도서』의 것을 따랐다.

140) 府判事는 判府事를 잘못 옮긴 것이다.

141) 이조판서를 지낸 牧谷(목골) 이기진(李箕簾, 1687-1755)의 무덤.

淑安公主墓	숙안공주묘	(용)화전리
神堂峴	신당고개	(청)삼성리
新倉	신창	[(양)]
雙峯庵	쌍봉암	[(용)신점리]
衙舍	아새동헌	(지)지평리
硯池	연지	
外所峙	외소치	
龍門寺	용문사	(용)신점리
雲溪書院	운계서원	(용)덕촌리
有德岩	유덕암	
閭筆菴	윤필암	(용)연수리
銀杏寺	은행사	
李判府事墓	이판부사묘	[(양)계정리]
立岩	입암	
自冬驛 ¹⁴²⁾	백동역	(단)덕수리
鵲岩	작암	
齋宮	재궁	(양)석곡리
田谷驛村	전곡역촌 ¹⁴³⁾	역말 (지)송현리
前向峙	전향치	전양고개 (지)무왕리
堤堰	제언	(지)지평리
造戎洞	조용동	
鑄鍊峙	주련치	주령골고개 (지)옥현리
竹杖里	죽장리	[(양)계정리]
竹杖菴	죽장암	[(용)연수리]
竹峙	죽치	[(양)계정리]
地境峙	지경치	지경고개 (지)수곡리
鐵池堰	철지언	
趨邑山	추읍산	(용)삼성리
鷺踰峴	취유현	수리너머고개 (청)비룡리
太月菴	태월암	[(용)연수리]
退村菴	퇴촌암	[(용)신점리]
鶴峴	학현	하오개 (지)지평리
鄉校	향교	(지)지평리
香爐峯	향로봉	
險山	협산	
花谷里	화곡리	꽃길 (용)화전리

黃雲菴 황운암 [(양)]

I 면의 상세 정보

▲ **南面(남면)** : 양평군 지제면 곡수리·대평리·수곡리·옥현리

光陽里 광양리 고양이 (지)옥현리

唐儀谷里 당의곡리 [당아실] [(지)곡수리]

上水洞里 상수동리 [윗]물골·묵골 (지)수곡리

下水洞里 하수동리 [아랫]물골·묵골 (지)수곡리

▲ **北面(북면)** : 양평군 단월면 덕수리·명성리·보룡리·봉상리·
부안리·산음리·삼가리·석산리·행소리 / 용문면 광탄리 /
청운면 가현리·갈운리·다대리·도원리·비룡리·삼성리·신론리·
여물리·용두리

廣灘里 광탄리 너븐여울 (용)광탄리

大垆里 대대리 [대왕터] (단)부안리

栢冬里 백동리 백동 (단)덕수리

山北里 산북리 (단)산음리

壯勇屯里 장용둔리

▲ **上東面(상동면)** :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고송리·금왕리·
단석리·매월리·삼산리·석곡리·쌍학리

釜淵里 부연리 가마소 (양)쌍학리

石谷里 석곡리 돌실 (양)석곡리

竹杖里 죽장리

▲ **上西面(상서면)** :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삼성리·연수리·
화전리

星川里 성천리 비례·별애 (용)삼성리

陣里 진리 지더기 (용)다문리

花谷里 화곡리 [(용)삼성리]

▲ **下東面(하동면)** : 양평군 지제면 무왕리·일신리

草川里 초천리 초내 (지)무왕리

▲ **下西面(하서면)** : 양평군 용문면 광탄리·금곡리·덕촌리·
마룡리·망룡리·신점리·오촌리·조현리·중원리

馬欣川里 마흔천리 마내 (용)마룡리

▲ **縣內面(현내면)** : 양평군 지제면 망미리·송현리·울산리·
지평리

142) 自는 白을 잘못 옮긴 것이다.

143) 田谷은 순우리말 이름인 '밭골'에 대한 한자 표기였는데, 역의 이름에도 순우리말 이름이 사용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二里 이리
一里 일리

진 위(振威)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읍치 위치 :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 ▲ 고을 범위 : 평택시 시내(시)-장당동, 고덕면(고)-당현리·동고라·여암리·울포라·장동라·적봉라·좌교라·해창리, 서탄면(서)-황구지리 제외, 진위면(진)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葛院酒幕	갈원주막	취원·칠원[주막]	(시)칠원동
客舍	객사		(진)봉남면
桂陽海口	계양해구		
大白峙峴	대백치현	[큰]흔치고개	(시)지산동
東越峴	동월현	동이월고개	(시)지산동
舞鶴山 ¹⁴⁴⁾	무봉산		(진)동천리
佛樂山	불악산		(시)지산동
社壇	사단		(진)봉남면
小白峙峴	소백치현	[작은]흔치고개	(시)지산동
衙	아[동헌]		(진)봉남면
靑好酒幕	청호주막		(진)청호리
海倉	해창		(고)해창리
蟹峴	해현	기나지고개	(진)고현리
鄉校	향교		(진)봉남면
皇峴 ¹⁴⁵⁾	백토현	백토고개	(진)청호리

Ⅲ 면의 상세 정보

- ▲ 古頭面(고두면) : 평택시 고덕면 동고라·동청라·어암리·울포라·좌교라·해창리

江西里	강서리		
冬靑里	동청리	동청아·동체이	(고)동청리
方是川里	방시천리	방시내	(고)해창리
倉里	창리	해창	(고)해창리

- ▲ 馬山面(마산면·말미면) : 평택시 진위면 마산라·은산리
- | | | | |
|----|----|----|--------|
| 上里 | 상리 | 말미 | (진)은산리 |
| 下里 | 하리 | | |

- ▲ 丙坡面(병파면) : 평택시 군문동·비전동·유천동·통북동·평택동·합정동

碑前里	비전리	비앞	(시)비전동
於里南里	어인남리	어인남라·계인	(시)비전동
通湫里	통보리	통북개·통북개	(시)통북동

- ▲ 城南面(성남면) : 평택시 세교동·신대동·지제동

細橋里	세교리	잔다리	(시)세교동
下通湫里	하통보리		

- ▲ 松庄面(송장면) : 평택시 가재동·이충동·장안동

東嶺里	동령리	동령이	(시)이충동
-----	-----	-----	--------

- ▲ 余方面(여방면) : 평택시 가재동·동삭동·도일동·모곡동·칠괴동·칠원동

葛院里	갈원리	취원·칠원	(시)칠원동
方孝洞	방효동	방혜울·방혜물	(시)가재동
司倉里	사창리		
西才里	서재리	서재	(시)동삭동
西枝里	서지리		
永新里	영신리		(시)동삭동

- ▲ 二北面(이북면) : 평택시 진위면 가곡라·견산라·신라·하북리

佳野谷里	가야곡리	가야살·개살	(진)가곡리
見山里	견산리	볼미	(진)견산리
下北里	하북리	[성뒤]	(진)하북리
後北里	후북리	양지말	(진)가곡리

144) 鶴은 鳳을 잘못 옮긴 것이다.

145) 皇은 白土를 잘못 옮긴 것이다.

▲ 二西面(이서면) : 평택시 서탄면 내천리·사라·수월암리, 진위면 야막리

傑豪里	걸호리	걸미·거르미	(서)수월암리
柵川里	내천리	머드내	(서)내천리
野幕里	야막리	들막	(진)야막리

▲ 二炭面(이탄면) : 평택시 서탄면 금각리·장등리·적봉리

金角里	금각리	쇠뿔·쇠뿌리	(서)금각리
長等里	장등리	진등	(서)장등리
下里	하리		

▲ 一北面(일북면) : 평택시 진위면 갈곶리·고현리·동천리·청호리

葛串里	갈곶리	갈고지	(진)갈곶리
桐泉里	동천리	동천골·동칫골	(진)동천리
新村里	신촌리		
靑好里	청호리		(진)청호리

▲ 一西面(일서면) : 평택시 서탄면 금암리·마두리

宮里	궁리		
金巖里	금암리	북바위·금암리	(서)금암리
馬頭里	마두리	말머리	(서)마두리
新里	신리	새말	(서)금암리

▲ 一炭面(일탄면) : 평택시 시내 독곡동·신장동·지산동, 서탄면 회화리

乾芝山里	건지산리	건지미	(시)지산동
吾佐洞里	오좌동리	외재울	(시)독곡동
牛谷里	우곡리	소골	(시)지산동
除後洞里	제후동리	제골	(시)신장동
佐洞里	좌동리	좌울	(시)지산동

▲ 縣內面(현내면) :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東里	동리		
西里	서리		

통진(通津)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 고을 범위 : 김포시 대곶면(대), 양촌면(양), 월곶면(월), 통진면(통), 하성면(하) ※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강), 길상면(길)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甲串大津	갑곶대진	갑구지나루	(월)포내리
江都	강도		(강)
古里串面	고리곶면		☞
大池	대지		(월)성동리
大坡面	대파면	함배면	☞
德津	덕진	덕개	(월)신안리
童城山	동성산		(하)원산리
文殊寺	문수사	문수절	(월)성동리
文殊山城	문수산성		(월)성동리
半里村里 ¹⁴⁶⁾	반이촌면		☞
別將	별장		(월)성동리
烽臺	봉대[남산]		(월)군하리
奉城面	봉성면	봉생이면	☞
浮來島	부래도	부림섬	(월)신안리
桑串面	상곶면	상꾸지면	☞
所伊甫面	소이포면	췌개면	☞
守安山烽臺	수안산봉대		(대)대룡리
陽陵面	양릉면		☞
月串	월곶	달고지	(강)월곶리
月余串面	월여곶면		☞
月瓮山	월웅산		
留島	유도	머머리섬	(월)보구곶리
邑內面	읍내면		☞
阻江	조강	조강개	(월)조강리

146) 里는 面을 잘못 옮긴 것이다.

叱田面	질전면	질앗면	ㄷ
胎峯	대봉		(월)고막리
浦口串面	보구곶면	보습고지면	ㄷ
項山島	항산도	항산도	(길)초지리

道里串里	도리곶리	도니꾸지	(통)도사리
豆音伐里	두음벌리	둠버리	(통)도사리
馬松里	마송리	마술아·매수리	(통)마송리
新村里	신촌리		
陳垌里	진대리	진터	(통)마송리

I 면의 상세 정보

▲ **古里串面(고리곶면)** : 김포시 대곶면 대명리·석정리·송마리·쇄암리·신안리

大明村里	대명촌리	대망고지	(대)대명리
麻唐浦里	마당포리	마당개	(대)송마리
山尺山里	산척산리	산자매	(대)송마리
上新里	상신리	웃새말	(대)쇄암리
石井里	석정리	돌우물·쿨우물	(대)석정리
松山里	송산리	솔미	(대)송마리
松牙里	송아리	솔아라·소래	(대)송마리
碎岩里	쇄암리	바석마위	(대)쇄암리
下新里	하신리	[아랫새말]	(대)쇄암리

▲ **大坡面(대파면·함배면)** :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라·대룡리·대벽라·상마라·약암라·오리산라·울생라·초원지리, 양촌면 학운리

巨勿大里	거물대리	검은대	(대)거물대리
陵洞里	능동리	능굴	(대)대룡리
大村里	대촌리	하넛골	(대)상마리
大坡里	대파리	함배	(대)대룡리
刀馬山里	도마산리	도마매	(대)상마리
牟井里	모정리	보리물	(대)울생리
密勿里	밀물리		
碧井里	벽정리	벽우물	(대)대벽리
朔是里	삭시리	삭시	(양)학운리
藥山里	약산리	약산	(대)약암리
漁毛老里	어모로리	어무루	(대)대벽리
五里山里	오리산리	오리미	(대)오리산리
赤巖里	적암리	붉은바위	(대)약암리
終生里	종생리	종생·역말	(대)울생리
草元地里	초원지리	새원지	(대)초원지리

▲ **伴里村面(반이촌면)** : 김포시 통진면 가현리·도사리·마송리

加峇里	가잡리	가잡	(통)가현리
-----	-----	----	--------

▲ **浦口串面(보구곶면·보습고지면)** : 김포시 월곶면 보구곶면 보구곶리·성동리·용강리

東幕里	동박리	동막골	(월)성동리
浦口串里	보구곶리	보습고지	(월)보구곶리
城內里	성내리	산성동	(월)성동리
興龍里	흥룡리	흥릿골·흥룻골	(월)용강리

▲ **奉城面(봉성면·봉생이면)** : 김포시 통진면 수참리 / 하성면 마곡리·봉성리·석탄리·전류리·하사리

杜谷里	두곡리	디리울	(하)석탄리
麻東里	마동리	동망골	(하)마곡리
麻西里	마서리	서망골	(하)마곡리
奉城里	봉성리	봉세이·봉생이	(하)봉성리
沙草里	사초리	사पुर	(하)하사리
石灘里	석탄리	돌여울·도련이	(하)석탄리
水站里	수참리	물참	(통)수참리
顛流里	전류리	전류	(하)전류리

▲ **府內面(부내면)** : 김포시 월곶면 갈산리·고막리·고양리·군하리·포내리

高陽浦里	고양포리	고양개	(월)고양리
古邑里	고읍리	고읍동·곰매	(월)고막리
陵洞	능동	능굴	(월)고양리
東邊里	동변리		[(월)군하리]
西邊里	서변리		[(월)군하리]
新垌里	신대리		
瓮井里	웅정리	독우물골	
浦內里	포내리	개안말	(월)포내리

▲ **桑串面(상곶면·상꾸지면)** : 김포시 양촌면 구래리·대포리·마산리·유현리·학운리

古音達里	고음달리	고음달·곰달	(양)학운리
大浦里	대포리	황개	(양)대포리
麻泥山里	마니산리	바리미·마리미	(양)마산리

桑串里	상곶리	상꾸지	(양)구래리
鶴峴里	학현리	하우개	(양)학운리
香毛地里	향모지리	상무지	[(양)대포리]

▲ 所伊甫面(소이보면·씻개면) : 김포시 하성면 가금라·마조라·시암라·신리·양택라·후평리

加佐洞里	가좌동리	가재울	(하)가금리
金浦里	금포리	소야·수해·쇄해	(하)가금리
斗月里	두월리	두월	(하)가금리
麻音道里	마음도리	맴두라·매음돌	(하)신리
麻造浦	마조포	맴두라·마조	(하)마조리
沙也老里	사야로리	새루리	(하)후평리
柿巖里	시암리	감바위	(하)시암리
陽存里	양존리	양주니	(하)양택리
赤只里	적지리	불기	(하)시암리
後坪里	후평리	뒷들	(하)후평

▲ 陽陵面(양릉면) : 김포시 양촌면 누산라·석모라·양곡라·홍신리

古大里	고대리	고단이	(양)양곡리
樓里	누리	다락말	(양)누산리
鉢山里	발산리	바리미	(양)누산리
山里伐里	산리벌리		
陽陵里	양릉리	양릉	(양)양곡리
五羅里	오라리	오라니	(양)양곡리
埵串里	질곶리	기루자·질곶	(양)석모리

▲ 月餘串面(월여곶면) : 김포시 월곶면 개곡라·조강리 / 통진면 고정라·서암리

高尺山里	고천산리	고자피	(통)고정리
南亭洞里	남정동리	남정골	(통)고정리
西明洞里	서명동리	서명골	(통)서암리
右乙內里	우을내리	울안이·돌안	(월)조강리
位谷里	위곡리	가오루	(월)개곡리
祖江里	조강리	조강개	(월)조강리

▲ 造乙田面(조을전면·질앗면) : 김포시 하성면 원산라·양택리 / 통진면 귀전라·동을산리

歸老里	귀로리	귀로동·긴우물	(통)귀전리
冬乙山里	동을산리	들미·들피	(통)동을산리
登山里	등산리	등산이	(하)원산리

遠通里	원통리	원통골	(하)원산리
造乙田里	조을전리	질앗	(통)귀전리
澤洞里	택동리	수못	(하)양택리

파 주(坡州)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 고을 범위 : 파주시 광탄면(광)-기산라·영장리 제외, 문산읍(문), 법원읍(법), 월릉면(월), 조리읍(조), 파주읍(파주), 파평면(파평)-장파리 제외 ※ 고양시 덕양구(덕)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介佐非峴	개좌비현	가재밋고개	(파주)연풍리
客舍	객사		(파주)파주리
恭陵	공릉		(조)봉일천리
恭肅公墓	공숙공묘		(월)영태리
龜山	구산	거북피	(파)연풍리
軍器	군기		(파주)파주리
金剛寺	금강사	금강절·금강이절	(파평)눌노리
來蘇亭	내소정		(문)장산리
棠山	당산	아가매	(월)능산리
大山烽	대산봉		(파주)봉암리
杜谷堤堰	두곡제언		
望海菴	망해암		
彌池寺	미타사		(파평)미타사
伴鷗亭	반구정		(문)사목리
奉日川	봉일천	공릉내	(조)봉일천리
分水院	분수원		(광)분수리
社壇	사단		[(파주)파주리]
城郭山城	성곽산성	봉서산성	(파주)파주리
成牛溪墓	성우계묘		(파주)향양리

所古里峴	소고리현		
水月亭	수월정		
順陵	순릉	(조)봉일천리	
豕轉山	시전산		
新院	신원	새원	(덕)신원동
衙舍	아사		(과주)과주리
延豐島	연풍도		(과주)연풍리
永平山	영평산		
雄山	웅산		(법)갈곡리
月籠山	월룡산	다량산	(월)덕은리
尹文肅公墓	윤문숙공묘		(광)분수리
雌山	자산		(법)갈곡리
紫雲書院	자운서원		(법)동문리
長陵	장릉		(문)운천리
場岩	장암	마당바위	(문)장산리
猪浦險津	저포험진	독개나루	(문)마정리
轉石 ¹⁴⁷⁾	박석	박석고개	(과평)두포리
車踰岑	차유령	수르네밋고개	(법)오현리
倉	창		(과주)과주리
廳岩山	청암산		
取邊	취변		
七松亭	칠송정		
坡山書院	파산서원		(과평)눌노리
豐溪祠宇	풍계사우		(과주)과주리
漢尾山	한미산[노고산]		(법)갈곡리
蟹踰岑	해유령	기네밋고개	(문)선유리
鄉校	향교		(과주)과주리
惠陰岑	혜음령	혜음고개	(광)용미리
花石亭	화석정		(과평)율곡리
孝章墓	효장묘		(조)봉일천리

I 면의 상세 정보

- ▲ 廣灘面(광탄면·너분여울면) : 과주시 광탄면 마장리·발랑리·방축리·분수리·신산리·용미리·창만리
- | | | | |
|-----|-----|----|--------|
| 儉田里 | 검전리 | 검밭 | (광)방축리 |
|-----|-----|----|--------|

九龍里	구룡리		(광)용미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	(광)분수리
斗滿里	두만리	두만이	(광)창만리
馬場里	마장리	마장골	(광)마장리
發郎里	발랑리	바람골·바랑골	(광)발랑리
防築里	방축리	방죽말	(광)방축리
射廳里	사청리	사채이	(광)창만리
柴工洞	시공동	시궁굴	(광)신산리
梧山里	오산리	오미	(광)발랑리
牛郎洞	우랑동	울리굴	(광)마장리
祭廳里	제근리	제청말	(광)분수리
土亂里	토란리	토란이	(광)발랑리
虎尾里	호미리		(광)용미리

▲ 馬井面(마정면·말우물면) : 과주시 문산을 마정리·사목리

內般庄	내반장	안반쟁이	(문)사목리
馬井里	마정리	말우물	(문)마정리
沙鷺里	사목리	사모가·사무기	(문)사목리
上夜味	상야미	웃배미	(문)마정리
外般庄	외반장	[마깁]반쟁이	(문)사목리
獐之里	장지리	장지말	(문)마정리
河山里	하산리	하미	(문)사목리
下夜味	하야미	아랫배미	(문)마정리

▲ 白石面(백석면) : 과주시 과주읍 백석리·봉서리·봉암리·과주리

高作里	고작리		
坊築里	방축리	축동	(과주)봉암리
烽峴里	봉현리	봉우재	(과주)봉암리
新村里	신촌리	새말	(과주)봉암리
影堂里	영당리		
牛建里	우건리	우건이	(과주)백석리
銀盤里	은반리		
鷹巖里	웅암리	매바위	(과주)봉암리
赤田里	적전리	붉은밭	(과주)봉서리
下馬山里	하마산리		(과주)과주리
鶴谷里	학곡리	화약골	(과주)백석리

147) 轉은 磚을 잘못 옮긴 것이다.

▲ 新屬面(신속면) : 파주시 문산읍 임진리·장산리

麻浦里	마포리	맛개	(문)장산리
飛里里	비리리	비인동	(문)장산리
野里里	야리리		
牛尾署	우미서	우무새	(문)장산리
臨津里	임진리	임진골	(문)임진리
長山里	장산리		(문)장산리

▲ 烏里串面(오리곶면) : 파주시 문산읍 내포리, 월릉면 능산리

屈村里	굴촌리	굴춘이	(문)내포리
金蠅里	금승리	[쇠스랑골]	[(월)능산리]
陵洞里	능동리	능골	(월)능산리
棠山里	당산리	아가매	(월)능산리
梧木里	오목리	오무기·오모기	(문)내포리
梨大洞	이대동	이대골	(월)능산리
長浦里	장포리	장개·장괘	(문)내포리
楸洞里	추동리	가래울	(문)내포리
杏亭里	행정리	은행정	(문)내포리

▲ 雲泉面(운천면·구루물면) :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임진리

儉巖洞	검암동		(문)운천리
大德洞	대덕동	대덕골	(문)운천리
方山洞	방산동		
小德洞	소덕동	소덕골	(문)운천리
陣巖洞	진암동		
穿山洞	천산동		
忠義洞	충의동		
絃巖洞	현암동	줄아위·줄바위	(문)임진리

▲ 紫谷面(자곡면·자실면) : 파주시 월릉면 덕은라·도내라·영태리·위전리

內洞里	내동리	안골	(월)도내리
德峴里	덕현리	덕고개	(월)덕은리
屯田里	둔전리	둔전골	(월)영태리
方陽洞	방양동	뱅골·배양골	(월)덕은리
野里里	야리리		
葦谷里	위곡리	다락고개·달앗	(월)위전리
紫谷里	자곡리		
咸陽洞	함양동	함영굴·해명굴	(월)영태리
花田里	화전리		

▲ 条里洞面(조리동면) : 파주시 광탄면 신산리, 조리읍 노조리·봉일천·오산리·죽원리·장곡리

箕谷里	기곡리	틔골	(조)장곡리
弩谷里	노곡리	소뇌울	(조)노조리
老山里	노산리	놀미	(조)장곡리
大院里	대원리	대원	(조)죽원리
水洞里	수동리		
新村里	신촌리	새말	(조)오산리
野里里	야리리		
銀谷里	은곡리	은골	(조)장곡리
田地山里	전지산리	전지미	(조)오산리
花山里	화산리		(광)신산리

▲ 州內面(주내면) :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연풍리·파주리

南部里	남부리		(파주)파주리
大囊里	대조리	대추벌	(파주)연풍리
東部里	동부리		(파주)파주리
馬山里	마산리		(파주)파주리
美峩洞	미아동		(파주)파주리
釜谷里	부곡리	가마울	(파주)부곡리
北部里	북부리		[(파주)파주리]
西部里	서부리		(파주)파주리
五家里	오가리	오가릿골	(파주)파주리
龍池洞	용지동	용짓골	(파주)연풍리
學堂里	학당리	학데이	(파주)파주리
鄉校里	향교리	생젓골·향곶골	(파주)파주리
穴巖里	혈암리	굴바위	(파주)연풍리

▲ 泉峴面(천현면·샘재면) : 파주시 범원읍 가야리·갈곡리·금곡리·대릉리·동문리·범원리·삼방리·오현리·웅담리

加佐洞	가좌동	가좌울·가좌	(범)가야리
葛洞里	갈동리	칠울	(범)갈곡리
金谷里	금곡리	쇠골	(범)금곡리
大義里	대의리	대위동	(범)대릉리
東道羅之里	동도라지리	동두라지	(범)오현리
東幕洞	동막동	동막골	(범)동문리
屯坊里	둔방리	둔뱅이	(범)삼방리
馬只洞	마지동	매재이·마제이	(범)오현리
法義里	법의리	삼성대이	(범)범원리

富作洞	부작동	부작골	(법)오현리
陽之里	양지리	양지말	(법)삼방리
於斗雲里	어두운리	어둔이	(법)삼방리
五龍洞	오룡동	오릿골	(법)오현리
零遠里	우원리		
熊潭里	웅담리	곰소·곰시	(법)웅담리
遠院里	원원리	머르나·머러니	(법)오현리
赤只洞	적지동	불기동	(법)동문리

▲ 七井面(칠정면·칠정말면) : 파주시 문산읍 당동라·문산라·선유라·이천리, 파주읍 향양리

內陵里	내릉리	능안	(문)선유리
堂洞里	당동리	당골	(문)당동리
讀書洞	독서동	독서울·독설	(문)선유리
汶山里	문산리	문산개	(문)문산리
鉢山里	발산리	마리미	(문)당동리
發興里	발흥리		
鋤里洞	서리동	선율·선울	(문)선유리
梨川里	이천리	배내	(문)이천리
赤雲里	적운리	적운아·저고니	(문)당동리
倉洞里	창동리		
板橋里	판교리	너더리	(문)당동리
向陽里	향양리	향양말·생말	(파주)향양리

▲ 坡平面(파평면) : 파주시 문산읍 이천리, 파평면 금파라·눌노라·덕천리·두포라·마산라·울곡리

訥老里	눌로리	늬노리·늬느리	(파평)눌노리
東村里	동촌리	동굴	(파평)덕천리
斗文里	두문리		(파평)두포리
馬山里	마산리	매사울·마새울	(파평)마산리
新谷里	신곡리	새말	(파평)금파리
薪寺里	신사리	섭절	(파평)울곡리
陽谷里	양곡리	양죽굴	(파평)덕천리
於義洞	어의동	느리울	(파평)덕천리
龍山里	용산리	용삿굴	(파평)마산리
栗谷里	율곡리	밤실·밤골	(파평)율곡리
長波里	장파리	장마루	(파평)금파리
長浦里	장포리	장개	(파평)두포리
智川里	지천리	지나울·지내울	(문)이천리

泉川里	천천리	샘내	(파평)덕천리
瓢山里	표산리	방미	(문)이천리

포 천 (抱川)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읍치 위치 :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 고을 범위 : 포천시 시내(시), 가산면(가), 군내면(군), 신북면(신)-가채라·고일라·기지라·만세교라·삼성당라·심곡라·신평리, 소홀읍(소), 화현면(화) / 동두천시(동)-탑동

※ 포천시 일동면(일)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加山面	가산면		☞
加應山	가응산		
客舍	객사		(군)구읍리
光陵主山	광릉주산·운악산		(소)직동리
廣峴	광현	넙고개·넙재	(가)금현리
國祠峯	국사봉		(신)심곡리
屈峴	굴현	굴고개	(군)직두리
內洞面	내동면		☞
道城山	도성산		(일)사직리
禿峴烽臺	독현봉대[독산봉수]		(신)기지리
銅店	동점		
東村面	동촌면		☞
萬世橋	만세교	만세다리	(신)만세교리
武夷峴	무래현		
武夷山	무이산	무루산	(신)삼성당리
半月山堅城	반월산건성		(군)구읍리
鉢里山	발리산	바라봉	(군)하성북리
白沙書院	백사서원		(가)방축리
北面	북면		☞

佛項山	불항산[북정산]	(가)우금리
西面	서면	서면
石門峯	석문령	돌문이고래 (소)송우리
城隍堂	성황당	성황당 (군)구읍리
水源山	수원산	(군)직두리
新坪	신평	새벌 (신)신평리
衙	아동헌	(군)구읍리
安奇驛村	안기역촌	
旺方山	왕방산	(시)어룡동
龍淵書院	용연서원	(신)신평리
仍邑峙峰	잉읍치봉	넙고개·넙재[봉](가)금현리
注葉山	주엽산[죽엽산]	(내)진목리
地莊臺	지장대	(내)내리
天柱山	천주산	(신)기지리
清涼面	청량면	청량면
楸谷山	추곡산	[가래울산] [(가)가산리]
祝石峯	축석령	축석고개 (소)이동교리
胎峯	태봉	(소)송우리
海龍山	해룡산	(시)설운동
鄉校	향교	(군)구읍리
香積山	향적산	(고)무봉리
花山	화산	(가)방축리
縣登山	현등산	(화)화현리

I 면의 상세 정보

▲ **加山面(가산면)** : 포천시 가산면 가산리·금현리·마산리·방축리·정교리

加山里	가산리	가산말·화산면 (가)가산리
宮村里	궁촌리	궁말 (가)금현리
金峙里	금치리	쇠재 (가)금현리
馬山里	마산리	말뫼·말미 (가)마산리
防築里	방축리	방죽골·방죽골 (가)방축리
書院里	서원리	서원말 (가)방축리
龍化洞里	용화동리	용화골 (가)정교리
鼎橋里	정교리	솔다리 (가)정교리
楸谷里	추곡리	가래울 (가)가산리

沈防里	침방리		
後坪里	후평리	뒷들	(가)마산리

▲ **內洞面(내동면)**¹⁴⁸⁾ : 포천시 내촌면 내리·마명리·소학리·엄현리

廣峴里	광현리	넙고개	(내)진목리
內里	내리	안골	(내)내리
巢鶴里	소학리	소학골	(내)소학리
庵峴里	엄현리	음고개·엄고개	(내)엄현리
眞木里	진목리	참나무정이	(내)진목리
八夜里	팔야리	여덟배미	(내)엄현리

▲ **內北面(내북면)** : 포천시 신북면 가채리·기지리·만세교리·신평리

機池里	기지리	틀못	(신)기지리
獨谷里	독곡리	독골	(신)기지리
萬歲橋里	만세교리	만세다리	(신)만세교리
新坪里	신평리	새벌	(신)신평리
二加次里	이가차리	오장골·이가채	(신)가채리
初加次里	초가차리	위가채	(신)가채리

▲ **內所屹山面(내소흘산면)** : 포천시 소흘읍 고모리·무봉리·이가팔리·초가팔리

加八里	가팔리	[큰말]	(소)이가팔리
古毛前里	고모전리	고뫼암	(소)고모리
內里	내리	안말	(소)초가팔리
茂峯里	무봉리	거친봉이	(소)무봉리

▲ **東村面(동촌면)** : 포천시 내촌면 신평리 / 화현면 명덕리·지현리·화현리

明德里	명덕리	명덕골	(화)명덕리
薪八里	신평리	싹과	(내)신평리
池峙里	지치리	지치재	(화)지현리
花峙里	화치리	화재	(화)화현리

▲ **西面(서면)** : 포천시 동교동·선달동·설운동·신읍동·어룡동·자작동

木洞里	목동리	나무골	(시)동교동
先達里	선달리	선단	(시)선달동
雪雲里	설운리	설운	(시)설운동

148) 內洞은 순우리말 이름인 '안골'에 대한 한자 표기였는데, 면 이름의 호칭에도 '안골면'이라 했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魚龍洞	어룡동	어룡골	(시)어룡동
自作里	자작리	자재기	(시)자작동
場巨里	장거리	장거리	(시)신읍동
塔洞里	탑동리	탑골	(동)탑동

- ▲ **外北面(외북면)** : 포천시 신북면 계류라·고일라·삼성당리
 界流里 계류리 자리말·계류 (신)계류리
 高日里 고일리 고일 (신)고일리
 三省堂里 삼성당리 삼성당이 (신)삼성당리
 深谷里 심곡리 깊이울·짚이울 (신)심곡리

- ▲ **外所屹山面(외소흘산면)** : 포천시 소흘읍 무림라·송우라·
 이곡라·이동교라·직동리 / 동교동
 東橋里 동교리 동다리·뜰다리 (소)동교동
 茂林里 무림리 무림 (소)무림리
 水內里 수내리 물안·무란 (소)이동교리
 直洞里 직동리 고든골 (소)직동리

- ▲ **淸涼面(청량면)** : 포천시 가산면 감암라·마전라·우금리 /
 군내면 유교라·좌의리
 甘巖里 감암리 가마바위·감바위 (가)감암리
 麻田里 마전리 삼밭골 (가)마전리
 友琴里 우금리 우금 (가)우금리
 柳橋里 유교리 유다리 (군)유교리
 左義里 좌의리 좌우지·좌의지 (군)좌의리
 淸涼里 청량리 청량동 (군)유교리

- ▲ **縣內面(현내면)** : 포천시 군내면 구읍라·명산라·상성북라·
 용정라·직두라·하성북리
 南邊里 남변리 남편말 (군)구읍리
 東邊里 동변리 동편말 (군)구읍리
 鳴山里 명산리 울미 (군)명산리
 上城北里 상성북리 옷갓뒤·옷성디 (군)상성북리
 西邊里 서변리 서편말 (군)구읍리
 水原洞里 수원동리 수원골 (군)직두리
 龍井里 용정리 용물·요물 (군)용정리
 稷頭里 직두리 피머리 (군)직두리
 下城北里 하성북리 아랫갓뒤·아랫성디 (군)하성북리

풍 덕 (豐德)

Ⅰ 현재의 위치와 범위

- ▲ **일러두기** : 현재 모든 지역이 북한에 속해 있기 때문에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 고을의 위치와 범위는 일제강점기의 행정구역을 따랐고, 지도의 지명찾아보기와 면의 상세 정보에서 현재 위치는 표기하지 않았다. 우리말이름은 『조선지리지자료』(1911)의 것만 참조하였다.
- ▲ **읍치 위치** : 개성군 대성면 풍덕리
- ▲ **고을 범위** : 개풍군 광덕면(광), 대성면(대), 상도면(상), 임한면(임), 중면(중), 풍동면(풍), 홍교면(홍)

Ⅱ 지도의 지명찾아보기

한자	한자소리	우리말이름	현재위치
加左洞	가좌동		
敬天	경천		
高陽里	고양리		
高尺	고척		
官舍	관사		
光天山	광천산		
舊城臺	구성대		
軍紫山	군자산		
露積山	노적산		
堂頭	당두	당머리	
德德山	덕덕산		
德積烽臺	덕적봉대		
馬尾山	마미산		
望浦	망포		
梅花亭	매화정		
白馬山	백마산		
士谷	사곡		
森達里	삼달리		
三星山	삼성산		
書院	서원		
松山	송산		

水原寺基	수원사기	
昇天津	승천진	
如利山	여리산	
玉山	옥산	
月岩	월암	
長地峴	장지현	
齊陵	제릉	
祖江	조강	조강나루
進鳳山	진봉산	
天德山	천덕산	
破軍山	파군산	
楓陵	풍릉	
蟹岩	해암	기야리
香炭山	향탄산	
虎峴	호현	범고개
禾洞	화동	
黃江	황강	
厚陵	후릉	
興王	흥왕	
興天	흥천	

I 면의 상세 정보

▲ **郡南面(군남면)** : 개성군 대성면 고군라·산귀라·삼달라·지내리, 흥교면 흥천리

古郡里	고군리	(대)고군리
山歸里	산귀리	(대)산귀리
森達里	삼달리	(대)삼달리
興天里	흥천리	(흥)흥천리

▲ **郡北面(군북면)** : 개성군 상도면 대룡리·삼인리·상도라·연동리·풍천리

釜洞里	부동리	
上道里	상도리	(상)상도리
仙山里	선산리	(상)삼인리
楓川里	풍천리	(상)풍천리
下道里	하도리	(상)풍천리
禾洞里	화동리	(상)삼인리

▲ **郡中面(군중면)** : 개성군 광덕면 광덕리, 대성면 구읍라·대성리·신죽리·풍덕리, 상도면 양사리

高陽里	고양리	
歸道里	귀도리	(대)대성리
杜門里	두문리	
新竹里	신죽리	새재 (대)신죽리
羊司里	양사리	(상)양사리
邑內里	읍내리	(대)풍덕리

▲ **德南面(덕남면)** : 개성군 임한면 가정리·사동리·상조강리·월암리·유천리·정곶리·채련라·하조강리

佳井里	가정리	(임)가정리
士洞里	사동리	(임)사동리
月巖里	월암리	(임)월암리
柳川里	유천리	(임)유천리
丁串里	정곶리	(임)정곶리
祖江里	조강리	(임)상조강라하조강리
採蓮里	채련리	채련골 (임)채련리

▲ **德北面(덕북면)** : 개성군 진봉면 도평리·봉동리·지금라·탄동리·홍왕리

大足里	대족리	(진)봉동리
都羅山里	도라산리	(진)도평리
山上里	산상리	(진)홍왕리
長芝山里	장지산리	(진)지금리
炭洞里	탄동리	숫골 (진)탄동리
興旺里	홍왕리	(진)홍왕리

▲ **德中面(덕중면)** : 개성군 중면 대룡리·덕수리·동강라·송산리·식현리·창내라·천덕리

大也峴里	대야현리	대우재 (중)대룡리
松山里	송산리	(중)송산리
食峴里	식현리	(중)식현리
艾浦里	애포리	(중)덕수리
栗串里	율곶리	(중)대룡리
梨谷里	이곡리	(중)창내리
箭門里	전문리	(중)천덕리
左後里	좌후리	좌되 송산리
倉內里	창내리	(중)창내리

黃梅洞里 황매동리 (중)덕수리

▲ 東面(동면) : 개성군 홍교면 궁천리·사곡리·영정리·조문리·
지현리·홍교리

官谷里 관곡리 (홍)조문리

宮川里 궁천리 (홍)궁천리

望浦里 망포리 (홍)지현리

蛇串里 사곶리 (홍)사곡리

領井里 영정리 (홍)영정리

照海里 조해리 (홍)조문리

興教里 홍교리 (홍)홍교리

▲ 西面(서면) : 개성군 광덕면 고천리·사분리·중연리·황강리

高尺里 고척리 (광)고척리

寺盆里 사분리 (광)사분리

中蓮里 중련리 (광)중연리

黃江里 황강리 (광)황강리



北面

山里鉢

城隍堂

城堅山月半

安奇驛村

衙

舍客

校

西面

清涼面

山花

山谷楸

峯胎

加山面

白沙書院

野乙山面

楊

如德山

新坪龍洞

旺方山

南來峴

銅店

海山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긴
경기도 고을의 역사와 읍치 이해

고지도와 지리지 속에 담긴 경기도 고을의 역사와 읍치 이해

이기봉(국립중앙도서관 고서전문원)

- 목 차 -

1. 머리말 - 지역의 역사와 고지도·지리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2. 고을의 연혁과 범위
 - 1) 고을의 연혁
 - 2) 고을의 범위
3. 읍치의 위치와 구조 및 상징
 - 1) 조선 이전의 통치성과 읍치 찾기
 - 2) 조선시대의 읍치 이해하기
4. 경기도 고을의 읍치 관련 자료
 - 1) 읍치와 통치성이 가까운 경우
 - 2) 읍치와 통치성의 거리가 멀거나 아직 통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5. 마무리 - 읍치의 상징체계와 내부 구조의 이해

1. 머리말 - 지역의 역사와 고지도·지리지에 대한 관심의 증가

서구에서 시작된 산업혁명과 근대의 도시화로 인해 발생한 이촌향도(離村向都)의 거대한 물결이 우리나라에서는 개항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일제강점기와 해방,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그 파고를 서서히 높여갔다. 그리고 1960년대부터 시작된 급속한 경제발전은 시골에서 태어난 누구든 자신의 고향 마을을 떠나 도시로 가는 것이 더 나은 삶을 위해 당연한 것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놓았고, 그 결과 인구의 공간적 재편이 격렬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사람들의 애향심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쉽게 말해 새롭게 이주한 도시는 그냥 살아가는 공간이었을 뿐 삶의 애착이 깊게 스며든 장소는 아니었다. 여기에 일제시대부터 시작되어 1980년대까지 이어진 강한 중앙집권제와 관료주의는 경제적 효율성을 높이는 매개체로 기능했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능동적 공간이 아니라 수동적 공간으로 변모시키는데 일조했다. 하지만 1990년대 들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동안의 아픔이 결실을 맺으면서 첫째, 절대적 빈곤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경제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되었고 둘째, 이촌향도의 거대한 물결이 멈추면서 도시가 고향인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기 시작했으며 셋째, 권위주의국가에서 민주주의국가로의 전환이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을 타고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1991년 3월 26일 구·시·군의 기초의회 의원선거가, 1995년 6월 27일 구·시·군의 기초 단체장과 광역의회 의원 및 단체장 선거가 차례대로 실시되었다. 말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출발점 이었고, 2011년 현재 일부 단점이 노출되고 있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관성을 가진 정착을 이룬 것이 아닌가 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는 삶의 인식에 또 다른 전환점이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자기 권역의 역사와 문화적 상징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첫째, 자기 권역의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형식의 시지(市誌)나 군지(郡誌)의 간행이 활발해졌다. 둘째, 역사 유적에 대한 조사와 발굴 및 복원 사업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셋째, 자치단체의 오랜 역사성을 상징할 수 있는 장소, 풍경, 건축물, 행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화합과 정체성 향상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흐름 속에서 과거의 고을 역사를 가장 쉬운 한문으로 체계화한 지리지와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한 고지도에 대한 관심도 더불어 증가하였고, 그 가치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역사 전체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지리지의 문장과 고지도의 이

미지 속에 담긴 내용에 생각보다 이해하기 힘든 측면이 있다는 점이 간과 되는 경향이 있고, 그 결과 잘못 이해된 오류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지리지와 고지도 속에 담긴 내용을 우리나라 전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또한 개별 고읍과 읍치(邑治)¹⁾의 역사적 변동에 대한 지식도 갖고 있어야 하며, 나아가 지리지와 지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터득해야 한다.

본 글은 최초본이 1720년대 안팎에 편찬된 그림식 지도책인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輿地圖(여지도)』(청구기호 : 韓貴古朝61-3) 6책 중 1책에 수록된 경기도의 고읍 지도 38장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하지만 단지 고지도의 내용 이해에 그치기보다는 지리지와 고지도 속에 담겨 있는 경기도 각 고읍의 역사와 읍치의 모습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설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조선시대 경기도의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 경기도·인천광역시·서울특별시의 지방자치체와 기타 지역사회 단체들이 해당 지역의 역사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활용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2. 고읍의 연혁과 범위

1) 고읍의 연혁

『세종실록지리지』(1454), 『신증동국여지승람』(1530)을 비롯하여 조선 시대의 거의 모든 지리지에는 고읍의 역사가 道(도)나 고읍의 가장 앞쪽에 배치된 建置沿革(건치연혁) 항목에 집약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삼국사기』와 『고려사』의 지리지에는 일부를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조선 시대 지리지의 건치연혁 항목의 내용만 수록되어 있는데, 그만큼 전통시대에는 고읍의 연혁이 중요했다는 의미다.

서술된 한문이 어렵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건치연혁 속에는 우리나라 역사 전체의 흐름을 체계적으로 알고 있어야 이해될 수 있는 것이 많다. 먼저 1861년에서 1866년 사이에 김정호(추정: 1804-1866)가 여러 자료를 비교 검토하여 편찬한 『대동지지』 부평의 건치연혁에 수록된 내용을 사례로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① 원래 백제 主夫吐(주부토)인데, 신라 경덕왕 16년(759)에 長堤郡(장제군)[領縣(영현)이 4개인데, 分津(분진)·金浦(김포)·童城(동성)·戌城(수성)이다]으로 고쳐 漢州(한주)에 예속시켰다. ② 고려 태조 23년(940)에 樹州(수주)로 고쳤고, 성종 14년(995)에 團練使(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폐지하였다. 현종 9년(1018)에 知州事(지주사)로 고치었고, 의종 4년(1150)에 安南都護府(안남도호부)[屬縣(속현)이 6개인데, 衿川(금

1) 읍치란 '고읍(邑)을 다스리는(治) 중심지'란 뜻으로 지방관인 사또가 집무를 보는 동헌과 기타 관아 건물이 밀집된 지방도시를 의미한다.

천)·童城(동성)·通津(통진)·孔岩(공암)·金浦(김포)·守安(수안)이다]로 (또) 고치었다. 고종 2년(1215)에 桂陽都護府(계양도호부)로 고쳤고, 충렬왕 34년(1308) 吉州牧(길주목)으로 승격시켰다가 충선왕 2년(1310) [여러 목을 없앨 때 함께] 富平府(부평부)로 강등시켰다. ③ 本朝(본조, 조선) 태종 13년(1413) 도호부로 고쳤고, 14년(1414) 김포현을 병합하였다가 16년(1416)년에 다시 쪼갰다. 세종 20년(1438) 縣令(현령)으로 강등시켰다가 28년(1446)에 다시 府(부)로 삼았다. 연산주 11년(1505)에 [(자신에게 반대한) 고을 출신 환관인 金舜孫(김순손)을 죽이면서] 혁파시켰고, 중종 원년(1506)에 다시 두었다. 숙종 24년(1698)에 [章陵(장릉)의 방화 죄인이 태어난 고을이기 때문에] 縣(현)으로 강등시켰다가 33년(1707)에 다시 승격시켰다.

부평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중심을 두고 있었던 고을인데, 그 역사를 알아보기 위해 건치연혁의 내용을 ①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② 고려시대, ③ 조선시대로 나누어 보았다.

① 삼국시대와 통일신라시대

부평의 백제 때 이름은 主夫吐(주부토)라고 되어 있는데, 김정호의 작품을 제외하면 부평의 고구려 때 이름이 主夫吐郡(주부토군)으로 나온다. 主夫吐(주부토)는 순우리말 이름을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것이며, 삼국시대 고을 이름의 다수가 순우리말 이름을 한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경향과 일맥상통한다. 다만 일부는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도 있다.

삼국시대의 고을 이름은 큰 변화 없이 계속 사용되다가 759년(경덕왕 16)의 행정구역 정비 때 한자 표기가 대부분 바뀐다. 이를 중국식으로 바꾸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데, 중국의 군현 이름을 빌려왔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중국식으로 바뀐 것은 중국 군현의 이름처럼 州(주)의 앞에는 한자를 한 글자로, 군·현의 앞에는 한자를 두 글자로 통일한 원칙 밖에 없다. 당시 순우리말로 불리던 고을 이름을 한자의 소리와 뜻 중 어느 것에 따라 표기했는지 고을마다 다른데, 한자의 소리+소리, 뜻+소리, 소리+뜻, 뜻+뜻 등 다양한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부평은 759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郡(군)이었기 때문에 원래 한자의 소리+소리+소리의 세 글자로 표기했던 主夫吐(주부토)를 한자의 뜻+뜻의 두 글자인 長堤(장제)로 바꾸었다. 물론 지금처럼 長堤를 한자 소리인 ‘장제’처럼 읽었는지, 아니면 순우리말 이름인 ‘주부토’처럼 읽었는지에 대해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필자는 표기만 長堤로 하고 순우리말 이름인 ‘주부토’처럼 읽었다고 생각하고 있다.²⁾

759년(경덕왕 16)의 대대적인 행정구역 정비를 일반적으로 9주5소경 제도의 확립이라고 본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내부적으로 州(주)·郡(군)·縣(현)이란 상하 관계의 행정 위계를 확정지었다는 점이며, 이때 군이 관할하던 현을 표현하는 용어가 領縣(영현)이다. 州(주)가 모든 군을 관할하지만 州(주)가 직접 관할하는 현도 있었는데, 이 때도 領縣(영현)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小京(소경)이 관할하는 군이나 현은 없었으며,

2) 예를 들어 9주 중의 하나인 熊州가 고려 초에 公州로 바뀌는데, 이는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熊州가 순우리말 이름인 ‘곰주’로 읽히거나 불리다가 그와 유사한 발음의 ‘公州(공주)’라는 중국식 이름을 가져왔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를 통해 볼 때 후 삼국시대까지도 熊州는 ‘웅주’가 아니라 ‘곰주’라고 불렸음을 알 수 있다.

소경 역시 주의 통제를 받았다.

『삼국사기』지리의 신라 부분에는 총 450개의 고을이 있었다고 하며, 실제로 기록된 고을의 수는 9주+5소경+117군+293현=424고을이었다. 『삼국사기』外官(외관) 부분에 의하면 지방행정단위에 파견된 우두머리 지방관의 수로 州(주)에 파견된 도독이 9명, 소경에 파견된 仕臣(사신)이 5명, 군에 파견된 太守(태수)가 115명, 현에 파견된 少守(소수)와 縣令(현령)이 각각 85명과 201명 등 총 415명이다.

이런 편차가 나타난 것은 당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후에도 확실한 영토로 편입하지 못해 후에 고을을 차례대로 설치해 나간 현재의 황해도와 같은 지역 때문인데, 이곳에는 군·현보다는 군사적 성격이 강한 鎭(진)을 설치한 경우가 많았다. 어쨌든 신라에 설치된 고을 수 450개는 평안도와 함경도 등 더 넓은 영토를 갖고 있던 조선의 고을 수 약 330개보다 훨씬 많았다. 또한 고을 사이의 상하 관계가 거의 없던 조선과는 달리 신라는 명령 하달 체계라는 측면에서 주·군·현의 상하 관계가 분명하였다.

부평이 장제군이었던 것은 신라의 주군현 체제에서 군의 위치에 있었다는 의미이며, 영현이 4개였다는 것은 그 관할 아래에 4개의 현을 두었다는 의미다. 물론 장제군과 영현 4개는 서로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는 독립적인 행정단위였으며, 단지 명령 하달 체계에서 상하 관계에 있었을 뿐이다. 장제군의 영현이었던 4개 중 童城(동성)·戍城(수성)은 고려시대를 거치며 分津(분진)에 합해져 조선시대의 통진도호부가 되고, 金浦(김포)는 조선시대까지도 그대로 김포군으로 이어진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통진도호부와 김포군이 합해져 김포군이 되기 때문에 신라 때의 4개 고을이 통합되어 일제시대의 1개 군으로 변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볼 때 소경을 제외하면 신라 때의 고을 2-4개의 영역이 일제강점기 때 대략 1개의 군으로 변한다. 장제군과 영현 4개의 중심지 위치를 살펴보면 장제군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부근, 분진현은 김포시 월곶면 고읍리 부근, 동성현은 김포시 하곡면 마곡리 부근, 수성현은 김포시 대곶면 대릉리 부근, 김포현은 김포시 풍무동 부근에 있었다.

② 고려시대

고려 초기 부평에서 일어났던 연혁 변화는 “고려 태조 23년(940)에 樹州(수주)로 고쳤고, 성종 14년(995)에 團練使(단련사)를 두었다가 목종 8년(1005)에 폐지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후삼국시대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후삼국시대는 신라의 강한 지방 차별³⁾에 반기를 들고 지방의 호족들이 각기 고을을 거점으로 삼아 신라·후백제·고려⁴⁾ 세 나라를 중심으로 합종연횡을 하던 시기다. 왕건은 각 고을의 통치에 대한 호족들의 권리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연합하는 방식을 취하여 후삼국을 통일하였다. 이 과정에서 특별한 공이 있거나 힘이 강했던 고을의 경우 특별대우를 해주었는데, 그런 증표 중의 하나가 고을 이름을 바꿀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利川(이천) 등의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고을 이름의 격을 높게 만들기 위해 신라 때의 9주처럼 州(주)라는 행정단위를 칭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3) 이기봉, 2007, 『고대도시 경주의 탄생』, 새문사

4) 고려는 후고구려-마진-태봉-고려의 순서로 변화되었는데, 여기서는 서술의 편의 상 고려로 통일한다.

당시 통일신라시대의 인식이 강했기 때문에 州(주)를 칭하는 것은 고을의 격이 높아지는 것이란 인식이 팽배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州(주)란 행정단위로 바뀌면 이름도 州(주)를 제외하고 한 글자의 한자로 써야 하는 신라 때의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정확한 사정은 알 수 없지만 부평의 이름이 940년(고려 태조 23)에 長堤郡(장제군)에서 樹州(수주)로 바뀐 것만으로도 당시 부평의 호족이 후삼국의 통일에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적으로 힘이 강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樹州(수주)에서 ‘樹’라는 한자가 왜 사용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후삼국을 통일한 왕건은 지방 출신자에 대한 신라의 차별, 그 결과 갖게 된 직접 통치에 대한 후삼국시대 호족들의 강한 반발심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방관을 파견하여 직접 통치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았다. 대신 중앙에 올라와 사는 사람을 출신 고을의 事審官(사심관)으로 임명하여 副戶長(부호장) 이하의 호족들을 통제·감시하게 하던 사심관제도, 호족의 자체가 중앙에 올라와 10-15년 동안 있어야 고을에서의 지배권을 인정하던 인질제도인 其人制(기인제) 등을 통해 지방을 통치했다.

그러다가 993년(성종 2)에 들어서야 처음으로 지방관인 牧使(목사)를 파견하여 해당 고을뿐만 아니라 주변 고을을 감시·통제하는 중심지로서 12牧(목)을 지정하였다. 그리고 995년(성종 14)에 10도로 편제하면서 團練使(단련사)란 지방관을 파견하는 고을의 수를 더욱 확대하였다. 이 때 지방관이 파견된 고을은 당시 호족의 힘이 가장 쏠려 있던 지역으로 보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 부평은 983년에 12목 중의 하나가 되지는 못했지만 995년에는 지방관인 단련사가 파견되는 고을이었기 때문에 전국적 관점에서 볼 때 호족의 힘이 쏠려 있던 곳 중의 하나였다고 볼 수 있다.⁵⁾

일반적으로 고려 지방행정제도의 전형으로 알려진 五道兩界(오도양계) 제도는 전국의 광역행정단위로 양광도·전라도·경상도·서海道·교주도의 5도와 북방 국경지대이기 때문에 군사적 성격이 강했던 북계·동계의 양계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현종 9년(1018)에 확립되었다. 하지만 5도와 양계보다 더 중요한 점은 지방관이 파견되는 主縣(주현)과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아 주현의 감시·통제를 받는 屬縣(속현)⁶⁾으로 나누어졌다는 사실이다.

그렇다고 속현이 주현의 영역이 되었다는 의미는 아니다. 속현은 주현처럼 독자적인 영역을 갖고 있었고, 또한 속현 자체의 일을 처리하는 향리(鄉吏) 즉, 고려 초에 호족이라 불리던 지배신분도 존재했다. 다만 속현은 중앙과의 관계에서 주현의 통제를 받게 되면서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이다. 1018년(현종 9)에 정해진 주현은 전체 504개의 고을 중 130개로 25.8%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74.2%인 374개의 고을은 속현이었다.

부평은 현종 9년(1018)에 지방관을 의미하는 知州事(지주사)가 되었다고 나오는데, 이는 속현을 거느린 주현 중의 하나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약간 뒤쪽에 屬縣(속현)이 衿川(금천)·童城(동성)·通津(통진)·孔岩(공암)·金浦(김포)·守安(수안) 등 6개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부평에 파견된 지방관의 감시와 통제를 받는 고을이었다. 이 중 금천은 현재의 서울

5) 고려 성종 때 왕으로부터 아름다운 한자 뜻의 별칭을 부여받은 고을이 꽤 나타나는데, 이 역시 고을의 격을 높이는 조치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이들 별칭이 고을의 정식 이름으로 쓰인 경우는 많지 않았지만 조선시대에는 고을의 역사가 오래되었음을 강조하기 위해 민간에서 편찬한 읍지 등에서 많이 사용되었다.

6)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고을의 등급에는 縣(현)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府(부)·郡(군)인 경우도 있었고, 규모는 작지만 縣(현)처럼 독자적인 행정단위로 움직이던 營(영)·所(소)·부곡·처·장 등도 있었다. 다만 서술의 편의 상 학계에서는 이들을 통칭하는 대표적인 이름으로 屬縣(속현)을 사용하고 있다.

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에 읍치를 두었던 조선시대의 금천현이고, 孔岩(공암)은 강서구 가양동에 읍치를 두었던 조선시대의 양천현이며, 守安(수안)은 통일신라 때 장제군의 영현 중 하나였던 戌城(수성)란 고을이 이름을 바꾼 것이다.

부평이 1018년(현종 9)에 주현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940년(고려 태조 23)에 樹州(수주)로 이름이 바뀌고, 995년(성종 14)에 단련사를 둘 정도로 호족의 힘이 강한 고을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왜 이렇게 강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이후 고려에서는 “묘청의 난”(1105) 직후인 1106년(예종 1), “무신난”(1170) 직후인 1172년(명종 2) 등 정치적 격변이 발생할 때마다 속현에 7품 이하의 監務(감무)란 지방관을 파견하여 주현으로 승격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몽골 침입에 항쟁하던 시기부터 원간섭기를 거쳐 홍건적·왜구의 침입이 심했을 때까지 속현 출신자 중에 높은 관직에 오르거나 전투에 승리를 거두는 등의 일이 발생하면 역시 감무를 파견하여 주현으로 승격시켜 주는 특혜를 베풀었다. 그 결과 고려 말에는 174개의 속현에 감무를 파견하여 속현의 수는 대략 160개 정도로 감소하였다.

각 고을이 속현에서 주현으로 승격되고 싶어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정치적·경제적 측면에서 주현과 속현의 대우가 달랐기 때문이다. 통일신라와 조선에 비해 중앙집권적 성격이 약했던 고려에서는 주현과 속현 사이에 정치적·경제적 대우의 차이를 둠으로써 고을 사이의 경쟁과 감시를 유도하여 통치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여기에 덧붙여 단지 주현과 속현의 차이뿐만 아니라 고을의 등급 사이에도 정치적·경제적 대우의 차이를 두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더 높은 등급의 고을이 되려는 상황이 전개되었고, 중앙정부에서는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고을의 등급 조절과 이름의 변화를 통해 각 고을을 통제하려 하였다.

부평이 1150년(의종 4)에 安南都護府(안남도호부)로, 1215년(고종 2)에 계양도호부(桂陽都護府)로, 1308년(충렬왕 34)에 길주목(吉州牧)으로, 1310년(충선왕 2)에 부평부(富平府)로 승격되거나 강등된 것, 그리고 이름이 바뀐 것은 앞과 같은 고려의 통치 스타일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게 된 정확한 이유를 찾기는 어렵지만 각 시기마다 승격과 강등, 그리고 이름이 바뀔 만한 사회·정치적 이유가 발생했다고 보면 별로 틀리지 않는다. 다만 왜 安南(안남), 桂陽(계양), 吉州(길주), 富平(부평)이란 이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구체적인 이유를 설명하기 어렵고,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발굴과 연구가 있기를 기다려야 한다.

③ 조선시대

조선의 태종(재위: 1401-1406)은 중앙집권화를 위해 지방행정제도에 관한 새로운 많은 정책을 실시하였다.⁷⁾

첫째, 지방관 중 가장 낮은 監務(감무)의 지위를 7품 이하에서 종6품의 縣監(현감)으로 상승시켜 지방관의 직접 통치력을 높여주었다.

둘째, 고을에 파견되는 지방관의 등급을 府尹(부윤, 종2품)-大都護府使

7) 이 부분의 내용은 이수건, 1989, 『조선시대 지방행정사』, 민음사에 잘 정리되어 있다.

(대도호부사, 정3품)-牧使(목사, 정3품)-都護府使(도호부사, 종3품)-郡守(군수, 종4품)-縣令(현령, 종5품)-縣監(현감, 종6품)으로 체계화하였다.

셋째,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은 속현의 다수를 혁파하여 주현의 완전한 관할 영역으로 만드는 직촌화(直村化) 정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1500년대에 들어서면 속현이 거의 없어지게 되었다.

넷째, 郡(군)·縣(현)과 같이 등급이 낮으면서도 州(주)를 칭한 고을 이름의 끝 글자를 山(산)이나 川(천)으로 바꾸어 고을의 격에 맞도록 조정하였다.

다섯째, 작은 고을의 경우 통치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2개를 합해 하나로 만드는 정책을 실시하였다.

이 중 다섯 번째의 것은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패하여 원래의 상태로 돌아갔고, 나머지 네 개의 정책은 대부분 성공하였다.

부평의 건치연혁에서 1413년(태종 13)에 도호부로 고쳤다는 기록은 부평부를 조선의 지방행정체계에 따라 부평도호부로 정립시켰다는 의미다. 그리고 1414년(태종 14)에 김포현을 병합하였다가 1416년(태종 16)에 다시 쪼갬다는 것은 작은 고을 2개를 합하여 통치의 합리성을 취하려다 고을 사람들의 반대로 실패한 상황이 기록된 것이다. 두 고을을 합해 하나로 만들면 두 고을의 이름에서 한 글자씩 따서 새로운 고을의 이름을 만드는 것이 일반적인데, 1414년에 벌어진 부평+김포의 경우 도호부였던 부평의 이름을 그대로 따랐다.

조선의 경우 고려만큼 고을의 등급과 이름을 자주 바꾸지는 않았지만 첫째, 왕비의 貫鄉(관향)⁸⁾이나 王陵(왕릉)의 安置(안치) 둘째, 군사적으로 중요한 병영이나 수영 및 重鎭(중진) 등의 설치 셋째, 반역이나 지방관의 살해와 같이 국가의 권위를 상실시키는 일 넷째, 부모나 주인을 살해하는 등 신분제를 뒤흔드는 일 등이 발생하면 고을의 등급을 높여주거나 낮추어 본보기로 삼고자 하였다. 심한 경우에는 고을 자체를 없애서 주변 고을에 나누어 합해 버리는 일도 있었다.

금성대군과 순흥부사 이보흠이 단종(재위: 1452-1455)의 복위를 꾀하다 실패하여 1457년에 혁파된 후 1683년에서야 다시 만들어진 경상도의 순흥도호부를 제외하면 강제로 합병된 고을 대부분이 얼마 지나지 않아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과거의 상태로 나누어지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고려에 비해서는 고을의 승격이나 강등이 정치적·사회적 측면에서 갖고 있는 의미가 상대적으로 낮아 교훈을 주는 정도에서 끝내는 것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대 이후에 비하면 고을의 강등이나 혁파는 주민들에게 큰 압박감으로 다가왔다.

부평부 건치연혁에서 “세종 20년(1438) 縣令(현령)으로 강등시켰다가 28년(1446)에 다시 부로 삼았다. 연산주 11년(1505)에 [(자신에게 반대한) 고을 출신 환관인 金舜孫(김순손)을 죽이면서] 혁파시켰고, 중종 원년(1506)에 다시 두었다. 숙종 24년(1698)에 [章陵(장릉)의 방화 죄인이 태어난 고을이기 때문에] 縣(현)으로 강등시켰다가 33년(1707)에 다시 승격시켰다.”는 내용은 앞과 같은 차원에서 이해하면 된다.

8) 성씨의 본관인 고을.

2) 고을의 범위

이번 연구총서의 지명 찾아보기에는 고을의 범위를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정리해 놓았다. 그 이유는 고을의 여러 현상을 이해하는데 범위를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선시대 고을의 입장에서 적어놓은 것이어서 그 이전의 상황에 대해 이해하려면 약간의 지식이 더 필요하다.

〈표-1〉 1789년경 경기도 38개 고을의 호구수⁹⁾

순위	고을 이름	호수	인구수	순위	고을 이름	호수	인구수
1	수원	15,121	57,660	21	양성	3,104	7,446
2	양주	12,465	64,025	22	삭녕	2,792	10,896
3	개성	11,525	49,623	23	안산	2,758	11,926
4	광주	10,568	50,508	24	포천	2,598	10,398
5	강화	9,801	34,231	25	교하	2,474	7,997
6	여주	6,654	31,568	26	지평	2,168	9,725
7	남양	6,315	23,418	27	진위	2,137	7,093
8	장단	5,332	16,143	28	음죽	2,063	7,875
9	이천	4,967	25,338	29	금천	1,934	7,245
10	용인	4,859	21,119	30	가평	1,922	6,453
11	안성	4,589	17,028	31	교동	1,808	7,570
12	죽산	4,223	21,889	32	적성	1,698	5,909
13	인천	4,096	14,566	33	양지	1,685	9,557
14	양근	3,586	12,217	34	김포	1,679	6,727
15	통진	3,372	11,465	35	영평	1,549	6,871
16	고양	3,301	13,063	36	연천	1,342	4,778
17	과천	3,273	14,179	37	마전	1,011	3,605
18	파주	3,227	10,154	38	양천	802	2,793
19	풍덕	3,193	11,022	합계		159,160	645,669
20	부평	3,169	11,589				

조선시대에는 인구수와 영역의 범위 측면에서 고을 간 규모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 먼저 인구의 측면에서 나타난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1789년경의 상황을 보여주는 『戶口總數(호구총수)』에 수록된 호수를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 표-1이다.

호수의 측면에서 가장 적은 양천(802호)과 가장 많은 수원(15,121호)의 비율은 1:18.9이고, 인구의 측면에서 가장 적은 양천(2,795명)과 가장 많은 양주(64,025명)의 비율은 1:22.9나 된다. 대략 중간을 차지하는 풍덕의 3,193호와 11,022명을 호수와 인구에서 가장 많은 수원의 15,121호와 양주의 64,025명과 비교해 봐도 호수의 비율은 1:4.7, 인구수의 비율은 1:5.8이나 된다.

이와 같은 차이는 영역의 측면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일제강점기인

9)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6, 『戶口總數』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은 편차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균등성을 추구하는 방향에서 면의 규모가 결정되었다. 이 때 크기가 가장 작은 편인 양천과 평균적인 크기의 부평은 2개와 5개의 면으로 개편된 반면 수원과 양주는 대략 17개와 20개의 면으로 개편되었다. 이와 같은 편차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고려시대의 주현과 속현 제도, 그리고 조선의 태종이 실시한 直村化(직촌화) 정책 때문에 발생하였다. 우선 1789년의 통계에서 호수가 가장 많았던 수원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사』지리 양광도의 水州(수주)에 의하면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할 때 고을 사람 金七(김칠)과 崔承珪(최승규) 등 200여명이 귀순하여 정성을 다해 도운 공이 있기 때문에 水城郡(수성군)에서 水州(수주)로 승격되었다.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수원 지역은 큰 힘을 갖게 되었고, 1018년(현종 9)의 행정구역 정비 때 知州事(지주사)가 파견되는 主縣(주현)이 되면서 안산현·영신현·쌍부현·용성현·정송현·진위현·양성현 등 7개의 고을을 屬縣(속현)으로 거느렸다. 그리고 조선 태종 때 직촌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지방관이 파견된 주현으로 독립하지 못한 고을은 쌍부현·용성현·정송현 3개이며, 여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고적 항목에 기록된 광덕현까지 합하면 4개이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수원은 고려시대의 수주·쌍부현·용성현·정송현·광덕현 등 총 5개의 고을이 합한 영역을 갖게 된 것이다.

하지만 수원의 영역은 5개의 고을을 합한 것보다 더 복잡하다.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고적 항목을 보면 縣(현)은 아니었지만 수원의 속현이었다가 독립하지 못한 鄉(향)·部曲(부곡)·處(처)·莊(장)이 모두 합해 20개나 된다. 또한 縣(현)으로 기록된 정송현도 원래는 부곡이었다가 승격된 것이기 때문에 규모는 크지 않았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살펴본 고려 초 水州(수주)의 대략적인 범위는 오산시, 화성시의 옛동탄면, 옛태안읍, 봉담읍의 일부, 정남면의 일부, 수원시 권선구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이를 일제강점기의 면으로 계산하면 대략 4-5개 면 정도의 규모가 된다.

다음으로 인구가 가장 많은 양주의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고려사』지리 양광도의 南京留守官楊州(남경유수관양주)에 의하면 통일신라시대의 漢陽郡(한양군)이 고려 초에 楊州(양주)로 이름을 바꾼다. 정확한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양주가 왕건의 후삼국통일 과정에서 특별한 공을 세웠거나 힘이 센 호족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임은 분명하다. 1018년(현종 9)에 오도양계제가 실시될 때 오도 중의 하나인 楊廣道(양광도)에서 楊(양)이 양주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힘의 크기가 상당히 컸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양주는 交河郡(교하군)·見州(견주)·抱州(포주)·幸州(행주)·峯城縣(봉성현)·高峯縣(고봉현)·深嶽縣(심악현)·豐壤縣(풍양현)·沙川縣(사천현) 등 9개의 속현을 관할하게 된다. 이중 見州(견주)·豐壤縣(풍양현)·沙川縣(사천현)의 3개 고을은 조선 초기까지 독립하지 못하고 태종의 직촌화 정책 이후 양주 관할의 땅이 된다. 따라서 일제시대 양주의 땅으로 편제된 약 20개의 면과 조선시대 수도 한양이 된 지역의 동쪽 지역은 4개

고을을 합한 면적이 된다. 여기에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목의 고적 항목을 보면 海村處(해촌처)·松山處(송산처) 등 2개도 양주의 속현이면서 독립하지 못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들을 종합해 보면 고려 초 1개 고을의 규모는 일제강점기의 면으로 대략 4-5개 면 정도의 규모가 된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통일신라시대나 고려시대 고을의 영역 규모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현과 속현의 관계를 이해해야 하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속현이나 고적 항목에 수록된 내용을 잘 검토해야 한다. 만약 앞의 두 항목에 속현 관련 내용이 전혀 없으면 대부분은 통일신라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영역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속현으로 縣(현) 단위 이상이 기록되지 않은 고을이 1914년에 몇 개의 면으로 편제되었는지를 정리한 것이 표-2이다. 향·부곡·처·장을 포함한 상태에서 평균으로 3.8개의 면이 나온다. 이와 같은 경향을 통해 볼 때 통일신라시대나 고려 초기 고을의 규모는 일제강점기 면의 수로 보았을 때 대략 2-5개의 면으로 편제되어 있었는데, 고려를 거쳐 조선전기에 이르면서 규모의 편차가 커졌다. 다만 원래 있던 향·부곡·처·장의 상당수가 사라져 기록되지 않았다고 전해지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하면서 이해해야 한다.

〈표-2〉 縣 단위 이상의 속현이 없는 고을의 일제강점기 면의 수

①	고을	②	③	①	고을	②	③
9	이천	7.0	2	28	음죽	3.3	1
11	안성	5.2	2	29	금천	3.0	
12	죽산	4.2		31	교동	2.3	
13	인천	4.2	1	32	적성	2.5	2
17	과천	4.0		34	김포	3.0	
20	부평	5.0	1	35	영평	5.0	2
21	양성	4.3		36	연천	2.5	
23	안산	2.0		37	마전	2.0	
24	포천	5.5	1	38	양천	2.0	
26	지평	5.0		평균		3.8	

(참고)

- ① 『호구총수』에 기록된 고을 호수의 순위
- ② 1914년 행정구역 개편 후 편제된 면의 수
- ③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각 고을에 포함된 향·부곡·처·장의 수

3. 읍치의 위치와 구조 및 상징

1) 조선 이전의 통치성과 읍치 찾기

지금까지 조선시대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고을 영역을 찾아내는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그럼 이런 범위 속에서 고을 통치의 중심이었던 읍치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번 연구총서의 지명 찾아보기에 고을의 범위뿐만 아니라 읍치의 위치도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은 모두 조선시대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그런데 오랜 우리나라의 역사 속에서 읍치가 계속 한곳에 있었다는 보장이 없으며,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읍치의 위치를 바꾼 곳이 꽤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삼국시대부터 조선 초기까지 경기도 고을의 읍치 위치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찾아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통시대 마을뿐만 아니라 고을의 읍치에 대해서도 삶의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산을 등지고 하천을 앞에 둔 背山臨水(배산임수)의 형태를 띤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온대 지역에 있어 차가운 겨울이 있는 경우는 더더욱 그러했던 것으로 본다. 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 볼 때 배산임수의 도시 입지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외적이며, 우리나라 전체의 역사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덧붙여 하나 더 지적해야 할 점은 조선시대의 읍치 중 성곽이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가 훨씬 많았다는 사실이다. 경기도의 경우는 더욱 그러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성곽이 없는 읍치 역시 상당히 자연스럽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 역시 세계적인 차원에서 볼 때 오히려 특이한 현상이며, 우리나라의 역사 입장에서 볼 때도 마찬가지다.

삼국시대 모든 고을의 읍치에는 통치성¹⁰⁾으로 중소규모의 단기전에 높은 방어력을 보유한 중소규모의 산성이나 절벽 지형을 이용한 요새성이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여기에는 고을을 통치하는 최고 지배자가 거주하였으며, 중요 통치 시설이 들어서 있었다. 이와 같은 도시의 형태는 세계적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조선시대의 모습 때문에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세계사 교과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곳 중의 하나인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를 예로 들어 보겠다.

그리스의 아테네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절벽 지형의 산에 작은 성곽을 축조하여 초기 도시국가의 중심을 이루었다.¹¹⁾ 산성에서는 아테네의 주요 지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며, 도시의 일반적인 기능은 산성 바로 밑의 기슭이나 평지에 배치되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도시국가 아테네의 역사적 상징인 산성의 장소성은 쉽게 변하지 않게 되었고, 기원전 475년에 페르시아인들이 파괴한 신전터에 기원전 447년부터 438년 사이에 아테네의 정신적 지주인 대규모의 파르테논 신전을 건립하였다.

10) 본 글에서는 중소규모의 산성과 절벽 지형의 요새성을 고려 말 이후 평지와 평산지에 축조된 畵城(읍성)과 구분하기 위하여 통치성(統治城)이라 부르기로 한다.

1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파르테논신전'으로 검색하면 절벽 지형의 산성 위에 우뚝 솟은 파르테논신전의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고대 그리스에 있던 수많은 도시국가 거의 대부분의 도시 중심은 아테네와 마찬가지로 중소규모의 단기전에 강한 중소형의 산성이나 절벽 지형의 요새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뿐만 아니라 중세 유럽의 영주성, 일본 에도시대의 번주성을 비롯하여 세계 다수의 지역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역사에서도 고려 전반기까지 지방도시인 읍치의 중심은 중소규모의 단기전에 강한 중소형의 산성이나 절벽 지형의 요새성에 자리 잡고 있었다. 천연적 절벽 지형의 요새성에 자리 잡은 경우는 소수인데, 대부분을 차지하는 산성의 위치는 첫째, 생활면인 평지로부터 아무리 높아야 300m를 넘지 않으며 대부분 200m 이하에 있었다.¹²⁾ 둘째, 비록 아주 높지는 않지만 고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있으며, 지형 조건 때문에 방해를 받는 경우 고을의 중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있었다.¹³⁾ 셋째, 일부 흙성(土城)도 발견되고 있지만 고려후기나 조선시대의 성곽에 비해 잘 다듬어진 옥수수알 모양의 성돌로 축조된 돌성(石城)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산성이나 절벽 지형의 요새성”이라고 하면 전쟁 때 피난하기 위한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피난용 산성은 남한 산성이나 북한산성과 같은 초대형산성, 공주의 공산성이나 부여의 부소산성과 같은 대형산성이어야 한다. 중소형의 산성이나 절벽 지형의 요새성은 대규모 외적의 공격에 피난용으로 사용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첫째, 규모가 작아 고을의 일반 백성을 모두 수용할 수 없고 둘째, 주로 산의 정상에 둘러싼 테피식이기 때문에 장기전에 필요한 물이 부족하다. 그리스의 도시국가에 있었던 산성 역시 마찬가지로 특징을 공유하고 있다.

고려 전반기까지 고을 읍치의 중심이었던 통치성은 고려 중기를 지나면서 서서히 부정되기 시작한다. 그 이유는 첫째, 지방관의 파견으로 중앙집권화가 강화되면서 지방 호족의 거점이자 상징이었던 통치성은 중앙의 관점에서 부정되어야 할 대상이 되었다. 둘째, 1231년부터 1257년까지 7차례 걸쳐 이루어진 몽골의 대규모 침략 때 중소규모의 단기전에 적합하도록 축조된 통치성은 방어력을 상실하면서 고을을 지켜주는 성이란 상징성이 약화되었다. 셋째, 원나라 간섭기(1271-1368)에 성의 신축이나 수축을 이룰 수 없게 한 결과 황폐화되어 성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였다.¹⁴⁾

135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1380년대에 가장 심했다가 1410년대부터 거의 약화되기 시작했던 왜구의 침략 과정에서 통치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대신 경상도의 해안가를 중심으로 통치성의 입지와 전혀 다른 평지 또는 언덕 위에 읍성이 축조되기 시작하였다. 이어 1420년대부터는 중앙 정부가 풍수적 논리에 의해 입지·구조·상징 등 거의 모든 측면을 결정할 수도 한양과 비슷한 논리의 읍성을 적극적으로 건설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고려 말까지 풍수적 논리에 의한 지방도시의 건설이 거의 전무했던 것과 달리 조선에 들어와 풍수도시가 지방의 고을 읍치에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1420년대부터는 가장 이상적인 형태로 자리 잡는다.¹⁵⁾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통치성의 대부분은 황폐화되었고,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세종실록지리지』(1454)와 『신증동국여지승람』(1530) 등의 지

12) 본 글에서는 정보 확보의 문제 때문에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량된 산의 해발 높이를 기록해 놓았지만 평지 자체의 해발고도가 있기 때문에 생활면으로부터의 높이는 해발 높이보다 낮은 것이 일반적이다.

13) 첫째와 둘째의 요인은 박성현, 2001, “신라「군현성」과 그 성격 - 6-8세기 한주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에 나온다.

14) 최종석, 2007, “고려시대 ‘治所城’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5-152쪽

15) 이기봉, 2008, 『조선의 도시, 권위와 상징의 공간』, 새문사

리지나 읍치의 고적 항목에 古城(고성)으로, 산천 항목에 “산 위에 고성터가 있다”라는 문구로 기록된다. 물론 모든 통치성이 기록된 것은 아니며, 조선후기의 지리지나 고지도에 추가로 기록되기도 하지만 전혀 기록되지 않는 경우도 드물게 존재한다. 이제부터 고려 전반기까지 기능했던 통치성의 위치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리지나 읍지의 建置沿革(건치연혁)이나 郡名(군명) 항목에서 고을 이름에 ‘○○城(성)’의 이름이 발견되는지 살펴본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의 고을 이름에 ‘城(성)’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그 성곽에 고을을 통치하는 읍치의 중심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다. 삼국시대 고을의 이름은 곧 고을 통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성곽의 이름이었으며, 비록 ‘城(성)’이라는 글자가 고을 이름에 남아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고을의 이름이 바로 성곽의 이름이었던 점은 다르지 않았다.

경기도 지역의 삼국시대 고을 이름은 대부분 고구려가 통치하고 있었을 때부터 남아 있어 고구려에서 城(성)을 가리키는 고유한 말의 소리를 따서 표기한 ‘忽(홀)’이 들어간 경우가 많다. 이 역시 고을을 통치하는 읍치의 중심 성곽을 의미하며, 忽(홀)은 경덕왕 18년(759)의 행정구역 이름 변경 때 城(성)으로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둘째, 지리지나 읍지의 山川(산천)이나 古蹟(고적) 항목에서 古城(고성)이 기록되어 있는지 살펴본다.

삼국시대 고을 읍치의 중심에 있던 산성이나 요새성은 통일신라시대-후삼국시대-고려전기까지도 일상적인 통치의 중심으로서 거의 그대로 사용된다. 하지만 지방관 파견에 의한 직접 통치 경향의 강화, 중소규모의 단기전에 적합하도록 축조되어 몽골과의 대규모 장기전에 취약했던 방어력으로 인한 상징성의 약화, 원간섭기 성곽 축조와 보수에 대한 제재 등으로 점차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 결국 조선 초기에 이르면 이 계통의 거의 모든 성곽이 사용되지 않아 폐허에 이르게 되며, 그 결과 지리지의 산천이나 고적 항목에 古城(고성)으로만 그 흔적을 남기는 경우가 많다.

山川(산천) 항목에 고려시대까지 사용된 고을의 옛 이름과 동일한 산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면 그곳에는 거의 모두 古城(고성)이 있다. 때로는 城山(성산)이란 이름으로 기록된 경우도 있는데, ‘жат·жат·жат’란 순우리말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다. 여기서 ‘жат’은 고개를 의미하는 ‘재’가 약간 변형된 것으로 ‘城’에 대한 순우리말 이름이었다. 古蹟(고적) 항목에도 고을의 옛 이름과 동일한 성곽의 이름이 기록된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 거의 100% 고을 읍치의 통치성이었다. 다만 조심해야 할 점은 고적 항목에 나오는 모든 고성이 이 계통은 아니며, 특히 대형 성곽의 경우는 몽골 침입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 일반적이다.

고을 읍치의 통치성 역할을 했던 성곽 주변에는 ‘жат고개’ 또는 그것이 변형된 ‘작고개’란 지명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으며, 한자로는 ‘жат나무 栢·栢(백)’이란 글자를 따서 ‘栢峴·栢峴(백현)’ 또는 ‘城峴(성현)’으로 표기하는 곳이 많다. 때로는 마을 이름으로 ‘жат골’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으며, 한자로는 ‘城洞(성동)’으로 표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외에도 성

의 뒤쪽에 있다는 뜻의 ‘갯되(城北)’와 같은 지명이 남아 있는 경우도 있다. 고려 말 이후에 축조된 성의 주변에서는 대부분 ‘갯’이 아니라 한자 소리인 ‘성’과 관련된 지명이 남아 있다.

셋째, 지리지나 읍지의 祠廟(사묘) 또는 壇廟(단묘) 항목에 기록된 城隍祠(성황사)의 위치를 살펴본다.

城隍(성황)에서 城(성)은 성곽을, 隍(황)은 성곽 주위를 둘러싼 물구덩이인 洫字(혜자)를 가리킨다. 따라서 성황은 도시를 보호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성황신은 도시 나아가 도시로 대표되는 고을을 지켜주는 신을 가리킨다. 城隍祠(성황사)는 고을을 지켜주는 신을 모시면서 일정한 날짜에 제사를 지내는 곳으로, 고려시대에는 거의 대부분 고을과 읍치의 중심인 통치성 안에 만들어졌다. 그리고 성황사에서 이루어진 성황제는 고을 전체를 대표하는 가장 큰 제사이자 축제였으며, 호족들의 지배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가장 큰 행사였다.

중앙집권화의 진행 과정에서 호족이 지방관의 통치를 보조하는 향리로 격하되고, 그들의 상징이었던 성황제 역시 제사의 주체가 공식적으로 국가에 흡수된다. 또한 성황사의 위치 역시 호족의 상징이었던 산성으로부터 읍치 주변의 평지로 내려오는 경향이 나타났다. 하지만 조선전기까지만 하더라도 오랜 역사적 상징의 관성을 갖고 있던 산성에 성황사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¹⁶⁾ 따라서 지리지나 읍지에 성황사가 있다고 기록된 산성은 거의 대부분 통치성이었다고 보아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읍치는 먼 곳으로 옮겼지만 오랜 역사적 상징의 관성을 갖고 있는 성황사는 옮기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난다. 이럴 경우 지리지나 읍지에 읍치로부터 멀리 떨어진 성황사가 기록되어 있으며, 그곳이 옮기기 전의 읍치였다고 보면 된다. 물론 그런 성황사 중에서 통치성에 있는 것이 많지만 이미 통치성으로부터 평지로 내려온 곳도 있을 수 있다.

넷째, 읍치의 위치가 옮긴 기록을 찾아보고 최초 읍치의 위치가 어디였는지 살펴본다.

조선 이전에도 읍치를 옮긴 경우가 있지만 아쉽게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기록에서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에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하고 있는 풍수의 논리에 적합한 위치를 찾아 읍치를 옮긴 경우가 꽤 나타나는데, 이런 경우 지리지에 기록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읍치 이동 기록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초의 읍치 위치를 찾아내거나, 그렇지 못하더라도 대략적인 위치를 추정하면 통치성의 위치를 찾아낼 수 있다.

그렇다고 읍치의 위치를 바꾼 경우가 더 많은 것은 아니다. 고려 말 이전 읍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통치성 바로 주위에 조선시대의 읍치가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읍치 주변에 두 번째로 서술했던 고성, 산의 이름, ‘갯’과 관련된 지명 등이 남아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섯째, 생활면으로부터 주로 300m 이하의 높이에 고을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 만약 지형적 요인 때문에 그렇지 못할 경우 고을의 중요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축조된 산성의 자료를 살펴본다.¹⁷⁾

삼국시대부터 읍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통치성은 중소규모의 단기전에

16) 최종석, 2005, “조선 초기 성황사의 입지와 치소”, 동방학지 131, 37-87쪽

17) 고고학적으로 발굴·조사된 결과의 상당수가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백과사전에 등록되어 있으므로, 고을이나 성의 이름 등을 통해 검색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높은 방어력을 유지했을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통치의 중심 역할도 했기 때문에 고을 전체 또는 중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축조된다. 따라서 이들 산성에 오르면 주변에 대한 전망이 아주 좋으며, 반대로 대부분의 주변 지역에서 산성이 쉽게 보인다. 둘째와 셋째의 원리에 의해 찾은 산성이나 요새성이 이와 같은 지형적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 고려 말 이전 읍치의 통치성이었다고 보면 거의 틀리지 않는다.

극히 일부를 제외하면 이와 같은 성곽의 대부분은 흙성(土城)이 아니라 돌성(石城)이다. 돌성은 몽골, 왜구의 침입 등의 요인으로 고려 중기 이후에도 많이 축조되는데, 이들 성곽과 고려 말 이전의 통치성을 구별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몽골 침입기나 고려 말 이후에 축조된 성에 사용된 돌은 크기가 다양한 경우가 많은 반면에 고려 말 이전의 통치성에 사용된 돌은 거의 비슷한 크기로 잘 다듬어져 있어 ‘옥수수알 성돌’이란 이름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다.

2) 조선시대의 읍치 이해하기

(1) 풍수와 전혀 관련 없는 읍치의 입지 : 여주목

18) 본 글에서 사용하는 일제강점기인 1916-1918년의 1:50,000 지형도는 종로도서관 홈페이지(<http://nlib.sen.go.kr/>)에서 전자도서관→고문헌 원문검색→한국근대지도자료→경기도 순서로,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history.go.kr/>)에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일제강점기→한국근대지도자료→경기도 순서로 들어가면 모두 볼 수 있다.

조선시대 읍치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도시의 기본 축을 祖山(조산)-主山(주산)의 선으로 잡고 左靑龍(좌청룡)-右白虎(우백호)-安山(안산)의 산줄기로 둘러싸인 수도 한양을 닮으려고 노력하였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읍치 중 수도 한양과 전혀 다른 입지를 한 경우도 나타나는데, 경기도에서 가장 대표적인 곳이 경기도 여주목의 읍치로 현재의 여주군 여주읍의 상리·하리·홍문리 일대에 있었다.

여주의 읍치는 바로 북쪽에 남한강을 접하고 들어섰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해도 자연적으로 조산과 주산을 설정할 수 없다. (그림-1 참조) 따라서



그림-1 여주목의 읍치 입지¹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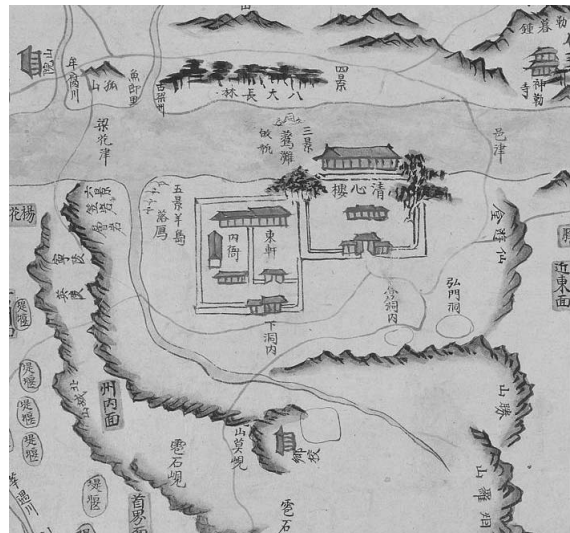


그림-2 여주목 읍치의 그림식 지도

풍수적 명당 논리에 의해 읍치의 권위를 합리화 하려 했던 조선시대에 여주목의 읍치는 분명 결함이 많은 특이한 경우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가? 여주목만을 대상으로 하면 이와 같은 질문에 답을 내리기가 어렵다. 재미있는 사실은 경기도를 벗어나면 여주목의 읍치처럼 뒤쪽 방향에 조산과 주산을 설정하기 어려운 읍치가 꽤 있다는 점이다.

경상도의 경주·상주, 전라도의 전주, 충청도의 청주·충주가 대표적인 곳으로 산이 없는 북쪽 방향이 모두 읍치의 뒤쪽이기 때문에 풍수적 명당 논리를 적용하기가 정말 어렵다. 그런데 다섯 읍치 모두의 공통점은 고려 말에 읍성이 축조된 곳이라는 점으로, 조선시대와 다른 고려시대 읍치 입지의 경향을 잘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곳이다. 다시 말해 고려시대에는 풍수적 명당 논리가 고을의 읍치 입지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알려준다.¹⁹⁾ 이렇게 본다면 여주목의 읍치 역시 고려시대의 어느 시기에 읍치가 입지한 후 조선시대에 풍수적 명당 논리에 합당한 곳으로 이동하지 못했다는 의미가 된다.

하지만 이미 풍수적 명당 논리에 의해 권위를 표현하던 조선시대의 읍치가 된 이상 풍수적 논리에 합당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한다. 이럴 때 등장하는 것이 造山(조산)이나 비보숲의 조성을 통해 조산·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 등을 만들거나 풍수적 의미의 지명을 새로 붙여 풍수적 의미 구조를 인공적으로 완성하는 것이다. 실제로 전주와 경주 등에서는 造山(조산)과 비보숲의 모습이 문헌이나 지도에 분명하게 남아 있다.²⁰⁾

풍수적으로 가장 불리한 지형에 들어선 여주목의 읍치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파악되지 않는다. 다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의 산천 항목에 기록된 북 3리의 八大藪(팔대수)를 통해 그런 노력의 일단을 엿볼 수 있다. 주위가 5·6리나 되었다고 하는데, 읍치의 관점에서 볼 때 남한강 너머 바로 북쪽에 있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조성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조선시대의 입장에서는 여주목 읍치의 주산 역할을 할 수 있는 비보숲으로 기능했다. 우리는 이것을 본 책에 수록된 그림식 여주목 지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그림-2 참조)

읍치에서 풍수적으로 최고의 명당에 자리 잡는 건축물은 수도 한양에서 최고 권력이 발산하는 장소인 경복궁과 같은 역할의 東軒(동헌)이다. 이곳은 지방관의 권력이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맞닿는 곳으로 지방관의 권위 역시 가장 잘 표현되어야 한다. 그림식 여주목 지도를 보면 비록 남한강 건너편이기는 하지만 팔대수인 八大長林(팔대장림)의 모습이 동헌을 중심으로 한 읍치의 뒤쪽에 강조되어 그려져 있다. 실제로 눈에 보이는 풍경으로서는 기능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마음 속에 그려진 풍경으로서는 팔대수가 주산의 역할을 담당하기에 충분했던 것이다. 地氣(지기)가 강 밑을 흘러간다고 가정하면 그림식 여주목 지도는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구조를 모두 갖춘 것처럼 그려져 있다.

그러면 현재의 여주군 여주읍 상리·하리 일대에 자리 잡기 이전에 여주목의 읍치는 어디에 있었을까? 여주목의 읍치 이동에 대한 기록이 전혀 남

19) 이기봉, 2008, 앞의 책.

20) 이기봉, 2009, “조선적 지방도시로서의 권위 표현과 읍치숲”, 문화역사지리 21(3).

아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지식을 이용하여 이를 추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고려시대까지 여주목의 영역이 어느 범위에 걸쳐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의 고적 항목에는 천령폐현과 방근곡처·신제처·신잉이소·동신장이 수록되어 있다. 이 중 1469년(예종 원년)에 세종의 무덤인 영릉을 황려도호부 지역으로 옮기면서 여주목에 합해진 천령폐현의 범위는 대략 여주군 금사면·산북면·대신면·흥천면과 양평군 개군면 등 대략 5개 면 지역이고, 황려도호부의 범위는 여주읍·능서면·가남면·점동면과 북내면의 절반 등 대략 4.5개의 면 정도에 해당된다. 여기서 방근곡처·신제처·신잉이소와 음죽현에서 병합했다는 어서이촌 등을 제외하면 대략 3-4개 면 정도의 크기로 보아도 별 무리가 없다. 특히 음죽현에서 병합했다면 황려도호부의 범위에서 남쪽은 빠질 가능성이 높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의 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대신 산천 항목에 서쪽 7리의 北城山(북성산)이 기록되어 있고, 여주목의 읍치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을을 지켜주는 산이란 의미의 鎭山(진산)으로 기록되어 있다. 북성산은 현재의 여주군 능서면 신지리의 북성산(275m)을 의미하며, 정상을 둘러싼 둘레 1,150m의 북성산성 또는 신지리산성이 있다. (그림-3 참조) 천령현을 병합하기 이전 황려도호부 지역의 영역인 여주군 능서면·여주읍·가남면 지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시대의 어느 시기까지 황려도호부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그림-3 북성산과 여주목 읍치

北城山(북성산)이란 이름은 북성산이 조선시대의 여주목 읍치에서 정서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城山(성산)에 北(북)이 붙어 있는 형태다. ‘城山’은 ‘잣매·잣피·잣미’ 등 통치성에 주로 붙는 순우리말 이름에 대한 한자 표기이며, 또한 산에 붙은 방향의 한자는 원래 읍치를 중심으로 붙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성산에서의 ‘북’을 통해 조선시대의 여주목 읍치 이전에는 황령도호부의 읍치가 북성산의 바로 남쪽에 있었음도 짐작할 수 있다. 읍치의 이동 시기에 대해서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으며, 다만 풍수적 명당 논리가 읍치에서 일반화되기 이전에 유포되었음은 분명하다. 또한 읍치의 이동 이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지만 남한강 수운의 이점을 최대화하기 위해서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2) 통치성이 있는 산을 주산으로 삼은 읍치 : 부평도호부와 김포현

① 부평도호부

여주목의 읍치처럼 풍수가 일반화되기 이전에 통치성으로부터 멀리 이동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고려 중기 이후 통치성의 위상이 약화되어 실질적인 통치 중심의 기능을 상실하면 통치성 바로 아래쪽에 중요 기능을 입지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경기도 고을의 경우도 대부분 이와 같은 경우로서 조선시대의 읍치 주변에서 통치성을 쉽게 찾아낼 수 있다. 그런 경우를 우선 부평도호부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읍치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일대에 있었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부평도호부의 고적 항목에는 속현



그림-4 계양산, 계양산고성, 부평도호부 읍치

과 관련하여 黃魚鄉(황어향) 1개만 기록되어 있어 삼국시대부터 영역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고을임을 알 수 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부평도호부의 영역은 부천군 부내면·계양면·오정면·계남면·서곶면 등 5개의 면으로 편제되어 고려시대까지 큰 편의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이들 영역은 인천광역시 서구·북구·계양구, 부천시, 서울특별시 구로구 등에 걸쳐 있다.

건치연혁과 군명 등 어떤 항목에도 城(성)과 관련된 고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고적 항목에 북쪽 2리의 桂陽山古城(계양산고성)이 기록되어 있고, 사묘 항목에는 城隍祠(성황사)가 계양산고성과 동일한 방향인 북쪽 2리에 있던 것으로 나온다. 계양산은 산천 항목에 “북쪽 2리에 있으며 安南山(안남산)이라 불리기도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계양산과 계양산고성에서의 “계양”, 계양산의 이칭인 안남산에서의 “안남”이 고려시대 때인 1150년에서 1308년까지 150년 이상 동안 공식적으로 사용되던 부평도호부의 이름이었다는 것이다. 고을과 동일한 이름이 산에 붙게 된 이유는 산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고을 지배층인 호족의 권위를 상징하는 통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²¹⁾ 다시 말해 산의 이름이 먼저가 아니라 통치성의 이름이 먼저인 것이다.

계양산고성은 현재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계양산(394.9m)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 위 작은 봉우리(약 200m)의 정상에 둘러싼 둘레 1,184m의 계양산성을 가리킨다. 이곳에서는 부평도호부의 모든 영역은 아니지만 주요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전기까지 부평도



21) 조선시대에 읍치를 옮기면서 고을 이름과 동일한 산의 이름이 옮겨가는 경우가 드물게 나타나기도 한다.

* 타원은 造山(조산)
그림-5 부평도호부 읍치의 그림식 지도

호부 지역의 통치성 역할을 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성의 입지는 조선시대의 읍치가 계양산성에서 아주 가까운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에 있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된다.

이와 같은 현상을 통해 조선시대 부평도호부의 읍치 위치가 풍수적 명당 논리가 아니라 고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중소규모 통치성의 입지 논리 때문에 정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풍수적 명당 논리가 읍치의 권위 표현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조선의 읍치가 된 이상 풍수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입지, 구조, 상징을 갖추어야 함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그런 흔적을 우리는 우선 그림-4에 나타난 계양도호부의 읍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계양도호부의 읍치는 한양처럼 풍수적 명당 논리에 가장 적합한 지역을 찾아 정해진 것이 아니라 통치성인 계양산성 아래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는 역사적 한계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풍수적 명당 논리는 기존에 있었던 지형에 맞게 재구조화 되어야 하며, 읍치의 주산은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계양산으로 정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를 갖고 있는 전체적인 산줄기의 흐름 속에서 주산인 계양산은 서서북쪽에 있게 되며, 그 결과 읍치의 전반적인 방향은 동남남쪽을 향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주산으로부터 뻗은 좌청룡과 우백호의 산세는 분명하게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계양도호부의 읍치가 들어선 지형은 동남남쪽으로 확 트인 벌판이 펼쳐져 있기 때문에 풍수적 완결성에 필요한 주산 반대편의 안산을 설정하기 어렵다. 이는 처음부터 풍수적 명당 논리에 의해 읍치의 위치를 잡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결함일 뿐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조선시대의 입장에서는 읍치의 권위에 손상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를 보충한 방법을 그림-5의 그림식 지도에 담긴 부평도호부 읍치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우선 읍치의 오른쪽에 타원으로 표시한 것은 인공적으로 조성한 造山(조산)인데, 현재의 정확한 위치를 알 수는 없지만 지도 위의 세 개와 달리 계산동의 들에 다섯 개의 조산이 만들어져 있었다고 한다.²²⁾ 이는 산줄기가 약해 인위적인 산의 조성을 통해 풍수적 명당 논리의 결함을 보충해 주는 대표적인 비보 방법의 하나이다.

둘째, 계양산 맞은편에 솟아서 마치 읍치의 안산 역할을 하는 것처럼 그려진 名東山(망동산)은 실제보다 훨씬 과장되게 그렸을 뿐만 아니라 大橋(한다리) 부근까지 지속적인 산줄기가 이어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그 아래쪽의 廉成山(영성미) 역시 읍치를 중심으로 계양산의 대척 지점에 있지도 않다. 이는 계양도호부의 읍치에 살던 사람들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지형과 달리 마음 속으로 풍수적 명당 논리에 맞게 주변 지형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의미이다.

결국 부평도호부의 조선시대 읍치는 통치성의 역사적 관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 입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나타난 풍수적 명당 논리의 결함을 인위적인 비보 방법을 통해 보완하여 읍치의 권위를 높였다. 조선시대의 읍치 중 가장 많은 유형이 바로 부평도호부의 읍치와 같은 경우로서 다른 고을의 읍치를 이해하는데 좋은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2) 1986, 한글학회,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 하, 인천편)』, 560쪽.

② 김포현

부평도호부의 읍치와 비슷한 경우이면서 약간 다른 사례로 김포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조선시대 김포현의 읍치는 현재의 김포시 풍무동 일대에 있다가 1627년(인조 5)에 읍치에 章陵(장릉)을 만든 후 김포시 북변동 지역으로 옮겼다. 그리고 『신증동국여지승람』 김포현의 고적 항목에 속현과 관련된 어떤 기록도 없어 삼국시대부터 영역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고을임을 알 수 있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김포현은 김포군의 군내면·검단면·고촌면 등 3개의 면으로 편제되어 있어 작은 편의 고을이었음을 알 수 있다.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 어디에도 城(성)과 관련된 고을의 이름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산천 항목에 북쪽 2리의 北城山(북성산)이, 봉수항목에 北城山烽燧(북성산봉수)가, 고적 항목에 北城山古城(북성산고성)이 기록되어 있다. 사료 항목에도 북성산고성과 같은 방향인 북쪽 1리에 성황사가 있는 것으로 나온다.

북성산은 현재의 김포시 사우동의 장릉산(155.0m)으로 정상에 둘로 축조한 산성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북성산고성이다. 현재 이곳에는 군사기지가 들어가 있어 자세한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비록 높지 않은 곳에 있지만 김포현 영역의 거의 한가운데 있고,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따라서 고려전기까지 김포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북성산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읍치의 일반 거주지가 어느 방향에 있었을지는 주변의 발굴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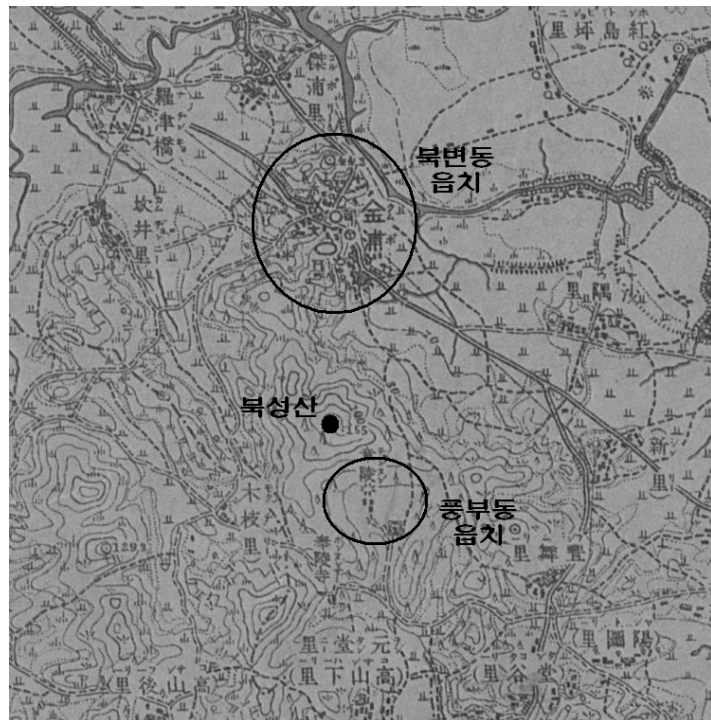


그림-6 김포현의 북성산, 풍무동읍치, 북변동 읍치

만 분명한 사실은 풍수적 명당 논리가 읍치에 적용되던 조선초기에는 章陵(장릉)이 들어선 풍무동 지역에 있었다는 점이다.

이곳은 主山(주산)인 서북쪽의 북성산(장릉산)을 중심으로 좌청룡과 우백호 및 안산의 형세가 분명한 지형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1624년 광해군을 쫓아낸 仁祖反正(인조반정)으로 왕위에 오른 仁祖(인조)가 1627년에 그의 아버지의 무덤인 興慶園(흥경원)을 양주 땅에서 이곳으로 옮긴다. 이어 아버지를 元宗(원종)으로 追尊(추존)하고 흥경원의 이름을 왕의 격에 맞게 章陵(장릉)으로 바꾼다.

인조반정은 요즘 말로 하면 성공한 쿠데타로서 새로운 왕의 정통성 확보가 중요한 대표적인 상황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를 위해 원래는 왕이 아니었던 인조의 아버지를 왕으로 추존하면서 무덤을 최고의 풍수적 명당터라 인정받는 곳으로 이장하는 정치적 행사를 벌인 것이다. 그런데 그곳이 바로 김포현의 읍치가 있던 곳이었고, 이것은 그 터가 풍수적으로 최고의 명당터 중의 하나로 인식될 정도로 완벽한 형세를 이루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통치성의 대부분이 산성이고, 그 아래쪽으로 읍치를 옮기는 경우 산성이 있는 산을 자연스럽게 풍수의 주산으로 삼을 수 있다. 다만 부평도호부의 읍치에서 확인했듯이 주산은 분명해질 수 있지만 풍수적 명당 논리에 완벽하게 가까운 지형의 형태를 취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김포현처럼 풍수적 명당 논리에 가까운 지형의 형태를 취한 곳도 드물지 않게 있을 수 있으며, 그럴 경우 굳이 인위적인 조산이나 비보숲의 형성을 통해 보완할 필요가 없다. 다만 조선시대의 읍치인 만큼 풍수적 용어로 주변의 지명을 다시금 개정하는 작업은 분명하게 이루어져야만 한다. 1627년에 장릉을 김포현의 읍치에 조성하면서 옮겨간 북변동의 읍치 역시 풍수적으로 명당터에 들어서야 함은 조선의 읍치가 된 이상 숙명적인 것이다.

(3) 풍수적 명당터를 찾아 통치성을 멀리 떠난 읍치 : 교하현과 고양군

고려 말까지만 하더라도 도시의 조영에서 풍수는 수도의 권위를 표현하는 논리였기 때문에 지방도시인 고을의 읍치에는 적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중앙집권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조선에 들어서면서 풍수는 고을 읍치의 권위 표현에도 적극적으로 도입되었는데, 이를 위해 풍수적 형세상 적합한 지역을 찾아 통치성을 떠나 멀리 읍치를 정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여기서는 교하현과 고양군의 사례를 통해 그런 상황의 흐름을 살펴보고자 한다.

① 교하현

조선시대 교하현의 읍치는 파주시 탄현면 갈현리에 있다가 1731년에 파주시 금릉동의 쇠재(金城)로, 그리고 얼마 후 다시 교하읍의 교하리로 옮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 교하현 고적 항목에는 원래 보신향이었다가 승격된 深岳廢縣(심악폐현, 남 10리)과 石淺鄉(석천향, 동 20) 2개가 나온다.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교하현은 현재의 파주시 시내(옛금촌읍), 교하

읍, 탄현면 3개로 편제되는데, 고적 항목에 나오는 2개의 향을 고려하면 고려 말 이전 교하현의 범위는 탄현면을 중심으로 교하읍의 북부와 파주시내(옛금촌읍)의 서부에 걸쳐 있는 대략 2개 면 정도의 작은 고을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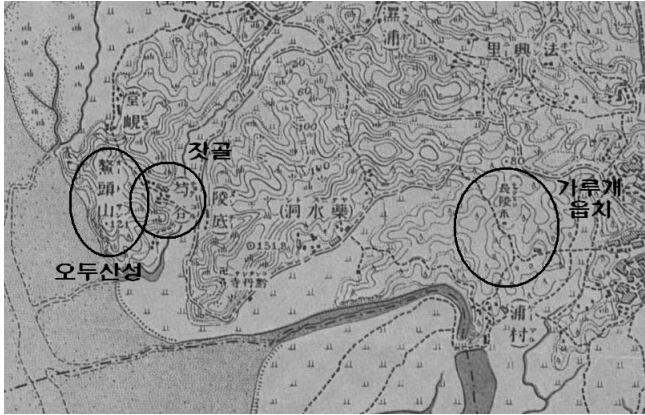


그림-7 교하현의 오두산성과 자골, 가루개의 정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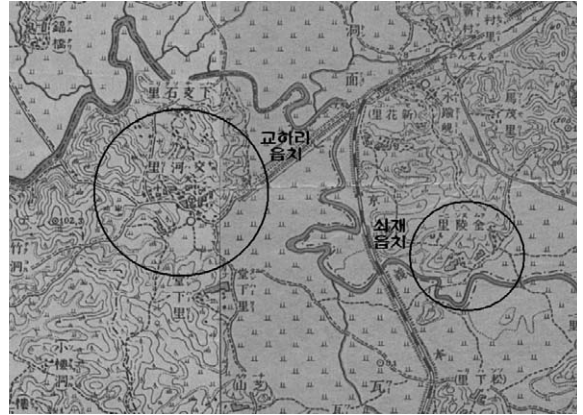


그림-8 쇠재와 교하리의 교하현 읍치

건치연혁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군명에 宣城(선성)이 나와 고려 말 이전 고을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천 항목에 서쪽 7리의 烏島城山(오도성산)이 나오며, 고적 항목에는 성황사가 바로 오도성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오도성은 현재 탄현면 성동리의 오두산(119.0m) 정상을 둘러싼 둘레 620m의 오두산성을 의미한다. 오두산성 바로 아래쪽의 법정리 이름이 城洞里(성동리)인데, 순우리말 이름인 ‘자골’에 대한 한자 표기가 바로 ‘城洞’이다. 오두산성은 높지는 않지만 교하현의 주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조선초기의 읍치는 오도산성에서 동쪽으로 7리 떨어진 현재의 탄현면 갈현리에 있었다. 갈현리의 한자인 ‘葛峴’은 순우리말 이름인 ‘가루개’에 대한 한자 표기였을 뿐인데, 파주시 문산읍 운천리 즉 구루물(雲泉)에 있던 인조(재위: 1623-1649)와 왕비 인열왕후 한씨의 무덤인 長陵(장릉)을 1731년에 가루개의 교하현 읍치로 옮긴다. 그리고 읍치는 파주시 시내 금릉동의 쇠재(金城)로 옮겼다가 얼마 후 교하읍 교하리로 다시 옮긴다.

조선시대 왕릉이 풍수적 명당 논리에서 최고의 명당터 중 하나로 이해된 곳에 자리 잡는 것은 상식에 해당된다. 따라서 1731년에 長陵(장릉)을 옮겨왔다는 것은 최고의 풍수적 명당터로 인식될 수 있는 형세라는 의미이며, 따라서 오두산성과 그 아래쪽의 자골에서 가루개 읍치로 옮겨온 것은 풍수적 명당 논리에 합당한 곳을 찾기 위한 것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산(80.0m)이 높지는 않지만 그로부터 뻗은 산줄기가 좌청룡-우백호-안산의 형세를 거의 정확하게 이루고 있다. 다만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가루개 읍치로 옮겨온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1731년에 새로 옮겨가는 쇄재 읍치와 얼마 후 곧바로 다시 옮기는 교하리 읍치 역시 풍수적 명당터로 정해졌을 것임은 분명하다. 쇄재 읍치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는 없지만 현재 그곳에 남아 있는 교하향교를 통해 볼 때 주산-좌청룡-우백호-안산의 형세가 고려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덜 완벽하다고 생각했는지 다시 교하리의 읍치로 옮기는데, 이곳은 북쪽의 주산을 중심으로 좌청룡-우백호-안산의 산줄기 흐름이 거의 완벽하게 나타나고 있어 상당한 선택의 과정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림-9 고양군의 고봉산과 찾골

② 고양군

고양군 역시 풍수적 명당터를 찾아 통치성으로부터 읍치가 많이 옮겨간 대표적 사례 중의 하나다. 하지만 교하현과는 달리 두 고을을 합하면서 읍치를 옮기게 되었으며, 이런 경우도 드물지만 꽤 나타나고 있어 다른 고을의 읍치 이동을 이해하는데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고양군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1394년에 고봉·행주·황조향 3개를 합해 고봉 감무를 설치하였고, 1413년에 고봉과 덕양(즉 행주) 두 고을의 이름을 따서 고양이라 불렀다고 기록되어 있다. 황조향은 원래 과주(즉 과천)의 용산처였는데, 한양이 수도로 정해지면서 한성부의 영역으로 편입된 현재의 용산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고양군은 고봉과 덕양(행주) 두 고을의 범위에 걸쳐 있었다고 보아 별로 틀리지 않는다. 조선시대 고양군의 읍치는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에 있다가 1528년(중종 23)에 禧陵(희릉)을 옮겨오면서 덕양구 고양동으로 옮

겨갔다.

『신증동국여지승람』고양군의 건치연혁에 고봉현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지만 城(성)과 관련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고봉현과 관련된 내용이 봉수항목에 서 15리의 高峯城山烽燧(고봉성산봉수), 서 10리의 古高峯縣(고고봉현)이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묘 항목에 고양군의 성황사가 2개 있는데, 그 중에 서 15리에 하나가 있다고 나오는데 바로 고봉성산봉수까지의 거리와 동일하다. 『대동지지』고양의 성지 항목에는 고봉고성이 고현의 북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봉성산은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 고봉산(208.8m)를 의미하며, 이곳에는 산 정상을 둘러싼 고봉산성이 있다. 고고봉현 역시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에 있는데, 고봉산성 바로 동남쪽 아래에 잣굴(城洞)이란 마을 이름이 남아 있다. 고봉현의 범위를 다른 고을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대략 고양시 일산구 영역에 걸쳐 있었는데, 고봉산은 대략 고을의 가운데에 있다. 고봉산성은 높지는 않지만 고봉현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고봉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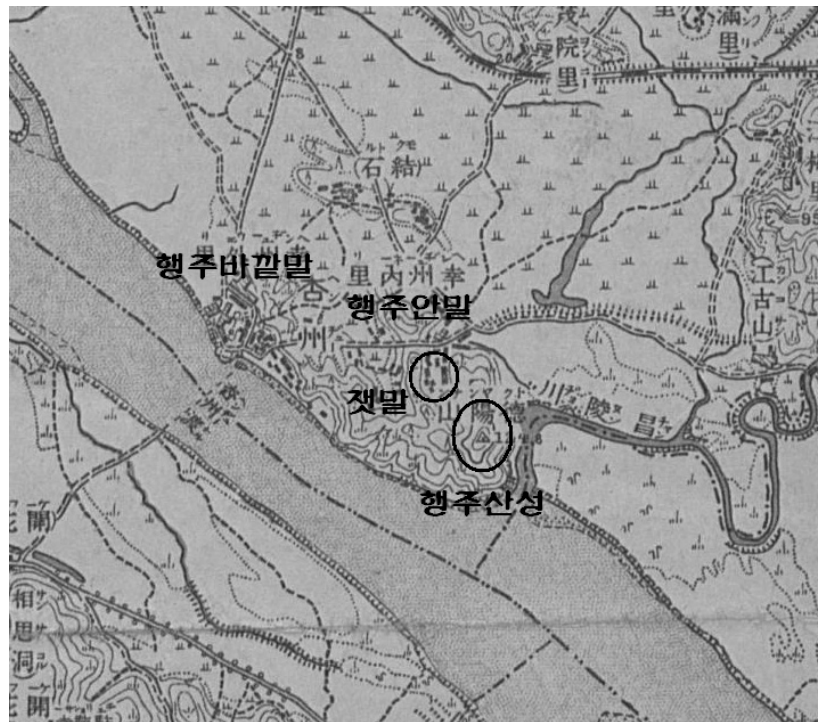


그림-10 고양군의 행주산성과 잣말

『신증동국여지승람』고양군의 건치연혁에 행주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지만 城(성)과 관련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다만 행주와 관련된 내용으로 고적 항목에 행주의 또 다른 이름이었던 王逢廢縣(왕봉폐현)이 남 15리에, 사묘 항목에 2개의 성황사 중 하나가 행주에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대동

지지』에는 행주고성이 고현 남쪽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덕양산(124.8m)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1,000m의 행주산성을 의미한다. 덕양산의 덕양은 고양군의 ‘양’이 유래된 것으로 행주의 또 다른 이름 중 하나였다.

행주의 범위는 대략 고양시 덕양구의 범위에 있었으며, 행주산성은 높지는 않지만 완전 평지에 우뚝 솟아 있어 고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산성의 이름이 행주산성이고, 그 아래쪽의 마을 이름도 행주안말과 행주바깥말이다. 이뿐만 아니라 행주산성 바로 밑의 행주안말에서 가장 중심되는 마을 이름이 ‘잣골’과 동일한 이름의 ‘잣골’이고, 한자로는 城洞이라고 쓴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봉현과 합쳐지기 이전에 행주 지역의 읍치가 행주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봉+행주(덕양)=고양군이 된 후 읍치가 언제부터 덕양구 원당동에 있었는지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하지만 성황사가 모두 두 고을의 옛 산성이나 읍치에 있는 것을 통해 볼 때 옮긴지 얼마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결국엔 두 고을을 합한 1413년이나 직후에 이루어진 일임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 중종(재위: 1506-1544)의 계비인 장경왕후 윤씨의 무덤인 禧陵(희릉)을 1528년에 현재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내곡동에서 옮겨오면서 읍치를 다시 고양동으로 옮기게 된다.



그림-11 고양군의 원당동 읍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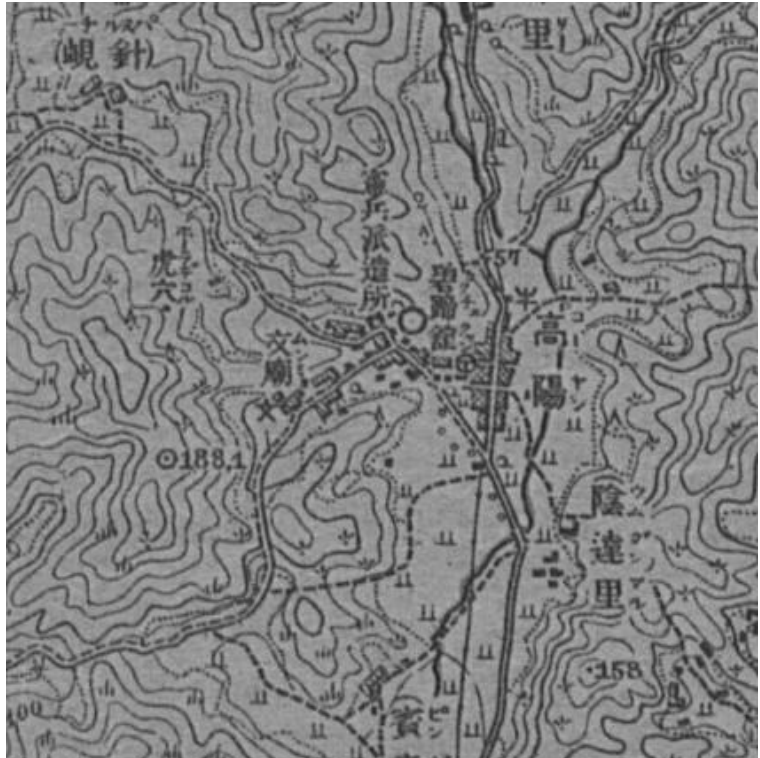


그림-12 고양군의 고양동 읍치



그림-13 그림식의 고양군 지도에 표현된 고양동 읍치

회룡 역시 재위하던 왕의 부인이 묻힌 곳이기 때문에 최고의 명당터로 인식된 곳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원래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것을 옮겨 온 것이기 때문에 더더욱 무덤터의 명당성을 따질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고양군의 읍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양군의 읍치는 원래부터 풍수의 명당터를 선택하여 자리 잡은 것임을 알 수 있고, 비록 주산이 높지는 않지만 좌청룡-우백후-안산의 산줄기가 분명하게 보일 정도로 뚜렷한 풍수적 형국을 이루고 있다.

1528년에 마지막으로 옮겨간 고양동 읍치 역시 풍수적 명당터를 선택한 결과일 수밖에 없다. 전체적인 형국이 좁기는 하지만 주산-좌청룡-우백후-안산의 형국이 서울과 거의 비슷하며, 내명당수 역시 서북쪽에서 발원하여 동남쪽으로 빠져나간다.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 조선시대 통치성의 역사적 한계를 벗어나 읍치를 선정할 때 풍수적 명당 논리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다.

4. 경기도 고을의 읍치 관련 자료

4장에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대동지지』, 백과사전에 기록된 현대 자료 등을 중심으로 경기도 38개 고을과 해당 읍치를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제시한다. 2장과 3장의 사례, 지명찾아보기의 “현재의 위치와 범위” 자료를 통해 고을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숙지한 후 4장의 자료를 참고하면 몇 개의 고을을 제외하면 읍치의 위치 및 이동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이번에 수록한 각 고을의 그림식 지도뿐만 아니라 1872년에 제작된 그림식 지도²³⁾, 1916년경에 제작된 일제강점기의 1:5만 지형도²⁴⁾, 현대 1:10만 도로지도와 1:5만 지형도, 1911년경에 편찬된 『朝鮮地誌資料(조선지리지자료)』²⁵⁾, 1985년과 1986년에 간행된 『한국지명총람』17(경기편상)·18(경기편 하, 인천편), 인터넷포털사이트의 백과사전,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간행한 지명유래집 및 유적발굴보고서 등을 함께 참고하면 내용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읍치와 통치성이 가까운 경우

(1) 광주목

조선시대 광주목의 읍치는 현재의 하남시 교산동 일대에 있다가 1626년 광주시 중부면 산성리의 남한산성 안으로 옮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광주목의 건치연혁에는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으로 南漢山城(남한산성)이 나온다. 하지만 읍치 바로 주변에 있는 성곽 관련 기록은 나오지 않는

23)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홈페이지
(<http://e-kyujanggak.snu.ac.kr/>)에서 자료검색→원문자료검색→분류별보기→고지도→필사본(회화식)→1872년 지방지도→경기도로 검색하면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4) 종로도서관 홈페이지
(<http://jnlib.sen.go.kr/>)에서 전자도서관→고문헌 원문검색→한국근대지도자료→경기도 순서로, 또는 국사편찬위원회 홈페이지
(<http://www.history.go.kr/>)에서 한국사데이터베이스→일제강점기→한국근대지도자료→경기도 순서로 들어가면 모두 볼 수 있다.

25)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
(<http://www.nl.go.kr/>)에서 ‘조선지리지’로 검색→조선지리지자료 1-7 : 경기도(청구기호: 古2703-1-1-7)→원문자료 새창보기로 들어가면 원문자료의 내용을 볼 수 있다. 간행된 책으로는 경기문화재단, 2008, 『경기 땅 이름의 참모습-《朝鮮地誌資料》京畿道篇』을 참조하면 된다.

데, 『대동지지』광주의 산수 항목에 二聖山(이성산)에 백제성터가 있다고 기록하면서 고적 항목에 金岩山古城(금암산고성)으로 서술해 놓았다. 이 기록은 홍경모(1774-1851)가 1846년에 편찬한 『重訂南漢志(중정남한지)』의 내용을 편집한 것이다. 여기서 금암산고성은 현재의 하남시 춘궁동의 이성산(209.8m) 정상을 둘러싼 둘레 1,925m의 이성산성을 가리킨다. 이곳에 대한 발굴과정에서 광주목의 옛 이름 중 하나인 南漢城(남한성)이 기록된 목간이 출토되었다. 이성산성에서는 현재의 하남시와 한강 부근의 서울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광주목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 교동현

조선시대 교동현의 읍치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교동면 고구리의 고읍에 있다가 1633년 읍내리로 옮겼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하지만 성곽 항목에 남쪽 3리의 華蓋山城(화개산성)이 기록되어 있고, 사료 항목에 성황사가 화개산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화개산성은 현재의 강화군 교동면 고구리에 있는 화개산(259m)의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2,000m의 산성이다. 교동현의 모든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교동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금천현

조선시대 금천현의 읍치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금천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 어디에도 城(성)과 관련된 고을의 이름은 발견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고적 항목에 동쪽 5리의 虎岩山城(호암산성)이 기록되어 있고, 성황사 역시 같은 방향인 동쪽 1리에 있는 것으로 나온다. 호암산성은 현재의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동의 범피(虎岩山, 289.7m) 정상 부근을 둘러싼 둘레 1,250m의 산성이다. 현재 이곳에 대한 발굴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금천현의 삼국시대 때 이름인 仍伐奴(영벌노)가 새겨진 명문이 출토되기도 하였다. 금천현의 주요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금천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4) 김포현 : 3장 참조

(5) 부평도호부 : 3장 참조

(6) 안성군

조선시대 안성군의 읍치는 현재의 안성시 낙원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안성군의 고적 항목에 甘彌香部曲(감미탄부곡)·馬田部曲(마전부곡) 2개만 기록되어 있어 삼국시대부터 영역의 변동이 거의 없었던 고을임을 알 수 있다. 건치연혁과 군명 등에 奈兮忽(내혜홀), 白城郡(백성군), 安城(안성) 등이 기록되어 있어 고려 말 이전의 읍치에 城(성)이 있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천 항목에 북쪽 2리의 비봉산에 옛 성터가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안성의 성지 항목에는 飛鳳古城(비봉고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성시 명륜동의 비봉산(229.5m) 정상 부근을 둘러싼 둘레 1,650m의 비봉산성을 의미한다. 이곳에서는 안성군의 영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안성군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7) 양천현

조선시대 양천현의 읍치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양천현의 건치연혁 항목이나 군명에는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천 항목에 북쪽 1리 지점의 城山(성산)이, 고적 항목에 城山古城(성산고성)이 기록되어 있어 고려 말 이전 양천현 읍치의 중심에도 산성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게다가 사묘 항목에는 고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성황사도 城山(성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성산은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 가양동의 한강가에 솟아난 공산(78.8m)으로 불리고 있으며, 정상에는 둘레 약 220m의 작은 돌성이 자리 잡고 있다. 아주 낮은 산에 있지만 양천현의 가운데 있을 뿐만 아니라 고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양천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8) 연천현

조선시대 연천현의 읍치는 연천군 연천읍 읍내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연천현의 어느 항목에도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나 성곽 유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조선시대의 읍치 바로 남쪽인 연천읍 읍내리의 군자산(327.8m)에는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600m의 군자산성이 있다. 연천현 지역의 중요 지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9) 음죽현

조선시대 음죽현의 읍치는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음죽현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이 등장하지 않지만 군명 항목에 雪城(설성)이 있다. 그리고 산천 항목에 서쪽 5리 지점의 城山(성산)이 기록되어 있고, 『대동지지』음죽의 城池(성지) 항목에는 雪城(설성)이 “서쪽 5리에 있으며 城山(성산)이라 칭한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고을의 이칭 중 하나였던 설성은 현재의 이천시 장호원읍 선읍리에 있는 설성산(290.5m)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1,000m의 설성산성, 그리고 城山(성산)은 바로 설성산을 가리킨다. 음죽현의 거의 모든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위치에 자리 잡고 있어 고려 말 이전 음죽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이천도호부

조선시대 이천도호부의 읍치는 현재의 이천시 창전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이천도호부의 건치연혁과 군명 등 어떤 항목에도 城(성)과 관련된 고을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고적 항목에 서쪽 5리의 雪峰山古城(설봉산고성)이 기록되어 있고, 사묘 항목에는 그곳에 城隍祠(성황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온다. 설봉산고성은 현재의 이천시 사음동의 설봉산(394.3m)에서 동쪽으로 뻗은 능선 위 작은 봉우리(약 300m)의 정상에 둘러싼 둘레 1,078m의 설봉산성을 가리킨다. 이천도호부 영역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1) 인천도호부

조선시대 인천도호부의 읍치는 현재의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인천도호부의 건치연혁과 군명 등에 買召忽(매소홀), 彌趨忽(미추홀), 邵城(소성) 등이 기록되어 있어 삼국시대의 읍치에 城(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봉수 항목에 남쪽 2리의 城山烽燧(성산봉수)가, 고적 항목에 남쪽 2리의 南山古城(남산고성)이 나온다. 『대동지지』산천 항목에는 남산이 文鶴山(문학산)으로 바뀌어 있고, 성지 항목에 문학산 위에 古城(고성)이 있다고 나온다. 남산고성은 현재의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에 있는 문학산(213.0m)의 정상에 둘러싼 둘레 577m의 문학산성이다. 이곳에서는 부평도호부의 주요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인천도호부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2) 적성현

조선시대 적성현의 읍치는 현재의 파주시 적성면 구읍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적성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으로 重城(중성)과 積城(적성)이 기록되어 있어 삼국시대의 읍치에 城(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적 항목에 서쪽 3리의 吐吞古城(토탄고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동지지』성지 항목에는 토탄성을 重城(중성)이라 칭한다는 내용이 나온다. 중성은 파주시 적성면 고읍리의 중성산(147m)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680m의 칠중성이다. 양주시 남면을 제외하면 적성현의 주요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적성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3) 진위현

조선시대 진위현의 읍치는 현재의 평택시 진위면 봉남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진위현의 건치연혁이나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산천 항목에는 진위현의 고구려 때 이름이었던 釜山縣(부산현)과 동일한 이름의 釜山(부산, 동 2리)이 기록되어 있다. 『대동지지』진위의 성지 항목에는 釜山古城(부산고성, 동 1리)이 나오는데, 부산(129m)은 현재 진위면 봉남리와 가곡리의 경계에 있

는 산으로 봉남리산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진위현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며, 아직 많은 발굴이 이루어지지 못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부산고성을 중심으로 고려 말 이전 진위현의 읍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14) 파주목

파주목은 1398년(태조 7)에 서원군과 파평현을 합해 원평군이 되었으며, 1460년(세조 6)에 왕비의 貫鄉(관향)이라 하여 파주목으로 승격시켰다. 서원군의 읍치가 파주목의 읍치로 계승되었는데, 현재의 위치는 파주시 파주읍 파주리 일대이다.

① 서원군 : 파주목의 읍치가 있던 옛 서원군의 범위는 파주시 광탄면·문산읍·월롱면·조리읍·파주읍 등 약 5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城(성)과 관련된 서원군의 이름으로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의 건치연혁 항목에 고구려 때의 述尔忽(술이홀), 신라 때의 峯城(봉성) 등 2개가 나온다. 또한 산천 항목에 서쪽 2리의 城山(성산)이, 고적 항목에 城山古城(성산고성)이 기록되어 있다. 성산고성은 파주시 파주읍 봉서리의 봉서산(215.5m) 정상 부근을 둘러싼 둘레 875m의 봉서산성이다. 현재 이곳에는 군사기지가 있어 발굴이 별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산성의 흔적이 역력히 남아 있다. 옛 서원군의 주요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서원군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② 파평현 : 『신증동국여지승람』 파주목의 건치연혁에 파평현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는데, 城(성)과 관련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다른 고을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본 파평현의 범위는 현재의 파주시 파평면과 법원읍 일대에 걸쳐 있었다. 고적 항목에는 동북 30리의 古坡平縣이 나오는데, 현재의 파평면 마산리 별말 일대이다. 마산리 일대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이 파평현과 동일한 파평산(496m)인데, 순우리말 이름은 잣딴산이기도 하다. 여기서 ‘잣’은 城(성)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이름으로 주변에 산성이 있었음이 분명하지만 아직 조사나 발굴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5) 포천현

조선시대 포천현의 읍치는 현재의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포천현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고구려의 馬忽縣(마홀현), 堅城郡(견성군)이 나와 삼국시대부터 포천현의 읍치에 城(성)이 있었음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여기에 산천 항목에 북쪽 1리에 있는 城山(성산)이, 고적 항목에는 城山古城(성산고성)이 기록되어 있고, 사료 항목에는 고을을 지켜주는 신에게 제사지내는 성황사도 城山(성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번에 수록하는 포천현의 그림식 지도에도 읍치 뒤쪽에 웅장한 산성의 모습과 함께 포천현의 옛이름 중의 하나인 堅城(견성)이 ‘半月山堅城(반월산견성)’이란 문구로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으며, 城隍堂(성황당)이 산성 안의 정상에 그려져 있다. 이것이 바로 포천시 군내면 구읍리 바로 북쪽 청성산(289m)의 정상을 둘러싼 둘레 1,080m의 반월산성이다. 그렇게 높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지만 포천현 지역의 주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포천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읍치와 통치성의 거리가 멀거나 아직 통치성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1) 가평현

조선시대 가평현의 읍치는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가평현의 속현 항목에 서쪽 45리의 朝宗縣(조종현)이 있고, 고적 항목에 조종현에 속해 있다는 2개의 所(소)가 나온다.

① 가평현 : 고려시대까지의 가평현은 대략 가평군 가평읍과 북면 등 약 2개의 면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가평현의 건치연혁과 군명을 비롯하여 어떤 곳에도 성곽 관련 기록이 없고, 현재도 고려시대의 가평현 영역에서 성곽 관련 유적의 조사 결과를 찾을 수 없다. 조선시대 가평현의 읍치가 있었던 가평읍의 읍내리 지역이 조종현을 병합하기 이전 가평현 영역의 거의 한가운데이면서 가장 넓은 평지에 있어 읍내리 주변에 고려 말 이전 읍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조종현 : 고려시대까지 所(소) 2개를 포함한 조종현은 대략 가평군 상면, 하면, 삼회리를 제외한 청평면, 남양주시 수동면의 내방리·외방리·입석리 등 대략 3개의 면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가평현에 합해지기 이전까지의 읍치는 가평군 하면 현리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가평현 부분에 성곽과 관련된 조종현의 옛이름이나 산성에 대한 기록은 전혀 없다. 하지만 현재 현리 바로 북쪽에 있는 성재산(353m)의 정상을 둘러싼 둘레 658m의 현리산성(또는 신상리산성)이 있는데, 조종현 지역의 중요지역이 한눈에 내려다 보여 고려 말 이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 강화도호부

조선시대 강화도호부의 읍치는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강화도호부의 고적 항목에는 남 25리의 鎭江廢縣(진강폐현)과 북²⁶⁾ 25리의 河陰廢縣(하음폐현) 및 동 5리의 海寧鄉(해령향)이 나온다. 따라서 조선시대 강화도호부 영역 안에는 3개의 고을이 있었던 것이 된다.

① 강화도호부 : 고려시대 강화도호부의 정확한 영역을 알기는 어렵지만 강화군의 내가면·선원면·강화읍·불은면 등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조선시대 강화도호부의 읍치는 강화읍 관청리 일대에 있었는데, 이는 1231년 몽골의 침입을 피해 강화도로 천도하면서 풍수적 지형에 알맞은 곳을 선택하여 수도를 건설한 것이다. 『신증동국여지승람』강화도호부의 건치연혁과 군명에는 성과 관련된 고을의 이름이 없다. 하지만 산천 항목에 강화의 옛이름인 穴口(혈구)와 비슷한 서 10리의 穴窟山(혈굴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른 문헌에는 대부분 穴口山(혈구산)으로 나온다. 현재의

26) 남으로 잘못 기록되어 있다.

불은면 삼성리에 있는 혈구산(466m)으로 서쪽 능선의 봉우리를 둘러싼 혈구산성이 있는데, 주변 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혈구산 남쪽에는 혈구진 일 때와 관련된 지명과 유적이 많이 남아 있는데, 고려 말 이전의 읍치는 혈구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진강현 : 『신증동국여지승람』강화도호부의 고적 항목에 남 25리의 진강폐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강화군 양도면 도장리에 진강현터가 전해진다. 산천 항목에는 진강현과 이름이 같은 鎭江山(진강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양도면 도장리에 있는 진강산(443m)이다. 하지만 주변에 산성의 유적이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아 고려 말 이전 진강현 읍치의 중심이었던 산성의 위치를 분명하게 파악하기는 어렵다. 진강현의 범위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강화군 양도면·불은면·길상면·화도면 등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하음현 : 『신증동국여지승람』강화도호부의 고적 항목에 기록된 하음폐현의 범위는 대략 강화군 하점면·양사면·송해면 등에 걸쳐 있었다. 산천 항목에는 하음현의 이름과 같은 河陰城山(하음성산)이 북 16리의 鳳頭山(봉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의 하점면 장정리에 있는 봉천산(291m)이다. 이 산에는 정상을 둘러싼 하음산성이 남아 있는데, 주변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에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 개성부

『신증동국여지승람』개성부의 건치연혁을 보면 송악군과 개성군을 합해 고려시대 수도를 만들었고,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개성부로 이어졌다.

① 송악군 : 『삼국사기』지리 송악군에는 698년(효소왕 7)에 성을 축조하였다는 기록이 나와 통일신라시대의 읍치에 성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고려의 수도가 되면서 이전의 통치성이 원래 어디에 있었는지에 대한 기록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

② 개성군 : 『신증동국여지승람』개성부의 건치연혁에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으로 冬比忽(동비홀), 開城(개성)이 나와 삼국시대의 읍치에 성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적 항목에 開城廢縣(개성폐현)이 서 25리에 있다고 나오며, 『대동지지』개성의 성지 항목에는 서 25리의 開城古城(개성고성)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북한에 속해 있어 더 이상의 자료를 확보할 수는 없는데, 삼국시대 개성고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4) 고양군 : 3장 참조

(5) 교하현 : 3장 참조

(6) 과천현

조선시대 과천현의 읍치는 현재의 과천시 관문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모든 지리지의 과천현 건치연혁과 군명

을 비롯하여 어떤 곳에도 성곽 관련 기록이 없다. 또한 과천현 영역에서 산성에 대한 조사 내용도 찾을 수 없는데, 고려 말 이전 읍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통치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후대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7) 남양도호부

조선시대 남양도호부의 읍치는 화성시 남양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양도호부 고적 항목에는 載陽廢縣(재양폐현, 동 10리), 분황부곡(동남 25리), 양등간처(북 5리) 등이 나온다. 재양폐현의 중심지는 현재의 화성시 비봉면 자안리에 있었던 것으로 나오며, 분황부곡은 수원의 경계를 넘어가 있는 월경지였다.

① 남양도호부 : 조선시대 남양도호부의 읍치는 화성시 남양동 일대에 있었다. 그리고 고려시대 남양도호부의 범위는 화성시 서신면, 송산면, 마도면과 옛남양면의 상당 부분 및 안산시의 대부분 지역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남양도호부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고구려 때의 唐城郡(당성군)이 나오는데, 759년에 唐恩郡(당은군)으로 바뀌었다가 940년부터 1290년까지 다시 당성군이 되었다. 고적 항목에 당성군의 이름과 동일한 서 20리의 古唐城(고당성)이 나오는데, 화성시 서신면 상안리의 구봉산(158.0m) 정상을 둘러싼 둘레 1,200m의 당성이다. 높지는 않지만 옛 남양도호부 지역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묘 항목에 성황사가 서 30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어 읍치가 화성시 남양동 일대로 옮겨온 것이 얼마 안 된 일이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재양현 : 고려시대 재양현의 범위는 화성시 비봉면, 남양면의 동남부, 팔탄면과 봉담면의 일부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읍치는 비봉면의 자안리 일대에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8) 마전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모든 지리지의 마전군 건치연혁과 군명을 비롯하여 어떤 곳에도 성곽 관련 기록이 없다. 조선시대 마전군의 읍치는 연천군 미산면 마전리에 있었는데, 서남쪽 약 1.5km 지점에 삼면이 10m 이상의 절벽으로 둘러싸인 둘레 450m의 요새성인 당포성이 있다. 장단도호부의 호로그루성과 마찬가지로 고려 말 이전 마전군의 읍치는 이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마전리의 읍치로 옮겨간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풍수적 명당터를 찾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9) 삭령군

『신증동국여지승람』 삭령군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1403년에 삭령과 승령을 합하면서 이름은 삭령이라 했다고 나온다.

① 삭령군 : 승령군과 합하기 전의 삭령군 영역은 1914년 경기도 연천군

의 북면(삭령면)·서남면 전체와 중면의 절반 정도에 해당된다. 그리고 조선시대 삭령군의 읍치는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연천군 중면 삭령리에 있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삭령군의 건치연혁과 군명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없다. 하지만 산천 항목에 작은 성터가 있는 동쪽 5리의 城山(성산)이 나오고, 사묘 항목에 성황사가 성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또한 고적 항목에 古朔寧(고삭령)이 남 5리의 朔寧渡(삭령나루) 언덕 옆에 있는데, 1441년(세종 21)에 조선시대의 읍치 지역으로 옮겨졌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삭령리가 북한에 속해 있어 성산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어렵지만 성산의 정상을 둘러싼 산성을 중심으로 고려 말 이전의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승령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삭령군의 산천 항목에 승령현과 이름이 같은 승령산이 동 15리의 승령현에 있고, 사묘 항목에 성황사 하나가 승령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고적 항목에 古僧嶺(고승령)이 동 30리에 있다고 나오지만 『대동지지』삭령의 고적에는 승령이 동 20리로 되어 있다. 이번의 자료집에 나오는 삭령 지도에는 “옛 읍치에 산성터가 있다(古邑居有山城基)”는 문구가 적혀 있다. 승령현의 영역은 1914년 강원도 철원군 내문면·마장면·인목면으로 편제된 범위에 있었다. 현재 승령현 지역이 비무장지대와 북한에 속해 있어 정확한 자료를 알기는 어렵지만 삼국시대 승령산에 있는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 수원도호부

조선시대 수원도호부의 읍치는 화성시 (옛태안읍) 송산동에 있다가 1789년에 수원시 신평동 일대로 옮겨졌다.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속현 항목에는 雙阜縣(쌍부현, 서 45리)과 龍城縣(용성현, 남 50리), 고적 항목에는 貞松廢縣(정송폐현, 서 15리)과 廣德廢縣(광덕폐현, 남 60리)을 비롯하여 부곡 7개, 향 3개, 처 7개, 장 3개 등이 나온다.

① 水州(수주) : 고려시대 수주의 범위는 대략 옛태안읍·옛동탄면·오산시 전체와 정남면과 봉담읍의 절반 정도 및 수원시 권선구 등 약 5개면 정도로 이루어져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고구려 때의 貫忽郡(매홀군), 水城郡(수성군), 隋城(수성)이 나와 삼국시대의 읍치에 城(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천 항목에는 남 7리에 禿城山(독성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동지지』에는 禿城山城(독성산성)으로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오산시 지곶동에 있는 독성산(207.6m)의 정상을 둘러싼 둘레 1,400m의 독산성 또는 독성산성을 의미한다. 옛 수원의 영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고려 말 이전 독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② 용성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속현 항목 중 남 50리의 龍城縣(용성현) 연혁에서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으로 上忽縣(상홀현), 車忽(차홀), 車城(차성) 등이 나온다. 그리고 용성현이 수원에 완전히 병합되기 이전의 읍치는 현재의 평택시 안중읍 용성리에 있었다. 용성리 바로 옆인 평택시 안중읍 덕우리의 자미산(110.8m)에 정상을 둘러싼 둘레

528m의 자미산성이 있는데, 높지는 않지만 주변이 한눈에 조망되어 옛날 용성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③ 쌍부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속현 항목에는 원래 六浦(육포)였다는 45리의 雙阜縣(쌍부현) 연혁이 있는데,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쌍부현의 읍치는 현재의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 일대로, 대략적인 범위는 우정읍과 장안면 일대로 판단되고 있지만 통치성 관련 자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④ 광덕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고적 항목 중 남 60리의 廣德廢縣(광덕폐현) 연혁에서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광덕현의 읍치는 고을과 동일한 이름이 붙여진 광덕산(즉 고등산)이 있는 평택시 현덕면의 덕목리 일대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통치성 관련 자료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⑤ 정송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수원도호부의 고적 항목 중 원래 부곡이었다고 기록된 서 15리의 貞松廢縣(정송폐현) 연혁에서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정송현의 읍치는 화성시 정남면의 백리 일대로 판단되고 있지만 더 이상의 자료는 알려져 있지 않다.

(11) 안산군

조선시대 안산군의 읍치는 안산시 단원구 수암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안산군의 군명 항목에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蓮城(연성)이 나와 삼국시대 안산군의 읍치에도 성이 있었을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고적 항목에는 안산군의 고구려 때 이름과 같은 獐項廢縣(장항폐현, 서 30리)과 토성인 古城(고성, 소 25리)이 나와 읍치가 이동했음을 알 수 있다. 사료 항목에는 고려 때의 읍치에서 가장 큰 제사를 올렸던 성황사가 서쪽 21리와 32리 두 곳에 있어 안산군의 읍치는 최소 2번 옮긴 것이 된다. 서쪽 21리의 성황사는 시흥시 군자동의 군자산(198.4m) 정상을 둘러싼 군자산성 안에 군자성황당으로, 32리의 성황사는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의 잣머리성황당으로 현재도 남아 있다. 이 중 군자성황당이 있는 군자산성은 안산군의 거의 정 중앙에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영역이 한눈에 조망되는 특징을 갖고 있어 삼국시대 안산군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잣머리 성황당이 있는 성곡동 잣머리(城頭)는 원래 바닷가였으며, 정확한 시기는 확인할 수 없지만 군자산성 부근에서 읍치가 옮겨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장항폐현과 토성인 고성으로 기록된 곳이 잣머리 성황당 지역과 바로 부근인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지역이었다. 1441년경 문종의 세자빈인 현덕빈의 무덤 자리로 안산 고읍의 땅이 선택되면서 가장 풍수적인 지형을 하고 있는 단원구 수암동의 읍치로 옮겨간다.

(12) 양근군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모든 지리지의 양근군 건치연혁과 군명을 비롯하여 어떤 곳에도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은 없다. 고적 항목에 동 30리의 咸公城(함공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옥천군 용천리에 있

는 둘레 약 9,000m의 함왕산성이다. 축조 양식이 거친 초대형 산성은 몽골 침입기에 피난성으로 쌓은 것으로, 함왕산성은 읍치에서 가까워 그 이후에도 잘 관리되었을 뿐이다. 조선시대 양근군의 읍치는 양평군 옥천면 옥천리에 있었는데, 주위에서 중소형의 산성은 아직 조사되고 있지 않다. 다만 옥천리의 읍치가 있던 곳으로부터 약간 동북쪽에 城(성)에 대한 순우리말 이름인 ‘잣’과 관련된 잣고개(栢峴)가 있어 앞으로의 조사에서 참조할 필요가 있다. 1747년에 양평읍 양근리로 읍치가 다시 옮겨가는데, 풍수적 명당 논리에 더욱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이동시킨 것이다.

(13) 양성현

조선시대 양성현의 읍치는 안성시 양성면 동항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성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沙伏忽(사복홀)·赤城(적성)·陽城(양성) 등이 나와 삼국시대 양성현의 읍치에도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적 항목에는 남 12리의 無限城(무한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안성시 양성면 방신리에 있는 해발 200m 정도의 봉우리 정상을 둘러싼 무양성 또는 무양산성을 가리킨다. 양성현 지역의 거의 한 가운데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또한 “무한성 남단 아래에 속칭 옛 고을터가 완연하다”는 기록이 양성현의 몇몇 읍치에 전하고 있어 동항리로 옮겨가기 전의 읍치가 있던 곳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려 말 이전 양성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양성면 동항리의 읍치는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풍수적 명당 논리에 합당한 지역을 선택하여 옮겨간 것으로 판단된다.

(14) 양주목

조선시대의 도성 안에 있던 양주목의 읍치는 그곳이 수도로 정해지면서 1394년에 양주시 고읍동 일대로, 1397년에 양주시 유양동 일대로 옮긴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주목 건치연혁에는 고려시대까지의 양주가 아니라 1397년에 양주목의 읍치가 옮겨가는 見州(견주)의 연혁이 나온다. 그리고 속현 항목에는 豐壤縣(풍양현, 동 50리)이 나오며, 고적 항목에는 沙川廢縣(사천폐현, 북 30리)과 海村處(해촌처, 서 35리)·松山處(송산처)가 나온다.

① 양주도호부 : 고려시대 양주의 정확한 영역을 알기는 어렵지만 풍양현을 비롯한 다른 고을과의 관계를 통해 볼 때 한강 북쪽의 서울 대부분과 구리시 및 남양주시 시내 서남쪽 절반, 와부읍 등에 걸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세종실록지리지』 양주도호부의 건치연혁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南平壤城(남평양성)·北漢山城(북한산성) 등이 나와 삼국시대 양주 지역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동지지』 양주의 성지 항목에 楊津城(양진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長漢城(장한성)이라고도 하며 아찬산 남쪽 봉우리(285m)의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1,000m의 아찬산성을 의미한다. 한강변에 솟아 있으면서 양주의 중요 지역뿐만 아니라 한강 남쪽 지역까지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067년 남경으로 승격되면서 조선시대의 수도

인 도성 안으로 옮겨가기까지 읍치는 현재의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일대에 있었다.²⁷⁾

② 풍양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양주도호부의 속현 항목에 동 50리의 풍양현 이름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없다. 다른 고을과의 관계에서 살펴보면 풍양현의 범위는 대략 현재의 남양주시 시내의 동북쪽 절반, 별내면·퇴계원면·진접읍·진건읍·오남읍 등을 포함하는 지역이었다. 풍양현의 중심지는 현재의 남양주시 진접읍 내각리에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으며, 『대동지지』양주의 성지 항목에는 豐壤古城(풍양고성)이 옛 중심지의 서 1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현재 내각리 서쪽에는 퇴피산(370.2m) 정상 을 둘러싼 둘레 625m의 산성이 있는데, 풍양현의 주요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풍양현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건주 : 『신증동국여지승람』양주목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고려시대 건주의 연혁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과 관련된 이름은 나오지 않는다. 1397년 양주목의 읍치를 건주 옛터로 옮겼다고 나오는데, 이곳이 바로 양주시 유양동이다. 건주 영역의 범위를 인근 고을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면 현재의 양주시 시내와 백석면·광적면, 의정부시 정도에 걸쳐 있었다. 고적 항목에는 서 5리의 大母山城(대모산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양주시 어둔동의 대모산(212.9m) 정상을 둘러싼 둘레 1,400m의 대모산성을 의미한다. 높지는 않지만 옛건주의 영역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 위치에 있어, 고려 말 이전 건주 지역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대모산성 서쪽의 고개를 작고개(栢峴)라고 하는데, 여기서 ‘작’은 城(성)을 의미하는 순우리말 ‘작’과 같은 것이다.

④ 사천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양주목의 고적 항목에는 북 30리의 사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성과 관련된 이름은 나오지 않고 있다. 사천현 영역의 범위를 인근 고을과의 관계 속에 살펴보면 현재의 양주시 은현면과 동두천시 및 연천군 청산면과 전곡읍 정도에 걸쳐 있었다. 사천현의 중심지는 현재 동두천시 상패동의 새천(沙川) 마을 일대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로 주변에서 성곽의 발굴은 아직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15) 양지현

『신증동국여지승람』양지현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1398년 수주(즉 수원)의 양량부곡을 양지현으로 만들었고, 1413년에 읍치를 광주의 추계향으로 옮기면서 죽주(즉 죽산)의 고안·대곡·목악·제촌 등 4개의 부곡을 병합하였다고 나온다. 1413년에 옮긴 읍치가 현재의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지리이고, 그 이전의 읍치는 안성시 고삼면 월향리로 추정된다. 그리고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은 나오지 않으며, 기타 성곽 관련 기록도 찾을 수 없다.

(16) 여주목

조선시대 여주목의 읍치는 현재의 여주군 여주읍 상리·하리 일대에 있었다. 1469년(예종 원년)에 세종의 무덤인 영릉을 황령도호부 지역에 옮기면

27) 양주의 읍치 이동에 대해서는 이기봉, 2010, “서울에서 세계문명을 보다”, 『고지도로 통해 본 서울지명연구』, 국립중앙도서관에 자세하게 분석되어 있다.

서 천령현을 합해 여주목으로 삼았다.

① 황려도호부 : 3장의 여주목 참조

② 천령현 : 천령폐현의 범위는 대략 여주군 금사면·산북면·대신면·홍천면과 양평군 개군면 등 대략 5개 면 지역이었고, 1469년 여주목에 합병되면서 독자성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의 고적 항목에만 건치연혁이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고, 여주의 읍치에서 서쪽 25리에 있다고만 나온다. 천령현의 마지막 읍치는 『한국지명총람』 18(경기편 하·인천편)의 여주군 자료에 의하면 금사면 이포리의 천양(또는 천령)에 있었다. 천령현의 건치연혁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없지만 『신증동국여지승람』 여주목의 고적 항목에 북쪽 53리의 古山城(고산성)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의 여주군 대신면 천서리의 파사산(230.5m) 정상을 둘러싼 둘레 1,800m의 파사성이다. 천령현 영역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 거의 정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고려 말 이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7) 영평현

조선시대 영평현의 읍치는 포천시 영중면 영평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영평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지 않으며, 역원 항목에는 고을의 옛 이름과 동일한 梁文驛(양문역)이 동 9리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사묘 항목에 성황사가 동 12리 지점에 있고, 고적 항목에 古石城(고석성) 2개 중의 하나가 동 12리 지점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梁文(양문)은 순우리말 이름인 돌골 또는 독글에 대해 한자의 뜻을 따서 표기한 것이어서 영평현의 가장 오래된 이름이 돌골 또는 독글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양문역은 현재의 영중면 양문리에 있으며, 그 바로 북쪽에 해발 177.0m의 산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500m의 성동리산성(또는 태봉산성)이 있다. 성동리의 城洞은 순우리말 이름인 잣골에 대한 한자 표기이다. 성동리산성은 아주 높은 곳에 있지는 않지만 영평현의 주요 지역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곳에 있어 고려 말 이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성동리산성 부근에서 영중면 영평리 일대로 읍치가 옮겨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풍수적 명당 논리에 적합한 지역을 선택하여 이동시킨 것이다.

(18) 용인현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인현의 건치연혁 항목을 보면 1413년에 용구현과 처인현을 합해 용인현을 만들었다.

① 용구현 : 조선시대 용인현의 읍치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연남동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인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 城(성)과 관련된 용구현의 이름으로 駒城(구성)이 나오고 있어 삼국시대 용구현의 읍치에 성곽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고적 항목에 동 13리의 寶蓋山城(보개산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용인시 처인구 포곡읍 마성리의 산(340.9m) 정상을 둘러싼 둘레 660m의 할미산성을 가리킨다. 용구현의 영역이었던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의 시내, 포곡읍, 모현면 지역 중

중요 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할미산성 바로 남쪽의 고개가 잣고개(栝峴)인데, 여기서 ‘잣’은 城(성)에 대한 순우리말 이름인 ‘잣’을 가리킨다. 이 지역에서 언남동 읍치로 옮겨간 시기는 현재의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다.

② 처인현 : 『신증동국여지승람』 용인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 城(성)과 관련된 처인현의 이름은 나오지 않으며, 다만 남 25리에 고을 이름과 동일한 처인성이 기록되어 있다. 현재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아곡리에 있는 언덕 위의 요새성인 처인성으로, 고려 말 이전 이 성을 중심으로 처인현의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9) 장단도호부

『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1458년에 임강현과 임진현을 장단현에 통폐합시켰고, 고적 항목의 송림폐현에는 1418년에 송림현을 임강현에 통폐합시켰다고 나온다. 그 결과 조선시대의 장단도호부에는 고려 말 이전의 장단현·임강현·임진현·송림현 네 고을의 영역이 포함되었다.

① 장단현 : 『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고구려 때의 長淺城縣(장천성현)이 나와 삼국시대의 읍치에 城(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적 항목에 1458년 북한의 장도군 고읍리로 옮기기 전까지 장단현의 읍치인 古長湍(고장단)이 동 25리에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의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의 고읍동이다. 『대동지지』 장단의 성지 항목에는 동 32리의 호로그루가 나오는데, 고읍동 바로 서남쪽의 임진강변에 삼면이 10m가 훨씬 넘는 절벽을 이용한 둘레 401m의 호로그루성을 가리킨다. 산성이 아닌 절벽지형의 요새성이지만 장단현의 읍치가 고려 말 이전에 이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분명한 시기는 알 수 없지만 호로그루성 부근에서 연천군 장남면 자작리의 고읍동으로 옮긴 것은 풍수적 명당 논리에 합당한 지역을 찾기 위한 결과로 판단된다. 1458년에 북한의 장도군 고읍리로 옮긴 것은 네 고을을 통폐합하면서 고을 전체의 가운데 부근으로 이동한 결과이며, 아울러 풍수적 명당 논리도 확실히 개입되었다. 1621년에 백화산(233.9m) 동남쪽에 있는 파주시 군내면의 읍내리로 읍치를 또 옮기는데, 이곳은 고려 시대 풍수적으로 유명한 명당터로 알려진 左蘇(좌소)의 땅이었다.

② 임진현 : 『신증동국여지승람』 장단도호부의 고적 항목에는 임진폐현에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津臨城縣(진임성현)과 烏阿忽(오아홀)이 나와 삼국시대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진현의 영역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장단군 군내면·장단면·진동면 등 약 3개의 면으로 편제되었는데, 장단도호부와 통폐합되기 직전의 읍치는 조선시대 장단도호부의 마지막 읍치였던 파주시 군내면의 읍내리에 있었다. 하지만 삼국시대 임진현의 읍치는 『대동지지』 장단의 성지 항목에 기록된 德津古城(덕진고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파주시 군내면 정자리의 임진강변에 해발 85m의 야산 정상을 둘러싼 둘레 600m의 덕진산성은 옛 임진현의 거의 정 가운데 있으면서 주변 지역이 한눈에 조망된다.

③ 임강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장단도호부의 고적 항목에는 임강폐현에 城(성)과 관련된 이름으로 古斯也忽次(고사야홀차)가 나와 삼국시대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임강현의 영역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장단군 강상면·대강면 등 약 2개의 면으로 편제되는데, 조선 초의 읍치는 강상면의 임강리 일대에 있었다. 현재 북한 지역에 있어 주변 지역의 성곽 유적을 알기 어려워 후대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④ 송림현 : 『신증동국여지승람』장단도호부의 고적 항목에는 송림폐현에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송림현은 1914년의 행정구역 개편 때 진서면과 장도면 등 약 2개의 면에 걸쳐 있었는데, 『신증동국여지승람』장단도호부의 고적 항목에 송림폐현이 서 5리에 있다고 나온다. 그리고 약간 뒤쪽에 고려 광종이 불일사를 송림현 북쪽에 짓고 고을을 동북쪽으로 옮겼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고려 초까지 송림현의 읍치는 불일사가 있던 진서면 선적리 근처에 있다가 약간 동북쪽으로 옮겨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현재 북한 지역에 있어 주변 지역의 성곽 유적에 대한 파악이 어려워 후대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20) 죽산현

조선시대 죽산현의 읍치는 현재의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일대에 있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죽산현의 건치연혁이나 군명 항목에는 城(성)과 관련된 고을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고적 항목에 동쪽 5리 태평원 북쪽의 竹州古城(죽주고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현재 안성시 죽산면 매산리의 비봉산(372.0m) 동쪽 작은 봉우리(231.0m)를 둘러싼 둘레 1,174m의 죽주산성을 가리킨다. 높지는 않지만 죽산현 영역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는데, 죽주는 940년부터 1413년까지 불리던 죽산현의 이름이었다. 따라서 고려 말 이전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조선시대의 읍치가 있던 죽산면 죽산리로 옮겨간 것은 풍수적으로 명당터를 찾아 이루어진 것이다.

(21) 지평현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조선시대 모든 지리지의 지평현 건치연혁과 군명을 비롯하여 어떤 곳에도 성곽 관련 기록이 없다. 조선시대 지평현의 읍치는 양평군 지제면 지평리에 있었는데, 주변에서 산성이 조사되었다는 내용도 찾을 수 없다. 고려 말 이전 읍치의 중심 역할을 했던 통치성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지만 현재로서는 후대의 연구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22) 통진현

『신증동국여지승람』통진현 고적 항목에는 童城廢縣(동성폐현)과 守安廢縣(수안폐현)이 나오며, 두 고을 모두 고려 공양왕(재위: 1389-1392) 때에 통진현에 합해졌다.

① 통진현 : 조선시대 통진현의 읍치는 현재의 김포시 월곶면 군하리 일대에 있었다. 여러 자료를 종합해 볼 때 동성과 수안을 병합하기 이전의

통진현은 김포시 월곶면을 포함하여 약 2개 면 정도의 범위에 있는 작은 고을이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통진현의 건치연혁과 군명 항목에는 比史城(비사성) 또는 比兒城(비아성)이란 이름이 나오고 있어 삼국시대 통진현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산천 항목에는 북 6리의 比兒山(비아산)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변이 한눈에 조망되는 현재의 문수산(376m)으로 바로 남쪽에는 옛날에 읍치가 있었다는 뜻의 고읍동이란 마을이 있다. 따라서 고려 말 이전에는 고읍동과 바로 뒤쪽의 문수산 정상이나 능선에 축조된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읍동 주변에서 산성에 대한 발굴보고서나 다른 문헌을 찾기는 어려워 앞으로 더 많은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다.

② 동성현 : 『신증동국여지승람』통진현 고적 항목에 기록된 동 20리의 동성폐현에 童子忽(동자홀)·童城(동성) 등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나와 삼국시대 동성현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천 항목에 동성산이, 고적 항목에 동성산고성(童城山古城)이 기록되어 있는데, 김포시 하성면 원산리의 태산(132.0m) 정상을 둘러싼 동성산성을 가리킨다. 동성현의 범위는 김포시 하성면과 통진면 등에 걸쳐 있는 약 1.5-2개 면 정도의 작은 고을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동성산성은 주변 지역이 한눈에 조망되고 옛 동성현 지역의 거의 한가운데 있어, 고려 말 이전 이 산성을 중심으로 읍치가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수안현 : 『신증동국여지승람』통진현의 고적 항목에 기록된 남 15리의 수안폐현에 首爾忽(수이홀)·戍城(수성) 등 城(성)과 관련된 이름이 나와 삼국시대 수안현 지역의 읍치에 성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산천 항목에 동 23리의 수안산이, 『대동지지』통진의 城池(성지) 항목에 守安古縣城(수안고현성)이 기록되어 있는데,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의 수안산(146.8m) 정상을 둘러싼 둘레 약 685m의 수안산성을 의미한다. 높지는 않지만 현재의 김포시 대곶면과 양촌면 상당 부분에 걸쳐 있던 수안현 지역의 대부분이 한눈에 조망되어, 고려 말 이전 수안현의 읍치가 이 산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23) 풍덕군

『신증동국여지승람』풍덕군의 건치연혁 항목에는 1442년(세종 24)에 해풍군과 덕수현을 합해 풍덕군을 만들었다고 나온다. 조선시대 풍덕군의 읍치는 일제시대 개풍군 대성면 풍덕리 일대에 있었다.

① 해풍군 : 『신증동국여지승람』풍덕군의 건치연혁과 군명에는 성과 관련된 이름이 없다. 하지만 역원 항목에 해풍군의 옛 이름 중 하나인 昇天府(승천부)와 이름이 같은 승천포원이 승천부고성(昇天府古城) 아래에 있고, 사묘 항목에 성황사가 승천포성에 있다고 나온다. 또한 고적 항목에 해풍군의 이름 중 가장 오래된 貞州(정주)와 같은 古貞州(고정주)가 승천부의 옛터이면서 승천포고성 북쪽 2리에 있으며, 속설에 고정주가 원래 서쪽에 있었는데 바닷물에 잠겼다고 전해진다는 내용이 나온다. 산천 항목에 승천포가 남 15리에 있다고 나오는데, 현재 해풍군의 영역이 북한에 속해 있어 승천포성의 정확한 위치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백마산성

이라고도 조사되고 있어 일제시대 대성면의 산귀리에 있는 백마산(190.5m) 정상이나 그 부근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② 덕수현 : 『신증동국여지승람』풍덕군의 고적 항목에 동 30리의 덕수폐현이 나오는데, 城(성)과 관련된 고을의 이름은 없다. 하지만 1056년(고려 문종 10)에 홍왕사를 덕수현에 새로 짓고 읍치를 양주로 옮겼다고 나오는데, 홍왕사는 일제시대 개풍군 봉동면의 홍왕리를 의미한다. 이곳에 있는 산이 산천 항목에 동 30리의 德積山(덕적산)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덕수현의 옛 이름인 德物山(덕물산, 288m)이라 불리기도 한다. 다만 현재 북한에 속해 있어 산성 관련 조사 정보는 구할 수가 없어 후대의 연구를 기다려야 한다.

5. 마무리 - 읍치의 상징체계와 내부 구조의 이해

지금까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경기도 고을의 연혁과 범위, 나아가 고을 읍치의 위치와 이동 과정을 찾아내어 그 의미를 이해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큰 틀만 체계적으로 터득하면 우리나라 역사의 전개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경기도의 고을과 읍치의 세계문명사적 보편성과 특수성을 살펴보는 데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각 고을 읍치의 내부 구조와 상징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을 간단히 제시하면서 글을 마무리 지으려 한다.

삼국시대부터 고려시대까지의 읍치는 유적의 대부분이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아직 체계적인 발굴도 이루어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조선시대의 읍치에 대해서만 언급할 수밖에 없다. 조선시대 고을의 읍치에 적용된 권위 상징체계에 가장 중요한 논리였던 풍수는 고려시대까지는 수도에서만 적용되었을 뿐 고을의 읍치에는 도입되지 않았다. 조선의 건국 이후, 특히 세종(재위: 1418-1450) 때부터는 읍성을 축조할 때 중앙 정부가 책임자를 직접 파견하여 풍수적 명당 논리에 적합한 읍성터를 잡아주면서 국가 전체적으로 거역할 수 없는 일반적인 흐름이 되었으며²⁸⁾, 경기도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러면 처음부터 풍수적 명당 논리로 만들거나 아니면 기존의 읍치를 풍수적 명당 논리에 맞게 새롭게 재구조화 한 읍치를 어떤 식으로 보아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인가?

간단하게 말하면 모든 고을의 읍치 조영자는 조선에서 풍수적으로 가장 완벽한 도시라고 여겨야만 하는 수도 서울과 동일한 형태의 읍치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생각하면 된다. 다만 역사적·지형적 요인 때문에 완전히 동일하게 만들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조산·비보숲·풍수지명 등 인공적인 첨가를 통해 최대한 동일해지려고 노력했던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측면 하나 하나는 개별 읍치마다 달랐을 것

28)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기봉, 2008, 앞의 책, 3장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읍치에서 나타난 흐름의 큰 틀을 이해하는 방법을 서울과 비교하면서 제시하려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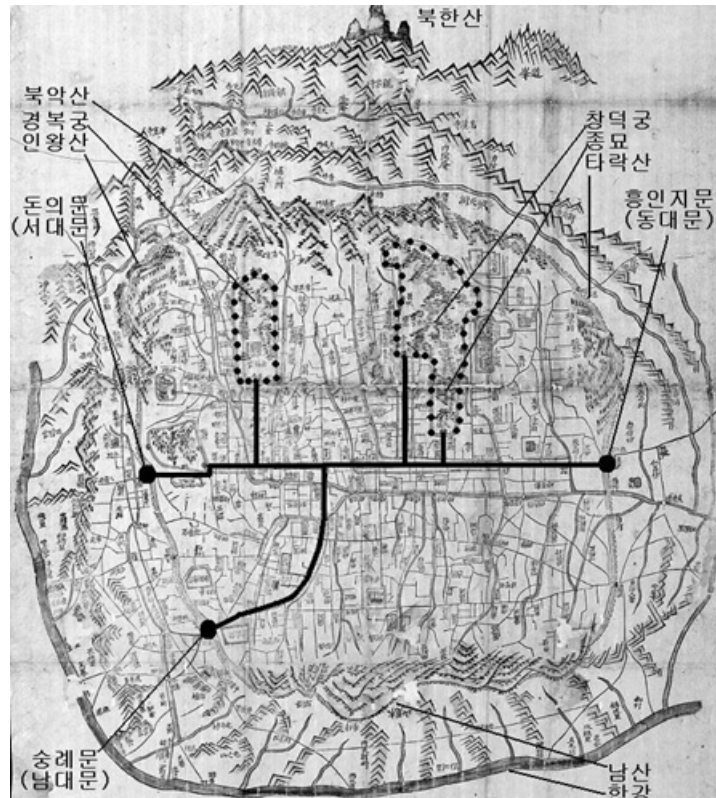


그림-14 수도 서울의 입지와 권위 공간의 배치 및 도로 구조

첫째, 서울에서 가장 중요한 권위 공간이었던 景福宮(경복궁)에 해당되는 東軒(동헌)의 위치를 찾아낸다.

수도의 건설에서 가장 먼저 정해져야 하는 것이 최고 권력자의 권위가 담겨야 하는 왕궁의 위치라는 것은 모든 문명권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원리다. 조선의 건국 직후인 1394년에 서울로 수도를 정한 후 도시 계획자가 첫 번째로 위치를 정해야 하는 곳은 말할 것도 없이 正宮(정궁)인 경복궁이다. 경복궁의 위치가 어디로 정해지냐에 따라 그 다음 순서의 권위 건축물 배치나 도로 구조 등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고을의 읍치에서 경복궁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가장 규모가 컸던 客舍(객사)로 보는 경향도 있지만 실제로는 고을 최고의 통치권자인 사또의 권위를 상징하는 東軒(동헌)이었다.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왕에게 충성을 맹서하는 望闕向拜(망궐향배)의 의식이 거행된 객사는 사또와 왕과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가장 규모가 컸다. 하지만 백성과의 관계에서 사또의 권위가 직접적으로 표현되어야 하는 건축물은 사또가 백성을 대상으로 직접 집무를 보는 동헌이었다. 현재 고을의 읍치에 있었던 동헌의 위치 파악이 제대

로 이루지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아예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따라서 고을의 읍치를 이해하기 위해 첫 번째로 해야 하는 일은 동헌의 정확한 위치를 찾아내는 것이다.



그림-15 세종로 끝에서 바라본 하늘=산=경복궁의 풍경

둘째, 세종로 끝에서 보이는 하늘=산=경복궁의 일체화된 풍경²⁹⁾과 동일한 하늘=산=동헌의 풍경이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살펴본다.

왕의 권위는 왕이 선언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하와 백성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인정할 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도시의 조영에도 적용되는데, 신하와 백성이 왕을 만나러 가면서 눈으로 보게 되는 풍경에 왕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았다는 이데올로기가 상징적으로 표현된다.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서는 도로의 구조가 세종로 끝에 서야 경복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었고, 세종로 끝에 서면 하늘=산=경복궁의 일체화된 상징적 풍경이 한눈에 들어온다. 세계문명사적 측면에서 볼 때 수도에서 이와 같은 풍경이 펼쳐지는 곳은 고려의 수도인 개성에서 시작된 한반도가 유일하다.

모두는 아니지만 조선시대 대부분의 고을 읍치에서도 세종로 끝에서 바라보이는 것과 유사한 하늘=산=동헌의 풍경을 만들어내고 싶어 했다. 동헌에서 집무를 보는 사또는 왕을 대신하여 지방을 통치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의 권위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따라서 동헌터가 확실하게 밝혀지면 어느 지점에서 앞의 풍경이 나타나는지 살펴보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림-14에서 보듯이 서울의 도로 구조가 세종로 끝에 서야 하늘=산=경복궁의 일체화된 풍경을 볼 수 있도록 했듯이 읍치에서도 일정한 지점에 이르러야만 하늘=산=동헌의 일체화된 풍경을 볼 수

29) 이런 풍경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 기봉, 2010, 앞의 글에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있도록 도로 구조를 만들었다는 점이다.

우리의 눈은 여러 물체를 서로 비교하며 상대적으로 인식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동헌에 가까워질수록 산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멀어질수록 산은 상대적으로 커진다. 따라서 하늘=산=동헌의 풍경 속에서 하늘·산·동헌 세 요소의 비율은 산과 동헌의 거리, 진입로 첫 번째의 시작점으로부터 동헌까지 연결된 거리에 따라 결정된다. 이 때 적용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은 완전한 평지라면 산이 높을수록 동헌을 산에서 멀리 배치하고, 반대로 산이 낮을수록 동헌을 산에 가깝게 배치한다. 그리고 경사도가 있으면 산이 높더라도 평지보다 산에서 더 가깝게 배치할 수 있다.³⁰⁾

셋째, 첫째와 둘째가 확인되면 이후 다른 건축물과 기능의 배치, 풍수적으로 의미 부여된 지형이나 인공적인 조영물을 찾아나간다.

각각의 과정은 개별 읍치마다 다를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자세하게 서술을 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는 모든 고을의 읍치에 공통적으로 있어야 하면서 중앙집권국가인 조선을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객사(객사)와 城隍祠(성황사)·鄉校(향교)·厲壇(여단)·社稷壇(사직단)의 4개 제사처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언급하겠다.³¹⁾

객사는 지방관인 사또가 고을 최고 통치자로서의 권력을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줌과 동시에 사또가 왕에게 충성을 맹서하는 건축물로서 읍치에서 규모가 가장 컸다. 임금을 상징하는 나무패인 殿牌(전패)를 모셔놓고 매달 초하루와 보름에 사또가 임금이 있는 대궐을 향해 절을 올리는 望闕向拜(망궐향배)의 의식을 거행하는 중앙의 正堂(정당), 그리고 오른쪽과 왼쪽에 온돌의 방을 만들어 중앙에서 파견된 암행어사 등이 머무는 翼室(익실)의 3중 구조로 되어 있다.

서울의 종묘와 건축 양식이 비슷한데, 종묘가 현재의 왕의 권위가 건국자를 비롯한 과거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임과 마찬가지로 지방관인 사또의 권위가 현재의 왕으로부터 부여받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곳이었기 때문이다. 객사 건물의 이름은 오래되고 가장 상징적인 고을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리고 조선 전기에 건축된 것은 주변의 지형과 상관없이 대부분 남향을 고집한 반면 조선 후기에 건축된 것 중에 하늘=산=객사의 풍경을 고려하여 자리를 잡은 경우도 있다. 조선의 지방도시로서 고을의 읍치를 이해하려면 동헌 다음으로 중요한 건물이 바로 객사이기 때문에 그 터의 위치를 확인하는 작업은 꼭 필요하다.

성황사는 아주 작은 건축물이지만 아테네의 파르테논신전처럼 고려시대의 읍치에서 가장 중요한 상징물이자 제사처였다. 그리고 고을의 정통성을 대표하는 고을 호족 출신의 인물, 고을 출신은 아니지만 고을과 관계된 전국적인 인물을 城隍神(성황신)으로 모시고 호족의 후예인 鄉吏(향리)가 주관하여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고려시대의 경우 인물상을 모셨으며, 위치는 고을의 호족 나아가 고을 전체의 정통성을 상징적으로 갖고 있는 통치성에 있었다. 향리의 고을 통치권을 부정하는 중앙집권화를 강력하게 추진한 조선에서는 제사의 주체를 지방관인 사또로, 성황신도 인물상이 아니라 글씨가 적힌 나무패인 位牌(위패)로, 위치도 통치성에서 읍치 주위의 평지나 기슭으로 바꾸려 노력하였다.

30) 여주목의 읍치처럼 지형이 풍수적 명당 논리와 위배되는 경우 八大藪와 같은 숲을 만들어 실제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라도 하늘=산=동헌의 풍경을 볼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

31) 관아를 구성하는 그 밖의 건물에 대해서는 안길정, 2000, 『관아 이야기』 1·2, 사계절출판사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향교는 고려시대에 지방관이 파견된 고을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건축되는 학교였는데,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가 책임자가 되어 고을의 교육을 책임졌다. 조선에서도 지방관이 파견되면 향교를 꼭 갖추도록 하였기 때문에 모든 고을에 1개씩 있었고, 유교를 국교로 채택한 조선에서는 사또가 주관이 되어 공자를 비롯한 중국과 조선의 유교성현에게 제사지내는 기능을 강화시켰다. 고려시대에는 풍수적 명당 논리가 향교의 위치 선정에서 중요하지 않았지만 조선시대, 특히 조선후기에 들어 풍수적 명당을 찾아 이동하는 경우가 자주 나타났다. 홍살문이 진입로의 시작점이며, 이곳부터 하늘=산=향교의 풍경이 펼쳐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직단과 여단은 태종(재위: 1401-1418) 때 명나라의 洪武禮制(홍무예제)를 본따서 전국 모든 고을에 일률적으로 설치하여 지방관의 주관 아래 제사를 지내도록 한 제단이기 때문에 고려시대에는 없던 것이다. 사직단은 토지신인 社(사)와 곡식신인 稷(직)에게, 여단은 돌림병을 예방하기 위해 주인이 없는 외로운 혼령에게 제사를 지내던 곳으로, 서울의 사직단처럼 건물은 없고 祭壇(제단)만 설치되어 있었다. 위치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전국 일률적으로 사직단은 읍치의 서쪽에, 여단은 읍치의 북쪽에 만들도록 하였는데, 방향을 제외한 구체적인 위치를 정하는 것은 고을마다 달랐다.

중앙집권국가 조선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지방도시인 고을의 읍치는 고려시대의 전통과 조선시대의 새로운 상징 논리가 혼합되어 만들어진 계획도시이고, 현재 다수 시·군의 중심 시가지가 형성된 역사적 토대였다. 또한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어려운 권위의 상징 방법과 도시 구조가 체현된 한국적 전통도시와 가치 인식의 중심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복원이 지방자치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단지 건축물의 복원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우뚝 솟은 웅장한 건축물로 권위를 상징하던 다른 문명권의 경우 건축물만 복원해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하지만 풍수라는 세련된 논리³²⁾에 따라 웅장하지 않은 건축물과 풍수적으로 의미가 부여된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권위를 상징하던 우리나라의 전통도시에서는 건축물만 복원할 경우 ‘작음·외소함·단순함’만 남게 된다. 오랜 역사성을 담고 있는 도시의 상징과 의미체계를 제대로 복원하여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낮음·작음·단순함을 자연의 높음·웅장함·화려함과의 조화를 통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위를 표현하려 했던 조선의 지방도시, 읍치의 상징 논리를 제대로 복원해야 한다.

32) 풍수가 과연 합리적이나 아니냐, 과학적이냐 아니냐, 나아가 地氣(지기)가 과연 인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느냐 아니냐의 문제는 도시를 이해하는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필자는 풍수를 ‘권위를 상징화하는 하나의 논리’라고 보며, 권위의 상징 방법이란 측면에서는 세계의 어떤 전통문명권에서 나타났던 권위 표현의 논리보다도 풍수가 세련된 논리라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기획 · 편집 도서관연구소 고전운영실
글 이기봉

국립중앙도서관 고문헌연구총서 2

고지도를 통해 본 경기지명연구

발 행 일 2011년 11월 30일
발 행 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 행 처 서울시 서초구 반포로 664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연구소
TEL. 02-590-0505
FAX. 02-590-0712
<http://www.nl.go.kr>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Library and Information (KRILI)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Banpo-Ro 664, Seocho-gu
Seoul, Republic of Korea, 137-702
TEL. +82-2-590-0505
FAX. +82-2-590-0712

편집 · 인쇄 형우디앤피 TEL. 02-2263-3887

ISBN 978-89-7383-679-6 94010

ISBN 978-89-7383-572-0(세트)

©2011국립중앙도서관 National Library of Korea